

발 간 등 록 번 호

52-6260000-000301-10

사람과기술
문화로 융성하는 부산

부산구술문화총서 7

서부산 문화권 민요(1)

강서구 편

박경수·황경숙 편저



부산광역시시편찬위원회

2017

일 러 두 기

1. 구성과 체제

- (1) 이 책은 부산구술문화총서의 일환으로 간행되는 것으로, 부산광역시를 동부산 문화권·서부산 문화권·중부산 문화권으로 구분하여 각 권역별로 설화자료와 민요자료를 집대성한 것이다.
- (2) 이 책은 부산구술문화총서 제7권 『서부산 문화권 민요(Ⅰ)』로 서부산 문화권에 해당하는 강서구의 민요자료를 모아서 엮은 것이다.
- (3) 이 책은 총 3부로 구성되었다. Ⅰ. 현장조사 민요, Ⅱ. 기존 현장조사 민요, Ⅲ. 문헌 소재 민요로 편성하고, 각 장의 민요를 동별로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 (4) Ⅰ부는 이 책의 집필자들이 중심이 되어 부산광역시의 지원을 받아 현장 조사 자료를 수록한 것으로, 각 민요마다 제목, 구술자(이름·성별·출생년도), 구술 일자, 구술 장소, 본문 순으로 정리하였다.
- (5) Ⅱ부는 부산광역시 외에 타 기관의 지원을 받아서 현장 조사를 했거나 개인적으로 현장 조사를 하여 출판된 것을 모아서 엮은 것이다. 각 민요의 자료 끝에 출처를 밝혀 두었다.
- (6) Ⅲ부는 기존에 발행된 문헌에 수록된 민요로 현장조사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민요 자료를 엮은 것이다. 동일한 민요의 경우 먼저 출판된 민요를 저본으로 수록했다. 다만, 동일한 내용의 민요라도 세부적인 표현이 다르면 출판년도와 상관없이 별도의 자료로 보아 함께 수록하였다. 각 민요의 출처는 자료 끝에 밝혔으며, 동일한 민요가 여러 문헌에 수록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정보를 각주를 붙여 알 수 있도록 하였다.
- (7) 이 책의 끝에 구술 자료의 제목, 구술자(제보자) 등 주요 사항에 대한 색인을 붙여 자료를 쉽게 활용하도록 하였다.

2. 표기 원칙

- (1) 모든 자료는 한글 표기를 원칙으로 하였다.
 - ① 현장조사 민요의 경우, 지역 방언을 살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방언에 대한 표준어나 뜻풀이는 소괄호 () 안에 넣어 표기하였다. 뜻풀이가 길거나 별도의 주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각주로 처리하였다.
 - ② 한자, 외국어, 숫자 등을 별도로 밝히는 경우에도 소괄호 () 안에 넣어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 (2) 책 이름은 겹낫표 『 』, 작품명은 낫표 「 」, 설화에서 혼잣말은 홑따옴표 ‘ ’, 대화는 겹따옴표 “ ”로 표시하였다.
- (3) I부 현장조사 민요의 경우, 조사자와 청중의 개입 부분은 소괄호 (), 구연의 표시는 대괄호 []에 넣어서 제보자의 가창 내용과 구분되도록 표기하였다.
- (4) II부 기존 현장조사 민요의 경우, 원전 표기 원칙을 그대로 준수하되, 단락별 들어쓰기만 별도로 했다.
- (5) III부 문헌 소재 민요의 경우, 원전의 표기를 충실하게 따르되, 현행 한글맞춤법에 어긋난 표현은 수정하였다.

● ● ● ● ● 각 권 별 편 제

- 제1권 동부산 문화권 설화(I) - 기장군 편 - [2012년 발간]
- 제2권 동부산 문화권 설화(II) - 남구·수영구·해운대구 편 - [2013년 발간]
- 제3권 동부산 문화권 민요(I) - 기장군·남구·수영구·해운대구 편 - [2014년 발간]
- 제4권 동부산 문화권 민요(II) - 기장군·남구·수영구·해운대구 편 - [2015년 발간]
- 제5권 서부산 문화권 설화(I) - 강서구 편 - [2016년 발간]
- 제6권 서부산 문화권 설화(II) - 북구·사상구·사하구 편 - [2017년 발간]
- 제7권 서부산 문화권 민요(I) - 강서구 편 - [2017년 발간]
- 제8권 서부산 문화권 민요(II) - 북구·사상구·사하구 편 - [2018년 발간 예정]
- 제9권 중부산 문화권 설화(I) - 금정구·동래구 편 - [2018년 발간 예정]
- 제10권 중부산 문화권 설화(II) - 연제구·부산진구 편 - [2019년 발간 예정]
- 제11권 중부산 문화권 설화(III) - 동구·서구·영도구·중구 편 - [2020년 발간 예정]
- 제12권 중부산 문화권 민요(I) - 금정구·동래구·연제구 편 - [2021년 발간 예정]
- 제13권 중부산 문화권 민요(II) - 부산진구·동구·서구·영도구·중구 편 - [2021년 발간 예정]
- 제14권 부산광역시 설화·민요 보유편 - [2022년 발간 예정]

목 차

일러두기	i
I. 현장조사 민요	1
1. 가락동 민요	3
2. 강동동 민요	25
3. 녹산동 민요	43
4. 대저동 민요	137
5. 명지동 민요	202
6. 천가동(현 가덕도동) 민요	208
II. 기존 현장조사 민요	245
1. 김승찬 현장조사 민요	247
2. 류종목 현장조사 민요	306
3. 박경수 현장조사 민요	312
III. 문헌 소재 민요	399
1. 강동동 민요	401
2. 녹산동 민요	404
3. 명지동 민요	421
4. 천가동(현 가덕도동) 민요	425
※ 참고문헌	449
※ 제보자 색인	450
※ 민요 제목 색인	453

I . 현장조사 민요

1. 가락동 민요
2. 강동동 민요
3. 녹산동 민요
4. 대저동 민요
5. 명지동 민요
6. 천가동(현 가덕도동) 민요

1. 가락동 민요

[가락동 민요 1]

달 타령

김귀분(여, 1932년생) 가창
2014년 2월 22일 채록
[가락동 가락중앙노인정]

달아달아 밝은달아 이태백이 노던달아
저기저기 저달속에 계수나무 밖에서러
금도끼를 찍어내어 초대삼칸¹⁾ 집을지어
양친부모 모시놓고 천년만년 살고짚네
(고계 끝이라.)

[가락동 민요 2]

아기 어르는 소리

김귀분(여, 1932년생) 가창
2014년 2월 22일 채록
[가락동 가락중앙노인정]

새는새는 낭계²⁾자고 쥐는쥐는 궁계³⁾자고
우리걸은 아기들은 엄마품에 잠을자고
어지(어제)아래 새각시는 신랑품에 잠을잔다
(작으나 뭐, 이거 한 여남은 살 무서 들었는가 몰라. 이랬어.)

[가락동 민요 3]

양산박과 수영대 노래

1) 초가삼간.
2) 나무에.
3) 구멍에.

김귀분(여, 1932년생) 가창
2014년 2월 22일 채록
[가락동 가락중앙노인정]

복아복아 양산복아⁴⁾ 대야대야 수영대야
한서당에 글로일러⁵⁾ 남자여자 몰랐더니

[가락동 민요 4]

파랑새요

김귀분(여, 1932년생) 가창
2014년 2월 22일 채록
[가락동 가락중앙노인정]

새야새야 파랑새야 녹디낭계⁶⁾ 앉지마라
녹디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사 울고간다

[가락동 민요 5]

모심는 소리

김귀분(여, 1932년생) 가창
2014년 2월 22일 채록
[가락동 가락중앙노인정]

낭창낭창 베루끝에⁷⁾ 무정하는 저오랍아
나도죽어서 후승가서~이 처자야공을 섬기볼래

4) 본래는 양산박(梁山泊). '양산박'은 중국 산둥성에 있는 지명, 소설 『수호지』에서 송강(松江) 등 호
걸들이 모여드는 곳으로, 호걸이나 야심가를 일컫는 말임.

5) 글을 읽어.

6) 녹두나무에.

7) 벼랑 끝에.

[가락동 민요 6]

화투 타령

김찬임(여, 1932년생) 가창
2014년 2월 19일 채록
[가락동 가락중앙노인정]

정월속가지 속속한마음
이월매다지 맺어놓고
삼월사쿠라 산란한마음
사월흑싸리 허상하다
오월난초 나비가앉아
유월목단에 춤을춘다
칠월홍돼지 홀로나누워
팔월공산에 달떠온다
구월국화 굳었던마음
시월단풍에 떨어졌다
오동추야 달밝은데
부모님생각이 절로난다

[가락동 민요 7]

극락왕생 비는 노래(1)

김찬임(여, 1932년생) 가창
2014년 2월 22일 채록
[가락동 가락중앙노인정]

청룡산 옥육 쌍쌍봉에 빈탑이 웬말인가
앉아서하는 염불 청룡세계 아닐러던가
누워서하는 염불 유리세계 아닐러던가
서서하는 염불 동방세계 아닐러던가
이리좋은 이극락을 아니가고 말것인가
청로산 옥육 쌍쌍봉에 극락문이 열렸다네

이리좋은 이극락은 사람마다 다간다요
악한마음 먹었으면 수돌같이 닳으시고
선한마음 먹었으면 봄풀같이 자라시고
청룡산 쌍쌍봉에 일월선생 계신곳에
약수암에 모욕(목욕)하고 야시당에 등불달아
천생후생 지은죄를 일시에 소멸하고
영혼은 극락가고 육신은 영산가서
열에열명 선조님요 구슬같은 염불받아
극락으로 인도하소
소백산에 솔씨받아 태백산에 모정받아
은하수로 물을주어 여러보살 내가구하
그나무 장성하니 나무마다 염불이오
가지마다 설법이라 그나무 베어다가
열두칸 배를모아 옥난간에 띄워놓고
앞칸에는 염불실고 뒤칸에는 하주실고
또한칸에 불법실어
앞사공은 보현보살 뒷사공은 문수보살
은재늦재 곱게달고 비단공단 용채달아
물우에는 천금이오 물밑에는 황금이라
난데없는 용이솟아 용의머리 학이로다
용의꼬리는 꽃이피네 그꽃꺾어 손에들고
정토문을 바라잡고 원화봉에 올라가서
천상화상 불보살님 나무아미타불 마하반야바라밀
염불을 많이하고 극락세계 좋은 극락갑시다

[가락동 민요 8]

극락왕생 비는 노래(2)

김찬임(여, 1932년생) 가창
2014년 2월 22일 채록
[가락동 가락중앙노인정]

천년자리 만년자리 내치수에 맞은자리
팔보살이 닳안자리 황금으로 뿌린자리

내일생 갈적에는 가는시간 미리알고
빈고행랑 없해주면 좋은날 좋은시에
자는 잠에 인도하소 나무아미타불 마하반야바라밀
극락으로 인도하소 나무아미타불

[가락동 민요 9]

임 그리는 노래

김찬임(여, 1932년생) 가창
2014년 2월 22일 채록
[가락동 가락중앙노인정]

천상끝에다 집을지어 날면보고 들면봐도
임인줄을 (내 모르는데 마.)
부모인줄 내몰랐다 (캐도 되고.)

[가락동 민요 10]

권주가

문소선(여, 1936년생) 가창
2014년 2월 19일 채록
[가락동 가락중앙노인정]

[옹듯이]

잡으시오 잡으시오 이술한잔은 잡으시오
이술이 술이아니라 묵고놀자는 동백주요

[가락동 민요 11]

모심는 소리

박월연(여, 1940년생) 가창
2014년 2월 22일 채록
[가락동 가락중앙노인정]

물꼬랑 처정처정 혈어놓고 주인네양반 어데갔소
(또 받는 거는.)
문어야전복 예와들고 첩의야방에 놀러갔소

[가락동 민요 12]

봄배추 노래

박월연(여, 1940년생) 가창
2014년 2월 22일 채록
[가락동 가락중앙노인정]

포롱포롱 봄배추는 밤이슬오기만 기다리고
옥에갠힌 춘향이는 이도령오기만 기다린다

[가락동 민요 13]

모심는 소리(1)

안운옥(여, 1937년생) 가창
2014년 2월 19일 채록
[가락동 가락중앙노인정]

모야모야 노랑모야 니언제커서 열매열래
이달크고 훗달크고 내훗달에 열매열게
낭창낭창 베루끝에~ 무정하다 저오랍아
나도죽어서 남자가되어~ 처자군석⁸⁾ 섬길라네

8) 처자 권속. 즉, 처자와 식구들.

[옹듯이]

포롱포롱 봄배추는 봄이슬 오기만 기다리고
옥에갠힌 춘향이는 이도령 오기만 기다린다

[옹듯이]

다풀다풀 다박머리 해다진데 어디가노
우리엄마 산소등에 젓먹으러 나는가요

[가락동 민요 14]

모심는 소리(2)

안운옥(여, 1937년생) 가창
2014년 2월 22일 채록
[가락동 가락중앙노인정]

저녁을먹고서 썩나서니~ 울명당에서 손을치네
손치는데는 밤에가고~ 주모야술집에 낮에가자

[가락동 민요 15]

모 찌는 소리

안운옥(여, 1937년생) 가창
2014년 2월 22일 채록
[가락동 가락중앙노인정]

한강에다 모를부어~ 모찌기가 난감하네
저승길에다 부모를잃고~호 부모찾기 난감하네

[가락동 민요 16]

창부타령[신세타령](1)

안운옥(여, 1937년생) 가창
2014년 2월 22일 채록
[가락동 가락중앙노인정]

한살먹어 엄마를 잃고 두살먹어 아바(아빠) 잃고
삼오야십오 열다섯살에 시집삼년을 살고나니
이부야십팔 열여덟에 가장조차 잃었구나
삽작에⁹⁾ 고목낭게 잃패거든 오실라요
평풍에라 그리논답이 휘를치면 오실라요 (청중: 좋다.)
늦접시에 죽신(죽순)이나서
그죽신 왕대가되어 나를찾아 오실라요 (청중: 좋고.)
얼씨고 좋다 지화자 좋다
지화자 바람에 돈잘씬다 (얼씨구.) (청중: 옳지. 잘한다.)

[가락동 민요 17]

창부타령[신세타령](2)

안운옥(여, 1937년생) 가창
2014년 2월 22일 채록
[가락동 가락중앙노인정]

들도산도 봄철이든가 (뭐가? 뭐카노?) 온갖풀잎이 산을넘고
우리님도 밤중이든가 앞섰자락을 나를덜네
얼시구나 좋다 지화자 좋네
지화자 바람에 돈잘씬다

[가락동 민요 18]

모심는 소리[첩 노래]

9) '삽작'은 문을 말하는 경상도 사투리.

이정순(여, 1947년생) 가창
2014년 2월 19일 채록
[가락동 가락중앙노인정]

물꼬랑 청청 헐어놓고 주인네양반 어데갔소
문어야전복을 에와들고 첩의야집에 놀러갔소

[가락동 민요 19]

파랑새요

최복님(여, 1921년생) 가창
2014년 2월 19일 채록
[가락동 가락중앙노인정]

새야새야 파랑새야 녹디낭게 앉지마라
녹디꽃이 떨어지만 청포장사 울고간다

[가락동 민요 20]

창부타령

최장한(남, 1940년생) 가창
2014년 2월 19일 채록
[가락동 가락중앙노인정]

아니~ 아니 아니노지는 못하리라
공도라니¹⁰⁾ 백발이오 변치를못할건 죽음이로다
천왕지왕에 인왕신도 육국지왕을 달래는데
석향이없어서 등에를치면 말을잘하는 소진장이도
육국지왕은 다달랬으나 염라대왕을 못달래요
천하명색이 영웅들은 죽어서 사적이라도 있건만은
초로에 인생들이야 아차한번 죽어나지면 잎이피나 꽃이피나

10) 공평한 일이니.

명사십리 해당화야 꽃진다고 잎진다고 서러마라
너는명년 춘삼월이면 다시피어서 오건만은

[가락동 민요 21]

노들강변¹¹⁾

최장한(남, 1940년생) 가창
2014년 2월 19일 채록
[가락동 가락중앙노인정]

노들강변에 봄버들 휘휘 늘어진 가지에다가
무정세월에 한허리를 칭칭동여서 매어나볼까
에헤이요 봄버들도 못믿으리로다
푸르르기는 저기저물만 흘러흘러서 가노라

[가락동 민요 22]

모심는 소리(1)

안순덕(여, 1938년생) 가창
2014년 2월 22일 채록
[가락동 신기마을회관]

낭창낭창 베루끝에¹²⁾ 무정하다 울오랍아
(둘이가 떠내려갔는데 동생은 안 꺾지고 마누라를 꺾짚는 기라. 그래서러 그래 낭창낭창
베루 끝에 무정하다 울 오랍아.)
나는죽어 남자되어 처자권속을 섬길래라
(그기 그런 기다.)

11) <노들강변>은 신불출 작사, 문호월 작곡으로 1930년대 경기민요 풍으로 창작된 신민요이다. 가창자들이 민요로 인식하여 흔히 부른다.

12) 벼랑 끝에.

[가락동 민요 23]

모심는 소리(2)

안순덕(여, 1938년생) 가창
2014년 2월 22일 채록
[가락동 신기마을회관]

명지바지 잔솔바지 몬(못)다입고 어데가요
(카면, 죽는 사람이, 인자 젊어서로 마누래가 그리 카는 기라. 옛날에는 명지바지 억시
로 좋았는 기라. 그라이께네.)
칠십에난 노부모를두고 살썩키는¹³⁾ 날만하라
(부모를 두고 죽는 내만치 니가 암만 그래싸도 안 답답다 이기라.)

[가락동 민요 24]

모심는 소리(3)

안순덕(여, 1938년생) 가창
2014년 2월 22일 채록
[가락동 신기마을회관]

다풀다풀 다박머리 해다진데 어데가요 (카면.)
우리엄마 산소등에 젓묵으러 내갈라요

[가락동 민요 25]

모심는 소리(4)

안순덕(여, 1938년생) 가창
2014년 2월 22일 채록
[가락동 신기마을회관]

밀양상단 국무숲에¹⁴⁾ (숲이 이래, 물이 있어야 연이 된다 아이가?) 연밭따는 저큰아가
그연밭 내따주면 백년해로 내할꺼로

13) 살 썩히는, 죽었다는 의미.

14) 본래 가사는 “밀양 삼당(삼량진) 궁노숲”이다.

[가락동 민요 26]

모심는 소리(5)

안순덕(여, 1938년생) 가창
2014년 2월 22일 채록
[가락동 신기마을회관]

(받는 거는 누룽감태를, 옛날에 두건을 저 상주하면, 백년 상주라꼬, 마누라가 죽으면는 영감이 이 두건을 씻거든. 그래서러.)

누룽감태를 둘러싸고 국물만 훌쩍마시네

(조사자: 아니 고 가사에 그렇게도 받냈예.) (와 그렇는고 카면, 이 딸이 저거 신랑 판에 마이 주뿌고, 아버지를 갖다가 국물만 쥘는 기라. 할맘이 죽어 놔놓이, 이 두건을 씻는데. 그래 인자 영감은 두건을 싸고 딸이 와서 동자를 시키고 인자 아버지를 해 주고 하는데, 마 신랑은 마이 주뿌고 지는 국물로 줘놔노이 그래 인자.) (조사자: 앞에 것만 다시 한 번 해주이소.)

풍당풍당 찰수제비 사위야판에 다올랐네
(그래.) 할맘은 어데가고 딸년동재를 시켰더노
(그래께네.) 누룽감태를 둘러싸고 국물만 훌쩍마시네

[가락동 민요 27]

못 갈 장가 노래

이정순(여, 1939년생) 가창
2014년 2월 22일 채록
[가락동 신기마을회관]

(청중: 앞집에가서 책력보고.) 뒷집에도
궁합에도 못갈장개
책력에도 못갈장개
(그래가이고 인자 결국 장개를 채려가 가는데.)

한모랭이 돌아가니께네
까막까지 깎깎울고
또한모랭이 돌아가이께네
(마, 신부가 죽어 부고로 왔는 기라.)
한손으로 받은부고
두손으로 펴보니
신부죽은 부고로다
(그래 인자 시가집 가이께네.)
아버님요 형수님요
돌아서소 이내나는 갈라요
(캄서, 가이께네.)
대문앞에 썩들어가니
곡수소리¹⁵⁾가 진동하고
(그래, 방문을 열어본께네.)
홍수갑사댕기 입에물고
자는듯이 갔다
(캄서, 그래 인자 사우 하는 말이.)
날줄라꼬 하얀밥상
하인저름 시키주라
(카고, 그 뭐 모르겠다. 역수로 많은데 또 모르겠다.)

[가락동 민요 28]

남녀 연정요

이정순(여, 1939년생) 가창
2014년 2월 22일 채록
[가락동 신기마을회관]

단장안에 꽃을심어 그꽃커서 담밖으로휘어지니
질(길)가던 선배가 그꽃보고서 질못가요
(카더란다.)

15) 곡소리.

[가락동 민요 29]

모심는 소리

이정순(여, 1939년생) 가창
2014년 2월 22일 채록
[가락동 신기마을회관]

님이죽어서 연자가되어 춘새끝에 집을짓고
(청중: 날면 봐도 들면 봐도 님인 줄을 내 몰랐네 그래 한다.)
날면 보고 들면 봐도 님인 줄을 내 몰랐소 [웃음]

[가락동 민요 30]

진주난봉가

이정순(여, 1939년생) 가창
2014년 2월 22일 채록
[가락동 신기마을회관]

흰빨래 희게씻고
검은빨래 검게씻고
얼컹절컹 말을타고
하늘같은 갓을씩고
구름같은 말을타고
(저거집에 오더란다. 그래 오이께네 그래.)
아랫방에 드다보니 (께네러.)
기생첩을 옆에두고
오색가지 술을부어서
너묵어라 내묵어라
(하고 그래. 지가 돌아도 안 보더라 카대. 그래서 인자.)
아랫방에 내려가서
석자수건을 목을매서 (그래 죽은께네.)
댁이댁이 진주댁이
기생첩은 삼년이오

본댁은 백년이오
(카면서, 그래 울더라 카대.)

[가락동 민요 31]

모심는 소리(1)

정경열(여, 1940년생) 가창
2014년 2월 22일 채록
[가락동 신기마을회관]

(조사자: 모야모야 노랑모야.) 니가언제커서 열매열래
이달커고 훗달커서 칠팔월에 열매열래

[가락동 민요 32]

모심는 소리(2)

정경열(여, 1940년생) 가창
2014년 2월 22일 채록
[가락동 신기마을회관]

물꼬랑청청 헐어놓고 주인네양반 어데갔노
문어야전복을 오려들고 첩의집을 놀러갔네

[가락동 민요 33]

논 매는 소리

정경열(여, 1940년생) 가창
2014년 2월 22일 채록
[가락동 신기마을회관]

쌍용포성냥에 호양불캐고
정든님 날오도록 기다린다

[가락동 민요 34]

모심는 소리(1)

하시영(여, 1943년생) 가창
2014년 2월 22일 채록
[가락동 신기마을회관]

석양은펄펄 재를넘고 나의갈길은 천리로다
(조사자: 그러면 뭐라고 받는데예?) (받는 거는.)
울언님은 나를잡고 낙릉을하건만은 내갈길이 천리로다

[가락동 민요 35]

모심는 소리(2)

하시영(여, 1943년생) 가창
2014년 2월 22일 채록
[가락동 신기마을회관]

[청중들 함께 부름]
풍당풍당 찰수제비 사우야판에 다올랐네
우리야할멈은 어디를가고 딸을동재 시켰는고

[가락동 민요 36]

남녀 연정요

이종연(여, 1925년생) 가창
2014년 2월 19일 채록
[가락동 죽림마을회관]

꽃걸은 처녀가 골안꽃밭을 매다가
반달걸은 총각이 골안내손목 잡네요
얼씨고 절씨고

야이총각아 내손목 놓아라
범같은 우리오빠 골안만보고 섰노라
얼씨고 절씨고
야이처녀야 그말을 말어라
범같은 너에오빠 골안내쳐남 되노라

[가락동 민요 37]

그네 노래

이종연(여, 1925년생) 가창
2014년 2월 19일 채록
[가락동 죽림마을회관]

임아임아 정든임아 새모시낭개다 군대를메여
임이뛰면 내가밀고 내가뛰면은 임이민다
임아정든임아 줄밀져말어라 줄떨어지면은 정떨어진다
(이러지요 뭐.)

[가락동 민요 38]

파랑새요

이종연(여, 1925년생) 가창
2014년 2월 19일 채록
[가락동 죽림마을회관]

(조사자: 새야새야.) 파랑새야 녹디낭개 앉지마라
녹디꽃이가 떨어지면 청포장사가 울고간다

[가락동 민요 39]

백발가

이종연(여, 1925년생) 가창
2014년 2월 19일 채록
[가락동 죽림마을회관]

이팔청춘 소년들이 백발을보고서 반배를마라
어제청춘 오늘이백발 더욱젊다 [웃음]

[가락동 민요 40]

시집살이 노래

이종연(여, 1925년생) 가창
2014년 2월 19일 채록
[가락동 죽림마을회관]

형님형님 우리형님 시집살이가 어떻던고
말도마라 말도마라 시집살이가 말도마라

[가락동 민요 41]

모심는 소리

김복순(여, 1934년생) 가창
2014년 2월 22일 채록
[가락동 통전마을회관]

이논빼미다 모를숨가 금실금실 영화로다

[가락동 민요 42]

모심는 소리(1)

김쌍순(여, 1930년생) 가창
2014년 2월 22일 채록
[가락동 통전마을회관]

[윽듯이]

머리좋다 수단처녀 줄뽕낭게 앉아우네
줄뽕갈뽕 내따주마 내품에서 잠들어라

[가락동 민요 43]

모심는 소리(2)

김쌍순(여, 1930년생) 가창
2014년 2월 22일 채록
[가락동 통전마을회관]

[윽듯이]

모야모야 노랑모야 니언제커서 열매열래
이달크고 저달크고 칠팔월에 열매연다

[가락동 민요 44]

베 짜기 노래

김쌍순(여, 1930년생) 가창
2014년 2월 22일 채록
[가락동 통전마을회관]

[윽듯이]

베짜는아가씨 사랑노래베틀에
낮에짠베는 월광단
밤에짠베는 무슨단 (나도 잘 모르겠네.)
일광단월광단 얼른짜서
(뭉!) 낭군님옷을 지어볼까

[가락동 민요 45]

노랫가락(1)

김쌍순(여, 1930년생) 가창
2014년 2월 22일 채록
[가락동 통전마을회관]

[옹듯이]

서울선비 연을떼와 거지봉산 연결렸네
아래웃판 시녀들아 연줄걷는 구경가자
(이라더라.)

[가락동 민요 46]

진주난봉가

김쌍순(여, 1930년생) 가창
2014년 2월 22일 채록
[가락동 통전마을회관]

[옹듯이]

울도담도 없는집에
시집삼년 살고나니
시오마시 하는말씀
느그서방 오는데 (뉘.)
진주남강 빨래가라 (쿠던가?)
진주남강 빨래가서
흰빨래는 희게씻고
검은빨래 검게씻고
오동통통 씻고오니
이리널고
(아, 그래 이고 오니, 저거 신랑이 턱 옹더라 뭐, 인자 저거 신랑이 옹는데 뭐, 기상첩을
옆에 찌고 본척만척 한다 카더나?)

[가락동 민요 47]

노랫가락(2)

김쌍순(여, 1930년생) 가창
2014년 2월 22일 채록
[가락동 통전마을회관]

[옹듯이]
진주당산 안사랑에 장기두는 처남아가
느그누부 뭇하더노
입던적삼 등반던양 신던버선 볼거던양
신던버선도 불안걸고 입던적삼도 등안받고
자형오기만 기다리요

[가락동 민요 48]

봄배추 노래

김쌍순(여, 1930년생) 가창
2014년 2월 22일 채록
[가락동 통전마을회관]

[옹듯이]
포롱포롱 봄배추는 봄기오도록 기다리고
옥에갈힌 춘향이는 이도령오도록 기다린다

[가락동 민요 49]

모심는 소리(1)

이필레(여, 1929년생) 가창
2014년 2월 22일 채록
[가락동 통전마을회관]

[옹듯이]
낭창낭창 벼락끝에¹⁶⁾ 무정한 울오랍아
나도죽어 남자되어 처자권속 심길라네

16) 벼랑 끝에.

[가락동 민요 50]

모심는 소리(2)

이필레(여, 1929년생) 가창
2014년 2월 22일 채록
[가락동 통전마을회관]

[옹듯이]

모시적삼 안섶안에 함박꽃이 봉지졌네
그꽃한송이 달라하이 백력소리¹⁷⁾ 호랑걸네

[가락동 민요 51]

남녀 연정요

이필레(여, 1929년생) 가창
2014년 2월 22일 채록
[가락동 통전마을회관]

[옹듯이]

님아님아 우런님아 꽃이곱소 내가곱소 (카이.)
니아무리 곱아도 꽃에다가 비할란가
여보당신 그말마라
꽃을안고 잠을자면 밤중이몬가서 싸들싸들
당신을안고 잠을자면 밤이새도록 방긱방긱

[가락동 민요 52]

사발가

이필레(여, 1929년생) 가창
2014년 2월 22일 채록
[가락동 통전마을회관]

17) 벼락소리.

[옹듯이]

석탄백탄 타는데에~ 연기나퐁퐁 나건만
이내가슴 타는데에~ 연기도짐도 안나네

2. 강동동 민요

[강동동 민요 1]

화투 타령

강소남(여, 1931년생) 가창
2014년 2월 17일 채록
[강동동 대사할머니경로당]

정월속가지 속속한마음
이월매다리 맺어놓고
삼월사쿠라 산란한마음
사월흑싸리 (뿔인고 모르겠다.)
오월난초 나는나비
유월목단에 날라앉아
칠월홍돼지 홀로누워
팔월공산 달밝은데
임의생각만 절로난다

[강동동 민요 2]

모심는 소리(1)

강소남(여, 1931년생) 가창
2014년 2월 17일 채록
[강동동 대사할머니경로당]

물길랑쳐청청 혈어놓고 주인네양반은 어데갔소
(그러카고 또, 그다음은 모르겠다.) (조사자: 문어야 전복 손에 들고.)
문어야전복 손에들고 첩우야방에 놀러갔소

[강동동 민요 3]

모심는 소리(2)

강소남(여, 1931년생) 가창
2014년 2월 17일 채록
[강동동 대사할머니경로당]

다풀다풀 다박머리 해다즌데 어디가노
우리엄마 황천간데 젓줄따라 내가가요

[강동동 민요 4]

모심는 소리(3)

강소남(여, 1931년생) 가창
2014년 2월 17일 채록
[강동동 대사할머니경로당]

서월이라 왕대밭에 연밭따는 (그라제?) 저처자야
(그라고 또, 뭐라 카는고 모르겠다.)
연밭일랑 내가따주꾸마 임에품에 받들어라 (카나?)

[강동동 민요 5]

봄배추 노래

강소남(여, 1931년생) 가창
2014년 2월 17일 채록
[강동동 대사할머니경로당]

포랑포랑 봄배추는 봄비오기만 기다리네
(그래 또, 그라고 또 뭐라카노?) (조사자: 옥에 갇힌 춘향이.)
옥에갇힌 춘향이는 이도령오기만 기다린다.

[강동동 민요 6]

모심는 소리(1)

강소남(여, 1931년생)·문말숙(여, 1931년생) 가창
2014년 2월 17일 채록
[강동동 대사할머니경로당]

[문말숙]

모야모야 노랑모야 니언제커서 열매열래 (청중: 잘한다.)

[강소남]

이달크고 저달크고 (청중: 훗달 크고.) (훗달 크고 라 카나?) (청중: 그래.)
내훗달에는 열매열게

[문말숙]

이달크고 훗달크고 칠팔월에 열매열지

[강동동 민요 7]

모심는 소리(2)

문말숙(여, 1931년생) 가창
2014년 2월 17일 채록
[강동동 대사할머니경로당]

서에서산 지는해는 지고싶어서 지가지나
나를두고 가는님은 가고싶어 지가가나

[강동동 민요 8]

시집살이 노래

문말숙(여, 1931년생) 가창
2014년 2월 17일 채록
[강동동 대사할머니경로당]

중우벗은 시아지바니 말하기도 어렵더라
동글동글 두리판에 수제(수저)놓기 어렵더라.

[강동동 민요 9]

모심는 소리

김덕렬(여, 1925년생) 가창
2014년 2월 18일 채록
[강동동 북정할머니노인정]

남창남창 베리끝에 무정한 울오랍아
나도죽어 여자돼¹⁸⁾ 처자권속 섬길라네

[강동동 민요 10]

봄배추 노래

배소열(여, 1938년생) 가창
2014년 2월 18일 채록
[강동동 북정할머니노인정]

포롱포롱 봄배추는 찬이슬오도록 기다리고
(조사자: 옥에 갇힌.) (청중: 또 뭐고 다 잊어뻘다.)

[청중]

옥에갇힌 춘향이는 이도령오기만 기다린다

[강동동 민요 11]

노랫가락

18) 남자를 여자로 잘못 가창하였음.

배소열(여, 1938년생) 가창
2014년 2월 18일 채록
[강동동 북정할머니노인정]

단장을 넘을때는 큰맘먹고 넘어서
문고리 잡고는 바리발발 떠다

[강동동 민요 12]

너냥 나냥

배소열(여, 1938년생) 가창
2014년 2월 18일 채록
[강동동 북정할머니노인정]

아침에 우는새는 배가고파 울고요
저녁에 우는새는 임기리워 우는데
(조사자: 낮이낮이나.) 밤이밤이나 참사랑이로다

[강동동 민요 13]

모심는 소리

우두순(여, 1933년생) 가창
2014년 2월 18일 채록
[강동동 북정할머니노인정]

모야모야 노랑모야 니운제커서 열매열래
(그 답은.)
이달크고 훗달커서 칠팔월에 열매열래

[강동동 민요 14]

노랫가락(1)

우두순(여, 1933년생) 가창
2014년 2월 18일 채록
[강동동 북정할머니노인정]

미달이미달이 삼달이안에 잠자는큰아기
문고리나살푼 끼라나주소
(또 뭣이고? 문고리나 살푼 끼라주소.)
악수비바람 잦은비에
(아) 송나고비바람 잦은비에 날을줄모르고 문잠갔나

[강동동 민요 15]

노랫가락(2)

우두순(여, 1933년생) 가창
2014년 2월 18일 채록
[강동동 북정할머니노인정]

처남처남 내처남아 너거누이 뭐하더노
모시적삼 등받더나 신던보신에 볼보더나
네모반듯 장판방에 연지찍고 분바리고
자형오기만 기다리오

[강동동 민요 16]

노랫가락(3)

우두순(여, 1933년생) 가창
2014년 2월 18일 채록
[강동동 북정할머니노인정]

해양해양 처녀풀목 돌아가서 경대로보니
촌사람살림이 원통하다

[강동동 민요 17]

지초 캐는 처녀 노래

우두순(여, 1933년생) 가창
2014년 2월 18일 채록
[강동동 북정할머니노인정]

함경도봉산 구월산밑에 주추캐는 저처녀야
처녀집은 어데건데 해다진데 주추캐노
우리집을 오실라면 삼세산 안갯속에
초가삼칸이 내집이요

[강동동 민요 18]

시집살이 노래

우두순(여, 1933년생) 가창
2014년 2월 18일 채록
[강동동 북정할머니노인정]

성아성아 사촌성아 시집살이 어떻더노
시집살이 좋더만은 (그것도 다 잊어뿌고 모르겠다 뵈이.)
도리도리 도리판에 수저놓기도 어렵고
중우벗은 시동상한테 말하기도 어렵고

[강동동 민요 19]

사발가

우두순(여, 1933년생) 가창
2014년 2월 18일 채록
[강동동 북정할머니노인정]

석탄백탄 타는데 연기풍풍 나고요
요내간장 타는데 연기도김도 안나네요

[강동동 민요 20]

그네 노래

우두순(여, 1933년생) 가창
2014년 2월 18일 채록
[강동동 북정할머니노인정]

수천당 세모진낭개 오색가지 줄을모아
임이타면 내가밀고 내가타면 임이민다
(카는, 고런 소리나 있었지.)

[강동동 민요 21]

노랫가락(4)

우두순(여, 1933년생) 가창
2014년 2월 18일 채록
[강동동 북정할머니노인정]

산도산도 봄철이던가 잎이피어서 산을덮고
임도임도 밤중일랑가 한산소매 나를덮네

임아임아 정든임아 나를두고 어디가요
천리라도 따라가고 만리라도 따라가요

바늘가는데 실안가나 실가는데 바늘안가
임가는데 나따라간다 (꿨다.)

일본동경 범나비아 나날이사 못올망정
달달이나 다니보소 (캐쌌다.)

[강동동 민요 22]

모심는 소리(1)

김동순(여, 1938년생) 가창
2014년 2월 18일 채록
[강동동 상덕할머니경로당]

[윽듯이]

물꼬는철철 헐어나놓고 주인네양반 어디갔노
(청중: 아 쪽쪽 빼가이 해야지 그래 하면 안 된다.)
문어야전복은 손에나들고 첩의방으로 놀러가자 (카는가?)

[강동동 민요 23]

모심는 소리(2)

김동순(여, 1938년생) 가창
2014년 2월 18일 채록
[강동동 상덕할머니경로당]

[윽듯이]

모야모야 노랑모야 니언제커서 열매열래
이달크고 훗달크고 칠팔월에 열매열지
(그 한 개 빠자묵었다 그자?)

[강동동 민요 24]

노랫가락

김동순(여, 1938년생) 가창
2014년 2월 18일 채록
[강동동 상덕할머니경로당]

[윽듯이]

나물먹고 물마셔도 팔을베고 누웠으니
대장부라 살림살이 요만하면 만족하지

[강동동 민요 25]

그네 노래[노랫가락]

김동순(여, 1938년생) 가창
2014년 2월 18일 채록
[강동동 상덕할머니경로당]

[옹듯이]

수천당 새모진낭개 늘어진가지에 군대를메어
임이뛰면 내가나밀고 내가뛰면은 임이민다 (좋다!)

[강동동 민요 26]

양산도

김동순(여, 1938년생) 가창
2014년 2월 18일 채록
[강동동 상덕할머니경로당]

함양산천 물레방아 물을안고 돌~~고~
우리집 울언님은 나를안고 돈~~다

[강동동 민요 27]

창부타령

김동순(여, 1938년생) 가창
2014년 2월 18일 채록
[강동동 상덕할머니경로당]

백설겇은 흰나비는 부모님 건성을 입었는가
소복단장 곱기하고 장다리밭으로 공돌아돈다
얼씨구나 좋다 절씨구나
아니노지는 못살겠네

[강동동 민요 28]

너냥 나냥

김동순(여, 1938년생) 가창
2014년 2월 18일 채록
[강동동 상덕할머니경로당]

십오야 밝은달은 구름속에서 놀고요
낮이낮이나 밤이밤이나 참사랑이로구나

신작로 복판에 하야가 놀고요
하야 속에는 신부신랑이 논다
너냥 내냥 두리둥실 놀고요
낮이낮이나 밤이밤이나 참사랑이로구나

우리댁 서방님이 명태잡이를 갔는데
바람아 강풍아 석달열흘만 불어라

[강동동 민요 29]

화투 타령

김소심(여, 1945년생)·배정순(여, 1943년생) 가창
2014년 2월 17일 채록
[강동동 신덕마을회관]

정월속새끼 속삭인마음
이월맺대 허사로다
삼월사쿠라에 산란한마음
사월흑싸리 허사로다
오월난초 나는나비
유월목단 꽃에앉아
칠월홍사리 홀로앉아
팔월공산 달도밝다

구월국화 굳었던마음
시월단풍에 특떨어졌다
(동지선달은 뭐이고?)

[배정순]

오동추야 달밝은데 기리하나¹⁹⁾ 울고가네

[강동동 민요 30]

모심는 소리(1)

김정어(여, 1935년생)·박성년(여, 1931년생) 가창
2014년 2월 17일 채록
[강동동 신덕마을회관]

[김정어]

물꼬랑창창 헐어놓고~이 주인네양반은 어데갔소
(또 니 받아라.)

[박성년]

(아 맞다 참.)
문어야대전복 에와들고~이 첩의야집에 놀러갔소

[강동동 민요 31]

모심는 소리(2)

김정어(여, 1935년생)·박성년(여, 1931년생) 가창
2014년 2월 17일 채록
[강동동 신덕마을회관]

[김정어]

모야모야 노랑모야~이 니언제커서 환승할래 (카제?)

19) 기러기 한 마리.

[박성년]

이달크고 저달커서~이 내후년에 환승하지

[강동동 민요 32]

모심는 소리(3)

김정어(여, 1935년생)·박성년(여, 1931년생) 가창
2014년 2월 17일 채록
[강동동 신덕마을회관]

[김정어]

춘서끝에 집을지어~이 날면보고 들면봐도
(그래 인자 받는 노래가 임이다.)

[박성년]

나도죽어서 군자가되어 처자군상 생기볼래
(그랬나 뭐꼬?) (청중: 들면 보고 날면 봐도 임인 줄을 내 몰랐다 그리 캐야 되는데.)

[강동동 민요 33]

모심는 소리(4)

김정어(여, 1935년생)·박말년(여, 1938년생) 가창
2014년 2월 17일 채록
[강동동 신덕마을회관]

[김정어]

해다졌네 해다졌네~이 산골마다 연개나네
(청중: 이 후후후.)

[박말년]

울의님은 어디를가고~이 연개조차 아니나네
(그렇나?) (청중: 연개 낼 줄 모른다 하지.) (그렇제.)

[강동동 민요 34]

봄배추 노래

김정이(여, 1935년생) 가창
2014년 2월 17일 채록
[강동동 신덕마을회관]

포롱포롱 봄배차는 봄비오도록 기다리고
옥에갈힌 춘향이는 이도령오기만 기다리고

[강동동 민요 35]

그네 노래

김정이(여, 1935년생)·박성년(여, 1931년생) 가창
2014년 2월 17일 채록
[강동동 신덕마을회관]

[김정이]
주천당 새머리낭개 오색가지를 줄을매야
임이타면은 내가밀고 내가타면은 임이민다

[박성년]
임아임아 줄밀지마라 줄떨어지면은 정떨어진다

[강동동 민요 36]

모심는 소리(1)

김정이(여, 1935년생)·박말년(여, 1938년생) 가창
2014년 2월 17일 채록
[강동동 신덕마을회관]

남창남창 벼리 끝에~이 무정하다 울오랴아

[김정이, 박성년]
나도죽어서 남자가되어 처자군상²⁰⁾ 샘기볼래²¹⁾
(그래 했다.)

[강동동 민요 37]

모심는 소리(2)

박말년(여, 1938년생)·박성년(여, 1931년생) 가창
2014년 2월 17일 채록
[강동동 신덕마을회관]

[박말년]
머리도 좋고 실한처녀~이 줄뽕낭개 앓아우네

[박성년]
줄뽕갈뽕 내따주마 처자군상 샘기보자

[강동동 민요 38]

모심는 소리(3)

박말년(여, 1938년생) 가창
2014년 2월 17일 채록
[강동동 신덕마을회관]

모시야적삼 안섰안에 함박꽃이 피어있네
그꽃하나 달라하니 호랑소리가 병나더라
(청중: 많이 보면 병나니까 쌀날만치만 보고 가라 안 카나.)

[강동동 민요 39]

청춘가

20) 처자권속.
21) 섬겨볼래.

박말년(여, 1938년생)·서차선(여, 1929년생) 가창
2014년 2월 17일 채록
[강동동 신덕마을회관]

[박말년]

울남에 담념에 풀비는 총객아~
니언제 커서러~어 내낭군 될라노

[서차선]

에효 처녀야 그말을 말어라~
이삼년만 크면은 좋다 니낭군 될꺼다~

[강동동 민요 40]

모심는 소리

박성년(여, 1931년생) 가창
2014년 2월 17일 채록
[강동동 신덕마을회관]

머리도 좋고 실한 처녀 울뽕낭개서 앉아우네
울뽕달뽕 내따주마 백년하리를 내강살자

[강동동 민요 41]

청춘가

박성년(여, 1931년생) 가창
2014년 2월 17일 채록
[강동동 신덕마을회관]

산이 높아야 골도 나깊지요
조만한 여자가슴 깊을수 있으리
노세 높아라 젊어서 높아라
늙고 병들면 못노나니라

[강동동 민요 42]

모심는 소리

배정순(여, 1943년생) 가창
2014년 2월 17일 채록
[강동동 신덕마을회관]

아침이슬 채른밭에 불뚱꺾는 저처녀야
불뚱일랑 좋지만은 고분흫²²⁾ 다졌는다
(이렇게 노래를 하대 본께.)

[강동동 민요 43]

청춘가

서차선(여, 1929년생) 가창
2014년 2월 17일 채록
[강동동 신덕마을회관]

노자 놀아라~ 젊어서 놀아라~
늙고 병이들면 좋다 못노리로다

[강동동 민요 44]

백발가

서차선(여, 1929년생) 가창
2014년 2월 17일 채록
[강동동 신덕마을회관]

이팔청춘 소년들아 백발보고 반대마라
우리도 어제청춘 오늘아래 백발이다
백발되기가 잠시로다

22) 고운 손목.

[강동동 민요 45]

사발가

서차선(여, 1929년생) 가창
2014년 2월 17일 채록
[강동동 신덕마을회관]

석탄백탄 타는데~에 연기는 풍풍나고요
이내가슴 타는데는 연게도짐도²³⁾ 아니나네
에헤용 에헤 에헤요
에야라난다 지화자자 좋다
니가내간장 스리솔솔 다독인다

[강동동 민요 46]

모심는 소리

서차선(여, 1929년생) 가창
2014년 2월 17일 채록
[강동동 신덕마을회관]

해다지고 저문날에 우연행상 떠나가네
(그 또 모르겠네, 받는 등지가 있는데 또 모르겠다.)

[강동동 민요 47]

청춘가

서차선(여, 1929년생) 가창
2014년 2월 17일 채록
[강동동 신덕마을회관]

열두칸 기차야 소리없이 가거라
산란한 내마음 좋다 더산란하노라

23) 연기도 김도.

[강동동 민요 48]

창부타령

서차선(여, 1929년생) 가창
2014년 2월 17일 채록
[강동동 신덕마을회관]

노자 젊어서놀아 늙고병들면 못노나니
화무는 십일홍이오 달이차면은 기우나니
인생은 일자춘몽²⁴⁾에 아니놀고서 무엇하나

3. 녹산동 민요

[녹산동 민요 1]

모심는 소리(1)

권차순(여, 1932년생) 가창
2014년 2월 14일 채록
[녹산동 녹산경로당]

모야모야 노랑모여 니운제커서 열매열래
이달크고 훗달크고 칠팔월에 열매열래

[녹산동 민요 2]

모심는 소리(2)

권차순(여, 1932년생) 가창
2014년 2월 14일 채록
[녹산동 녹산경로당]

24) 일장춘몽(一場春夢).

저녁을먹고 썩나서니 울넘에서 손을치네
손치는데는 밤에가 (아!) 낮에가고
(우 부모, 손 치는 데는 밤에 가고, 울언님(우리 님) 지사는(제사는) 낮에 가고.)

[녹산동 민요 3]

모 찌는 소리

권차순(여, 1932년생) 가창
2014년 2월 14일 채록
[녹산동 녹산경로당]

[창부타령 곡으로 부름]
한강수에다 모를심어 모찌기도 난감하다
하늘에다가 목화를심어 목화따기가 난감하네
얼씨구좋다 정말로좋다 아니놀고는 무엇하리

[녹산동 민요 4]

청춘가

권차순(여, 1932년생) 가창
2014년 2월 14일 채록
[녹산동 녹산경로당]

울넘에 담넘에~에 꼴비는 총각아~아
니운제 커서러~어 내낭군 될라 (옛날 소리다.)
야야 처녀야~아 그말을 말어라~아
이삼년만 더크며~은 네낭군이 되노라 [웃음]

[녹산동 민요 5]

시집살이 노래

권차순(여, 1932년생) 가창
2014년 2월 14일 채록
[녹산동 녹산경로당]

성아성아 사촌성아 시접살기 어떻더노
시접살기는 좋다마는
도리도리 도리판²⁵⁾에 수저놓기도 어렵더라
동굴동굴 수박개우에 밥담기도 어렵더라
중우²⁶⁾벗은 시아제비²⁷⁾ 말하기도 어렵더라

[녹산동 민요 6]

보리타작 소리

권차순(여, 1932년생) 가창
2014년 2월 14일 채록
[녹산동 녹산경로당]

옹헤야 옹헤야
옹헤야 옹헤야
어절씨고 옹헤야
저절씨고 옹헤야
옹헤야~
어절씨고 옹헤야
[혀 째은 소리로]
형쑤님도 옹헤야
지쑤씨도(제수씨도) 옹헤야
내쫘만(내 손만) 바랜다 옹헤야~
우지 엄마는 보지(보리)줍고
옹헤야 옹헤야
우지 아버지는 보지째 털고 옹헤야~
어절씨고 옹헤야
저절씨고 옹헤야

25) 두리반. 등근 소반.

26) 중의(中衣). '고의'라고도 함. 남자의 여름 훌바지.

27) 시아주버니.

우리형님 보지째 지어가고
옹헤야 옹헤야
어절씨고 옹헤야
저절씨고 옹헤야
지쭈씨도 내쭈만 바래고
옹헤야 옹헤야
형쭈씨도 내쭈만 바래네 옹헤야 [일동 웃음]
우지 엄마는 보지째 가져 보지째 털고
우지 아버지는 보지째 씨고(쓸고)
우지 마누라는 (아이고 뭐고?) 절무짐치에 보지밥한다 [일동 웃음]
옹헤야 옹헤야 [일동 웃음]
어절씨고 옹헤야
우지 집에는 보지째가 많아서
너거집에보다 보지째가 저래하지
통투중치 떨어졌다 옹헤야~

[녹산동 민요 7]

창부타령[남녀 연정요]

권차순(여, 1932년생) 가창
2014년 2월 14일 채록
[녹산동 녹산경로당]

뽕따러가세 뽕따러가세 건너밭에 뽕따로가세
머리 좋고 키 큰 처녀 줄뽕낭게서 앉아우네
줄뽕갈뽕 내따주마 백년언약을 내캉사세
야야총각 그말을마라 내언약은 맺었으니
자네니나²⁸⁾ 언약을맺어

[녹산동 민요 8]

아기 재우는 노래

28) 자네나.

권차순(여, 1932년생) 가창
2014년 2월 14일 채록
[녹산동 녹산경로당]

자장자장 우리아가
울지말고 잘자거라
니가울어 날이새나
달히울어야 날이새지

[녹산동 민요 9]

베 짜기 노래

권차순(여, 1932년생) 가창
2014년 2월 14일 채록
[녹산동 녹산경로당]

[창부타령 곡조로]

베짜는아가씨 사랑노래 베틀에 수심만차노라
낮에짠베는 일광단이요 밤에짠베는 월광단이라
일광단월광단 다짜놓고 울언님와이사스나 지어볼까

[녹산동 민요 10]

모심는 소리(3)

권차순(여, 1932년생) 가창
2014년 2월 14일 채록
[녹산동 녹산경로당]

물꿀랑쳐정청 헐어놓고~오 주인네양반 어디갔소
문어야전복 오리들고~오 첩의야집에 놀러갔소
첩의야방은 꽃밭이고 (다 잊어뿌노 안 그렇나.) 요내야방은 수심방이라

[녹산동 민요 11]

잠자리 잡는 노래

권차순(여, 1932년생) 가창
2014년 2월 14일 채록
[녹산동 녹산경로당]

털기야²⁹⁾ 털기야
불던자리 불거라
먼데가몬 죽는다
니캉내캉 살자

[녹산동 민요 12]

노랫가락[나비 노래]

권차순(여, 1932년생) 가창
2014년 2월 14일 채록
[녹산동 녹산경로당]

나비야 청산을가자 호랑나비야 너도가자
가다가 질저물거든 꽃밭속에 자고가자 (모르겠다. 뿔이 안 돼.)
꽃에서 피대집하면 앞에속에서 자고가자
앞에서 피대집하거든 요내품에 자고가자

[녹산동 민요 13]

쌍가락지 노래

김동립(여, 1931년생) 가창
2014년 2월 14일 채록
[녹산동 녹산경로당]

29) '털기'는 경상도에서 흔히 '철기'라고 하는 잠자리를 말한다.

쌍금쌍금 쌍가락지
호작질로 닦아내어
먼데보이 달일래라
절에보이 처잘래라
그쳐자 자는방에
숨소리가 돌일래라
흥돌박씨 오랍씨도
거짓말씀 말아주소
남풍이 들이부이³⁰⁾
풍지떠는 소리로다

[녹산동 민요 14]

풍뎡이 놀리는 노래³¹⁾

김동림(여, 1931년생) 가창
2014년 2월 14일 채록
[녹산동 녹산경로당]

핑딩아 돌아라
마당썰고 밥주께

[녹산동 민요 15]

의암이³²⁾ 노래

김동림(여, 1931년생) 가창
2014년 2월 14일 채록
[녹산동 녹산경로당]

30) 남풍이 들이쳐 부니.

31) '풍딩이'는 풍뎡이를 말하는 방언. 풍뎡이를 잡아서 땅에 뒤집어 눕혀 놓으면 다시 바로 서기 위해 몸을 빙글빙글 돌리게 된다. 이들 아이들이 보면서 부르는 노래이다.

32) '의암이'는 논개(論介)를 말한다. 논개가 왜장을 안고 뛰어 내렸다는 바위가 의암(義菴)인데, 진주 성이 있는 남강 가에 있다.

진주기생 의암이는 우리나라 살릴라고
왜장청장 목을안고 진주남강에 떨어졌네

[녹산동 민요 16]

각설이 타령[숫자풀이 노래]

김동림(여, 1931년생) 가창
2014년 2월 14일 채록
[녹산동 녹산경로당]

열씨구씨구 들어간다
일자로 한자나 들고나보니
일선에계신 우리낭군
돌아오기만 기다린다

이자로 한자나 들고나보니
이승만박사는 대~통령
중국수상은 장개석

삼자로 한자나 들고나봐
삼천만의 동포들이
자유해방을 들고온다

사자나 한자나 들고나봐
사천이백 칠십팔년
자유해방이 돌아왔다

오자로 한자나 들고나보니
오십명의 괴뢰군이
삼팔선을 넘어온다

육자로 한자나 들고나보니
육이오사변에 집을잃고
꺼리지생활이 웬말이나

칠자로 한자나 들고나봐
칠십리에 대포소리
금수강산을 울린다

팔자로 한자나 들고나보니
팔문전에 열린회관
각국대표가 모여든다 (막 떨어진다. 몸에.)

구자로 한장 들고나보니
군인생활 구년만에
이등병이 웬말이나
십자로 한장 들고나봐 (조사자: 장자나 한 장.)
장자로 한장 들고나봐
장하도다 우리국군
삼팔선을 넘어간다

[녹산동 민요 17]

화투 타령

김두임(여, 1939년생) 가창
2014년 2월 14일 채록
[녹산동 녹산경로당]

정월속가지³³⁾ 속속한마음
열매다리 맺어놓고
삼월사쿠라 산란한 내마음
사월흑사리 허송하다
오월난초 나비되어
유월목단에 앉았구나
칠월홍돼지 홀로누워
팔월공산 달밝은데 (청중: 좋다.)
구월국화 굳은마음
시월단풍에 떨어진다

33) 솔가지.

오동지선달 (뿔인지는 그걸 모르겠다.) (청중: 오동지 선달.) 오동추야
(청중: 오동지 선달 긴긴 밤에.)
오동지선달 긴긴밤에
(청중: 정든 님 생각이 절로 난다.) [화를 내며] (니가 하지 넬로 하라 카노.) [일동 웃음]
(청중: 모르면은 갠차(가르쳐) 주도 되나?)
정든님 생각이 절로난다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네
아니 노지를 못하리라
노자노자 짧어노자
늪고빙들면 못노리라
얼씨구 좋다

[녹산동 민요 18]

모심는 소리

김두임(여, 1939년생) 가창
2014년 2월 14일 채록
[녹산동 녹산경로당]

서마지기 논빼미가 반달만치 남았구나
니가무슨 반달이냥 초승달이 반달이지

물길은청청 헐어놓고~이 주인네양반 어디갔소
문어야전복 손에들고 첩의방에 놀러가지

다풀다풀 다박머리 해다전데 어데가노
우리엄마 산소등에 젓묵으로 나는가요
알금삼삼 곱은독에 술을해어서 금청주네
팔모야깁은 유리잔에 나무가앉아서³⁴⁾ 잔질하네

머리 좋고 실한처녀 줄뽕낭게 걸았았네
줄뽕날뽕 내따주면 백년언약을 맺고사네

34) 나무는 '나부'로 나비의 방언. 나비가 앉아서.

[녹산동 민요 19]

목화 따는 처녀 노래

김두임(여, 1939년생) 가창
2014년 2월 14일 채록
[녹산동 녹산경로당]

사리지고³⁵⁾ 강넘은밭에 목화따는 저처녀야
혼차따기 심심는데 너랑내랑 둘이따자
혼차따나 둘이따나 목화따기는 일반이요
목화꽃이 늙어지면 도청군에서 호출오고
우리인생도 늙어지면 공동지서³⁶⁾ 호출온다

[녹산동 민요 20]

모심는 소리

김두임(여, 1939년생) 가창
2014년 2월 14일 채록
[녹산동 녹산경로당]

모야모야 노랑모야 니언제커서 열매열래
이달크고 저달크고 내훗달에는 환승하네

[녹산동 민요 21]

모심는 소리

이선이(여, 1945년생) 가창
2014년 2월 14일 채록
[녹산동 녹산경로당]

35) 사례 길고. 밭이랑이 길고.

36) 공동묘지에서.

친구친구 좋은친구 무시썩가 배차썩신가³⁷⁾
골골마등 다해치네

[녹산동 민요 22]

모 찌는 소리

임양순(여, 1939년생) 가창
2014년 2월 14일 채록
[녹산동 녹산경로당]

들어내세 들어내세 이못자리 들어내세
이논빼미 모를심어 금실금실 영화로다

[녹산동 민요 23]

양산도

허영희(여, 1940년생) 가창
2014년 2월 14일 채록
[녹산동 녹산경로당]

에헤이~이요
청춘하늘에 자리잔별 많~고
요내야 가슴에 잔수심 많~네
어화둥둥둥 둥게디어라 아니못노리~
너능기를 하야도 나는 못노리로구~나

[녹산동 민요 24]

모 찌는 소리

37) 무시, 즉 무 썩인가 배추 썩인가.

허영희(여, 1940년생) 가창
2014년 2월 14일 채록
[녹산동 녹산경로당]

여이자 여이자 이뭇자리를 여이자
여이자 여이자 이뭇자리를 여이자

[녹산동 민요 25]

모심는 소리

허영희(여, 1940년생) 가창
2014년 2월 14일 채록
[녹산동 녹산경로당]

낭창낭창 베리끝에³⁸⁾ 무정하는 울오랍아
나도죽어서 남자가되여 군자생각을 내가한다

[녹산동 민요 26]

아기 어르는 소리[불매 소리]

허영희(여, 1940년생) 가창
2014년 2월 14일 채록
[녹산동 녹산경로당]

불매 불매야
이불매가 어데불맨고
경상도 대불미
전라도 소불미
불어라 딱딱 불어라 딱딱

[녹산동 민요 27]

사발가

38) 벼랑 끝에.

허영희(여, 1940년생) 가창
2014년 2월 14일 채록
[녹산동 녹산경로당]

석탄백탄 타는데 연개는퐁퐁 나건만
이내가슴 다타도 연개도짐도 안난다
에헤용 에헤용 에헤용

[녹산동 민요 28]

비 노래[비야 비야 오지 마라]

김복순(여, 1937년생) 가창
2014년 2월 19일 채록
[녹산동 녹산주민회관]

비야비야 오지마라
우리새이 시집간다
가매문에 비들치면³⁹⁾
비단치마 옷젓는다

[녹산동 민요 29]

모심는 소리

김복순(여, 1937년생) 가창
2014년 2월 19일 채록
[녹산동 녹산주민회관]

낭창낭창 베루끝에~ 무정하다 저오랍아
나도죽어서 남자되어~ 처자곤속⁴⁰⁾ 섬길라네

39) 가마 문에 비 들치면.

40) 처자 곁속.

[녹산동 민요 30]

모심는 소리

김복순(여, 1937년생) 외 가창
2014년 2월 19일 채록
[녹산동 녹산주민회관]

오늘아침에 모연동무~이 해다지니 이별이네
석자야수건 목에걸고~이 새는날에 상복하자

[녹산동 민요 31]

쌍가락지 노래

김복순(여, 1937년생) 가창
2014년 2월 19일 채록
[녹산동 녹산주민회관]

쌍금쌍금 쌍가락지 호작질로 닦아내여
먼데보니 달일래라 젖에보니 처잘래라
그쳐자 자는방에 숨소리가 다를래라

[녹산동 민요 32]

지신밝기 노래

배정애(여, 1949년생) 가창
2014년 2월 19일 채록
[녹산동 녹산주민회관]

[옹듯이]

굽은나무 굽다듬고
마른나무 자다듬어
반달같이 다듬어서
집터보러 가자신다

김해하고 남쪽땅
녹산면 녹산리라
주산주령을 내리잡아
용의머리 터를뒹고
석사세치 터를도와
삼칸집을 내리세워
핑경소리 요란하다
가도가도없는 저바다에
배가삼채 들어온다
앞에배를 둘러보니
이집성주 타신배요
뒤에배를 둘러보니
이집주항 타신배고
삼채배를 둘러보니
만구지신 타신배라

[노래로]

이집가정에 모셔다가
이집이라 대조양반
동서남북 다다녀도
남의눈에 꽃이되고
인형눈에 잎이되니
말소리도 향내난다
잡귀잡신은 물알로
만복은 요리로

[녹산동 민요 33]

성주풀이

배정애(여, 1949년생) 가창
2014년 2월 19일 채록
[녹산동 녹산주민회관]

여루여루 성주야
 성주본이 어드메나
 경상도 안동땅
 제비중천이 본일래라
 제비중천에 솔씨받아
 거제봉산에 뿌렸더니
 그솔이 자라나서
 낙락장송이 되었구나
 낙락장송이 자라나서
 도리기둥이 되었구나
 도리기둥이 자라나서
 유리기둥이 되었구나
 앞집에 김목수야
 뒷집에 박목수야
 서른세가지 연장만
 어깨위에 둘러매고
 나무베러 가자신다
 거제봉산을 치치올라
 나무한줄을 잡아보니
 까막까치가 집을지어
 아하그나무 부정하다
 또한곡을 치치올라
 나무한줄을 스스로대
 그나무를 바라보니
 황새득새가 집을지어
 어허그나무 부정하다
 또한곡을 치치올라
 나무한줄을 잡아보니
 성주목이 완연하다
 (청중: 여루여루 성주야.)
 동으로뺨은가지
 학석이앉아 춤을추고
 서으로 뺨은가지
 봉학이앉아 춤을춘다
 여루여루 성주야
 갓은벗어 낭게걸고

옷은벗어 줄에걸고
연자망태 땅에놓고
금도끼야 옥도끼야
오리만큼 가는도치
십리만큼 가는도치
삼세번을 굵어쪼사
굽은나무 굽다듬고
곧은나무 곧다듬고
마른나무 잣다듬어

[녹산동 민요 34]

아기 어르는 소리[알강달강요]

배정애(여, 1949년생) 가창
2014년 2월 19일 채록
[녹산동 녹산주민회관]

알강달강 서울가서
밤을한대 주웠는데
껍질은 까서 애비주고
보늬는 까서 예미주고
알키는 닝캉내캉 갈라목자

[녹산동 민요 35]

조왕풀이

배정애(여, 1949년생) 가창
2014년 2월 19일 채록
[녹산동 녹산주민회관]

조왕조왕 조왕아
천년조왕 만년조왕
천년이나 울짚소

만년이나 울짚소
작은솔은 나가고
경주솔마치 들앉아주소

[녹산동 민요 36]

모 찌는 소리

오묘계(여, 1932년생) 가창
2014년 2월 19일 채록
[녹산동 녹산주민회관]

둘러싸자 둘러싸~자 이모판을 둘러싸자
에워싸자 에워싸~자 이못자리를 에워싸자

한강수에 모를부여 모찌내기가 난감하다
하늘에다 목화를숨어⁴¹⁾ 목화딸일이 난감하다

[한 번 더 부름]
한강수에다 모를부여 모찌내기가 난감하다
하늘에다 목화를심어 목화따기가 난감하네
이못자리 모를부어 모찌기가 난감하다

[녹산동 민요 37]

모심는 소리

오묘계(여, 1932년생) 가창
2014년 2월 19일 채록
[녹산동 녹산주민회관]

모야모야 노랑모야~이 니언제커서 열매열래
이달크고 훗달크고~오 칠팔월에 열매열래

41) 목화를 심어.

[녹산동 민요 38]

모심는 소리

오묘계(여, 1932년생) 가창
2014년 2월 19일 채록
[녹산동 녹산주민회관]

점심아 실었다 도복판에⁴²⁾ 오데만치 오시는가
이등저등 건너다가 칩에건너서⁴³⁾ 못오시나

[녹산동 민요 39]

모심는 소리

정남숙(여, 1947년생) 가창
2014년 2월 19일 채록
[녹산동 녹산주민회관]

오늘낮에 점슴반찬 무슨자반이 올랐느냐
전라도라 보신청에 마리마리 올랐다네

[녹산동 민요 40]

아기 어르는 소리[알강달강요]

최영자(여, 1942년생) 가창
2014년 2월 19일 채록
[녹산동 녹산주민회관]

알강달강 서월(서울)가서
밤을한대 주웠는데
껍질은까서 애비주고

42) 도(道) 즉, 길 복판에.

43) 칩에 걸려서. 즉, 칩냉쿨에 걸려서.

보늬는까서 에미주고
알키는 니캉내캉 갈라묵자

[녹산동 민요 41]

모심는 소리

최영자(여, 1942년생) 외 가창
2014년 2월 19일 채록
[녹산동 녹산주민회관]

이논빼미나 모를심어 금실금실 영화로다
우리야부모님 산소등에 솔을심어 영화로다

서마지기 이논빼미 반달같이도 떠나가네
니가무슨 반달이나 초승달이 반달이지

물꼬야청청 헐어놓고 주인네양반 어디갔소
문어야전복 오리들고 첩의야집에 놀러갔소

낭창낭창 베리끝에 모를심어서 영화로다
나도죽어서 남자가되여 처자야권속 섬길라네
담안에다 꽃을심어 달밤으로 길을지네
길을가는 호걸양반 그꽃보고 길뭇가네 이후후후

서울이라 왕대밭에 금비둘기 알을낳네
그알하나로 주웠으면 금년과계 내할구로 이후후후

저게가는 저구름은 어데신선이 타고가요
웅천하고서 천자봉에 놀던신선이 타고가네 이후후후

물꼬야청청 헐어놓고 주인네양반 어데가노

모시야적삼 안섰안에 함박꽃이 봉지지네
그꽃한송이 딸라하니 백동시계가 두번지네
그꽃한송을 딸라하니 호랑소리가 백락갈네⁴⁴⁾

타박타박 타박머리 해다전데 어데가노
우리야부모님 산소등에 젓줄따라 내가가네

해다지고 저문날에 골골마다 연기나네
우리야부모님 어데가고 연기낼줄 모르는고

그늘이좋아 한가지에 같이 [웃음]

짚레꽃은 장가가고 석노꽃은 상각가네⁴⁵⁾

[녹산동 민요 42]

모심는 소리(1)[아침소리]

이영애(여, 1938년생) 가창
2014년 2월 19일 채록
[녹산동(구 범방동) 사구마을회관]

한강수에다 모를부어~어 모찌내기가 난감하~네
사대장같은 이못자리~이 모찌기가 난감하~네

아침을먹고 모안동무~우⁴⁶⁾ 해다지니 이별이네
석자야수군을⁴⁷⁾ 목에다걸고~오 내일아침 상봉하자

일월해님이 돌아와도~오 이슬겘줄 모르던가
명화야대로⁴⁸⁾ 끊어들고~오 이슬털러 가자시야 (청중: 이 후 후 후 후 후.) [웃음]

[녹산동 민요 43]

모심는 소리(2)[점심소리]

44) 벼락갈네.
45) 석류꽃은 상객(上客) 가네.
46) 아침을 먹고 모은 동무.
47) 석자 (크기의) 수건을.
48) 면화(棉花), 즉 목화의 대(줄기)로.

이영애(여, 1938년생) 가창
2014년 2월 19일 채록
[녹산동(구 범방동) 사구마을회관]

점슴아실었다 도복판에~에⁴⁹⁾ 어데만침 오시는고
이등저등 건너다가~아 침기걸려⁵⁰⁾ 더디다요

아가야 (이기 또 판 건데.)
아가야도런님이 병안이나서~어⁵¹⁾ 순금씨야⁵²⁾ 배깁아라
순금씨야 깎안배는~은 맛도좋고 연약하네

오늘낮우에 점슴반찬~안⁵³⁾ 머슴자반이 오를란고
전라도라 꼬신청에~에⁵⁴⁾ 두름두름이 올랐다네

한양낭군이 밥담다가~아 늦죽우탕탕 뿌질랐네⁵⁵⁾
아가아가 메늘아가~아 나도탕탕 뿌질랐네

[녹산동 민요 44]

모심는 소리(3)[저녁소리]

이영애(여, 1938년생) 가창
2014년 2월 19일 채록
[녹산동(구 범방동) 사구마을회관]

해다졌네 해다졌네~에 양산땅에 해다졌네
빵긱빵긱 문어내기~이 몬다보고서 해다졌네

49) 점심을 실어서 길 복판에.

50) 침에 걸려. 즉, 침냉쿨에 걸려.

51) 병환이 나서.

52) 순금씨야.

53) 오늘 낮에 점심 반찬.

54) 흔히 '고신청'이나 '고등청'이라 함. 고신청은 고기를 구워 고소한 냄새가 나는 청, 즉 마루나 방을 말하며, '고등청'은 고등어를 구운 마루나 방을 말한다.

55) 늦그릇을 탕탕 부셔버렸네.

해다지고도 저문날에~에 우연상부⁵⁶⁾ 떠나가네
이태백이 본처를두고~오 못다보고서 떠나가네
시냇골바람이 내리불어~어 도령아부치를⁵⁷⁾ 휘날렸네
아따그처자 알자로세~에 도령아부치를 주아주네

오늘해님이 요만됐네~ 산골마다 연기가나네
울언넘어는⁵⁸⁾ 어데가고~오 연기낼줄 모르든고

[녹산동 민요 45]

모심는 소리(4)

이영애(여, 1938년생) 가창
2014년 2월 19일 채록
[녹산동(구 범방동) 사구마을회관]

물길랑청청 헐어놓고 주인네양반은 어디로갔노
문어야전복을 오리들고 첩의방에 놀러갔소

해다지고도 저문날에~에 옷가락입고서 어데로가요
연못에금붕어는 사철인데 본댁첩은 백년이요
등넘에다 첩을두고 들락날락 자로갔네

[녹산동 민요 46]

상여소리

이영애(여, 1938년생) 가창
2014년 2월 19일 채록
[녹산동(구 범방동) 사구마을회관]

56) 웬 상부(喪夫).
57) 도령의 부채를.
58) 우리 님은.

어허넘자 어허야
삼대혼신이 많다해도 갈길축은 한본이요⁵⁹⁾
어허야 어허~야 어허야
아들팔형제 많다해도 하늘보다가도 못하더라
어허야 어허~야 어허
북망산천이 멀다해도 당코보이면은 발밑인데
어허야 어~허
인간세상 하직을하고 갈길조차 바쁘든강
어허야 어허야
산천초목에 버라를물어 앞강물을 지를소냐⁶⁰⁾
어허야 어허야
우리나라 금상님도 백년수를 못사는데
어허야 어허야
기여기여 흘러기여 인생중생이 이렇든강
어허야 어허야 (인자 고만 해.)

[녹산동 민요 47]

성주풀이

이영애(여, 1938년생) 가창
2014년 2월 19일 채록
[녹산동(구 범방동) 사구마을회관]

여루여루 성주님아
쿨랄라 쿨라라 쿨랄라⁶¹⁾
이성주가 누성주고
쿨랄라 쿨랄라 쿨랄라
하늘에올라 옥황상제
쿨랄라 쿨라라 쿨랄라
성주본이 어드메든고
쿨랄라 쿨라라 쿨랄라
경상도 안동땅에

59) 한 번이요.

60) 길을 소냐?

61) 팽과리를 치는 소리를 대신하는 구음임.

쿨랄라 쿨라라 쿨랄라
경주제비 본일레라
쿨랄라 쿨라라 쿨랄라
강남간 제비나와
쿨랄라 쿨라라 쿨랄라
성주본이 안동이든강
쿨랄라 쿨라라 쿨랄라
성주님이 아닐런가
쿨랄라 쿨라라 쿨랄라
앞집에라 김대목아
쿨랄라 쿨라라 쿨랄라
뒷집에라 박대목아
서른시가지 연장망태
쿨랄라 쿨라라 쿨랄라
윈어깨 울러매고
뒷동산으로 지치달아
쿨랄라 쿨라라 쿨랄라
한등으로 넘어서니
쿨랄라 쿨랄라 쿨랄라
그나무한줌 바라보니
쿨랄라 쿨라라 쿨랄라⁶²⁾
무성하기도 자랐구나
쿨랄라 쿨라라 쿨랄라
까막간치가 똥을싸서
그나무도 부정하다
쿨랄라 쿨라라 쿨랄라
또한등을 넘어서니
쿨랄라 쿨라라 쿨랄라
그나무한줌 바라보니
쿨랄라 쿨라라 쿨랄라
무성하기도 자랐구나
쿨랄라 쿨라라 쿨랄라
그나무비어다 집을지문

62) 이 부분부터 조사자와 청중이 후렴을 넣었다.

쿨랄라 쿨라라 쿨랄라
 소년죽음니 나실레라⁶³⁾
 쿨랄라 쿨라라 성주야
 삼시등을 넘어서니
 쿨랄라 쿨랄라 성주야
 그나무한줌 바라보니
 쿨랄라 쿨라라 성주야
 동남으로 뺨은가지
 쿨랄라 쿨라라 성주야
 황새봉학이 춤을추고
 쿨랄라 쿨랄라 성주야
 서방으로 뺨은가지
 여루여루 성주야
 황새덕새가 똥을싸서
 여루여루 성주야
 그나무로 비어다가
 여루여루 성주야
 어랑망태 들라놓고
 여루여루 성주야
 대짜구야 소짜구야
 여루여루 성주야
 대뎛배소뎛배 내어놓고
 여루여루 성주야
 넘어간다 넘어간다
 여루여루 성주야
 슬금슬금 툽질이야
 여루여루 성주야
 슬금슬금 툽질이야
 여루여루 성주야
 곱은나무는 곱다듬고
 여루여루 성주야
 곱은나무는 곱다듬고
 여루여루 성주야

63) 낮 설을레라. 낮 설을 것이라.

소도배대도배 내어놓고
여루여루 성주야
상냥할냥을⁶⁴⁾ 마련하야
여루여루 성주야
앞짜강에 배들었네
여루여루 성주야
집대야 짐을실어라
여루여루 성주야
사구회관에 실어다놓고
여루여루 성주야
상냥성주 도리성주
여루여루 성주야
앞집에라 저어내어
여루여루 성주야
성주님을 모시로가자
여루여루 성주야
모시러가자 모시러가자
여루여루 성주야
성주님을 모시러가자
여루여루 성주야
앞에떠난 임사공아
여루여루 성주야
후채떠난⁶⁵⁾ 세존이타고
여루여루 성주야
셋째배는 성주님이 타신배라
여루여루 성주야
이성주님 모시다가
여루여루 성주야
노자가작아서 못가겠네
여루여루 성주야
이성주로 모시다가
여루여루 성주야

64) 상량을 할 나무를.

65) 후에, 즉 나중에 떠나는.

사구회관에 모시다놓고
여루여루 성주야
이집지은 삼년만에
여루여루 성주야
아들애기로 놓거들랑
여루여루 성주야
검사판사를 마련하고
여루여루 성주야
딸애기를 놓거들랑
여루여루 성주야
장생부인이 되어주고
여루여루 성주야
닭이라고 키우거들랑
여루여루 성주야
봉학이 되어주고
여루여루 성주야
소라꽃 피우거든
여루여루 성주야
온마대마가 되어주고
여루여루 성주야
개라고 키우거든
여루여루 성주야
잡살개가⁶⁶⁾ 되어주고
여루여루 성주야
성주님 지은절을
여루여루 성주야
천년성주 만년성주
여루여루 성주야

[옹듯이]

이집으로 좌정하소서

중년에 성주님 말년 성주신은 좌정하소서 [일동 박수] (청중: 잘했다.)

66) 샅살개가.

[녹산동 민요 48]

징거미 타령

이영애(여, 1938년생) 가창
2014년 2월 19일 채록
[녹산동(구 범방동) 사구마을회관]

에이요놈의 징검아⁶⁷⁾
내다리를 비어서 깽이전에⁶⁸⁾ 팔아도
니돈석냥 주꾸마
에이요놈 징검아
내팔을 비어서 까꾸리전에⁶⁹⁾ 팔아도
니돈석냥을 주꾸마
에이요놈의 앵금아
내입을 비어서 중의전에⁷⁰⁾ 팔아도
니돈석냥 주꾸마
내코로비어서 우구리전에⁷¹⁾ 팔아도
니돈석냥 주꾸마
내눈을 떼어서 구실전에도 팔아도
니돈석냥 주꾸마
내귀를 비어서 우리정년⁷²⁾ 하여도
니돈석냥 주꾸마
내머리를 비어서 달비전에 팔아도
니돈석냥 주꾸마
내턱을 비어서 붕금이전에⁷³⁾ 팔아도
장구석장은 주꾸마

67) 징거미는 '징거미새우'로 민물새우를 말한다.
68) 깽이 전에.
69) 갈고리 전에.
70) 얼버무리듯 말하여 정확한 어휘를 알 수 없다.
71) 오가리 전에. '우구리'는 오가리의 방언.
72) 정확한 어휘를 알아들을 수 없다.
73) 풍금 전에.

[녹산동 민요 49]

못갈 장가 노래

이영애(여, 1938년생) 가창
2014년 2월 19일 채록
[녹산동(구 범방동) 사구마을회관]

[창부터령 곡조로 부름] [청중들이 박수로 장단을 맞추어 줌]
앞집에가서 궁합을보니
궁합에도 못갈장개
뒷집에가서 책력을보니
책력에도 못갈장개
서른아홉 아홉후에
첫장개를 갈라하니
알모강아지가 지어졌네⁷⁴⁾
아침을먹고 썩나서니
없던팔자에 장가길을
당일처를 썩나서니
신부죽었다 부고왔네
한손에 받았던부고
두손에받아 피어보니
한모랭이를 썩돌아서니
까막간치가 깎깎짓네
두모랭이로 썩돌아서니
철독밀에 울던야시가
철독우로 울고갔네
동네문전을 들어서니
서른서이 상두군이
곽짚다고 진동하네
대문전으로 들어서니
황초불을 날줄라고
지었던밥상

74) '짓어대네'의 뜻으로 보임.

이별이상을 돌려놓고
날줄라고 지었던베개
혼자베고서 잠들었네
달은상다지를 살퓌 열고
방문전으로 들어갔네
새별같이 곱던손이가
검보습이 된다말가
본질같이도 곱던얼굴이
섬보섬촉이⁷⁵⁾ 변할소냐
달은용정 달을깔고
혼차자기가 웬말이나
둘이뒹자 지었던이불
혼자뒹고 잠들었네
둘이베자 지었던베개는⁷⁶⁾
혼자베고서 잠들었네
양물상채 요강에는
발치주인이 되어있고
달은잠을 설치놓고
방문 열고 썩나와서
백모님요 백모님요
내신세내팔자 와이령소
야이사람아 왔거들랑
발치잠이라도 자고가게
백모장모 그말을마소
자면자고 말며는말지
발치잠이 당할소냐
여보게 이사람 그말을 말게
니아무리 답답다캐도
자석없는 날만할까
열씨구나 좋다 절씨구나 좋네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웃음] [일동 박수]

75) 정확한 어휘를 알 수 없다. 섬섬옥수와 같은 고운 모습이란 뜻으로 말한 것으로 보임.

76) 지었던 베개는.

[녹산동 민요 50]

댕기 타령[남녀 연정요]

이영애(여, 1938년생) 가창
2014년 2월 19일 채록
[녹산동(구 범방동) 사구마을회관]

[창부터령 곡조로 부름] [청중들이 박수로 장단을 맞추어 줌]

처녀총각을 맺을적에는
사주단장이⁷⁷⁾ 와야되고
상사전계⁷⁸⁾ 결혼을하면
성주흔서가 있어야되고
담장안에 널뛰다가
담장밖으로 넘어섰네
우리할매 자랑댕기
우리올키 눈치댕기
올오래이 용심댕기
단지동생 용천댕기
담장안에 널뛰다가
담장밖으로 넘어섰네
꾼아꾼아 서재꾼아
주완댕기를⁷⁹⁾ 나를도고
주왔기사 주왔지만은
너거부모 우리부모
허락없이 너를주까
아들딸을 분별을말고
당서이 놓거들랑
그댕기를 너를주마
주소주소 나를주소
주완댕기를 나를주소
주왔기사 주왔지마는
그집근본 허락없이 너를주까

77) 사주단자가.

78) 상사 전에.

79) 주은 댕기를.

한몸이 두몸되고
두몸이 한몸되어
사절단할때 너를주까
주소주소 나를주소
주완댁기를 나를주소
주기사 준다만은
청춘흙을 다보내고
당사고개를 넘어서면은 너를주까
주소주소 나를주소
주완댁기를 나를주소
아들딸을 키워서러
출가신청때 너를주까
주소주소 나를주소
주완댁기를 나를주소
말장우에 검뎡머리가
파뿌리가되면 너를줄까
주소주소 나를주소
주완댁기를 나를주소
반팔십이 넘어서고
황천갈때면 너를주까
주소주소 나를주소
주완댁기를 나를주소
니도늙고 나도늙고
청춘홍댁기 마주앉아
길을술질이 넘었는데
얼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네
아니 놀고 어이하리

[녹산동 민요 51]

시집살이 노래(1)[밭매기 노래]

이영애(여, 1938년생) 가창
2014년 2월 19일 채록
[녹산동(구 범방동) 사구마을회관]

저기라 하는일은
 시집이라고 가고보니
 시어머님 하는말씀
 아가아가 메늘아가
 골밭삼밭을 매고온나
 삼사월 진진해에
 한골매고 두골매니
 삼사결을 덮어서매니
 동쪽에 돋았던해가
 서쪽으로 넘어섰네
 집이라고 찾아오니
 시어머니 하는말씀
 아가아가 메늘아가
 정지문에 니들어가서
 열두가지 반찬을만들어
 밥상으로 올리주게
 열싸소리를 내리듣고
 시아버님에 찾아가니
 여보시오 아버님요
 어찌하면은 좋을까요
 어라아가 그말을마라
 너거시모 하자는대로
 거여너를 따르거라
 또한방문을 돌아치고
 시동상한테 들어오니
 여보세요 도련님요
 어찌하면은 좋을까요
 여보세요 형수님요
 대충해여서 먹어보쵸
 한다만은 딱나와서
 시누부한테 찾아가니
 대살시럽은 시누부가
 여보세요 아가님요
 어찌하면은 좋을까요

내한테다 물으나마나
엄마하는대로 따라가지
달은방문을 또다시달고
낭군님방을 들어가니
여보세요 서방님요
한끼때를 어짬까요
어라 이사람아 그말을마라
한끼때를 안묵으면 어떡하면은
먹으면은 어짬거고
아기젓이나 절로주라
열씨구나 좋다 절씨구
아니 노지를 못하리라

[녹산동 민요 52]

시집살이 노래(2)[사촌형 노래]

이영애(여, 1938년생) 가창
2014년 2월 19일 채록
[녹산동(구 범방동) 사구마을회관]

성아성아 올키성아
시집살이가 어땡더노
몽글몽글 수박개우
밥담기도 예럽더라
동글동글 도래판에
수제놓기도 예럽더라
꼬추당추가 맵다해도
시집살이가 더매우리
성아성아 올키성아
니도가이 그렇더나
나도오이 이렇더라

[녹산동 민요 53]

각설이 타령

이영애(여, 1938년생) 가창
2014년 2월 19일 채록
[녹산동(구 범방동) 사구마을회관]

[청중들이 박수로 박자를 맞춤]

어씨구씨고 들어간다
괴기전으로⁸⁰⁾ 들어가니
괴기뿌시내기는⁸¹⁾ 내차지
어허 품아라 각설아
기생방으로 들어가니
기생뿌시래기는 내차지
어허 품아라 각설아
어씨구씨구씨구 들어간다
일자로 한자나 들고나보니
일선에가신 우리낭군
돌아오기만 기다린다
어허 품아라 각설아
이자로 한자나 들고나보니
이북에있는 김일성아
하루바빠 손들어라
어허 품바라 각설아
삼자로 한자나 들고나보니
삼천만의 괴뢰군이
평화되기만 기다린다
어허 품아라 각설아
사자로 한자나 들고나봐
사천리밖에 대포소리가
금수강산에 울려든다
어허 품아라 각설아
오자로 한자나 들고나보니

80) 고기 전으로.

81) 고기 부스러기는.

오괴군에 오기가나서
철처지를 헤어보자
어허 품아라 각설아
육자로 한자나 들고나보니
육이오 동방에 집을지어
거러지 생활이 웬말이나
어허 품아라 각설아
칠자로 한자나 들고나보니
칠십리에 팔자가 더러워
혼자되기가 웬말이나
어허 품아라 각설아
팔자로 한자나 들고나봐
팔십리에 울음소리
천지조선을 다올린다
어허 품아라 각설아
구자로 한자나 들고보니
구구사절을 다채와서
일기서장을 써서보자
어허 품아라 각설아
장자로 한자나 들고나봐
장개간 첫날밤에
소집영장이 웬말이나
어허 품아라 각설아 [웃음]

[녹산동 민요 54]

모심는 소리(5)

이영애(여, 1938년생) 가창
2014년 2월 19일 채록
[녹산동(구 범방동) 사구마을회관]

모시야적삼 안설펀에 함박꽃이 봉지를짚네
그꽃한쌍 딸라하니 호랑소리가 백락걸네⁸²⁾

82) 호령소리가 벼락갈네.

[녹산동 민요 55]

모 찌는 소리

이영애(여, 1938년생) 가창
2014년 2월 20일 채록
[녹산동(구 범방동) 사구마을 오갑득 댁]

둘러싸세 둘러싸세~에 이뭇자리로 둘러싸세
(받는 거는 인자.)
에와싸세 에와싸세~에 이뭇자리로 에와싸세

[녹산동 민요 56]

모심는 소리(1)

이영애(여, 1938년생) 가창
2014년 2월 20일 채록
[녹산동(구 범방동) 사구마을 오갑득 댁]

사대장같은 이뭇자리~이 장기야판마침 남았구나
장기야판이사 좋다만으~은 돌이가없어 못두겠네
(조사자: 그래, 그래 장기판이 있으면 같이 돌 사람이 없으카네 못 두겠네.) (예.)

알곰삼사 고운독에~이 누룩을썬어서 금청주네
팔모로깎았다 유리잔에~에 나비가앉아 권주하네
(조사자: 허이구 좋다. 아하. 그거 안자 다 모 찌고 아침에 안자 모 심으면서 부르는 노래.) (야. 그 이 심으면서 다 알곰삼사 곱은 독에 누룩을 썬어 금청주다 팔모로 깎았다 유리잔에 나비가 앉아 권주하네. 나부가 얇으니까 누가 안 하겠습니까? 나부가 앉아 권주하네.) (조사자: 그렇지.)

알곰삼사 곱운처자~아 동사지곡으로 넘나드네
올적갈적 빛만보고~오 군자야간장 다녹힌다

물꼬랑처정청 혈어놓고~오 주인네양반 어디로갔소

문어야전복을 오리들고~오 첩우방에 놀러갔네

임이가죽어서 연자가되어~어⁸³⁾ 춘색끝에 집을지여
날면보고 들면봐도~오 임인줄을 내몰랐네
서울갔던 선부들아~아 우리선부 안오더나
오기사야 온다만으~은 철성판에 실리오네

[녹산동 민요 57]

진주난봉가

이영애(여, 1938년생) 가창
2014년 2월 20일 채록
[녹산동(구 범방동) 사구마을 오갑득 댁]

울도담도 없는집에
시접삼년을 살고나니
시어머니 하시는 말씀
아가아가 메늘아가
너거낭군을 보실라거든
진주남강에 빨래가라
진주남강 빨래를가니
돌도좋~고 물도좋아
검은빨래는 검기다씻고
흰빨래는 희기씻어
난데없는 발자죽소리
얼거덕철거덕 나는구나.
하늘같은 갓을씩고
구름같은 말을타고
몬볼치를⁸⁴⁾ 지나가네
돌도좋고 물좋은데
흐르는강은 살레물에⁸⁵⁾

83) 임이 죽어서 연자(燕子)가 되어. 연자는 제비를 말함.

84) 못 본 체로.

85) 시냇물예.

오동통통 푸드리빨아
 집이라고, 돌아오니
 시어머니 하시는말씀
 아가아가 메~늘아가
 너거냥군을 불러거든
 아랫방으로 내리서라
 끈도열두천에 줄을쳐서
 껌등빨래는 껌기다널고
 흰빨래는 희기널어
 약수야대로 도와서놓고
 웃방을 올라와서
 하비단저고리 접저고리
 성노야짓을 달아입고
 호박단치마⁸⁶⁾ 양주치마는
 성노야주름을 잡아입고
 칠부단장 곱기다하고
 아랫방으로 내리서니
 방문을 열고 살펴보니
 냥군님이 계시는데
 기생첩으로 옆에다놓고
 오색가지 안주놓고
 그꼬라지가 뵈기가싫어
 달은방문을 다시닫고
 양노청으로 올라와서
 열두철 틈마루에
 복판지동을 안고돌고
 명지수건 석자야수건을
 목을매여서 죽었다네
 아랫방에 서방님으는
 버신발로 뛰어나와
 기생첩으는 삼년이고
 본댁첩으는 백년인데
 니그럴줄 내몰랐네
 열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네
 태평성대가 여기로다

86) 호박단은 비단의 일종. 호박단 치마는 비단치마를 말함.

[녹산동 민요 58]

베 짜기 노래

이영애(여, 1938년생) 가창
2014년 2월 20일 채록
[녹산동(구 범방동) 사구마을 오갑득 덕]

베틀놓세 베틀놓세
옥난간에다 베틀놓세
오색칠부 가진베를
오색칠부 수를놓아
낮에 짜이면 월광단이오
밤에 짜이면은 하비단이요
월광단 하비단 다짜다가
정든님 와이샤스나 만들어볼까

[녹산동 민요 59]

아기 어르는 소리[불미 소리]

이영애(여, 1938년생) 가창
2014년 2월 20일 채록
[녹산동(구 범방동) 사구마을 오갑득 덕]

불미불미 불미야
이불미가 누불미고
경상도 쪼작방아
울릉둘릉 불미야
이불미가 누불미고
우리등청 불미로되
줄당살당 뺨을 까서
한토리는 니가먹고
한토리는 내가먹고
껍디기는 애기주고

보늬은 에미주고
알강달강
이불미야 대불미야
후락 딱딱 불어라
후락 불미야

[녹산동 민요 60]

아기 어르는 소리[금자동아 옥자동아]

이영애(여, 1938년생) 가창
2014년 2월 20일 채록
[녹산동(구 범방동) 사구마을 오갑득 맥]

금자동아 옥자동아
만수수간에 효자동아
금을준들 너를사리
은을준든 너를사리
나라에는 충신동아
부모에는 효자동아
행제간에는 화목동아
이웃간에는 우애동아
행제간에는 천길동아
동아동아 귀할동아
충신하을에 휘든동아
오동지석달 설한풍에
백설천부 후단동아
오뉴월청춘 덥은날에
결덕열시 효자동아
얼싸좋다 금자동아

[녹산동 민요 61]

아기 재우는 소리[자장가]

이영애(여, 1938년생) 가창
2014년 2월 20일 채록
[녹산동(구 범방동) 사구마을 오갑득 댁]

자장자장 잘도잔다
앞집개도 짓지마라
뒷집개도 짓지마라
우리동이 잘도잔다
멍멍개야 짓지마라
꼬꼬달카(닭아) 울지마라
우리동이 자는대는
아무개도 짓지말고
자장자장 자장개야
우리동이 자는대는
숨소리도 빌레라
우리동이 자는대는
금을준들 항일천지
잠자는데 헤어질까

[녹산동 민요 62]

방귀 타령(1)

이영애(여, 1938년생) 가창
2014년 2월 20일 채록
[녹산동(구 범방동) 사구마을 오갑득 댁]

아가동자 시집을오니
당구대를 붙잡고서
방구통통 끼는구나
(지동, 아!)
아버님요 지동잡아⁸⁷⁾
방구나오는 소릴레라.

87) 기둥 잡아.

올키아씨 누부야 지동잡아라
두둑방구 내나온다.
올키에는 두둑방구
시어머니는 양살방구
올키년에는 양기방구
가장에는 하늘방구
시아바시는 호랑방구
정상에는 지길방구
호간에는 친절방구
얼주문에는 오기방구
방구타령을 내가할까

[녹산동 민요 63]

방귀 타령(2)

이영애(여, 1938년생) 가창
2014년 2월 20일 채록
[녹산동(구 범방동) 사구마을 오갑득 맥]

발을갈고 논을갈고
상구흙을 둘러매고
뒤를따라 오는님은
내방구소리 들어보소
당신방구는 양살방구
내방구는 단방구요
(시아바, 영감방구는 양살방구고, 지 방구는 단방구라 카더랴요.)

[녹산동 민요 64]

비 노래[비야 비야 오지 마라]

이영애(여, 1938년생) 가창
2014년 2월 20일 채록
[녹산동(구 범방동) 사구마을 오갑득 맥]

비야비야 오지마라
우리새이 시집가면
다홍치마 어롱진다

비야비야 오지마라
칠월대한 가물음에
하룻비만 참아주문
우리새이 시집가는데
가매문에 비들치몬
다홍치마 어롱진다

[녹산동 민요 65]

풍뎡이 놀리는 노래

이영애(여, 1938년생) 가창
2014년 2월 20일 채록
[녹산동(구 범방동) 사구마을 오갑득 맥]

뱅뱅돌아라 핑뎡아⁸⁸⁾
돌아라 돌아라 핑디야
뱅뱅뱅뱅 돌아라
앵금소리 니가듣고
돌돌발에 돌아라
앵지발에 도래지면
앵처처를 니주꾸마

[녹산동 민요 66]

이갈이 노래

이영애(여, 1938년생) 가창
2014년 2월 20일 채록
[녹산동(구 범방동) 사구마을 오갑득 맥]

88) '핑뎡이'는 '풍뎡이'를 말하는데, 여기서의 풍뎡이처럼 생긴 작은 물방개를 말함.

간치야 간치야
헌니는 니가져가고
새이는 내도고⁸⁹⁾

[녹산동 민요 67]

몸 말리는 노래[해야 해야 나오너라]

이영애(여, 1938년생) 가창
2014년 2월 20일 채록
[녹산동(구 범방동) 사구마을 오갑득 댁]

해야해야 나온나
목욕등에 빠진사람
얼음얼어 죽겠다

해야해야 나온나
밝은 해야 돌아라
우리일신 목욕하문
상개얼음이 얼어죽는다

해야해야 나온나
밝은해야 나온나
구름속에 가지말고
일정월을 밝아지면
우리몸이 따뜻해진다

[녹산동 민요 68]

방아깨비 놀리는 노래

이영애(여, 1938년생) 가창
2014년 2월 20일 채록
[녹산동(구 범방동) 사구마을 오갑득 댁]

89) 새 이는 나를 다오.

연치야 방아찌라
싸래기 한대 주꾸마
한두번을 짚고보면
싸래기 두주먹 주꾸마
한번짚코 두번짚코⁹⁰⁾
거듭분을 찌바라⁹¹⁾

연치야 방아찌라
싸래기 한주먹 주꾸마
연치연치 연치야
방아한번 찌봐라
싸래기 한대 주꾸마

(연치야 방아 찌라 싸래기 주면 까딱 까딱 까딱 한다 이래 해쌌거든. 그러이 그거를 보고 연치야 연치야 방아 찌라 싸래기 한 대 주꾸마.)

[녹산동 민요 69]

이 빠진 아이 놀리는 노래[결치(缺齒) 노래]

이영애(여, 1938년생) 가창
2014년 2월 20일 채록
[녹산동(구 범방동) 사구마을 오갑득 덕]

아랫니빠진 개오지
웃니빠진 소오지
물밑에 송애새끼
뜨북따라 이빠진다
아랫니에 이빠진다
송구송구 빠진니는
물붕떨이 올리노몬
송구송구 올로오는데
어디다가 던지볼꼬

90) 한 번 짚고 두 번 짚고.

91) 거듭 여러 번을 짚어 보아라.

십리밖에 머리에
지불딱몰리⁹²⁾ 떴지면은
송구송구 올라온다

[녹산동 민요 70]

중머리 놀리는 노래

이영애(여, 1938년생) 가창
2014년 2월 20일 채록
[녹산동(구 범방동) 사구마을 오갑득 덕]

중아중아 까깔중아
대머리깎았다 까깔중에
올리깎았다 까깔중아
내리깎았다 까깔중아
몽글몽글 중놈아
산천에먼데이⁹³⁾ 올라가니
내리보니 릴리중아⁹⁴⁾
올라가니 오를중아
알롱달롱 어삭중아
꼬깔썩던 저울중은
몽글몽글 수박중아
애릴졌다 애릴중아
애어졌다 호애중아
각재졌다 까끌중아
열여열여 열여로
마을하늘 내리와서
집집마중 다니면서
까깔중에 동냥왔네
까깔중 주지마라
까깔중어는 사기로다.

92) '지불딱'은 지붕. '몰리'는 지붕의 꼭대기.

93) 산천의 꼭대기에.

94) '내릴 중아'라고 해야 할 것을 급하게 부르다가 얼버무리듯 '릴리 중아'라고 했다.

[녹산동 민요 71]

거지 놀리는 노래

이영애(여, 1938년생) 가창
2014년 2월 20일 채록
[녹산동(구 범방동) 사구마을 오갑득 댁]

봉아봉아 곁봉아
보리밭에 숨어라
해다졌다 나온나

봉아봉아 곁봉아
보리밭에 숨어라
해다졌다 나온나
애기동자 내릴지면
너거잡으러 내가간다
봉아봉아 곁봉아
해가졌다 나온나

(카고. 그거는 이거 저 곁뱅이.) (조사자: 아, 곁뱅이. 아, 거러지.) (그령이. 그령이,
예. 옛날에 곁뱅이 많았다 아입니까? 곁뱅이들 놀린다꼬.)

[녹산동 민요 72]

잠자리 잡는 노래

이영애(여, 1938년생) 가창
2014년 2월 20일 채록
[녹산동(구 범방동) 사구마을 오갑득 댁]

털기야 털기야
먼데가면 죽는다
붙던자리 붙어라

잠자리 위에
헐레털레 붙어지문

니한바리 잡아쥐고
내한바리 잡아쥐고
잠자리
털기야 털기야
먼데가면 죽는다
절에앉아 붙어라

[녹산동 민요 73]

뒤따르기 노래[어디까지 갔노]

이영애(여, 1938년생) 가창
2014년 2월 20일 채록
[녹산동(구 범방동) 사구마을 오갑득 맥]

서울땅 구울땅
어데마침⁹⁵⁾ 갔노
서울마침 갔다

서울땅 구울땅
어데마침 갔노
만주마침 갔다

서울땅 구울땅
어데마침 갔노
진주마침 갔다

서울땅 구울땅
어데마침 갔노
제주마침⁹⁶⁾ 갔다

(서울 땅 구울 땅 하몬 뒤를 전부 이래 문 열어서 서울 갔든지 오든지 문 열어라 춘
향아 카고 이래 딱 지내가고 이랬거던예.)

95) 어디까지.

96) 제주까지.

[녹산동 민요 74]

모심는 소리(2)

이영애(여, 1938년생) 가창
2014년 2월 20일 채록
[녹산동(구 범방동) 사구마을 오갑득 덕]

서마지기 이논빼미~이 반달만큼 남았구나
니가무슨 반달이냐~양 초생달이 반달이지
(조사자: 땀북땀북 찰수제비 사우야판에 다올랐네.) (아아.)
땀북땀북 수지비 사우야판에 다올랐네
딸년은 어데가고 [소리를 바꾸어]
할맘은 어데가고 딸을동기를 시켰든고

땀북땀북 수지비 사우야판에 다올랐네
껌은두지 떡을맨들에 사우넘을 다주고
할맘은 어데가고 개떡찜줄 모르던공

낭창낭창 베루끝에~에 무정하다 울오랍아
나도죽어서 남자되여~어 처자야근석을 섬길라네

아침이슬 채전밭에~에 불이똥꺾는 저큰아가
어느고을 총각을줄라 불이똥김치를 깊이담노

머리도좋고 실한처자~아 줄뽕낭게 걸았았네
줄뽕갈뽕 내따주마~아 백년언약 내랑맺자

밀양삼당⁹⁷⁾ 공노숲에~에 연밥따는 저큰아가
연밥이사 떠나따나~아 연줄이나 꺾지마라

모야모야 노랑모야~어 니언제커서 열매열래
이달크고 훗달커서~어 칠팔월에 열매열지

97) 밀양 삼랑진.

나물먹고 꽃밭가니~이 아니먹어도 술내가나네
추천당모랭이 썩돌아서니 꽃잎마다 향기가나네⁹⁸⁾

[녹산동 민요 75]

쾌지나 칭칭나네

이영애(여, 1938년생) 가창
2014년 2월 20일 채록
[녹산동(구 범방동) 사구마을 오갑득 맥]

치기나 칭칭나~네
얼씨구나 절씨구나
치기나 칭칭나~네
노자노자 젊어놀아
치기나 칭칭나~네
늙고병들면 못노나니
치기나칭칭나~네
우리가요래 잘놀다가
아~하 칭칭나~네
어느시절에 가실란지
치기나칭칭나~네
젊어닥고 유심하라
치기나 칭칭나~네
늙고젊고 내친구야
차별없이 놀아보자
치기나 칭칭나~네
인생백년이 산다해도
병든날과 잠든날을
아~하 칭칭나~네
허송없이 산다해도
당사십을 못사는인생
치기나 칭칭나~네

98) 향기가 나네.

청천하늘에는 잔별도많고
아~하 칭칭나네
요내가슴에는 수심도많다
아~하 칭칭나네
처녀총각 노는데는
아~하 칭칭나네
풋보리밭에서 정이들고
아~해나 칭칭나네
과부홀애비 정들적에는
아~하 칭칭나네
한이불밑에서 정이들고
아~하 칭칭나네
영감할맘 정들적에는
아~하 칭칭나네
담배꽂초에서 정이들고
아~하 칭칭나네
얼씨구나 절씨구나

[녹산동 민요 76]

화투 타령

이영애(여, 1938년생) 가창
2014년 2월 20일 채록
[녹산동(구 범방동) 사구마을 오갑득 맥]

정월속가지 속속한마음
이월매조에 맺아놓고
삼월사꾸라 산란한마음
사월흑사리 허사로다
오월난초 날으는나비
육월목단에 춤찰춘다
구월 (조사자: 칠월.) (아!)
칠월홍돼지 홀로나누워
팔월공산 달도밝다

구월국화 굳은마음
시월단풍에 떨어졌네
오동추야 달밝은데
비새를따라서 놀러가자

[녹산동 민요 77]

달거리 노래

이영애(여, 1938년생) 가창
2014년 2월 20일 채록
[녹산동(구 범방동) 사구마을 오갑득 맥]

정월이라 대보름에는
풍부보름이 왔있구나

이월이라 한식에는
앞뒤추천 다뛰는데
우리님으는 어디로가고
추천놀이를 모르던고

삼월이라 삼진날은
연자제비도 왕래하고
우리님으는 어디로가고
왕래할줄을 모르던고

사월이라 초파일은
집집마다 관등을달고
우리질을 밝히는데
우리님으는 어디로가고
관등달줄 모르던고

오월이라 단오일에
단오쟁피에 머리를감고
항지단장을 내하는데

우리님은 어디로가고
단장찾을줄 모르던고

유월이라 유딧날에⁹⁹⁾
유등일꾼들은 다노는데
우리님으는 어디로가고
웃놀이를 모르던고

칠월이라 칠석날에
견우직녀도 다놀고요
까막간치 다리를놓아
한번돌이 만내는데
우리님으는 어디로가고
화죽놀이를 모르던고
팔월이라 대보름에
화기중천을 모여서러
달맛이를 하건마는
우리님으는 어디로가고
달맛이를 모르던고

구월이라 구일날에
구월굿을 다있는데
우리님으는 어디로가고
구일중절을 모르던고

시월이라 상달인데
온갖짐승 다날라서
왕래줄을 하건마는
우리님으는 어디를가고
왕래줄을 모르던고

오동지라 동짓날에
팔죽을 끓였는데

99) 유월이라 유두날에.

우리님으는 어디를가고
팔줄시절을 모르던고

선달이라 그믐인데
온갓임으는 다오는데
갔던임도 다오는데
살아서야 오건마는
황천가신 우리님으는
어느때나 오실란고
명년삼월 춘삼월에
꽃도피고 잎패면은
호시절에 찾을란가

[녹산동 민요 78]

본조아리랑

이영애(여, 1938년생) 가창
2014년 2월 20일 채록
[녹산동(구 범방동) 사구마을 오갑득 댁]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아리랑 고개는 열두고개요
정든임 고개는 당고개로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녹산동 민요 79]

밀양아리랑

이영애(여, 1938년생) 가창
2014년 2월 20일 채록
[녹산동(구 범방동) 사구마을 오갑득 댁]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에에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정든임은 오셨는데 인사를 못해~에에
행주치마 입에물고 입만 방그~엇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에에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별이뿔네~에에 저달에 칠석님앞에 오신별인가 (인자 목이 가네.)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에에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밀양에 인연기는 영남로로 돌고
해추에 도는님은 나를안고 돈다~아아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에에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녹산동 민요 80]

모심는 소리(3)

이영애(여, 1938년생) 가창
2014년 2월 20일 채록
[녹산동(구 범방동) 사구마을 오갑득 댁]

서울이라 왕대밭에~에 금비둘기 알을낳네
그알하나 주았서면~은 금년과게로 내할구로
찢레꽃은 장개로가고 석누꽃은 배양간다
만인간아 웃지를마라~아 시종제로 바래간다

찢레꽃을 살꿈대쳐¹⁰⁰⁾ 임의야보선에 불걸었네
임을보고 보선을보니 임돌정이 전연없네

100) 살짝 대쳐서.

담장안에다 꽃을송거~어 담장밖으로 늘어졌네
질로가는 호걸양반~안 그꽃보고 질못가요

비뭍었네 비뭍었네~에 진주덕산에 비뭍었네
그것이가 비아니라~아 억만군사 눈물이요

저게가는 저구름아~아 어데신선 타고가노
웅천하고도 천차봉에~헤 노던신선 타고가요

저게가는 저구름아~아 비실었나 눈실었나
비도눈도 아니실고~오 소리명창 날실었네¹⁰¹⁾

해다지고도 저문날에~에 우연상부 떠나가네
이태백이 본처를두고~호 우연상봉 떠나가네

(백구는)¹⁰²⁾헐헐 재를넘고 나의갈길은 천리로다
말은가자고 굽을치고 임은날잡고 낙루하네

상사야초롱에 불밝혀라~아 저초롱불을 누가끄리
(아, 저 초롱, 아이다.)
상사야초롱에 불밝혀라~아 임의방에 놀러가자
임도눕고 나도눕고~오 저초롱불을 누가끄리

여기연당 연못안에~ 펄펄뛰는 금붕어야
금붕어잡아다 회쳐놓고~오 큰애기불러서 술부어라

은자녹자 다재치놓고 사기사잔에 술을부어
잡으시오 잡으나시오 이술한잔 잡으시오
이이야술을 술아니라~ 백년언약 금정수요

[녹산동 민요 81]

성주풀이

101) 나를 실었네.

102) 미처 녹음이 되지 않은 부분이다.

이영애(여, 1938년생) 가창
2014년 2월 20일 채록
[녹산동(구 범방동) 사구마을 오갑득 맥]

여루여루 성주님아
이성주가 누성주
하늘에 올라 옥황상제
성주본이 어드메든고
경상도 안동땅에
제비원님이 본일래라
강남간 제비나와
솔씨를 물어다가
거지(거제)제봉산에 던졌더니
그솔이 점점 자라나서
타박솔이 되었구나
타박솔이 자라나서
막막장송이¹⁰³⁾ 되었구나
막막장송이 자라나서
도리기둥이 되었구나
앞집에라 김대목아
뒷집에라 박대목아
서른세가지 연장망태에
어깨에 올려매고
뒷동산 치치달라
한등을 올라서니
아따그나무 바라보니
무성하기도 자랐구나
그나무 비어다 집을지면
까막까치가¹⁰⁴⁾ 똥을싸서
그나무도 부정하다
또한등을 넘어서니
그나무한송¹⁰⁵⁾ 바라보니

103) ‘낙락장송(落落長松)이’를 잘못 발음함.

104) 까막까치가.

105) 그 나무 한 송(松).

무성하기 자랏구나
 그나무 비어다 집을지문
 까막간치가 똥을싸서
 그나무도 부정하다
 또한등을 넘어서니
 그나무한줌 바라보니
 무성하기도 자랏구나
 동방으로 뺨은가지
 봉학이앉아¹⁰⁶⁾ 춤을추고
 서방으로 뺨은가지
 황새덕새가 춤을춘다
 김목수야 김목수야
 서른세가지 연장망태
 땅에놓고 지치달라
 옷은벗어 낭게걸고
 갓도벗어 낭게걸고
 대짜구 소짜구 내여놓고
 대더패 소더패 내여놓고
 장자지치에 톱을내어
 넘어간다 넘어간다
 슬금슬금 톱질이야
 슬금슬금 넘어간다
 슬금슬금 톱질이
 굽은나무는 굽다듬고
 굽은나무는 굽다듬고
 석자시치 자를놔야
 양에상여를 따담어서¹⁰⁷⁾
 집에라 떼짐꾼아
 이나무를 실어보자
 상체항체를 견어실고
 상두베로 둘러치고
 한점섬으로 들어오니

106) '봉황이 앉아'를 '봉학이 앉아'로 말했다.

107) 다듬어서.

양에사를 풀어놓고
터나한번 뚫아보자
짜십지 터를뚫아
상먹을 둘러치리
연기처를 사들쳐서
상이상덕을 지은집을
이를지은 삼년만에
성주님이 모를쏘냐
앞강에 뜨신배는
준상에 타신배고
두채에¹⁰⁸⁾ 타신배는
임선보살이 타신배고
세채에 타신배는
성주님이 타신배라
모시러가자 모시러가자
성주님을 모시러가자
노자가작아서 못가겠네
노자가작아서 못가겠네
성주님을 모시러가자
성주님을 모시다가
상칸집에 좌정하야
이집지은 삼년만에
아들애기도 놓거들랑
검사판사를 마련하고
딸애기를 놓거들랑
장생부인을 마련하고
개라꼬 키우거든
삽살개가 되어지고
달이라꼬 키우거든
봉학으로 만들어주고
집지은 성주님요
천년성주 만년성주
좌정하소 좌정하소
성주님이 좌정하소

108) 두 번째 배에.

[녹산동 민요 82]

객귀물리는 소리

이영애(여, 1938년생) 가창
2014년 2월 20일 채록
[녹산동(구 범방동) 사구마을 오갑득 댁]

허~어 허세~

잡고잡신은¹⁰⁹⁾ 물알로 가고 여계 있는 귀신들아, 몬 묵고 간 묵은 귀신들아 여계 와서 마이 묵고 이 대줄로서 썩 물러가거라. 안 가몬 큰칼로 목 찌르고 작은칼로 베어서 엄나무 판에 뚜두리서러 쇠감태를 덮어씌고 향구종신도 몬 하구로 할텡깨 어세!

어세!

작고잡신은 물알로 가고 객구 떠는 몬 묵은 귀신들아 몬따 묵고 개따 묵을 귀신들아 여기와서 마이 묵고 오늘 저녁에 선살문 아무것이 머리에 둘러써서 썩 썩 물러가거라. 무태가 들어서 향구종신도 못 하구로 맨들 테이니까 안 가몬 오늘 저녁에 마 큰칼로 목 찌르고 작은 칼로 회를 떠서 엄나무판에 뚜들기서 향구종신도 몬 하구로 허세! (카고.)

(은 데 인제 둘러가지고 마 탁 저녁걸에¹¹⁰⁾ 하고 난 뒤에 인자 불로 가지고 짚을 가 불가지고 확 해뽀다. 김치 건데기 열고, 밥 열고, 막 오만 거 마 술 열고, 온갖 잡치기 열어가지고, 그래가 그 물로 갖다 입을 딱, 방애가 앓아가 입으로 물로 세 번 떠루고(떨어뜨리고), 떠라가 그래가 마 이 물렀다.)

[녹산동 민요 83]

조왕풀이

이영애(여, 1938년생) 가창
2014년 2월 20일 채록
[녹산동(구 범방동) 사구마을 오갑득 댁]

109) 일반적으로 “잡귀 잡신은”이라고 부른다.

110) 저녁나절에.

여루여루 조왕아
천련조왕 만련조왕¹¹¹⁾
조왕본님이 어데든고
황제조왕 천제조왕
주식조왕 형제조왕
부운조왕 조왕신아
천년으로 좌정하고
서말사치
서말솔에 서말닷되
한때요는 두말닷되
두때요는 서말닷되
일천석을 불아내고
일만석을 불아내고
성주조왕이 어드메든고
정주일원 일원조왕
일월신에 떠돈조왕
만년하고 좌정하소

[녹산동 민요 84]

용왕풀이

이영애(여, 1938년생) 가창
2014년 2월 20일 채록
[녹산동(구 범방동) 사구마을 오갑득 댁]

(그러면 용왕 용왕 먹이는 거 한 번.)
여루여루 요왕아¹¹²⁾
낙동강에 살신요왕
우물에는 거북요왕
물밑에는 황금요왕
천성요왕 지와요왕

111) 천년 조왕 만년 조왕.

112) 용왕아.

동해밭에 요왕님요
남해밭에 요왕님요
서해밭에 요왕님요
북해밭에 요왕님요
동서남북 요왕님요
사해요왕 팔발요왕
용궁요왕 지신요왕
천년요왕 ○○요왕¹¹³⁾
일국국에 요왕님은
만년으로 수진하고
압록강에 배를 띄와
수신으로 보거들랑
요왕님이 받들어서
만년하고도 요왕님요
천궁요왕 곱슬요왕
지하요왕 천상요왕
대부요왕 황금요왕
발탈라 요왕
한신요왕 일신요왕 ○○요왕
사해요왕 좌정하소

[녹산동 민요 85]

장독풀이

이영애(여, 1938년생) 가창
2014년 2월 20일 채록
[녹산동(구 범방동) 사구마을 오갑득 맥]

여루여루 장독아
천년장독 만년독아

113) 얼버무리듯 말해서 알아들을 수 없음.

하늘에올라 옥황상제
천년좋은 장독하나
천년일신 장독하나
주야로 밤이슬맞고
천년조왕 옥황상제
나리시든 옥황상제
집집마다 장독마다
장독간에는 꿀을치고
장~따세 장따세
일흔여덟에 장따세
사십팔일에 장따세
일흔구일에 장따세
여든육일에 장따세
장~따세 장따세
([웃으며] 이람니더.)

[녹산동 민요 86]

마굿간풀이

이영애(여, 1938년생) 가창
2014년 2월 20일 채록
[녹산동(구 범방동) 사구마을 오갑득 맥]

여루여루 마구야
산지전언은 천만마구
마구중에는 천년마구
꽃마마구 대원마구
말년마구¹¹⁴⁾ 일십마구
구만마구 정기(?)마구¹¹⁵⁾
삼칠겘이 자라나서
이집먼저 살림보라

114) 만년 마구.

115) 빠르게 얼버무리듯 말해서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없다.

정기를 우만마구
지신님네 좌정하고
마구마다 옴마되고
마구마다 자라나서
풍년허기를 맞이주고
삼칸개화를¹¹⁶⁾ 만들어서
앞눈에는 뒷논사고
뒷눈에는 앞들사서
마구성님의 덕이로다
일년하고는 열두달에
삼백하고는 구십일에
안가태평 하옵시고
잡고잡신은 몰알로
만복으는 이리로

[녹산동 민요 87]

잠 노래

이영애(여, 1938년생) 가창
2014년 2월 20일 채록
[녹산동(구 범방동) 사구마을 오갑득 덕]

잠아잠아 오지마라
삼사월 진진해에¹¹⁷⁾
잠못자고 몬살래라
동지석달 긴긴밤에
사울겘이 긴긴밤에
잠몬자고 날새울까
삼사월 진진해에
임을잃고 살아도
배끓고는 몬살래라

116) 삼 칸 기화를. “삼 칸 기와집을”의 뜻.

117) 긴긴 해에.

앞입구를 깨물어서
상가래를 끼어다가
줄이줄이 잇어다가¹¹⁸⁾
삼치를 만들어서
잔재꼭기를¹¹⁹⁾ 베를짜와
일심겜이 꼭끼입고
열두도꼭 도꼭짜나
가지가지 매워서러
가는님의 영을맺어
황천길을 당할소나

[녹산동 민요 88]

물레 노래

이영애(여, 1938년생) 가창
2014년 2월 20일 채록
[녹산동(구 범방동) 사구마을 오갑득 댁]

물레야 물레야 돌아라
빙빙 빙빙 돌아라
앉아 자서면 장천리고
서서 보며는 구만린데
물레야 물레야 돌아라
밤낮으로 도는물레
일치가천 도는물레
깊이 들어서 도는물레
천리 밖으로 도는물레
만고일신에 노든 물레
이물레를 잣아서러
누구를 주어보꼬
삼베닷새 왕닷새로
길이깊이 잣아다가

118) 줄줄이 이어서.

119) 뜻을 알 수 없다.

왕실베틀에 올려놓고
일월천창 베를짜서
이두르를 누를주꼬
금도령아 옥도령아¹²⁰⁾
이두릉을 내리주까
금지한필을 누를주꼬
옥동자를 내리주까

[녹산동 민요 89]

양산도

이영애(여, 1938년생) 가창
2014년 2월 20일 채록
[녹산동(구 범방동) 사구마을 오갑득 댁]

에헤에헤헤~이여~어어
양산도 물레방아 물을안고~오 도~올고~오오
우리집에 올언님은 나를안고~오 도~온다~아
에야라~ 놓아라 둥게디여라 아니나 문노리~이
열이열놈이 다죽어도 나는 못노리~이다

에헤에헤헤~이요~오
양산읍네 물레방아 나를안고~오 도~올고~오오
모지랑빚자리 싹싹실어다 한강철교에 떠~네~에고~오¹²¹⁾
있는정도 없는듯이 잘살아보~오~자~아
세월세월아 봄한철아 오고가지를 마~아라~아~아
알뜰한 내청춘 다늬어가~안~다
세월안자~안저이 우리청춘이~이요오~오
연전에 드는님은 나를보고 이~있다

에헤헤헤이~요~오
정깃불 밝아서 임보기 조~올고~오

120) 금도령아 옥도령아.

121) '던져버리고'의 뜻으로 부름.

신장로 널러서 질가기 조~올네~에
에야라~ 놓어라 등게디여라 아니나 못노리~이

철까지 담장은 높아야 조~올고~오
술집에 아줌마씨 고와야 조~올다 [웃음]

[녹산동 민요 90]

뱃노래

이영애(여, 1938년생) 가창
2014년 2월 20일 채록
[녹산동(구 범방동) 사구마을 오갑득 댁]

에야~라야노~야 에야~라야노
어기~여차 뱃놀이 가잔다
남물이 들~었네 남물이 들~었네
이산저산 진달래꽃이 남물이 들~었네

에야~라야노~야 에야~라야노
어기~여차 뱃놀이 가잔다
십오야 보름달 구름속에 놓고요
이구십팔 큰애기는 요내품에 논다네

에야~라야노~야 에야~라야노
어기~여차 뱃놀이 가잔다
니가죽고 내가살머는 열녀가 되느냐
한강수 깊은물에 폭빠져 죽지요

에야~라야노~야 에야~라야노
어기~여차 뱃노래 가잔다
처녀 총각은 달맞이 가고요~오
우리늙은 할매들은 달구경 간다네
에야~라야노~야 에야~라야노
어기~여차 뱃노래 가잔다

[녹산동 민요 91]

사발가

이영애(여, 1938년생) 가창
2014년 2월 20일 채록
[녹산동(구 범방동) 사구마을 오갑득 댁]

석탄백탄 타는데~에 연기는퐁퐁 나고요
요내가슴 타는데~에 연기도짐도 아니난다
어허야 에헤야

청천 하늘에 잔별도 많고
우리 가슴에는 수심도 많다
에야 디야 에야라

[녹산동 민요 92]

청춘가

이영애(여, 1938년생) 가창
2014년 2월 20일 채록
[녹산동(구 범방동) 사구마을 오갑득 댁]

이팔 청춘에이요 대동강 풀리고~오
당신의 한말씀에 좋~다 요내가슴 풀린다~아

세월아~ 봄철아~ 오고가지를 말어라
아까운 우리청춘은 좋~다 다늬어 가노라

물이러~ 가는채로~이요 술걸러서 이고요~오
오동나무 숲속으로 좋~다 임보러 간다네~에

[녹산동 민요 93]

창부타령

이영애(여, 1938년생) 가창
2014년 2월 20일 채록
[녹산동(구 범방동) 사구마을 오갑득 맥]

아니~이 소지를 못하리라
아니야 노지를 못하리라
화초동방¹²²⁾ 첫날밤에 부끄럼도 물러나서고
남군님 손목을 답석잡고
들어가오 들어가오 내자는 상방을 들어가오
제치다보니 백지장판 내리다보니 각지야장판
두통베개 마주다놓고 잠자기 좋으라 채렸는데
주모상을¹²³⁾ 양머리다놓고
니도먹고 나도묵고 양조소리를 니가먹고
댕기머리 풀어주고 양진고름 풀어내고
너와나와 만날적에 백년을살자고 만났는데
백년기약은 간곳이없고 이별숫자만 남았구나
얼씨구 좋다 지화자 좋네 아니 놀지를 못하리라

(아니 아니 아니야 노지는 못하리라
하늘과같이 넓은사랑.)¹²⁴⁾ 하해와같이 높은사랑
칠월대한 가문날에 빗방울같이도 반긴사랑
이사랑 저사랑 다제치놓고
양여상에는 양귀비요 이도룡에는 춘향이라
일년삼백육십일을 하루만 못봐도 못살겠네
얼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네 아니 노지를 못하리라

얼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네 아니 노지를 못하리라
백구야훤훤 날지를마라 너를쫓아서 내안간다
성산이 바로 선들 너잡으로 내안간다

나물을먹고 물을마시고 팔을베고서 누웠으니
장부야 살림살이가 요만하며는 넉넉하지
일천간장 맏힌설음 부모님간장만 다눕힌다
얼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네 요로کم 좋다가 다팔겠네

122) 화촉동방(華燭東方).

123) 주안상을.

124) 미처 녹음이 되지 않은 부분이다.

[녹산동 민요 94]

노랫가락

이영애(여, 1938년생) 가창
2014년 2월 20일 채록
[녹산동(구 범방동) 사구마을 오갑득 댁]

(추천당 세모진낭게.)¹²⁵⁾ 오색당사에 그네를매여
임이타이면 내가나밀고 내가타이며는 임이민다
임아임아 줄미지마라 줄떨어지며는 정떨어진다~

(조사자: 나비야.) 청산을가자 노랑나비야 너도가자
가다가 날저물면 꽃밭속에서 자고가자
꽃밭에서 푸대접하이며는 앞에라도야 자고가자~

에~
꿈아꿈아 무정한꿈아 왔신님으로 왜보내나~
오신님을 보내지말고 잠든이몸을 깨와주지~
일후에 또다시오이면은 잠든이몸을 깨와주소~

[녹산동 민요 95]

논매는 소리

이영애(여, 1938년생) 가창
2014년 2월 20일 채록
[녹산동(구 범방동) 사구마을 오갑득 댁]

오에야 오~호 아니야 오~호
청단으는 논을매고
북끝에는 줄을달아
오헤야 오헤야 오~호 지야 오~호

125) 미처 녹음이 되지 않은 부분이다.

[녹산동 민요 96]

망개 소리

이영애(여, 1938년생) 가창
2014년 2월 20일 채록
[녹산동(구 범방동) 사구마을 오갑득 댁]

천년망개는 공중에놀고
어허 철영 가래야
천개연은 드릴레라
만처천을 다시하소
어허 철영¹²⁶⁾ 망개야
먼데사람 듣기좋고
절에사람 하기좋고
천년 울선 망개야

[녹산동 민요 97]

모심는 소리

강계정(여, 1934년생) 가창
2014년 2월 17일 채록
[녹산동 산양마을회관]

아척(아침)이슬에 모이친구~이 해다지니 이별이네
석자수건 목에걸고~이 내일낮에 또만나세

석양은펼펼 재를넘고~이 나의갈길은 천리로다 (또 받아 하이소.)
말은가자고 굽이틀고~이 내갈길은 낙루를하네

[녹산동 민요 98]

방아깨비 놀리는 노래

126) 천년.

강계정(여, 1934년생) 가창
2014년 2월 17일 채록
[녹산동 산양마을회관]

아침거리 꿩꿩
저녁거리 꿩꿩
어서빨리 짚어라

[녹산동 민요 99]

풀국새 노래[산비둘기 소리 흥내 노래]

강계정(여, 1934년생) 가창
2014년 2월 17일 채록
[녹산동 산양마을회관]

[말하듯이]
풀국풀국 풀국새야
기집죽고 자식죽고
서당빨래 누가할꼬

[녹산동 민요 100]

모 찌는 소리

권선이(여, 1926년생) 가창
2014년 2월 17일 채록
[녹산동 산양마을회관]

한강수에다 모를부어~이 모찌기도 난감하네
(이래 또 받는소리는 받아야 되는데.) (조사자: [노래로] 하늘에다.)
(청중: [노래로] 하늘에다 모를.) (뭘꼬? 목화 심어.)
목화심어~이 목화따기 난감하네

[녹산동 민요 101]

모심는 소리

권선이(여, 1926년생)·정삼선(여, 1935년생) 가창
2014년 2월 17일 채록
[녹산동 산양마을회관]

[정삼선]

서마지기 논빼미가 반달같이 떠나 (떠나간다 카나?)

[권선이]

니가무슨 반달이나~이 초승달이 반달이지 이후후후후후

[녹산동 민요 102]

모심는 소리

권선이(여, 1926년생) 가창
2014년 2월 17일 채록
[녹산동 산양마을회관]

담넙에다 꽃을심어~이 담밖으로 넘어갔네 (또 받을래.)
질로가는¹²⁷⁾ 호걸양반~이 그꽃보고 질안가네

서월이라 왕대밭에~이 금비들기 알을놓네
그알하나 주았으면~이 금년과게 내할끼네

물고청청 혈어놓고~ 주인양반 어디갔노
문어야전복 손에들고~이 첩의방에 놀러갔네 이후후후후후

낭창낭창 베루끝에~이 무정하는 저오랍아
나도죽어서 남자가되어~이 처자곤석 심길라네

해다지고 저문날에~이 우연상부¹²⁸⁾ 떠나가노
이태백이 본처랑근¹²⁹⁾ 이별상부¹³⁰⁾ 떠나가네 예유후후후후

127) 길을 가는.

128) 웬 상부(喪夫).

129) 본처와.

130) 이별 상부(喪夫).

다풀다풀 다박머리~에이 해다진데 어디가노
우리~엄마 산소등에~에이 젓묵으로 나는가요
해다지고 저문날에~이 골골마도 연기나네
우리할맘은 어디가고~이 연기낼줄 모르논고 이후후후후

연줄가네 연줄가네~이 해다진데 연줄가네
그연줄을 따라가면~이 길잃던부모 만나는데

(또 하고 하께.)
아래웃방 침매들아¹³¹⁾ 연줄걷는 구경가자

[녹산동 민요 103]

아기 어르는 소리[금자동아 옥자동아]

권선이(여, 1926년생) 가창
2014년 2월 17일 채록
[녹산동 산양마을회관]

금자동아 옥자동아
만석산중¹³²⁾ 보배동아
부모한테 효자동아
가장한테 열녀동아
형제간에 우애동아
친척간에 화목동아
동네방네 구경동아
나라에는 충성동아
우리애기 잘도잔다
자장자장

[녹산동 민요 104]

비 노래[비야 비야 오지 마라]

131) 침녀(針女)들아. 침녀는 바느질하는 여자를 지칭함.
132) '만첩산중(萬疊山中)'을 '만석산중'이라 노래함.

권선이(여, 1926년생) 가창
2014년 2월 17일 채록
[녹산동 산양마을회관]

비야 비야 오지마라
우리언니 시집간데
가매꼭지 비들치고
비단처매 얼릉진다

[녹산동 민요 105]

풍뎡이 놀리는 노래

권선이(여, 1926년생) 가창
2014년 2월 17일 채록
[녹산동 산양마을회관]

핑디야 돌아라
나무시야 돌아라

[녹산동 민요 106]

모심는 소리

이상순(여, 1940년생) 가창
2014년 2월 17일 채록
[녹산동 산양마을회관]

(오늘낮에.)¹³³⁾ 점심반찬 무슨고기가 (정삼선: 무슨자반이.) 올랐든고
(조사자: 전라도라.)
전라도라 고성청에 마리마리가 올랐구나

133) 녹음이 미처 되지 않은 부분이다.

[녹산동 민요 107]

모심는 소리

선변인순(여, 1939년생) 가창
2014년 2월 14일 채록
[녹산동 성산마을경로당]

모야모야 노랑모야 니언제커서 열매열래 (모르겠다.)
이달크고 훗달크고 칠팔월에 열매연다

[녹산동 민요 108]

모심는 소리

송영자(여, 1934년생) 가창
2014년 2월 14일 채록
[녹산동 성산마을경로당]

낭창낭창 베루끝에~에¹³⁴ 무정하다 저오랍아
나도죽어 남자되여~이 처자근석을¹³⁵ 섬길라요

이논빼미 모를심어~이 금실금실 영화로세
우리부모 산수등에~이¹³⁶ 솔을심어서 영화로세

땀북땀북 수제비는 사우야판에 다올랐네
(이러 카모, 쟁인이.)
노란감태 덮어씨고 멀국먹기 더욱싫네

물꼬야청청 혈어놓고~오 주인네양반 어디갔소
문어전복 오리들고~어이¹³⁷ 첩의야방으로 놀러갔소 (이러 칸데.)
모시적삼 안섰안에~이 함박꽃이 피어있네 (이러 카모)

134) 벼랑 끝에.
135) 처자 권속을.
136) 산소 등에.
137) 오려 들고.

그꽃한송이 딸라하며~이 호랑소리가 벽락걸네¹³⁸⁾ (이라이.)

해다지고서 저문날에~ 산골마다 연기나네 (이러 카모.)

우리할맘은 어디가고~이 연개넬줄 모르는고

[녹산동 민요 109]

아기 어르는 소리[불매 소리]

조귀주(여, 1938년생) 가창
2014년 2월 19일 채록
[녹산동(구 미음동) 세산경로당]

불매불매 불매야
이불매가 누불매고
경상도 안동땅에
대불미요
불어라 딱딱 불미야
불어라 딱딱 불미야

[녹산동 민요 110]

다리 세기 노래[이거리 저거리 갓거리]

조귀주(여, 1938년생) 가창
2014년 2월 19일 채록
[녹산동(구 미음동) 세산경로당]

이거리 저거리 갓거리
동지맹근 주맹공¹³⁹⁾
도리집치¹⁴⁰⁾ 장두칸¹⁴¹⁾

138) 호령 소리가 벼락같네.
139) 동지 망근 주 망근.
140) 도래춤치. 즉, 도래주머니.
141) 일반적으로 '장도칼'로 부른다.

[녹산동 민요 111]

이 빠진 아이 놀리는 노래

조귀주(여, 1938년생) 가창
2014년 2월 19일 채록
[녹산동(구 미음동) 세산경로당]

앞니빠진 개오지
도랑건니¹⁴²⁾ 가지마라
송애새끼¹⁴³⁾ 놀란다

[녹산동 민요 112]

이같이 노래

조귀주(여, 1938년생) 가창
2014년 2월 19일 채록
[녹산동(구 미음동) 세산경로당]

까치야 까치야
헌니는 니가가고¹⁴⁴⁾
새이는 내다오

[녹산동 민요 113]

다리 세기 노래

박순기(여, 1934년생) 가창
2014년 2월 13일 채록
[녹산동(구 송정동) 송정할머니경로당]

142) 도랑 건너.
143) 송어 새끼.
144) 헌 이는 너 가져가고.

이거리 저거리 박거리
탱주망거 주망거
짹발이 해양근
도마김치 담은거
수마지 동지 끄떡 (이라대.)

[녹산동 민요 114]

모심는 소리

이소연(여, 1926년생) 가창
2014년 2월 13일 채록
[녹산동(구 송정동) 송정할머니경로당]

모야모야 노랑모야~아 언제커서 열매열래
이달저달 다지내고 칠팔월에 열매연다

물기는청청 혈어놓고~오 주인네양반 어딜갔노
문이야전복 왜와들고~오 첩우방에 놀러가네

[말하듯이]

뜸북뜸북 찰수제비 사우야판에 다올랐고
(뭐) (조사자: 우리 할멈 어데 가고.)
우리할맘 어데가고 해가져도 안오는고 (그것도 잊어뻘다.)

낭창낭창 베리끝에~에 무정하는 저오랍아
나도죽어~어 남자되어 처자곤석을 심기볼래¹⁴⁵⁾

[녹산동 민요 115]

모심는 소리(1)

145) 남자 되어 처자 식구를 섬겨볼래. 곤석은 '권속' 즉, 식구의 경상도 방언.

정재수(여, 1937년생) 가창
2014년 2월 13일 채록
[녹산동(구 송정동) 송정할머니경로당]

임이죽어서 연자가되어 춘색끝에다 집을짓네
들면보고 날면봐도~오 님인줄을 내몰랐네

오늘해가 요만되니~이 꼴짜마다 연기나네
우리야할멈은 어디를가고~오 연기낼줄 모르는가

모야모야 노랑모야 언제커서 열매열래
이달크고 훗달커서~어 칠팔월에 열매열래

청사초롱 불밝혀라~아 잊었던낭군이 다시온다
임도눕고 나도눕고~오 저초롱을 누가끄리
담안에다 꽃을심어~ 담밖으로 휘어졌네
길로가는 저양반 그꽃보고 길못가네

(조사자: 그 뭐 뒤에 받는소리가 어떻다고?) (그기 인자 길로 가는 저 양반 그꽃 보고 길 못가네.) (조사자: 길로 가는 저.) (저 양반.) (조사자: 저 양반.) (그꽃 보고 길 못가네.) (조사자: 길로 가는 저. 받는소리 한 번만 더 해보이소.) (형님이 하이소.) (청중: 나는 모르겠다.) (조사자: 메기는 소리는 했고. [노래로] 길로 가는 그죠?)

길로가는 저어 (청중: 호걸.) (호걸양반 그렇기.) 호걸양반 그꽃보고 길못가네

[녹산동 민요 116]

모 찌는 소리

정재수(여, 1937년생) 가창
2014년 2월 13일 채록
[녹산동(구 송정동) 송정할머니경로당]

한강수에다 모를부어~
서마지기 이논빼미 장기판만큼 남았구나 (또 인자 모르겠다 마.)

한강수에다 모를부어~어 모찌기가 난감하네
하늘에다 모를부어 (조사자와 청중: 목화 심어.) 목화따기가 난감하네

[녹산동 민요 117]

모심는 소리(2)

정재수(여, 1937년생) 가창
2014년 2월 13일 채록
[녹산동(구 송정동) 송정할머니경로당]

오늘낮에 점심반찬~ 무슨고기가 올랐는고
(또 그라고 뭐라더라.) (조사자: 전라도라 무슨 반찬.)
전라도라 (조사자: 자반 무슨.)

저기가는 저구름에~에 눈들었나 비들었나
(그래 카문.)
눈도비도 아니들고~오 소리아맹창 내들었네

[녹산동 민요 118]

다리 세기 노래[이거리 저거리 갖거리]

정재수(여, 1937년생) 가창
2014년 2월 13일 채록
[녹산동(구 송정동) 송정할머니경로당]

이거리 저거리 갖거리
동사맹근 도맹근
수무리 박구
돌 박구

[녹산동 민요 119]

풍뎡이 놀리는 노래

정재수(여, 1937년생) 가창
2014년 2월 13일 채록
[녹산동(송정동) 송정마을 송정할머니경로당]

돌아라
핑동아 돌아라
도리통아 돌아라
핑동아 돌아라

[녹산동 민요 120]

가재 노래

정재수(여, 1937년생) 가창
2014년 2월 13일 채록
[녹산동(송정동) 송정마을 송정할머니경로당]

논두렁밑에 가재야
해다졌다 나온나
옹골옹골 노다가
해다진줄 몰랐네
(그 모 송구고 할 때. 그럴 때 다 송가가지고.)

논두렁밑에 가재야
해다졌다 나온나
옹골옹골 노다가
해다전줄¹⁴⁶⁾ 몰랐네

[녹산동 민요 121]

징거미 타령

146) 해가 다 진 줄.

정재수(여, 1937년생) 가창
2014년 2월 13일 채록
[녹산동(송정동) 송정마을 송정할머니경로당]

야이눔아 징검아 내돈석냥 값아라
내뿔을 팔아도 니돈석냥 주꾸마

내사 깨이전에¹⁴⁷⁾ 팔아도 니돈석냥 주꾸마
에야대야 에야대야 [웃음]

[녹산동 민요 122]

이갈이 노래

정재수(여, 1937년생)·최복금(여, 1934년생) 가창
2014년 2월 13일 채록
[녹산동(구 송정동) 송정할머니경로당]

[정재수]
까치야
내이빨 가가고
새이빨 다오
(카고, 그래 딱 던진다 아임니까.)

[최복금]
헌니는 가가고
새이는 나도고 (카고.)

[녹산동 민요 123]

객귀물리는 소리

147) 꿩이전에.

정재수(여, 1937년생) 가창
2014년 2월 13일 채록
[녹산동(구 송정동) 송정할머니경로당]

허세이! [청중 웃음]

(열 십자 칼 가이(가지고).)

손 크고 발 큰 놈은 물 알로 가고 마른 거는 싸고 가고 젖은 거는 묵고 가고 헛세~!
물 알로 가라. 안 가몬 마 무쇠 감태로 씩울끼다. 예익!

(탁 던지뿌다.) [웃음] (조사자: 어! 그래 좀 하시네.) (그래가 칼이 인자 밖으로 나가몬
나간 기고, 안을 딱 들오몬 다시 또 물리야 돼예. 예. 칼 끝이 안을 보몬. 김치 꺾데기
로예 된장하고 밥하고 바가치다 밥 바가치 아임니꺼?) (청중: 그라몬 된장하고.) (된장
말아가지고.) (청중: 김치 꺾데기 띄아가 가져 오까?) (어어어. 말아가, 말아가지고 안자
그래 순가락 한 개 하고예 칼하고 딱 검어쥐는 기라. 물리는 사람이. 그라몬 첨에 마
다리로 콧 굴리면서 마.)

네 이놈! 안 나갈 것가? [청중 웃음] (그 웃으면 안대예, 그라는 데예. 안 나갑니더.)
(청중: 얹본다.) (딱 안 나간 때민에 웃지 말고, 이로 딱 다물고.)

이 이놈! 오늘 나갈 것가? 안 나갈 것가? 이놈! 오늘 마 니 안 죽으몬 내 죽는다. 마
무쇠 감태를 써아서 이놈을 마 항구 종신을 몬 하구로 맨들 기다. 이놈! 안 나갈 것가?
어세! 이놈! [웃음] (그란다 아님니꺼.)

[녹산동 민요 124]

비 소리[비야 비야 오지 마라]

정재수(여, 1937년생) 가창
2014년 2월 13일 채록
[녹산동(구 송정동) 송정할머니경로당]

비야비야 오지마라
우리새이 시집간다
가매문에 비들치몬
곱운옷에 어령진다
(그랬어.)

[녹산동 민요 125]

모심는 소리

진선희(여, 1933년생) 가창
2014년 2월 13일 채록
[녹산동(구 송정동) 송정할머니경로당]

모시야적삼 안섶안에 함박꽃이 봉지짚네
그꽃한쌍 딸라하니 호랑소리가 백낙갈네¹⁴⁸⁾

[녹산동 민요 126]

다리 세기 노래

최복금(여, 1934년생) 가창
2014년 2월 13일 채록
[녹산동(구 송정동) 송정할머니경로당]

이거리 저거리 갖거리
천근망근 두맹근
두맹근 당당 꽃박구
나그네 묵던 짐치국
천년말년¹⁴⁹⁾ 훌쩍국

[녹산동 민요 127]

이 빠진 아이 놀리는 노래

최복금(여, 1934년생) 가창
2014년 2월 13일 채록
[녹산동(구 송정동) 송정할머니경로당]

148) 호령소리가 벼락갈네.

149) 천년만년.

웃니빠진 개우지
우물가에 가지마라
아랫니빠진 개우지
우물가에 가지마라
(조사자: 붕어새끼.)
붕어새끼 놀란다

[녹산동 민요 128]

창부타령

김소선(여, 1937년생) 가창
2014년 2월 17일 채록
[녹산동(구 신호동) 신호경로당]

한풍아 불지마라
알뜰한 내청춘 다날아간다
얼씨구나 절씨구 기화자 좋네
기화자 바람에 돈잘신다

[녹산동 민요 129]

다리 세기 노래[이거리 저거리 갖거리]

김소선(여, 1937년생) 가창
2014년 2월 17일 채록
[녹산동(구 신호동) 신호경로당]

이거리 저거리 갖거리
진도맨도 또맨도
짜바리 해여라
웃도웃도 전라도
강산이 멀어라
하늘이 퍼뜩 지주 콩

[녹산동 민요 130]

너냥 나냥

김옥자(여, 1937년생) 가창
2014년 2월 17일 채록
[녹산동(구 신호동) 신호경로당]

우리오빠 떠다주는 베리베또 치~마
입었다가 벗었다가 다떨어진다
니노나뇨 두리둥실 나아요
밤이밤이나 낮이낮이나 참사랑이로구나

[녹산동 민요 131]

아기 재우는 노래[자장가]

김옥자(여, 1937년생) 가창
2014년 2월 17일 채록
[녹산동(구 신호동) 신호경로당]

자장자장 우리애기
잘도잔다 우리애기
앞집개도 짓지말고
뒷집개도 짓지말고
우리애기 잘도잔다
자장자장
꼬꼬달카¹⁵⁰⁾ 울지말아
우리애기 잘도잔다

[녹산동 민요 132]

파랑새요

150) 꼬꼬닭아.

김옥자(여, 1937년생) 가창
2014년 2월 17일 채록
[녹산동(구 신호동) 신호경로당]

새야새야 파랑새야
녹띠밭에 앉지마라
녹띠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시 울고간다

[녹산동 민요 133]

비 노래[비야 비야 오지 마라]

김옥자(여, 1937년생) 가창
2014년 2월 17일 채록
[녹산동(구 신호동) 신호경로당]

비야비야 오지마라
우리새이 시집간다
가매문에 비들치고

[녹산동 민요 134]

봄배추 노래

김춘자(여, 1936년생) 가창
2014년 2월 17일 채록
[녹산동(구 신호동) 신호경로당]

포름포름 봄배추는 밤이슬오도록 기다리고
옥에갠힌 춘향이는 이도령오도록 기다린다

[녹산동 민요 135]

양산도

김춘자(여, 1936년생) 가창
2014년 2월 17일 채록
[녹산동(구 신호동) 신호경로당]

양산읍내 물레방아 물을안고 도~올고~오
키크고 곱은총작 나를안고 도~올고~오
느능기를 찾아서 잘놀아 보~오~자

[녹산동 민요 136]

노랫가락

양경자(여, 1938년생) 가창
2014년 2월 17일 채록
[녹산동(구 신호동) 신호경로당]

녹음방천 음각들에 시대하는 저처녀야 (청중: 좋다.)
영녹아 낙녹을해도 돌아볼줄을 모르든가
안담하고 재담하고 제일보니 꽃을승가
희롱한들 이꽃대는

[녹산동 민요 137]

사발가

양경자(여, 1938년생)
2014년 2월 17일 채록
[녹산동(구 신호동) 신호경로당]

석탄백탄 타는데~에 연개만 풍풍나고요
요내간장 타는데~에 연개도짐도 아니나네

새끼백발은 공출로 가는데
사람의 백발은 설곳이 없네~
에헤야 데헤야~

[녹산동 민요 138]

모심는 소리

양경자(여, 1938년생) 가창
2014년 2월 17일 채록
[녹산동(구 신호동) 신호경로당]

모야모야 노란모야 니언제커서 열매맬래
이달크고 저달크고 칠팔월에 열매맬래

[녹산동 민요 139]

비 노래[비야 비야 오지 마라]

양경자(여, 1938년생) 가창
2014년 2월 17일 채록
[녹산동(구 신호동) 신호경로당]

비야비야 오지마라
(뭘꼬?) [잠시 멈추었다가]
우리새이 시집간다
가매눈에¹⁵¹⁾ 비들치고
인주처마 어릉진다¹⁵²⁾

[녹산동 민요 140]

쌍가락지 노래

이봉주(여, 1938년생) 가창
2014년 2월 17일 채록
[녹산동(구 신호동) 신호경로당]

151) 급하게 부르다 보니 ‘가매눈에’를 ‘가매눈에’로 잘못 발음했다.

152) 일반적으로 “행주처마 어릉(또는 어릉)진다”라고 노래한다. ‘어릉진다’는 ‘얼룩이 진다’의 뜻의 방언임.

쌍금쌍금 쌍가락지
호작질로 뚫아내니
먼데보니 (조사자: 달일레라.) 달일레 (아이구 잊어뵈는데.) 달일레라
절에보니 (청중: 수절레라.) 수절레라¹⁵³⁾
흥달바시 오라바시
그짓말씀 말아주소
핑풍이 디리불면
풍지떠는 소릴레라

[녹산동 민요 141]

아기 어르는 소리[불매 소리]

이봉주(여, 1938년생) 가창
2014년 2월 17일 채록
[녹산동(구 신호동) 신호경로당]

불매불매
이불매가 누불매여
김씨불매여
숫은 어데 숫이요
전라도라 높은봉에
([기억이 잘 나지 않는 듯] 하이구!)
왕솔나무 숫이요

불매불매
이불매가 누불매요
김씨네 불매요
숫은 어데 숫이요
전라도라 제롱새

153) 자신이 없는 상태에서 청중이 일어준 대로 노래했다. 일반적으로 '차잘레라'로 부른다.

불매불매
이불매가 누불매요
후락딱딱 불매야
후락딱딱 불매야

[녹산동 민요 142]

노들강변 비둘기 한 쌍

이봉주(여, 1938년생) 가창
2014년 2월 17일 채록
[녹산동(구 신호동) 신호경로당]

노들강변 비둘기 한쌍¹⁵⁴⁾
노란콩하나를 입에다물고
암놈숫놈 어르는소리
늙은과부는 한숨쉬고
젊은과부는 반붓짐싼다

4. 대저동 민요

[대저동 민요 1]

모심는 소리(1)

이봉선(여, 1936년생) 가창
2014년 2월 12일 채록
[대저1동 상리할머니경로당]

다풀다풀 다박머리 해다진데 어데가노
우리엄마 산소등에 젓먹으러 내가가요

154) 비둘기 한 쌍.

[대저동 민요 2]

모심는 소리(2)

이봉선(여, 1936년생) 가창
2014년 2월 12일 채록
[대저1동 상리할머니경로당]

모야모야 노랑모야 니언제커서 열매열래
이달크고 훗달크고 칠팔월에 열매

[대저동 민요 3]

모심는 소리(3)

이봉선(여, 1936년생) 가창
2014년 2월 12일 채록
[대저1동 상리할머니경로당]

물끼야청청 헐어놓고 주인네양반이 어데갔소
(뭘라 카노?) 이등저등 넘어서로 첩우야방에 놀러갔소

[대저동 민요 4]

모심는 소리(4)

이봉선(여, 1936년생) 가창
2014년 2월 12일 채록
[대저1동 상리할머니경로당]

해다지고 저문날에 우연행상이 떠나가요
이태백이 본처죽어 이별행상이 떠나가요

[대저동 민요 5]

모 찌는 소리

이봉선(여, 1936년생) 가창
2014년 2월 12일 채록
[대저1동 상리할머니경로당]

하늘에다 목화갈아 목화따기가 난감하요
한강수에 모를부어 모찌기가 난감하네

[대저동 민요 6]

아기 재우는 노래[자장가]

이봉선(여, 1936년생) 가창
2014년 2월 12일 채록
[대저1동 상리할머니경로당]

자장자장
우리아기 잘도잔다
검둥개야 짓지마라
우리아기 잘도잔다

[대저1동 민요 7]

진주난봉가

강명순(여, 1943년생) 가창
2014년 2월 11일 채록
[대저1동 신장로경로당]

울도담도 없는집에
시집삼년을 살고나니
시어마시 하시는말씀이
아가아가 며늘아가
너거낭군 불라카만
진주남강에 빨래가서
껌은빨래는 껌계씻고

흰빨래는 희게씻고
주점주점 담아이고
집이라꼬 찾아오니
(아이구 마, 다 잊어뻘다 마.)
비단처마 (참) 갈아입고
(뉘, 뉘라캐노? 아이고 나 까무뻘다.)
버선발로 뛰어나서러
흰빨래는 희게씻고
검은빨래는 검게씻고
주점주점 담아이고
집이라꼬 찾아오니
서방님이 (어 저 뉘이고? 아.) 기생첩을 옆에끼고
니먹어라 내먹어라
(이리 해서러 그래. 그래 마 목을 매 죽었어에 맞아예.)

[장영순]

년아년아 몯쓸년아
기생첩에 팔릴년아
기생첩은 삼년이고
본처는 백년이라
(안 하더나? 그래 그랬다.)

[대저동 민요 8]

모심는 소리(1)

성조이(여, 1931년생) 가창
2014년 2월 12일 채록
[대저1동 서연정경로당]

물꼬야청청 혈어놓고 주인네양반은 어데갔노
(저저 뉘꼬? 첩의 집에 갔다 카더나? [웃음] 물꼬 혈어놓고, 옛날에는 첩을 많이 뉘거
던, 그래나날이 그 주인양반이, 논 주인 양반이 물꼬만 이리 혈어놓고 첩의 집에 가고
짚아서, 옛날에는 사람을 두고 많이 살았거던. 포개 포개 살았거던. 그래가 그가 들어앉
아있는 바람에 물꼬 물이 들어갔는 줄도 몰랐는 기라.)

[대저동 민요 9]

모심는 소리(2)

성조이(여, 1931년생) 가창
2014년 2월 12일 채록
[대저1동 서연정경로당]

오늘날때 무슨반찬이 들올란고.
(청에¹⁵⁵), 전라도 청에라 카나?) 전라도청에 한상이올랐다.

[대저동 민요 10]

방귀 타령

성조이(여, 1931년생) 가창
2014년 2월 12일 채록
[대저1동 서연정경로당]

서방님방구는 웃을방구
시오마이방구는 양살방구
시누부방구는 (시누부 방구가, 옛날에는 시누부가 별났거던.) 양살방구
(양살방구, 서방님방구는 달고, 시오마이 시아바이는 저저 뭐꼬? 양살방구.)

[대저동 민요 11]

못 갈 장가 노래

성조이(여, 1931년생) 가창
2014년 2월 12일 채록
[대저1동 서연정경로당]

[청중]
앞집에는 궁합보고
뒷집에는 책력보고

155) 청어.

(맞다. 맞다. 옛날에는 장개 가고 시집 갔지. 그래가지고.)

궁합에도 못갈장개

사주에도 못갈장개

[성조이]

삼십살이

(몬 커가지고, 너무 불쌍케 커가지고, 그래 인자.)

삼촌집에 커가지고

장개질이 내띠서서

앞집에 궁합보고

뒷집에 책력보이

몬갈장개

(몬 갈 장개를 억지로 갔는 기라, 나가 삼십에, 옛날에 넘으면 많거든.)

갔더마는

한고개 넘어가니

야시질소리가 우는소리고

한고개를 넘어가니

(치고, 요새 사람 걸으면 배달이, 그 사람이.)

양손을 받아쥐고보니

신부죽은 부고로야

(다부.) 오던길로 돌아서

집을 돌아오니

(참.) 신부죽은 부고로서

삼촌요 다부돌아갑시다

[대저동 민요 12]

너냥 나냥

성조이(여, 1931년생) 가창

2014년 2월 12일 채록

[대저1동 서연정경로당]

오동나무 열매는 알칸달칸 열고요

처녀야 젓가슴은 몽실몽실 한다

니냥 나냥 두리둥실 놀고요
낮이낮이나 밤이밤이나 참사랑이로구나

신작로 널러서 질가기 좋고요
신작로 밝아서 임보기 좋네(청중: 도망 가기도 좋아.)
너냥 (아!)
신작로 널러서 신부신랑이 놀고요
낮이낮이나 밤이밤이나 참사랑이로구나

[대저동 민요 13]

진주난봉가

성조이(여, 1931년생) 외 가창
2014년 2월 12일 채록
[대저1동 서연정경로당]

울도담도 없는집에
삼년시집 살고나니
시오마이 하는 말씀
아가아가 며늘아가
밭골매고 오라카니
(저저, 밭을 매러 가니 남편이 없다 카나?)

[청중들이 함께 가창함]¹⁵⁶⁾
한골을매고 두골을매고
삼시세골을 매고나니
다른점심은 다나가도
요내점심은 아니오네
얼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다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156) 가창자가 <진주난봉가>를 가창하는 과정에 ‘진주 남강에 빨래가라’ 라는 대목을 “밭골매고 오라카니”로 잘못 가창하자 청중들이 연이어 신세한탄가로 바꿔 불렀다.

[대저동 민요 14]

화투 타령

성조이(여, 1931년생) 가창
2014년 2월 12일 채록
[대저1동 서연정경로당]

정월속가지 속속한맘은
이월매지에 맺어놓고
삼월사쿠라 산란한맘은
이월¹⁵⁷흑싸리에 (흠어, 저기 와.)¹⁵⁸
오월난초 나비가앉아
유월목단에 훌훌난다.
칠월홍돼지 홀로나누버
팔월공산에 달떠오네
얼씨구 좋다
(청중: 형님, 구월 국화 있는데.)
(어.) 구월국화 굳었던맘이
시월단풍에 뚝떨어지는데
얼씨구
오동추야 달밝은데
임의야생각이 절로나고 (옛날에 혼자 사는 사람들.)

[대저동 민요 15]

구멍 타령

손민임(여, 1930년생) 가창
2014년 2월 12일 채록
[대저1동 서연정경로당]

157) 가창자가 '사월'을 '이월'로 잘 못 가창했음.

158) 가사가 정확히 생각나지 않아 마무리 짓지 못했음.

저건너 딱가구리는¹⁵⁹⁾ 생나무구녕도 파는데
우리집에 저영감은 똥버논구녕도 모른다. [조사자 웃음]
어랑어랑 어허야

[대저동 민요 16]

그네 노래

손민임(여, 1930년생) 가창
2014년 2월 12일 채록
[대저1동 서연정경로당]

[청중들이 박수로 장단을 맞추며 함께 부름]
수천당 흐르는물에¹⁶⁰⁾ 오색가지로 근대를매어¹⁶¹⁾
내가뛰면 니가밀고 니가뛰면은 내가밀고
(뭐라 카노?) 임아임아 즐미지마라 정떨어지미는 즐떨어진다.

[대저동 민요 17]

사발가

손민임(여, 1930년생) 가창
2014년 2월 12일 채록
[대저1동 서연정경로당]

[청중들이 박수로 장단을 맞추며 함께 부름]
석탄백탄 타는데 연기퐁퐁 나는데
요내가슴 다타도 연기도짐도 안난다
에헤에이오 에헤에이야
아야라난다 지화자자 좋다
니가 내간장을 사리살살 다녹이나

159) 조사자가 “저건너 딱따구리는”라 첫 소절을 가창하자 그 소리를 받아 연이어 가창했음.

160) “세모진낭개”로 가창한 청중도 있었음.

161) 그네를 매어.

[대저동 민요 18]

쌍가락지 노래

손민임(여, 1930년생) 가창
2014년 2월 12일 채록
[대저1동 서연정경로당]

쌍금쌍금 쌍가락지 호작질로 닦아내어
먼데보니 질일래라 절에보니 처녀래라
(그 카고, 그거 끝에 가서도 모르겠네. 끝에가서 모르겠다.) (조사자: 그 처녀 자는 방에
숨소리가 돌일래라.)
(어.) 숨소리가 돌일래라
흥돌바시 오라바시 거짓말씀 말아시소
(조사자: 문풍지 떠는 소릴래라.)
(어.) 동남풍이 달이불어 풍지떠는 소립니다

[대저동 민요 19]

다리 세는 노래[이거리 저거리 갖거리]

손민임(여, 1930년생) 가창
2014년 2월 12일 채록
[대저1동 서연정경로당]

(조사자: 이거리 저거리 갖거리.)
진도맹근 도맹근
짜버리 히양근
도리춤치 장두 칼

[대저동 민요 20]

모심는 소리

손민임(여, 1930년생) 가창
2014년 2월 12일 채록
[대저1동 서연정경로당]

타박타박 타박머리 해다진데 어데가노
우리엄마 산소등에 젓목으러 나는간다
죽은엄마가 젓을주나 산엄마가 젓을주지

[대저동 민요 21]

노랫가락

손민임(여, 1930년생) 가창
2014년 2월 12일 채록
[대저1동 서연정경로당]

포롱포롱 봄배차는 밤이슬오기만 기다리고
옥에갠힌 춘향이는 이도령오기만 기다린다
얼씨구 좋구나 지화자 좋다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뎃잎같이 푸른소에 고기남는 저선부야
모시손을 반만들고 땀땀는것도 보기좋다.

[대저동 민요 22]

창부타령

이말임(여, 1932년생) 가창
2014년 2월 12일 채록
[대저1동 서연정경로당]

노세좋다 젊어서놀아 늙어지민은 못노나니
화무는 십일홍이요 달도차면은 기우나니
인생은 일장춘몽이 아니노지는 못하리라

[대저동 민요 23]

청춘가

이말임(여, 1932년생) 가창
2014년 2월 12일 채록
[대저1동 서연정경로당]

산천 초목아~ 니 잘있었나~
좋은세월이 돌아보면 헤~이
또다시 오는구나~
(에이구, 노래도 안 되는데 뭐.)
칠칠단풍에 굶은비는 줄줄오고~
일화연풍에~ 임섞어 노잔다~

[대저동 민요 24]

새타령

이말임(여, 1932년생) 가창
2014년 2월 12일 채록
[대저1동 서연정경로당]

저건네라 잔솔밭에 살살기는 저포수야
다른짐승 다잡아도 저비둘기는 잡지마라
(뭘라카노 또?)
(청중: 저산에 입을 잃고 입을 찾아서 살살맨다.)

[대저동 민요 25]

모 찌는 소리

김분녀(여, 1939년생) 가창
2014년 2월 11일 채록
[대저1동 신장로경로당]

서마지기 논빼미는 (이거 논 멘 거. 모 숨구도 논 멘 거.) 반달만치 남았구나
(모 찌면서 지업은께¹⁶²), 모찌면서 지업으니까. 그러면.)
네가뭇신 반달이고 초승달이 반달이지
(이가거든. 그러면 인자 남편이.)
니가무신¹⁶³ 반달이고 우런님이 반달이지

[대저동 민요 26]

창부타령(1)

김분녀(여, 1939년생) 가창
2014년 2월 11일 채록
[대저1동 신장로경로당]

백설걸은 흰나비는 부모님봉상을 입었던가
소복단장 곱기하고 장다리밭으로 꽃놀아든다

포롱포롱 봄배추는 밤이슬오기만 기다리고
옥에갠힌 춘향이는 이도령오기만 기다린다
얼씨구 절씨구 좋다 기화자 좋네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대저동 민요 27]

창부타령(2)[의암요]

김분녀(여, 1939년생) 가창
2014년 2월 11일 채록
[대저1동 신장로경로당]

진주명산 만장품에 바람이불어 쓰러진나무
눈비가 온다고 일어나리
송죽걸이 곧은절개 매맞는다고서 허락하리

162) 지켜우니까.

163) 니가 무슨.

이몸이비록 기생일망정 절개조차 없을쏜가
얼씨구나 절씨구 기화자 좋네
포로롱거리고 놀아보자

[대저동 민요 28]

노랫가락(1)

김분녀(여, 1939년생) 가창
2014년 2월 11일 채록
[대저1동 신장로경로당]

나물묵고 물마시고 팔을베고 누웠으니
대장군 살림살이 요만하면은 넉넉하지
얼씨구 절씨구 저얼씨구
지화자자 좋을씬다

[대저동 민요 29]

못 갈 장가 노래

김분녀(여, 1939년생) 가창
2014년 2월 11일 채록
[대저1동 신장로경로당]

앞집에서 궁합보고 뒷집에서 책력보고
궁합에도 못갈장개 책력에도 못갈장개
장개가던 사흘만에 본여자가 죽었는데
여자라고 얻어놓니 통도크고 배도크네
살라고살라고 백수백수를하고 애를먹었는데
이놈의 여자가 잘못들어와서 못살겠네 [웃음]
(그렇더랴요.)

[대저동 민요 30]

노랫가락(2)

김분녀(여, 1939년생) 가창
2014년 2월 11일 채록
[대저1동 신장로경로당]

꿈아꿈아 무정한꿈아 오시던임은 왜보냈노
이다음에 오시거들랑 깊이든잠을 깨워나주소

[대저동 민요 31]

남녀 연정요[부부요]

김분녀(여, 1939년생) 가창
2014년 2월 11일 채록
[대저1동 신장로경로당]

남산밑에 남도령아 서산밑에 새처녀야
나물캐러 안갈란가
가기사 가지만은 (처이가) 칼도없고 신도없소
(이란께네, 그래 인자 가자 카더란다 따라서.)
총각주머니 탈탈터니 돈닷돈이 남았구나
온돈주고 신사신고 반돈주고 칼사담고
(인자 산에 나물 캐러를 갔어. 밥을 싸가지고. 처녀는 처녀대로 싸오고 총각은 총각대로
싸오고, 가갖고.)
둘도 좋고 물도 좋은데 점심밥이나 먹고가세
(그래노이께네, 밥을 끌러노이.)
총각밥은 끌러보니 삼년묵던 콩보리식은밥
처녀밥은 끌러보니 먹기좋은 쌀밥인데
총각밥은 처녀가묵고 (바까갖고이.)¹⁶⁴⁾ 처녀밥은 총각이묵고
점심밥을 먹고나서 고사리꺾으러 올라가니
올라감선¹⁶⁵⁾ 올개사리 곱게곱게 끊어담고
내려옴서 늦개사리 곱게곱게 끊어담고
너랑나랑 만난중에 백년을살자고 언약하세

164) 바꿔서.

165) 올라가면서.

(그래, 백년을 잘 살더랍니다. 백년을 살자고 언약을 하더래야. 거기 인자 부부간이라. 그래서 부부도 만낸다는 뜻이라.)

[대저동 민요 32]

양산도(1)

김분녀(여, 1939년생) 가창
2014년 2월 11일 채록
[대저1동 신장로경로당]

에에헤이요~
함양산천¹⁶⁶⁾ 물레방아는 물을안고 돌~고~
우리집에 새서방님은 나를안고 돈~다~
어여라난단다 둥개디여라 못노리로구나
능기사지를 하야도 그래도 못노리로구나

에에헤이요~
삼팔삼시 서른두칸 물레방~애~
한지문을 못잊어 시집안갈돈~다~
어여라난단다 둥개디여라 아니못놓켰네
열놈이 죽어져도 그래도 못노리로나

에에헤이요~
내정네정을 모지랑빛자리로 싹싹떨어서 한강철길에다 열~고~
없는정도 있는듯이 잘살아보~자~

에에헤이요~
한달이 쳐들어 연락에다가 없~고~
고향삼천 돌아보니 눈물이 난~다~ (청중: 아이구 잘한다!)
니가잘나 내가잘나 그누가 잘~나~ (청중: 잘한다!)
시방칠색 처녀한쌍이 제잘난척 한~다~

(이거 옛날노래요 촌예. 저 함양예.)

166) 함양산천.

[대저동 민요 33]

양산도(2)

김분녀(여, 1939년생) 가창
2014년 2월 11일 채록
[대저1동 신장로경로당]

간디족쪽에 정들이놓고 이별이짓아서 내몬살겼네
양산도 큰애기 베짜는 소~리~
길가던한량이 발을맞차 간~다~
에에헤이요~ (동네 읍서.)
술이라고 목거들랑 술티정을 말~고~
임이라고 만나거들 이별을 마~소~
니가 잘나서 천하일색이~냐~
내눈이 어두와서 한강이로구나

[대저동 민요 34]

청춘가

김분녀(여, 1939년생) 가창
2014년 2월 11일 채록
[대저1동 신장로경로당]

산천초목은 나날이젊어온데
이팔청춘은 에헤 나날이늙어진다
노자 좋구나 젊어서놀아요
늙고병이들면 에헤 못노랍니다
나물만묵고도 물만쓰여도
같은임만나서 에헤 내살아볼라네
술이라고목거들랑 술티정말고요
임이라고만나거덩 에헤 이별을말아요
너잘나고요 내못난걸로

물우에지렁같이 에헤 나홀로동구나
산천이곱아서 나여기왔느냐
임을따라서 에헤 나여기왔구나
천리다임을두고 상사에맺혀서
(그리고 뭇인가 모르겠다. 상사에 맺혀서.)
하루해도못보고 에헤 저해가지구나

[대저동 민요 35]

신세한탄가

김분녀(여, 1939년생) 가창
2014년 2월 11일 채록
[대저1동 신장로경로당]

한살묵어 어미잃고
두살묵어 아바이잃고
시집이라 가서보니
불꽃같이 더운날에
매꽃같은 지선발을
한골메고 두골메고
삼사세골을 다뺐는데
다른점심 다나온데
내점심은 안나온고
집에라고 들어가니
동서오서 열어보니
삼사흘먹던 콩보리식은밥
한분뜨고 두분뜨고
삼사세변을 떠먹고나니
(보따리 싸고 인자 가는 기라. 못 살겠다고 시어마이 밑에서. 남편은 과거 하러 가고 없고.
그래 인자 문을 열고 인자.)
가요가요 나는가요
시어마니 잘계세요
치마폭을 뜯어갖고

한보폭접어 고깔짓고
한폭뜯어 바람짓고
한모랭이 돌아가니
서방님을 만났구나
여보여보 우리여보
내가오는데 어데가요
(마 떨치고 가는 기라. 서림을 받다보니까네.)
잘있어요 잘계시오
중아절로 나는가요
(그 길로 떠나뵈어. 이미 때늦은 후회라서. 그래 시집살이가 그마이 뵈어.)¹⁶⁷⁾

[대저동 민요 36]

노랫가락

이외조(여, 1939년생) 가창
2014년 2월 11일 채록
[대저1동 신장로경로당]

술과담배는 내심정을 알고요
한품에잠든님은 좋다 내심정을 모르더라

[대저동 민요 37]

모심는 소리

최봉연(여, 1936년생) 가창
2014년 2월 11일 채록
[대저1동 신장로경로당]

모야모야 노랑모야 니언제커서 열매열래
(카이께네, 고 받아하는 사람이.)

167) 힘들었어.

이달크고 훗달크고 칠팔월에 열매연다
(카더랍니다.)

[대저동 민요 38]

노랫가락

최봉연(여, 1936년생) 가창
2014년 2월 11일 채록
[대저1동 신장로경로당]

(이거는 인자 소리거던.)
너같이 냉정한사랑 정들인것이 내그르다
돌아서면 날잊어줄줄은 나도년년이 알건만은
어리숙다 여자몸되고 알게도속고 모르기도속네

[대저동 민요 39]

신세한탄가

최봉연(여, 1936년생) 가창
2014년 2월 11일 채록
[대저1동 신장로경로당]

한살먹어 엄마죽고 두살먹어서 아비죽고
열여섯에 시집가고 열여덟에 서방죽고
일수절수도 할수도없고 부산연락도 탈수없네

[대저동 민요 40]

청춘가(1)

최봉연(여, 1936년생) 가창
2014년 2월 11일 채록
[대저1동 신장로경로당]

청춘 하늘에 잔별도 많고요
요내 가슴에는 수심도 많구나
날다리¹⁶⁸⁾ 가거라 날모시고 가거라
돈많은 남자야 날다리고 가거라
(이러카이께네, 또 받아 하는 사람이.) (청중: 잘한다! 우리 형님.)
너다리고 갈맘은 야마야마 있건만은
부모의 허락없이 에헤 너다리고 문가겠네

[대저동 민요 41]

청춘가(2)

최봉연(여, 1936년생) 가창
2014년 2월 11일 채록
[대저1동 신장로경로당]

공중에 뜬나비아 꽃을보고 앉지마라
왕거무가 줄쳐놓고 니앉도록 기다린다

[대저동 민요 42]

청춘가(3)

최봉연(여, 1936년생) 가창
2014년 2월 11일 채록
[대저1동 신장로경로당]

뒷머리에 실실풀고 양머리 중중땀고
함경도¹⁶⁹⁾ 도원산에 우리형야¹⁷⁰⁾ 돈벌러간다
떴다 보아라 안창남비행기
내려다 보아라 오록도다비이고¹⁷¹⁾

168) 날 데리고.

169) 함경도.

170) 우리 형이.

[대저동 민요 43]

달거리 노래

최봉연(여, 1936년생) 가창
2014년 2월 11일 채록
[대저1동 신장로경로당]

[청중들이 박수로 장단을 맞추어 줌]
정월이라 대보름날에 복조래사라고 외건만은
우런님은 어디로가고 복조래살주도 모르던고
이월이라 한식날에 동동주술을 먹는달에
맛도좋고 빛도좋은데
우런님은 어디로가고 요런요런동동주도 못묵는고
삼월이라 삼짖날에 강릉갔던제비도 오건마는
우런님은 한번가면 다시올주도 모르던고
사월이라 초파일에 절간마다 등다는데
우런님은 어디로가고 등도달러 아니오요
오월이라 단오날에 오만사람이 모여서러
그네추천을 뛰건만은
우런님은 어디로가고 그네추천도 아니뛰오
유월이라 유뚝날에 인절미떡을 먹는달에
쫄깃쫄깃도 맛도좋은데
우런님은 어디로가고 열썬열매떡도 아니묵소 (청중: 잘한다!)
칠월이라 칠석날에 견우직녀도 만나건만은
우런님은 어디로가고 날만나줄주도 모르던고
팔월이라 한가위날에 강강술래로 하건만은
우런님은 어디로가고 강강술래도 아니하요
구월이라 구일날에 삼대사대조상 불러다가
온갖햇곡식을 잡아가주고 만장지장을 차려놓고
우런님은 어디로가고 요런요런음식도 못묵는고
시월이라 단풍달에 온갖사람이 짝을지어
단풍놀이로 가건만은
우런님은 어디로가고 단풍놀이도 아니가요

171) 다 보이고.

십일월동지가 닥치오니 동지팔죽을 먹고나니
나이는 한살먹어가고
우런님은 어디로가고 동지팔죽도 아니묵소
십이월선달이 닥치오니 온갓빛재이는 모아들고 [일동 웃음]
우런님은 어디로가고 날빛값아줄주도 모르던고
얼씨고 얼씨고 지화자 좋네
요래가주고 못살겠다
(빛을 안 값아주이 못 살겠더란다.) [일동 박수]

[대저동 민요 44]

모심는 소리(1)

김봉자(여, 1935년생) 가창
2014년 2월 14일 채록
[대저2동 금호노인정]

남창남창 베루끝에~이 무정하다 저오랍아
나도죽어 남자가되어 여동생을 섬길랴요

[대저동 민요 45]

모심는 소리(2)

김봉자(여, 1935년생) 가창
2014년 2월 14일 채록
[대저2동 금호노인정]

이물길저물길 혈어놓고 주인네양반은 어디갔소
(또, 받는 거는.)
해다지고 저문날에 옷갈아입고 어디가노

(이거 받는 기라.) (청중: 아이다. 받는 거 저 있다 아이가. 그거 저게 주인양반 어데갔노 카이께네, 저 어데 저 뭐 주인양반 뭐 뭐 술집에 갔다 카더나 뭐라 카더나? 거기 받

는 기라.) (조사자: 첩의 집에.) (청중: 첩의 집 맞다.) (청중: 어, 첩우집에 놀러간다 카
더라.) (웃 갈아입고 어데 갔노, 첩우집에 놀러갔다.)

[대저동 민요 46]

봄배추 노래

김봉자(여, 1935년생) 가창
2014년 2월 14일 채록
[대저2동 금호노인정]

포롱포롱 봄배추는 봄비오도록만 기다리고
옥안에갠힌 춘향이는 이대룡(이도령)오기만 기다린다

[대저동 민요 47]

화투 타령

김봉자(여, 1935년생)·최필선(여, 1939년생) 가창
2014년 2월 14일 채록
[대저2동 금호노인정]

[김봉자]

정월솔가지 속속한마음
이월낮으라 맺어놓고
삼월사쿠라 산란한 마음
사월흑싸리 허송하다
오월난초 나비가앉아
유월목단 다떨어지고
칠월홍돼지 홀로누워
팔월공산에 달도밝다
구월국화 굳었던마음
시월단풍에 다떨어지고

[최필선]

오동추야 달밝은밤에
빛새를타고 어디로가노

[대저동 민요 48]

아기 어르는 소리[불매 소리]

김외선(여, 1935년생) 가창
2014년 2월 14일 채록
[대저2동 금호노인정]

불미불미 불미야
이불매가 누불매고
경상도 대불매가
부르르 딱딱
불어라

[대저동 민요 49]

아기 재우는 노래[자장가]

김외선(여, 1935년생) 가창
2014년 2월 14일 채록
[대저2동 금호노인정]

자장 자장
우리애기 잘도잔다
우리애기 자는데는
윗집개도 짓저말고
뒤틀집개도 짓저마라
(이리 안 하나?) (청중: 그래 한다.) (그래 하제.)
꼬꼬닭아 울지마라
멍멍개야 짓지마라.

[대저동 민요 50]

각설이 타령

최필선(여, 1939년생) 가창
2014년 2월 14일 채록
[대저2동 금호노인정]

일자나 한자 들고보니
일선에가신 우리남군 돌아오기만 기다린다
일자나 한자 들고보니
이승만씨는 대통령이고 부대통령 자기라 (카네.)
삼자나 한자 들고보니까
삼팔선이 가로막혀 남북통일이 아니된다 (하고.)
(또.) 사자나 한자 들고보니
사주팔자 기박해서러 (뭣이더라? 마.)

[대저동 민요 51]

모심는 소리

최필선(여, 1939년생) 가창
2014년 2월 14일 채록
[대저2동 금호노인정]

모야모야 노랑모야 너언제커서 열매열래
이달크고 저달크고 칠팔월에 열매열께

[대저동 민요 52]

아기 어르는 소리[알강달강요]

최필선(여, 1939년생) 가창
2014년 2월 14일 채록
[대저2동 금호노인정]

서울가서 밤을한되 구해다가
장독간에다가 여놓으이께네
시양쥐가 다까묵고 (또 뭐라 카더라?)
알하나 남은거로
부엌에다 열냈는데
껍질랑 엄마묵고
알키랑 내가묵고

[대저동 민요 53]

너냥 나냥

최필선(여, 1939년생)·김봉자(여, 1935년생) 가창
2014년 2월 14일 채록
[대저2동 금호노인정]

[최필선]

신작로 널러서 길가기 좋고요
전깃불 밝아서 임보기 좋다
(그라고 또 많은데, 많이 했는데 우리 이런 거.) (조사자: 너냥 나냥 두리둥실 놀고요~)
(청중: 그러면 또, 낮이 낮이나 밤이 밤이나 참사랑이로구나.)

[김봉자]

아침에 우는새는 배가고파 울고요
저녁에 우는새는 임이기리워 운다
낮이낮이나 밤이밤이나 참사랑이로구나

[대저2동 민요 54]

모심는 소리(1)

구복남(여, 1928년생)·이채련(여, 1931년생) 가창
2014년 2월 14일 채록
[대저2동 맥도할머니경로당]

[구복남]

한데한섬 모를부여~이 참나락이 절반이요

[이채련]

등נם에다~이 첩을두고 기생첩이 절반이다 (청증: 잘한다!)

[이채련]

임이죽어서~이 연자되어 춘실끝에 집을짓네

[구복남]

들면보고 날면봐도~이 임인줄을 내몰랐소

[이채련]

낭창낭창 베리끝에 무정하다한 울오랍아

[구복남]

나도야죽어서 남자가되어~이 처자권속을 샘길라요¹⁷²⁾

[이채련]

아랑더라~이 좁은집에 조맨지기도 살아왔다

인당수를~이 깊은물에 심소저도 살아왔네

[대저동 민요 55]

모 찌는 소리

구복남(여, 1928년생)·이채련(여, 1931년생) 가창

2014년 2월 14일 채록

[대저2동 맥도할머니경로당]

[이채련]

한강수에 모를부여 모찌기도 난감하다

(또 끄티 한 번 조지보소 형님.)

[구복남]

하늘에다가 목화를심어~이 목화따기도 난감하요

172) 샘길라요.

[대저동 민요 56]

모심는 소리(2)

구복남(여, 1928년생) 가창
2014년 2월 14일 채록
[대저2동 맥도할머니경로당]

한데한섬 모를부여~이 참나락이 절반이오
등념에가 첩을두고 기생첩이 반절이오

물길은처정처정 헐어놓고~이 주인양반 어데갔소
문어야대전복 에와들고~이 첩의야집에 놀러갔소

낭창낭창 베루 끝에~이 무정하다 울오라방
나도야죽어서 연자가되어 춘새끝에 집을짓네

풍당풍당 수제비는~이 사우야상에 다오리고
노랑감태¹⁷³⁾ 제치씨고~이 멀국쓰기가 더욱쌈소

해다지고 저문날에 우런님은 어디를가고~이
연개넬줄 모르던고
(밥 안 오고 말이지, 영감이 오데 마실을 가뻘는 기라.)
서울이라 왕대밭에~이 금비둘기가 알로날여
그알하나로 주웠시면~이 금년과개 내할꾸로

오늘낮에 점심반찬 무신고기가 오를란고~이
전라도라 고성천에 바리바리 올랐다요

송금씨야 배깁아라 송금씨야 깎은배는~이
맛도좋고 연하더라

임이죽어서 연자가되여~이 춘새끝에 집을지어
들면보고 날면봐도~이 우런님인줄 내몰랐소

팔모야깎았다 유리잔에~이 나부야한쌍 건줄가요¹⁷⁴⁾

173) 부인이 죽어 남편이 머리에 노란 감태를 썼다는 의미.

[대저동 민요 57]

양산도

구복남(여, 1928년생) 가창
2014년 2월 14일 채록
[대저2동 맥도할머니경로당]

에에헤이여~
(새로 해야제.)
부산연락 여수연락 꺾은연기 흰연기
후도이때때나 불고
일본동경 시모나세키 산도이로이고나
(더 부르까?) [일동 웃음]

에에헤이여~
꺾은기차 삼십육칸에 정든이 칸칸이싱고
서산에 눈물이 한강수가된다
(아이고 모르겠네.)

[대저동 민요 58]

노랫가락(1)

구복남(여, 1928년생) 가창
2014년 2월 14일 채록
[대저2동 맥도할머니경로당]

에~~헤야
양산서 용마를타고 진해마산을 썩들어서니
연꽃은 봉지를짓고 수영버들은 척늘어진다

[대저동 민요 59]

노랫가락(2)[부모 그리는 노래]

174) 건지러 가요.

구복남(여, 1928년생) 가창
2014년 2월 14일 채록
[대저2동 맥도할머니경로당]

올어머니는 거미를닮아 알만신고 간곳없고
올아버지는 제비를닮아 집만짓고 간곳없소
이별하소 이별하소 간디죽죽 이별하소

[대저동 민요 60]

모심는 소리(3)

구복남(여, 1928년생) 가창
2014년 2월 14일 채록
[대저2동 맥도할머니경로당]

절로생긴 봉숭아도 모디모디 숨구는데
물로절로 생긴내몸 한숨없이 생기겼소

[대저동 민요 61]

모심는 소리(4)

구복남(여, 1928년생) 가창
2014년 2월 14일 채록
[대저2동 맥도할머니경로당]

밀양상단 (가마이 있어봐라. 밀양 상당, 밀양이 와 그거 안 하노? 께차 주라(가르쳐 달
라) 잊아뻘다.) 연밥따는 이쳐자야
연꽃은 나중따고 내품안에 잠들어라
(그리 불러가 잊어뻘다.)

[대저동 민요 62]

사친가

구복남(여, 1928년생) 가창
2014년 2월 14일 채록
[대저2동 맥도할머니경로당]

야래라 잔솔밭에 뽕이총총 우리엄마
천련수라 가슴에다 만련수로 들어엿고
거미걸은 내가가도 오냐말도 아니하요
(그거 부르면 눈물이 난다.)

[대저동 민요 63]

노랫가락(3)

구복남(여, 1928년생) 가창
2014년 2월 14일 채록
[대저2동 맥도할머니경로당]

남산밑에 노는임이
어찌보면 달도걸고 어찌보면 별도걸소
한손에는 쇠채를들고 한손에는 강시들고
판들판들 노는임이
어찌보면 달도걸고 어찌보면 별도걸소
(잊어뻘다. 다 잊어뻘다.)

[대저동 민요 64]

이 노래

구복남(여, 1928년생) 가창
2014년 2월 14일 채록
[대저2동 맥도할머니경로당]

이야 요눔아 들어봐라
니발이 육발인들
서울한번 갔다왔나

니조동이가 쫓뺏한들
신간사또 내릴쪽에
나발한번 불어봤나 (청중: 그것도야 유명한 노래다.)
니덩어리가 넓다해도
남해금산 지을쪽에
돌한딩이를 실어왔나
니가슴에 먹들은들
붓글한번 써서봤나
(내가 부를 줄 몰라서 그렇지, 그 노래가요 깊은 노래요.)

[대저동 민요 65]

난봉가

구복남(여, 1928년생) 가창
2014년 2월 14일 채록
[대저2동 맥도할머니경로당]

해~~
봉봉은 난봉이요
달은달은 건달이라
설설은 갱번을 다팔아나 자시고
백수야 건달이가 날아든다
(나는 곡이 안 맞소. 그래도 왜요?)

[대저동 민요 66]

보지 타령

구복남(여, 1928년생) 가창
2014년 2월 14일 채록
[대저2동 맥도할머니경로당]

밤중밤중 야밤중에 슬피우는 내보지야 [웃음]
니아무리 울고간들

(슬피우는 내보지야 했제, 내보지야.) [웃음] 슬피우는 내보지야 (모리겠네 잊어뻘다. 아 맞다.)
니아무리 슬피운들 죽은쫓이 살아오나 [일동 웃음] (청중: 죽은 자지가 살아오나.)

[대저동 민요 67]

신세한탄가

구복남(여, 1928년생) 가창
2014년 2월 14일 채록
[대저2동 맥도할머니경로당]

울의집이 우리엄마는
호박넝쿨 (아, 호박넝쿨, 아 호박) 숨굴때는
자리잡아 숨겨주고
(청중: 형님 노래 그기 의미가 있다.)
호박넝쿨 밖넝쿨은
울안으로 손주는데
울의집이 우리엄마
날로숨굴떠로 못숨구갓고
팔십이넘도록 고상하여¹⁷⁵⁾ [웃음]

[대저동 민요 68]

징거미 타령

김량자(여, 1938년생)·이채련(여, 1931년생)·구복남(여, 1928년생) 가창
2014년 2월 14일 채록
[대저2동 맥도할머니경로당]

[이채련]
옛다이눔아 징검아 내돈석냥 내라
내배를 짜어서(아이다.)

175) 고생하여.

[김량자]

앗다요눔우 징검아 내돈석냥 내라
내머리를 팔아서 (청중: 내머리를 비어서.)
니돈석냥 주꾸마

앗다요눔아 징검아 내돈석냥 내라
내눈을 빼가 국시전에 팔아도
니돈석냥 주꾸마

앗다요눔우 징검아
내코를 비어서

[이채련]

내코를 비어서(나발, 저 뭣이고? 어데고?) 굴뚝전에다 팔아도
니돈석냥 주꾸마

내눈을 빼어서 구실¹⁷⁶⁾전에다 팔아도
니돈석냥 주꾸마

엇다요눔아 징검아 내돈석냥 내라
내귀를 베어서 (어데다 파노?) (청중: 챙이전에 팔아도 니 돈 석 냥 주꾸마.)
니돈석냥 주꾸마

[김량자]

앗다요눔우 징검아
내손을 비어서 까꾸리전에다 팔아도
니돈석냥 주꾸마

내배를 비어서 구실전에 팔아도
니돈석냥 주꾸마

앗다요눔우 징검아 내돈석냥 내라
내발을 베어서 깡이¹⁷⁷⁾전에 팔아도
니돈석냥 주꾸마
앗다요눔우 징검아

176) 구슬.

177) 팽이.

내다릴랑 베어서 (뭘꼬?) (청중: 짝대기.) 전에 팔아도
니돈석냥 주꾸마
앗다요눔아 징검아 [웃음]

[구복남]
앗다이눔우 징검아
내보지를 베어서 [웃음] 합자전에 팔아도
니돈석냥 주꾸마
앗다이눔아 징검아 내돈석냥 내나라
내미자발을 빼어서 꽃감전에 팔아도
니돈석냥 주꾸마 [일동 웃음]

[대저동 민요 69]

모심는 소리

김량자(여, 1938년생) 가창
2014년 2월 14일 채록
[대저2동 맥도할머니경로당]

풍당풍당 চাল수지비 사우야판에 다올랐네
우리할멈은 어디를가고 날샘길줄 모르던공

늦어오네 늦어오네 점심참이 늦어오네
이등저등 건너등에 침이줄에 걸렸댜요

[대저동 민요 70]

모심는 소리(1)

이채련(여, 1931년생)·구복남(여, 1928년생) 가창
2014년 2월 14일 채록
[대저2동 맥도할머니경로당]

[이채련]
아기도련님 밥담다가 노주구닷단 뿌질랐네

아가아가 메늘아가~이 나도닷단 뿌질랴다
해다졌다~이 해다졌네 진주덕산 해다진다

[구복남]

우런님은 어데를가고~이 연개낼줄 모르던고
(밥 안 하고 어데 갔나 그 말이지.)

[이채련]

진주라 진골목에 처녀들이 도망간다
긴댕기 끝만보고~이 총각이서이 따라간다
사공아~이 배돌리라 우리동상 보러갈래
(그거 받아보소.)

[구복남]

(내 끄트머리 모르고, 딴 거 할란다.)
너의동생 무슨죄로 절도섬에 귀양갔노

[이채련]

늦어온다~이 늦어오네 점심시간이 늦어온다
[구복남]
이등저등 건너등에~이 침이야줄에 걸렸댜요

[이채련]

오늘낮에~이 점심반찬 무슨자반 올랐던고
[구복남]
전라도라 고성천에~이 바리바리 올랐댜요

[이채련]

저기가는 저구름은 어던신선 타고가노
[구복남]
웅천하고도 천자봉에~이 노던신선이 타고오요
(청중: 타고 간다 카지, 오기는 왜 와여.)

[이채련]

우리부모 산소땅에 솔을심어 영화로다
[구복남]
이논에다가 모를심어~이 감실감실 영화로다

[이채련]

우리부모~이 산소땅에 솔을심어 영화로다

[구복남]

이논에다가 모를심어~이 부모님께 봉성하세

[이채련]

밀양삼등 풍로술에 연밥따는 저큰아가

연밥줄밥~이 내따주게 백년하리를 내강살자

[대저동 민요 71]

창부타령

이채련(여, 1931년생)·구복남(여, 1928년생) 가창

2014년 2월 14일 채록

[대저2동 맥도할머니경로당]

[이채련]

낙동강수가 백사지됐네 오던고기도 (구신걸은 소리 해쌌어.) 아니오고

낭개라도¹⁷⁸⁾ 고목이오니 오던새도 아니오고

꽃이라도 낙화가되면 오던나비도 아니오고

요내청춘이 늙어지면 눈먼새도 아니본다

[구복남]

물개밀에 섬소리는 물모릴까 염려로다

언덕밀에 피고리는 뱀이올까도 염려로다

(잊어뻘다 고마.) [웃음]

[대저동 민요 72]

모 찌는 소리

이채련(여, 1931년생)·구복남(여, 1928년생) 가창

2014년 2월 14일 채록

[대저2동 맥도할머니경로당]

178) 나무라도.

[이채련]

한대한섬 모를부여 모찌기도 난감하다
등넘기더~이¹⁷⁹⁾ 첩을두니 장난하기 절반이다

[구복남]

하늘에다가 목화를심어~이 목화따기도 난감하요
(불러봐.)

[대저동 민요 73]

달거리 노래

이채련(여, 1931년생) 가창
2014년 2월 14일 채록
[대저2동 맥도할머니경로당]

한살을죽어 엄마가죽고 두살묵어 아바죽고
찾어간다 찾어가네 삼촌의집을 찾어가네
삼촌은 내삼촌인데 숙모가~ 녀미라서
뒤치라 내치라 하시다가
십팔세가 닥쳤더니
시집갔던 첫날밤에 낭군님조차 병이¹⁸⁰⁾들어
비네도팔고 반저¹⁸¹⁾도팔아 중한약국에 약을지어
약탕관을 걸어놓고 모진나무 잠이와서로
임숨가는줄 내몰랐다
일어나소 어일어나소 임아임아 일어나소
앉아중신을 내할끼다
(너거 어디서 듣고 와서 그걸 다 하라 하노?)
서서중신을 내할란다
정월이라 십오일은 탁주하는 명절¹⁸²⁾인데
집집마장¹⁸³⁾ 가정마장 탁주명질¹⁸⁴⁾을 지내는데

179) 등넘어예.

180) 병이.

181) 반지.

182) 명절.

울의님이 어디를 가고 탁주명질을 왜몰랐노
이월이라 한식의날은 한식의제를 지낸다고
집집마다 가정마장 한식의제를 지내는데
울의네임이 어디를가고 한식의제를 왜몰랐노
삼월이라 삼진날은 제비새끼도 강남을가서
고향을찾아 오건만은
울의네님이 어디를가고 고향도찾아 왜문오노
사월이라 초파일은 앞집에도 간등¹⁸⁵⁾을달고
뒷집에도 간등단데
울의네임이 어디를가고 간등도달줄 왜몰랐노
오월이라 단오일은 송백수야 푸른가지
높다높기다 잉여매고
남이홍삼 민들은 오락가락 주천할 때
울의네님이 어디를가고 주천세월을 왜몰랐지
유월이라 유뒸날은 유디¹⁸⁶⁾에빋떡을 빚는날인데
임이임이 어디를가고 유디에빋떡 못빋던고
칠월이라 칠석날은 견우직녀도 만나는데
울의네임은 어디를가고 견우직녀도 날만날줄도 왜몰랐노
팔월이라 십오일은 개자¹⁸⁷⁾맹절이 아니던가
집집마장 가정마장 조상을보러 오던만은
우런님은 우리마누라 어디를가고 조상지사¹⁸⁸⁾도 안지내노
구월이라 구일날은 가정마장 집집마장
구월지사로 지내는데
울의네임이 어디를가고 구월지사도 왜모르노
시월이라 보름날은 달도밝고도 명랑한데
임이임이 어디를가고 날찾을줄도 왜몰랐노
동진달은 들어가니 우런님은 어디를가고
가정마장 집집마장 동지팔죽을 끓이는데
울의네님은 어디를가고 동지팔죽도 못끓이노

183) 집집마다.

184) 탁주 명절.

185) 관등.

186) 유두의.

187) 한식의 유래인 개자추를 지칭하는 것으로 추정됨.

188) 조상 제사.

[대저동 민요 74]

모심는 소리(2)

이채련(여, 1931년생) 가창
2014년 2월 14일 채록
[대저2동 맥도할머니경로당]

[창부타령 곡조로 부름]

서울이라 왕대밭에 금비둘기가 알로논다
그알하나 주었으면 금년과개를 내할꺼로

모시적삼 안섶안에 분통같은 저젓보소
많이보몬 빙이난다 쌀나만치만 보고가소

앞집에 처녀를 선을볼라꼬 울다리 꾸멍을 뚫다가
호박넝쿨에 목이걸려 육개월징역을 갔다말다
얼씨고 얼씨고 기화자 좋구려
아니노지도 못살겠네

잡을다가 첩을잃고 첩찾다가 본댁잃고
똥누다가 갓을잃고 도랑을 건너다 내신잃고

집이라꼬 들어가니 기집이란년이 (도망을 갔더란다.) 도망을가고
방문을 열고보니 실패야바날이¹⁸⁹⁾ 춤을추고
정지안을 들다보니 주구조래가¹⁹⁰⁾ 춤을추고
장독간에 돌아가니 거무란놈이 줄을치고

창고안을 들다보니 쥐란놈이 궁글뚫고¹⁹¹⁾
살림은 파탄이나고 기접은¹⁹²⁾ 도망갔다

해다지고 저문날에 꽃갓을씩고 어디가노

189) 실패와 바늘이.

190) 주걱과 주리가.

191) 구멍을 뚫고.

192) 계집은.

첩의야집을 (이것도 등지라.) 갈라거든 나죽는꼴이나 보고가지

첩의집은 꽃밭이되고 요내야집은 연못이라
(옛날 사람은 전부 정지로 했는데, 지금은 정지로 안 해.)
꽃과나비는 봄한철되고 물과고기는 순색이다

타박타박 타박머리 해다전데 어디가노
울의엄마 산소땅에 젓먹으러 내가간다

[대저동 민요 75]

진주난봉가

이채련(여, 1931년생) 가창
2014년 2월 14일 채록
[대저2동 맥도할머니경로당]

울도담도 없는집에
시접을 삼년살고나니
시어마시 하는말씀
아가아가 메늘아가
진주낭군 불러거든
진주남강에 빨래가라
흰빨래는 희게씻고
검은빨래로 검게씻쳐
앞을한번 돌아보니
진주낭군 (아이구 그새 잊어뻘다.) (조사자: 구름같은 말을 타고.)
구름같은 말을타고 (그것도 또.)
하늘걸은 갓을씻고 (갓인가 모르겠다.)
진주낭군 돌아오면서 (아는체도 안하더란다.)
아는체도 아니하여
흰빨래는 희게씻고
검은빨래로 검게씻고

집이라꼬 돌아오니
시어마시 하는말씀
진주낭군 불러거든
아랫방을 상에가라
아랫방을 들어갔더니
진주낭군
(마누래로 보고 아는체도 안하더란다. 그래서.)
아는체도 아니한다
(어디다가 목을 메다 죽었더노?)
기생첩을 옆에두고
권주가로 하더란다
진주낭군

(아, 거기 아이구 잊어뿌서 못하겠다.) (조사자: 방에 가서 아홉 가지 약을 묵고 석자 석치 목을 메고.) (석자 수건에다 목을 메고 아홉 가지 약을 먹고 그래 죽었어. 그거는 끝은 그렇다.) (조사자: 그 다음에 버선발로 뛰어 나가가지고.) (기생첩은 삼년이고 본댁은 백년인데 니 이럴 줄 내 몰랐다 그래 카더라. 그거는 그라더라.)

[대저1동 민요 76]

창부타령

이채련(여, 1931년생) 가창
2014년 2월 14일 채록
[대저2동 맥도할머니경로당]

진주남강 새남강에 결사짓는 김대목아
니재주가 얼마나좋아 물가운데 결사짓노
내재주야 없소만은 짓고나니 결사로다

[대저2동 민요 77]

베 짜기 노래

이채련(여, 1931년생) 가창
2014년 2월 14일 채록
[대저2동 맥도할머니경로당]

베짜는아가씨 사랑노래
베틀에수심에 잔다
낮에짜면 월광단되고
밤에짜면 일광단되고
일광단월광단 다짜놓고
서방님수발이나 가고올까

[대저동 민요 78]

한탄가(1)

이채련(여, 1931년생) 가창
2014년 2월 14일 채록
[대저2동 맥도할머니경로당]

하날에~이¹⁹³⁾ 높다한들 삼사오경에 이슬주고
무~한년 천배라도 사가있어야 풀려는데
황천길에 얼마나머이 한분만가니¹⁹⁴⁾ 아니온다
(옛날 노래 하라이 하꾸마.) 사바세계 어지할꼬 반이앞서
온갖미련을 다들치뻘고 삼각백절을 찾아가네
송죽바람 쓸쓸헌데 두견조차동 슬피우고
기척도없어 불혹이야 너도울고 나도울고
심경삼경 깊은밤을 같이올어서 새와보자¹⁹⁵⁾
한평생 허무하더라 인간의백년이 꿈이로다

[대저동 민요 79]

시집살이 노래[사촌형 노래]

193) 하늘이.
194) 한 번만 가도.
195) 세워보자.

이채련(여, 1931년생) 가창
2014년 2월 14일 채록
[대저2동 맥도할머니경로당]

성아성아 올키성아
시집살이 어똥더노
시집살이 좋더만은
동굴동굴 수박개우
밥담기도 어렵더라
도리도리 도래판에
수제도농기 에렵더라
중우벗은 시아주바이
말하기도 어렵더라
(그 마이 어렵더란다 옛날에는.)

[대저동 민요 80]

모심는 소리(3)

이채련(여, 1931년생) 가창
2014년 2월 14일 채록
[대저2동 맥도할머니경로당]

총각아 수자야 내폴목 놓아라아~
범겘은 우리오빠 아이아이야 망보고 있구나
야야 처녀야~ 그말씀 말어라아~~
범겘은 너거오빠아 아야아이야 내처남 된~다
(그것도 다 등지다.)

[대저동 민요 81]

한탄가(2)

이채련(여, 1931년생) 가창
2014년 2월 14일 채록
[대저2동 맥도할머니경로당]

맹사십륙 해당화야¹⁹⁶⁾ 꽃이진다고 서럼마소
맹년삼월 춘삼월되면 그꽃도 또피는데
초록같은 우리인생 한분만하면은 아니온다
뱅풍에 그렸던조달 쾌칠라든 오실란다
년년묵은 고목나무가 싹이트면 오실란가
어느때나 오실란공
(안 온다, 그거는.)

[대저동 민요 82]

이별가

이채련(여, 1931년생) 가창
2014년 2월 14일 채록
[대저2동 맥도할머니경로당]

말타고가자 울고 임은날잡고 아니놓고
임아 날잡지말고 저산에지는해 머물리주소
저님아 날잡지말아라 요내갈길이 천리로다

[대저동 민요 83]

노랫가락(1)

이채련(여, 1931년생) 가창
2014년 2월 14일 채록
[대저2동 맥도할머니경로당]

나비야 청산을가자 호랑나비야 너도가자
가다가 저물거던 꽃밭수렁에 잠자고가자
꽃이야 반대를허면 앞이나따나 잠자고가자

196) 명사십리 해당화야.

[대저동 민요 84]

노랫가락(2)

이채련(여, 1931년생) 가창
2014년 2월 14일 채록
[대저2동 맥도할머니경로당]

포랑붓짐 반보따리 처갓집을 상에간다
각시님이 얼른보고 칠부단장을 곱기한다
(옛날에 그렇더란다. 신랑이 쪼개해나놓이.)

[대저동 민요 85]

보지 타령(1)

이채련(여, 1931년생) 가창
2014년 2월 14일 채록
[대저2동 맥도할머니경로당]

세월이라 (내라서 하지 아무 놈도 몬 한다.) 주황청에
보지나세나¹⁹⁷⁾ [청중: 웃음] 걸렸는데
노는보지도 내사싫고
자는보지도 나는싫고
하는보지만 나를주소 [청중: 웃음]
이십대연애는 몬하고살아도
삼십대연애는 하고산다
(카대. 그 끝으를(끝을) 너거 웃지 마라. 그 끝으를 내가 몬 배왔어.)

[대저동 민요 86]

보지 타령(2)

197) 보지가 세 개가.

이채련(여, 1931년생) 가창
2014년 2월 14일 채록
[대저2동 맥도할머니경로당]

일자대목이 찍었던강
빠르게도 올바르다
칠팔월이 닥쳤는가
동백꽃이¹⁹⁸⁾ 빼쪽했다
(그놈 보지 타령이다.)
달달이도 새로나고
삼년걸이도 환란난다
징조할배를¹⁹⁹⁾ 닦았는가
머리조창 왜까졌노
우옌감기가 들었던강
콧물조차 왜흘리노
북해도로 갔다왔나
터럭모자로 왜썼더노
우옌감기가 들었는강
콧물조차 왜흔드노
(그 끝에 또 뿔이 있는데, 그거 또 잊어뿔다.)

[대저동 민요 87]

구멍 타령

이채련(여, 1931년생) 가창
2014년 2월 14일 채록
[대저2동 맥도할머니경로당]

저건네 (아이다 그거는. 딱따구리, 딱다구리 아니다. 무슨 새더노?) 딱따구리는 (조사자:
없는 구멍도 잘 뚫는데.) 없는구멍도 뚫도만은
우리집에 저문디는 뚫번구멍도 몬찾더라

198) 동백꽃이.

199) 증조할아버지를.

[대저동 민요 88]

노랫가락(3)

이채련(여, 1931년생) 가창
2014년 2월 14일 채록
[대저2동 맥도할머니경로당]

애릴찍에 글몬배완죄로²⁰⁰⁾ 오동술집에 몸이팔려
들고보니 술잔도되고 놓고야보니 사장기라
허리잘쑥 사장기를 밤새도록 만나고놀자
하늘이 높다한들 삼사오경에 이슬주고
무한년 천배라도 사가있어야 풀라는데
황천길이 얼마나멀어 한분가니 아니온다

[대저동 민요 89]

양산도

이채련(여, 1931년생) 가창
2014년 2월 14일 채록
[대저2동 맥도할머니경로당]

아~~~이~~~에~~
양산읍내 물레방아 물을안고 주야장천 빙빙빙빙돌고
우리집에 저문디는 나를안고 돈~~다~~
에라 놀아라 못노리로다
능기를 하야도 내못살겠네

에~~ 수야~
니정내정은 모지랑빚자리 싹싹떨어다 한강철길우에넣고
이후에 만나거든 새정주고 살~~자~
에라 놀아라 아니못놀겠네
열놈이 거꾸라져도 내못살겠네
아~~이~~~에~~
양산읍내 물레방아 물을안고 주야장천 빙빙빙빙돌고

200) 글을 못 배운 죄로.

우리집에 저문디는 나를안고 돈~~다~~
에라 놀아라 못사리로다
능기를 하여도 내못살겠네

[대저동 민요 90]

탄로가

이채련(여, 1931년생) 가창
2014년 2월 14일 채록
[대저2동 맥도할머니경로당]

새별같이 밝던눈이 반장님이 되어간다
삼단같이 좋은머리가 불한당조창 되어간다
풀때기를 걷고보니 수양버들이 늘어지고
정갱이를 걷고보니 비수야같이도 날이서고
등검장씨를 가셨던가 허리조차 왜굽었노
떡가리로 흘렸는가 (늡으면 체머리 혼든다 말이다.) 체머리조차 왜흔드노
웬망년이 들었는가 잔소리는 왜하는고
못쓸놈의 늡을로자 불에안타고 남아가지고
이팔팔청춘 소년들아 내소리 예사로듣지마라
사람마장 다웁니다

[대저동 민요 91]

사발가

이채련(여, 1931년생)·구복남(여, 1928년생) 가창
2014년 2월 14일 채록
[대저2동 맥도할머니경로당]

[이채련]

석탄백탄 타는데는 연기만퐁퐁 나는데
이내가슴 타는데는 연기도짐도 아니난다
(안 나더란다 뭐. 연기도 짐도 날게 어딴노?)

[구복남]

부산항구 [웃음] 타는연기는 (세상에 잊으뵈고.) 연기나퐁퐁 나건만은
요내가슴 타는데는 연계짐도 아니나요
(다 했소.)

[대저동 민요 92]

봄배추 노래

이순이(여, 1931년생) 가창
2014년 2월 18일 채록
[대저2동 사두경로당]

포롱포롱 봄배추는 찬이슬오도록 기다리요
우리걸은 청년들은 선나오도록 기다린다
(조사자: 옥에 갇힌 춘향이는 이도령오기만.)
옥에갇힌 춘향이는 이도령오도록 기다린다

[대저동 민요 93]

모심는 소리(1)

이순이(여, 1931년생) 가창
2014년 2월 18일 채록
[대저2동 사두경로당]

물길랑청청 헐어놓고 주인네양반 어디갔노
문애전복 손에들고 첩의방으로 들어졌네

[대저동 민요 94]

모심는 소리(2)

이순이(여, 1931년생) 가창
2014년 2월 18일 채록
[대저2동 사두경로당]

서울이라王大밭에 금비둘기 알을 낳여
그알한개 주왔시면 금년과개 내할꺼로

[대저동 민요 95]

모심는 소리(3)

이순이(여, 1931년생) 가창
2014년 2월 18일 채록
[대저2동 사두경로당]

남창남창 베리끝에 무정하다 울오라배
난도죽어 후생가서 같은영혼을 만나볼래
(처자는 건지고 마, 저거 동생은 안 건져준는 기라 물에 떠내려갔는데. 그래 그런 노래 있어.)

[대저동 민요 96]

모심는 소리(4)

이순이(여, 1931년생) 가창
2014년 2월 18일 채록
[대저2동 사두경로당]

머리 좋고 실한처자 울뽕낭개 앓아우네
울뽕질뽕 내따줄게 백년해로 내캉살래

[대저동 민요 97]

시집살이 노래

이순이(여, 1931년생) 가창
2014년 2월 18일 채록
[대저2동 사두경로당]

동새동새 오동새야 시집살이 어땡더노
오리도리 수박판에 수저놓기 어렵더라

[대저동 민요 98]

방귀 타령

이순이(여, 1931년생) 가창
2014년 2월 18일 채록
[대저2동 사두경로당]

시아바시방구는 강풍방구~
시어마시방구는 연지방구
시누부방구는 여우방구~
메느리방구는 도독방구

[대저동 민요 99]

화투 타령

이순이(여, 1931년생) 가창
2014년 2월 18일 채록
[대저2동 사두경로당]

정월속가지 속속한마음
이월매자에 맺어놓고
삼월사쿠라 산란한마음
사월흑소리 허송하네
오월난초 나는나비
유월목단에 춤을추네
칠월홍돼지 홀로누버

팔월공산 달을보고
공산삼십이 광많다해도
비삼십오에 당할쏜가

[대저동 민요 100]

본조아리랑

장유선(여, 1933년생) 가창
2014년 2월 18일 채록
[대저2동 사두경로당]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님은
십리도 못가서 발병난다

[대저동 민요 101]

모심는 소리

장유선(여, 1933년생) 가창
2014년 2월 18일 채록
[대저2동 사두경로당]

모야모야 노랑모야 니언제커서 환승할래 (카이.)
이달커서 (청중: 이달 크고 저달 크고.) 칠팔월에 환승할란다
(칸다 하더나? 뭐라 카더노? 다 잇아뿌고 모른다.)

[대저동 민요 102]

구멍 타령

김검선(여, 1936년생) 가창
2014년 2월 13일 채록
[대저2동 월포노인정]

저건너 딱따구리는 (뿔이라 캐?) 참나무구멍도 뚫는데
우리집에 저영감은 뚝어전구멍도²⁰¹⁾ 못뚫네

[대저동 민요 103]

노들강변

김검선(여, 1936년생) 가창
2014년 2월 13일 채록
[대저2동 월포노인정]

노들강변 봄버들~ 휘휘늘어진 가지에다가
무정세월 한허리를 칭칭

[대저동 민요 104]

똥 노래

김검선(여, 1936년생) 가창
2014년 2월 13일 채록
[대저2동 월포노인정]

똥도똥도 유가네라
보지똥도 유가네라
미번이는²⁰²⁾ 잠지²⁰³⁾에
고번것도²⁰⁴⁾ 나왔니라.

[대저동 민요 105]

모심는 소리(1)

201) 뚫린 구멍도.
202) 미운 이는.
203) 남자아이의 성기를 완곡하게 이르는 말.
204) 고운 것도.

김검선(여, 1936년생) 가창
2014년 2월 13일 채록
[대저2동 월포노인정]

물끼야청청 헐어놓고 주인네양반은 어데갔노
(아이고 뗏을 손에 들고.)

[청중]

문에야대장보²⁰⁵⁾ 손에들고 첩우야방에 놀러갔소

[대저동 민요 106]

모심는 소리(2)

김검선(여, 1936년생) 가창
2014년 2월 13일 채록
[대저2동 월포노인정]

서마지기 논빼미가 반달만큼 남았구나 (또 뭐시라 카더라?)
(조사자: 제가 무슨 반달이고.) (어?) (조사자: 지가 무슨 반달이고.)
지가무슨 반달이고 초생달이 반달이지

[대저동 민요 107]

모심는 소리(3)

김검선(여, 1936년생) 가창
2014년 2월 13일 채록
[대저2동 월포노인정]

서울이라 왕대밭에 금비둘기가 알을낳아
그알한배 주았으면은 금년과게로 내할꾸로

205) 대전복을 잘못 말한 것임.

[대저동 민요 108]

모심는 소리(4)

김검선(여, 1936년생) 가창
2014년 2월 13일 채록
[대저2동 월포노인정]

오늘낮에 점슴반찬 무슨고기가 올랐던고
(청중: 전라도라.) 고심청을 (마리 반이가.) 한마리반이가 올랐다

[대저동 민요 109]

모심는 소리(5)

김검선(여, 1936년생) 가창
2014년 2월 13일 채록
[대저2동 월포노인정]

풍당풍당 찰수지비 사우야판에 다올랐네

[대저동 민요 110]

양산도

김검선(여, 1936년생) 가창
2014년 2월 13일 채록
[대저2동 월포노인정]

에헤이 추여~~어
양산읍내 물레방아 물을안고 돌~고
우리집에 우리님은 나를안고 도~네
에라 덩딩딩 에라 덩딩딩

에헤에 추여~
가물가물 가물치는 (뭉꼬?) (청중: 연못에 놀고.) 연못에 놀고 (카더라.)

(가물가물 가물치는 연못에 놓고, 아 그거 다 잊어뿔다.) (조사자: 그런 가사 처음 들어 보는데예.) (가물가물 가물치는, 그거는 모르겠고.)
우리님은 연당별장안에 놓고 (이렇다.)

[대저동 민요 111]

진주난봉가

김검선(여, 1936년생) 가창
2014년 2월 13일 채록
[대저2동 월포노인정]

울도담도 없는집에
시집삼년을 살고나이 (이렇다 첨에 그제?)
시어머님 하시는말씀이
야야아가 며늘아가
진주남강에 빨래가라.
(그래 인자, 진주 남강에서 빨래로 하이.)
하늘걸은 갓을씩고
구름걸은 말로타고
(그래 돌아보이까는 저거 서방이거든. 그래.)
껌동빨래 껌게씻고
흰빨래는 희게씻고
집이라꼬 찾아오이
(뭐 뭐 기생첩을 옆에두고, 뭐 뭐 술잔이 오고가고, 뭐이고 다 잊아뿔다.) [웃음] (조사자: 그래가지고 권주가를 부르더라.)
권주가로 부르더라
(카더라, 맞다. 다 알면서 그래 적으면 된다. 그거 맞소. 그 맞다 그래. 그래가지고.)
석자수건에 목을매어
자는듯이 죽었구나 (청중: 자살했지 뭐.)
석자수건에 목을매어
자는듯이 가버리네
버선발로 뛰어나와
그첩의 (저 저 뿔은? 삼년시오 이거 저 저, 백년부부라 카대. 백년부분데.)
니그랄줄 내몰랐다 (이카더라.)

[대저동 민요 112]

봄배추 노래

김검선(여, 1936년생) 가창
2014년 2월 13일 채록
[대저2동 월포노인정]

포롱포롱 봄배차는²⁰⁶⁾ 봄비슬오도록 기다리고 (거 다 잊아뿔네.)
(조사자: 옥에 갇힌.) 옥에갇힌 우런님은 이대령오도록만 기다리고 (그랬다.)

[대저동 민요 113]

지초 캐는 처녀 노래

김검선(여, 1936년생) 가창
2014년 2월 13일 채록
[대저2동 월포노인정]

황해도 구월산밑에 주추캐는 큰아가
(청중: 너의 집은 어디다 두고.)
너의집은 어디다두고 (청중: 해다진데 주추캐나.)
우리집을 찾을라면은
(아이고 무슨 산, 구월산 밑에, 아이고 무슨 산이더라? 무슨 산, 구월산 밑에 초가삼칸
내 집이요 이라더라.)
황해도 구월산밑에 초가삼칸 내집이요 (이래.)

[대저동 민요 114]

남녀 연정요

김복년(여, 1936년생) 가창
2014년 2월 13일 채록
[대저2동 월포노인정]

206) 봄배추는.

도라지평풍²⁰⁷⁾ 연다지안에
잠들은큰아가 문열어라
바람만불고 비오는데
안울줄알고서 문걸었네
꽃본나비는 물주르지요
꽃본나비는 물주르리라
너를두고서 안울소냐

[대저동 민요 115]

모심는 소리

김복년(여, 1936년생) 가창
2014년 2월 13일 채록
[대저2동 월포노인정]

모야모야 노랑모야 니언제커서 환승할래
(이라고.) (조사자: 이달.) (이달, 맞다. 아이고 아네.)
이달가고 저달가고 내훗달에 환승할래

[대저동 민요 116]

다리 세는 노래[이거리 저거리 갖거리]

김복년(여, 1936년생) 가창
2014년 2월 13일 채록
[대저2동 월포노인정]

이거리 저거리 갖거리
동서남도 도맹도
수머리받고 돌고
도래짐 누 갈

207) 도라지 평풍.

[대저동 민요 117]

노랫가락

김복년(여, 1936년생) 가창
2014년 2월 13일 채록
[대저2동 월포노인정]

처남처남 내처남아 너그누부 어디갔노
신던버선에 불걸어놓고 있던적삼 등받아놓고
엔지찍고 분바르고 자형오도록만 기다리네

(청중: 옛날에 그거 신부들, 저저 결혼해 놔놓으면 진작 안 데꼬 가고 일년 해묵히 놓고 가거든. 그래 서방님 한번 가끔 가끔 오면은, 그기 좋아가지고 저 신랑이 색시 보러 갈 라카이까네, 저거 처남인테 물어보이까네 그래 하고 있다, 자형 오도록만 기다리고 연지 끈지 곱게 찍고 자형 오도록 기다리고 있다 칸다.)

[대저동 민요 118]

화투 타령

이복연(여, 1934년생) 가창
2014년 2월 18일 채록
[대저2동 중앙경로당]

정월속가지 속속한마음
이월매자에 맺어놓고
삼월사쿠라 산란한마음
사월흑싸리 흩어졌네
오월난초 나비가되어
유월목단에 앉았구나
칠월홍돼지 홀로앉아
팔월공산에 달떠온다
구월국화 굳은마음
시월단풍에 뚝떨어지고

동지선달 서단풍에
우런님 어디갔노 (칸다.)

[대저동 민요 119]

모심는 소리

이복연(여, 1934년생) 가창
2014년 2월 18일 채록
[대저2동 중앙경로당]

녹수처랑 흐르는물에 연밥따는 저처녀야
연밥줄밥 따지말고 내품에 잠자고가라
(칸다. 고릴 때 고기다. 고 맞다.)

[대저동 민요 120]

노랫가락

이복연(여, 1934년생) 가창
2014년 2월 18일 채록
[대저2동 중앙경로당]

팔공산 달이나솟아 달뜬공원에 두견새울고
압록강 저배를타고 남산고원에 임찾아갈래
임아임아 정드난임아 정들이놓고서 어디를갔나

[대저동 민요 121]

노랫가락[그네 노래]

이복연(여, 1934년생) 가창
2014년 2월 18일 채록
[대저2동 중앙경로당]

수천당 세모진낭개 오색가지에 열매를맺어
임이타면 내가나밀고 내가타면은 임이민다
임아임아 줄밀지말아라 (너무 씨계(세계) 밀지마라 한다.) 줄떨어지면은 정떨어진다

[대저동 민요 122]

청춘가

이복연(여, 1934년생) 가창
2014년 2월 18일 채록
[대저2동 중앙경로당]

청춘하늘에이요 잔별도많고요~
요내야가슴에~ 수심도많구나
(그라고.)
떴다보아라~ 음뿔던저중창~
내려다보면은~ (또 뿔이고? 그 이상 모르겠네 또.)

[대저동 민요 123]

모심는 소리(1)

정효금(여, 1930년생) 가창
2014년 2월 18일 채록
[대저2동 중앙경로당]

남창남창 베루끝에²⁰⁸⁾ 무정하다 저오랍아
나도야죽어서 남자되어 처자권속²⁰⁹⁾ 샘길라네

[대저동 민요 124]

모심는 소리(2)

208) 벼랑 끝에.
209) 처자권속.

정효금(여, 1930년생) 가창
2014년 2월 18일 채록
[대저2동 중앙경로당]

모야모야 노랑모야 니언제커서 환승할래
이달크고 훗달크고 다음달에 환승할래
(그기고.) [웃음]

[대저동 민요 125]

모심는 소리(3)

정효금(여, 1930년생) 가창
2014년 2월 18일 채록
[대저2동 중앙경로당]

풍당풍당 찰수제비 사우야판에 다올랐네
(또 그거뺨이 모르겠고.)

[대저동 민요 126]

모심는 소리(4)

정효금(여, 1930년생) 가창
2014년 2월 18일 채록
[대저2동 중앙경로당]

물꼴랑청청 헐어놓고 주인네양반 어디가나
문애대전복 손에들고 첩의집에 놀러갔네

[대저동 민요 127]

왕거미 노래

정효금(여, 1930년생) 가창
2014년 2월 18일 채록
[대저2동 중앙경로당]

거무야거무야 왕거무야 진주덕산 놀던거무
이산저산 넘어다
(아, 모르겠다. 다 까묵고 없다.)

[대저동 민요 128]

시집살이 노래

정효금(여, 1930년생) 가창
2014년 2월 18일 채록
[대저2동 중앙경로당]

성아성아 사촌성아 시집살이 어떻더노 (카이.)
고추당초 맵다해도 시집살이 더매볼까²¹⁰⁾

[대저동 민요 129]

다리 세는 노래[이거리 저거리 갖거리]

정효금(여, 1930년생) 가창
2014년 2월 18일 채록
[대저2동 중앙경로당]

이거리저거리 갖거리
동서남부 때만구
딱발이 양산

[대저동 민요 130]

그네 노래

210) 더 매울까.

정효금(여, 1930년생) 가창
2014년 2월 18일 채록
[대저2동 중앙경로당]

수천당 세모시낭개 오색가지를 그네를매여
임이타면 내가밀고 내가타면 임이밀고
임아임아 줄살살미라 줄떨어지면 정떨어진다

5. 명지동 민요

[명지동 민요 1]

도라지 타령

이상분(여, 1930년생) 가창
2014년 2월 21일 채록
[명지동 사취등경로당]

도라지 도라지 백도라지
심심 산천에 백도라지
한두 뿌리만 캐여도
바구미 반찬이 되노라
에헤용 에헤용 에헤요
에야라 난다 기화자자 좋다
니가 내간장 시리살살 다독히네

[명지동 민요 2]

아기 재우는 노래[자장가]

이상분(여, 1930년생) 가창
2014년 2월 21일 채록
[명지동 사취등경로당]

자장자장 자장자장
금자동아 옥자동아
철기철산 보배동아
자장자장 자장자장

[명지동 민요 3]

비 노래

이상분(여, 1930년생) 가창
2014년 2월 21일 채록
[명지동 사취등경로당]

[옹듯이]
비야비야 오지마라
우리새이 시집간다
가매문에 비들치고
다홍치마 어릉진다

[명지동 민요 4]

잠자리 잡는 노래

이상분(여, 1930년생) 가창
2014년 2월 21일 채록
[명지동 사취등경로당]

철기야 철기야
붙은자리 붙어라
먼데가면 죽는다

[명지동 민요 5]

노랫가락(1)[나비 노래]

이상분(여, 1930년생) 가창
2014년 2월 21일 채록
[명지동 사취등경로당]

오폐당포 나비야 매우당에다 꽃을두고
나날이 못오실망정 달달이나 와서주소

[명지동 민요 6]

노랫가락(2)[나비 노래]

이상분(여, 1930년생) 가창
2014년 2월 21일 채록
[명지동 사취등경로당]

나부야 청산가자 호랑나부야 너도가자
가다가 저물거든 꽃밭속이나 잠자고가소

[명지동 민요 7]

모심는 소리

박심례(여, 1935년생) 가창
2014년 2월 21일 채록
[명지동 순아1구마을회관]

모야모야 노랑모야 니언제커서 열매열래
이달크고 저달크고 춘삼월에 열매여네

모시적삼 속적삼에 분통걸은 저젓봐라
많이보맨 뱅이들고 좁쌀만치만 보고싶네

[명지동 민요 8]

이 빠진 아이 놀리는 노래

박심례(여, 1935년생) 가창
2014년 2월 21일 채록
[명지동 순아1구마을회관]

앞니빠진 갈가지
우물가에 가지마라
송어새끼 놀란다

[명지동 민요 9]

산비둘기 소리 흥내 노래

박심례(여, 1935년생) 가창
2014년 2월 21일 채록
[명지동 순아1구마을회관]

기집죽고 자식죽고²¹¹⁾
내한채서 어찌사꼬²¹²⁾

[명지동 민요 10]

이 빠진 아이 놀리는 노래

강병이(여, 1940년생) 가창
2014년 2월 20일 채록
[명지동 진목마을 진목경로당]

앞니빠진 개우지
고랑창에 가지마라
빈대한테 뺨맞는다
깨구리한테 뺨맞는다

211) 계집 죽고 자식 죽고.
212) 내 혼자서 어찌 살고.

[명지동 민요 11]

비 노래[비야 비야 오지 마라]

강병이(여, 1940년생) 가창
2014년 2월 20일 채록
[명지동 진목마을 진목경로당]

비야비야 오지마라
우리언니 시집간다
가매꼭대 비맞는다
곱은옷에 어릉진다

[명지동 민요 12]

형부 권주가

강병이(여, 1940년생) 가창
2014년 2월 20일 채록
[명지동 진목마을 진목경로당]

[창부타령 곡조로]

열두폭 치알밑에²¹³⁾ 서른두폭 휘장안에
대리안은 우리형부
첫잔술을 붓거들랑 장모로먼저 권하시고
두잔술을 붓거들랑 재안앞을²¹⁴⁾ 권하시고
석잔술을 붓거들랑 자리밑으로 부어주오
열시구 절시구 지화자가 좋네
아니 노지를 못하리라

(그거 노래 의미는요, 어- 의붓엄마 밑에서 커가지고 시집을 갔는데. 시집을 갔는데, 안자 두 딸을 낳아놓고 엄마가 죽고, 아버지가 재혼을 했는데, 갯혼을(결혼을) 하는데 인자, 이 자기가 덕고(데리고) 온 딸이 있었어. 그랬는데, 그 딸을 이 남자가 너무너무 좋은 거라. 이 인자 결혼할 사위가. 그런데 제 딸로 그리 결혼을 시켰으면 좋는데, 아

213) 차일 밑에.

214) 장인 앞을.

부지가 세아가지고 그리 결혼을 시키는데, 그래 인자 이 사위로, 사위로 죽일라고, 죽 일라고 인자 그래갖고 어 약을 탕는 거로 갖다가 저거 동생이 봤뿌리는 거라. 동생이 그거로 보고 인자 이 노래로 불렀는 거라, 동생이. 열두 폭 채알 밑에 서른두 폭 휘장 안에, 대리 안은 우리 형부 첫 잔, 인자 먼저 장모로 권하라는 소리는 약을 장모가 탕기 때문에 인자 장모로 먼저 권하라 이긴 갑쥌? 그랬는데, 장모 먼저 권하시고 두잔 술을 붓거들랑 장인 먼저 권하시고, 석잔 술은 자리 밑으로 부어주라는 거는 목지 마라이 말이겠지요.)

[명지동 민요 13]

아기 어르는 소리[알강달강요]

김정애(여, 1933년생) 가창
2014년 2월 20일 채록
[명지동 진목마을 진목경로당]

알강달강 서울가서
밤한대를 사가지고
체독안에 너어났디
새양지가 다까먹고
단지하나 남안것을
애비는 껍질주고
애미는 애미하고
나하고 내하고
살키를 갈라먹자

[명지동 민요 14]

사발가

김정애(여, 1933년생) 가창
2014년 2월 20일 채록
[명지동 진목마을 진목경로당]

석탄백탄 타는데 연개도짐도 안나고
요내가슴 타는데 연개도짐도 안나네

[명지동 민요 15]

다리 세기 노래

황보수영(여, 1941년생) 가창
2014년 2월 20일 채록
[명지동 진목마을 진목경로당]

아잡아²¹⁵⁾ 잡아
어데가노
새잡으로 간다
한마리 주문
꿍어묵고
두마리 주문
찌지묵고
오줌낭개
불이 붙어

6. 천가동(현 가덕도동) 민요

[천가동 민요 1]

모심는 소리

권덕선(여, 1927년생) 가창
2014년 2월 10일 채록
[천가동 1통(동선동 동선마을) 동선경로당]

(무슨놈의.)²¹⁶⁾ 첩이건데 낮에가고 밤에가요
낮에는 놀러가고 밤에는 자러가요

215) 아저씨야.

216) 이 부분은 미처 녹음되지 않은 부분임.

[천가동 민요 2]

모심는 소리

김봉애(여, 1933년생) 가창
2014년 2월 10일 채록
[천가동 1통(동선동 동선마을) 동선경로당]

모야모야 노랑모야 니언제커서 열매열래
이달크고 훗달크고 칠팔월에는 열매여리

[천가동 민요 3]

아기 재우는 노래[자장가]

김봉애(여, 1933년생) 가창
2014년 2월 10일 채록
[천가동 1통(동선동 동선마을) 동선경로당]

자장자장 우리아기
꼬꼬닭아 울지마라
멍멍개야 짖지마라
우리아기 잘도잔다

[천가동 민요 4]

달 타령

김봉애(여, 1933년생) 가창
2014년 2월 10일 채록
[천가동 1통(동선동 동선마을) 동선경로당]

[윽듯이]
옥도끼로 찍어서
금도끼로 따듬아

삼칸을 집을지어
양친부모 모시놓고
천년만년 살고짚다

[천가동 민요 5]

잠자리 잡는 노래

김봉애(여, 1933년생) 가창
2014년 2월 10일 채록
[천가동 1통(동선동 동선마을) 동선경로당]

짚랍아 콩콩
지자리 붙어라
먼데가몬 니죽는다

[천가동 민요 6]

모심는 소리

정복덕(여, 1932년생) 가창
2014년 2월 10일 채록
[천가동 1통(동선동 동선마을) 동선경로당]

물꼬야청청 헐어놓고 주인네양반은 어디갔소
등넘에다 첩을두고 첩으야집에는 놀라갔소

[천가동 민요 7]

다리 세기 노래

정복덕(여, 1932년생) 가창
2014년 2월 10일 채록
[천가동 1통(동선동 동선마을) 동선경로당]

애옹지옹
가매딱지
딱게 동

[천가동 민요 8]

모심는 소리

허순자(여, 1933년생) 가창
2014년 2월 10일 채록
[천가동 1통(동선동 동선마을) 동선경로당]

서마지기 모를숨어 반달겉은 내나가네
너가무슨 반달이나 초승달이가 반달이지

오늘낮에 점سم반찬이 무슨자반이 올랐는고
전라도라 고등청에 마리아자반이 올랐더네

타박타박 타박머리 해다전데 니어데가노
우리엄마 산소등에 젓먹으로 내가가요
해다지고 저문날에 골짜골짜 연기내는데
우리할망 어디가고 연기낼줄을 모르던고

[천가동 민요 9]

모심는 소리

하춘자(여, 1936년생) 가창
2014년 2월 10일 채록
[천가동 2통(성북동 성북마을) 성북노인정]

(모야모야 노랑모야.)²¹⁷⁾ 니언제커서 열매열래
이달크고 저달크고 칠팔월에 열매연다

217) 이 부분은 미처 녹음을 하지 못한 부분이다.

[천가동 민요 10]

창부타령

강경애(여, 1937년생) 가창

2014년 2월 10일 채록

[천가동 3통(성북동 선창마을) 선창동경로당]

빈대베룩 꿩는방에 구신같은 저임보소
한때두때 꿩더라해도 같은임을 만나주소
얼씨구~ 좋네 정말로 좋네 아니 노지를 못하리라

내가너를 따릴적에 아프라고 내따랐나
사랑사랑 장구열채 부대부대 감정마오
얼씨구~ 좋네 정말 좋네 아니 노지를 못하리라

[천가동 민요 11]

저고리 노래

강경애(여, 1937년생) 가창

2014년 2월 10일 채록

[천가동 3통(성북동 선창마을) 선창동경로당]

서울에서 내린비단
금값에 싹득비어
조생고 바나질에
일만군 짓을달아
동애꽃은 동정을달아
비단구름 설피달아
아척서리 사똥맞쳐
먼데입이 뺨을맞쳐
입자하니 몸때문소
개자하니 살이져요
팔때맞차 걸어놓고
하니라 남이오나

임은 아무래도 못오신가
얼씨구 좋다

[천가동 민요 12]

아기 어르는 소리[금자동아 은자동아]

김말분(여, 1931년생) 가창
2014년 2월 10일 채록
[천가동 3통(성북동 선창마을) 선창동경로당]

은자동아 금자동아
만첩청산에 보배동아
은을준들 너를사나
돈을준들 너를사나
어와둥둥 내사랑아
채이끝에는 싸래기요
옹구전에는 바내기요
어와둥둥 내사랑아

[천가동 민요 13]

아기 재우는 노래[자장가]

김말분(여, 1931년생) 가창
2014년 2월 10일 채록
[천가동 3통(성북동 선창마을) 선창동경로당]

자장자장
우리애기 잘도잔다
멍멍개야 짚지마라
꼬꼬달아(닭아) 울지마라
우리애기 잘도잔다

[천가동 민요 14]

본조아리랑

김말분(여, 1931년생) 가창

2014년 2월 10일 채록

[천가동 3통(성북동 선창마을) 선창동경로당]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님은
십리도 못가서 발병난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니가 잘나서 천하일색이나
내눈에 어려워서 환장이로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님은
십리도 못가서 발병난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임의정 좋다고 실토정을 말어라
이별이 되고보면 백년의원수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천가동 민요 15]

창부타령(1)

김말분(여, 1931년생) 가창
2014년 2월 10일 채록
[천가동 3통(성북동 선창마을) 선창동경로당]

아니아니 노지를 못하리라
나비없는 저청산에 꽃이피면은 뿔하리
임이없는 나의얼굴에 단장을 하면은 무엇하리
이산저산 사쿠라꽃은 바람불까도 수심이요
홀로있는 나의몸에 뱅들까봐도 수심이네
얼씨구나 절씨구 아니 노지를 못하리다

백구야 백구야 날지를마라 너를쫓아서 내안간다
저청산이 하도나뵈아 너를쫓아서 내안간다

나비야 청산을가자 호랑나비야 너도가자
가다가 가다가 저물거든 꽃밭속에서 잠자리가소

[천가동 민요 16]

창부타령(2)

김말분(여, 1931년생) 가창
2014년 2월 10일 채록
[천가동 3통(성북동 선창마을) 선창동경로당]

석탄백탄 타는데에는 연기야풍풍 나건마는
조그만한 내가슴 타는데는 연기도짐도 아니나네

이산저산 사쿠라꽃은 바람불까도 수심인데
홀로있는 나의몸에는 뱅들까봐도 수심이요

우리엄마 나설적에 죽심나물을 원하더니
그의죽심은 왕대가되고 왕대끝에 학이앉아
학아점점 젊어서오고 우리부모님 극락가고
얼씨구나 절씨구 아니 노지를 못하리라

[천가동 민요 17]

양산도

김말분(여, 1931년생) 가창

2014년 2월 10일 채록

[천가동 3통(성북동 선창마을) 선창동경로당]

노세 놀아라 저궂어 놀~아
늑고야 병이들면 못놀이로~다
에헤이여
가는님 허리를 다리담씩 안고
죽여라 살려라 사생결단이라
노세 놀아라 저궂어 놀~아
늑고야 병이들면 못노리로~다

[천가동 민요 18]

후실장가 노래

김말분(여, 1931년생) 가창

2014년 2월 10일 채록

[천가동 3통(성북동 선창마을) 선창동경로당]

개야개야 수만개야
만리팽풍 올라베야
연철에라 자석주고
후실장개를 가지마소
화살하고 진동하고
친구전에다 전해(주오)²¹⁸⁾

[천가동 민요 19]

양산도

218) 녹음이 되지 않은 부분이다.

김말분(여, 1931년생) 가창
2014년 2월 10일 채록
[천가동 3통(성북동 선창마을) 선창동경로당]

에헤 에헤이여~
청춘하늘에는 자리잔별도 많~고
쫄그만은 우리가슴에는 수심도 많~네

에헤 에헤이여~
세월네월아 봄한철아 오고가지 말~어
아까운 우리청춘 다늠어진~다

에헤 에헤이여~
니가잘나서 천하일색이~냐
내눈에 어두워서 환장이로~다

[천가동 민요 20]

모심는 소리

김복연(여, 1935년생) 가창
2014년 2월 12일 채록
[천가동 7통(천성동 두문마을) 두문마을회관]

서마지기 논빼미는 반달같이도 넘어가네
니가무슨 반달이나 초승달이 반달이지

물기야청청 헐어놓고 주인네양반은 어디갔나
문어야전복을 오려들고 첩의야집으로 놀로가네

무슨첩이 그리좋아 밤에도가고 낮에도가노
낮으로는 보러가고 밤으래는 자러가요

뜸복뜸복 밀수지비 사위야판에 다올랐네
우리할멈 어디가고 딸을동자 시겼던고

타박타박 타박순아 해다진데 어데가노
우리엄마 상사등에 젓먹으로 내가가요
해다지고 저문날에 골골마다 연기나고
우리할맘 어데가고 연기낼줄 모르는고

[천가동 민요 21]

창부타령(1) [남녀 연정요]

김복연(여, 1935년생) 가창
2014년 2월 12일 채록
[천가동 7통(천성동 두문마을) 두문마을회관]

산은첩첩 청산이요 물은출렁 녹수로다
녹수청산 흐르는물에 배차씻는²¹⁹⁾ 저처자야
곁에곁있는 소꾸리넣고 속에속있을 나를주마
당신이언제 날봤다고 속에속있을 달라하요
오늘보면 초면이지만 내일보면 구면이요

[천가동 민요 22]

창부타령(2) [꽃 노래]

김복연(여, 1935년생) 가창
2014년 2월 12일 채록
[천가동 7통(천성동 두문마을) 두문마을회관]

꽃아꽃아 곱은꽃아 높은봉에 피지마라
행운이 재촉하면은 반만피고서 슬피진다
필적에는 곱게피고 질적에는 슬피지네
명사십리 해당화야 너꽃진다 서러마라
맹년삼월 춘삼월되면 꽃도피고 잎이된다

219) 배추 씻는.

[천가동 민요 23]

진주난봉가

김복연(여, 1935년생) 가창

2014년 2월 12일 채록

[천가동 7통(천성동 두문마을) 두문마을회관]

울도담도 없는집에
시집삼년을 살고나니
시어머니 하시는말씀
아가아가 메놀아가
진주남강에 빨래가라
진주남강 빨래가면
물도 좋고 돌도 좋고
검은빨래는 껌게씻고
흰빨래는 희게씻고
집이라고 돌아오니
구름같은 말을타고
하늘같은 갓을쓰고
못본체하고 지나가네
그것보기 원통하여
집이라고 돌아오니
아가아가 메놀아가
너거낭군 불러거든
아랫방으로 내려가라
문을열고 들어서니
아홉가지 술을놓고
아홉가지 안주놓고
첩으야 사랑하네
이러고 살라하니
원통해서 못보겠네

[천가동 민요 24]

창부타령(3) [첩 노래]

김복연(여, 1935년생) 가창

2014년 2월 12일 채록

[천가동 7통(천성동 두문마을) 두문마을회관]

간다지요 간다지요 첩으야집으로 간다지요
첩의집은 꽃밭이고 이네집은 연못가라
꽃과나비는 봄한철이고 연못가붕어는 사시한철
잘살아라 잘살아라 첩을두고서 잘살아라
니도청춘 나도청춘 누가잘사나 두고보자

[천가동 민요 25]

다리 세기 노래[이거리 저거리 갖거리]

김복연(여, 1935년생) 가창

2014년 2월 12일 채록

[천가동 7통(천성동 두문마을) 두문마을회관]

이거리 저거리 갖거리
청도맹근 또맹근
노래미즘치 장두간
짹발이 해양근
머구발에 덕서리
동 지 설 달 대 서 리

[천가동 민요 26]

잠자리 잡는 노래

김복연(여, 1935년생) 가창

2014년 2월 12일 채록

[천가동 7통(천성동 두문마을) 두문마을회관]

짚래비 공공
붙은자리 붙어라
먼데가몬 니죽는다
그자리에 붙어라

[천가동 민요 27]

화투 타령

김복연(여, 1935년생) 가창
2014년 2월 12일 채록
[천가동 7통(천성동 두문마을) 두문마을회관]

정월솔가지 속속한마음
이월매조 맺아놓고
삼월사꾸라 필동말동
사월흑사리 허사로다
오월난초 나는나비
유월목단에 춤잘추네
칠월홍돼지 홀로누워
팔월공산에 달도밝다
구월국화 굳었던마음
시월단풍에 뚝떨어지고
동시오동 떨어져서
선달뒤에 젖었구나

[천가동 민요 28]

풀국새 노래[산비둘기 흥내 노래]

이정자(여, 1940년생) 가창
2014년 2월 12일 채록
[천가동 7통(천성동 두문마을) 두문마을회관]

뿌꼭 뿌꼭
자석 죽고
기집 죽고
논밭 전지
숲에 장지

[천가동 민요 29]

다리 세기 노래

김정수(여, 1931년생)·배귀순(여, 1938년생) 가창
2014년 2월 11일 채록
[천가동 8통(천성동 서중마을) 서중마을할머니회관]

[김정수]
천세 만세
주매이 끈
오리 짐치 장두칼
노리야 소식 이야
방구야 똥 깨 (이래 안 하나.) (청중: 그랬나? 우리는 다 틀리.)

[배귀순]
한당걸레
두당걸레
쫓록쫓록 감세
능금 다래
아금 머른

[천가동 민요 30]

이 빠진 아이 놀리는 노래

김정수(여, 1931년생) 가창
2014년 2월 11일 채록
[천가동 8통(천성동 서중마을) 서중마을할머니회관]

앞니빠진 개우지
삼진먹고 (저, 저. 뭐꼬?) (청중: 삼년 묵은 술값 내라.)
술값내라 (이런 소리했다 우리.)

[천가동 민요 31]

풍덩이 놀리는 노래

김정수(여, 1931년생) 가창
2014년 2월 11일 채록
[천가동 8통(천성동 서중마을) 서중마을할머니회관]

팽덕아 돌아라
돈주꾸마 돌아라
팽덕아 돌아라
돈주꾸마 돌아라

(조사자: 그건 뭐할 때 할때?) (청중: 뭐 할 때 했느냐?) (아하 뭇할 때 했노. 팽등어로
날아가는거를 잡아가지고예.) (조사자: 뭘 날라 가는 거?) (팽등이. 팽등이. 밑에 나나놓
고 뱅뱅 해딱 대빌디(뒤짚어) 놔놓고 뱅뱅뱅뱅 돌거든예. 그게 짐승 이름이 팽등이거든.)
팽등아 돌아라
돈주꾸마 돌아라
팽딩이
(이러모, 이기 마 발로 이래가 해딱 대버때리가 뱅뱅뱅 안 돕니꺼.)

[천가동 민요 32]

산비둘기 흥내 노래

김정수(여, 1931년생) 가창
2014년 2월 11일 채록
[천가동 8통(천성동 서중마을) 서중마을할머니회관]

지집 죽고 자식 죽고²²⁰⁾
내혼무차²²¹⁾ 어찌 살꼬
뿌궁 뿌궁 뿌궁

220) 계집 죽고 자식 죽고.
221) 내 혼자.

[천가동 민요 33]

가덕도 노래

박연이(여, 1925년생) 가창
2014년 2월 11일 채록
[천가동 8통(천성동 서중마을) 서중마을할머니회관]

[창부타령 곡조로]

눌차에 문필봉어는 가덕의 문호이오
가덕의 연대산어는 섬중에는 조종이라
천수마을 천수대는 섬중에는 명산이오
동두마을 등댓불어는 뱃길을 알으키고
삼신도 해안에는 생복이 생산이라
눌차의 석화맛은 세계의 제일이요
새바지 겨울이되면 대구가 조종이라
대항리 함포장어는²²²⁾ 세계에 제일이요
얼씨구나 좋다 기화자 좋네
기화자 바람에 다팔아 열고
백수건달이 되었구나

[천가동 민요 34]

굴 까는 노래²²³⁾

박연이(여, 1925년생) 가창
2014년 2월 11일 채록
[천가동 8통(천성동 서중마을) 서중마을할머니회관]

[창부타령 곡조로]

벼룩박에²²⁴⁾ 걸린시계야 땡구랑땡땡 치지마라
니가가며는 세월이가고 세월가면 청춘늬네

222) 화포장에는.

223) 굴 갈 때 부르는 노래를 불러 달라고 하자, 특별히 정해진 노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하고 싶은 노래를 굴을 까면서 부른다고 했다. 본 <굴 까는 노래>에서 제보자가 주로 부른 노래는 <창부타령>으로 부른 노래들이다.

224) 벼룩박은 '벽'은 속어로 방언임.

(그래 마 어째건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앉아서.)
 저게가는 저구름아 어떤신선이 타싯는고
 웅천하고 천자봉에 노던신령님 타싯구나
 (불이몬 노래라. 불이몬. 말만 내몬 노래라.) (조사자: 그렇지.) (예. 그러키 때민에 그건
 하면서 심심하니까, 영천 떼소리를 다 하지. 그래서,)

어저~억이슬 채전발에~에 불이똥꺾는 저큰아가
 누간장을 녹힐라고~오 저래나곱게도 잘생겼노
 아무람사 여자되여~어 군자야간장을 못녹히리 이히~히히

울엄마 날설적에 죽심나물을²²⁵⁾ 원했든가
 그죽심이 왕대가되어 왕대끝에는 학이얏아
 학은점점 젊어오고 우리부모는 백수되네
 세월헤월아 가지마라 알뜰은청춘이 다늡는다 (마 불이몬 노래라.)

[천가동 민요 35]

돈 타령

박연이(여, 1925년생) 가창

2014년 2월 11일 채록

[천가동 8통(천성동 서중마을) 서중마을할머니회관]

돈돈돈 돈봐라
 돈돈돈 돈봐라
 잘난사람은 못난돈
 돈돈돈 돈봐라
 못난사람은 잘난돈
 돈돈돈 돈봐라
 십여적하면 십원짜리요
 돈돈돈 돈봐라
 열그럭 철그럭 원전이요
 돈돈돈 돈봐라
 돈돈돈 돈봐라

225) 죽순 나물을.

어깨넘에도 춤바탄
돈돈돈 돈봐라
돈돈돈 돈봐라
아바피도 온다든돈이
언제나 돌아서 오실랑고
돈돈돈 돈받아라
돈바닥이 돈받아라
어서어서 돈받아라

[천가동 민요 36]

양산도

박연이(여, 1925년생) 가창
2014년 2월 11일 채록
[천가동 8통(천성동 서중마을) 서중마을할머니회관]

에헤에이요~오
니정내정은 모지랑빛자리 싹싹 찢어서
한강철구에²²⁶⁾ 열~어구요~오
없는정 있는듯이 잘살아 보자

[천가동 민요 37]

창부타령(1) [의암이 노래]

박연이(여, 1925년생) 가창
2014년 2월 11일 채록
[천가동 8통(천성동 서중마을) 서중마을할머니회관]

진주기생 의암이가²²⁷⁾ 우리나라조선을 살릴라고
왜장춘향²²⁸⁾ 목을안고 진주야남강에도 떨어졌네
얼씨구 좋네 지화자 좋네 아니 노지를 못하리라

226) 한강 철교예.

227) 의암(義岩)이가. '의암이'는 바로 논개를 말함.

228) 왜장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춘향'을 불현 듯이 왜장 다음에 붙여 불렀다.

[천가동 민요 37]

진도아리랑

박연이(여, 1925년생) 가창

2014년 2월 11일 채록

[천가동 8통(천성동 서중마을) 서중마을할머니회관]

아리 아리랑 쓰리 쓰리랑 아라리가 났네~에
아리랑 음음음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는 열두나 고갠데
정든님 고개고개는 장고개로구나
아리 아리랑 쓰리 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음음음 아라리가 났네

날나려 가거라 나를모셔 가소여
정만이 들은낭군아 나를다리 가소이
아리 아리랑 쓰리 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음음음 아라리가 났네

신장로 길이널러서 길가기 좋구요
전깃불이 밝아서 님을보기 좋다
아리 아리랑 쓰리 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음음음 아라리가 났네

함바당 윤선은 기계심으로 놓고요오
우리집에 저방아기는 저출심을 논다
아리 아리랑 쓰리 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음음음 아라리가 났네

청천하늘에는 잔별도 많고요오
이내야 가삼속에는 수심도 많다
아리 아리랑 쓰리 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음음음 아라리가 났구나

[천가동 민요 38]

난봉가

박연이(여, 1925년생) 가창

2014년 2월 11일 채록

[천가동 8통(천성동 서중마을) 서중마을할머니회관]

에헤야 데헤야 앵헤~이야
에헤야 두등게 디여라 너가몽땅 내사랑
사랑도 싫구나 도돈도 싫다
한많은 이세상에는 사랑도 싫다
에헤야 데헤야 앵헤~이야
이헤야 두등게 디여라 너가몽땅 내사랑

돈도만 알았지야 사람모르는 저잡놈
언제나 죽어서 돈벼락을 맞을래
에헤야 데헤야 앵헤~이야
이헤야 두등게 디여라 너가몽땅 내사랑

저건니 저산이야 대룡명산인가
밤중에 보아도 서기마²²⁹⁾ 번쩍난다
에헤야 데헤야 앵헤~이야
이헤야 두등게 디여라 너가몽땅 내사랑

[천가동 민요 39]

초한가

박연이(여, 1925년생) 가창

2014년 2월 11일 채록

[천가동 8통(천성동 서중마을) 서중마을할머니회관]

229) 서기(瑞氣)만.

[손뼉장단에 맞추어 육자배기 소리로]

초를장천 열평상도
 설곳없고 길이 쉬둥하니
 칼을짚고 일어나니
 사뱅이²³⁰⁾ 초가여로다
 오웨오웨 내가간들
 낸들일을 어이하리
 오부에야 책역하야
 상부님이 흠어지니
 남산밑에 장찬밭은
 어느장부가 갈아주리
 최후에 맑은술은
 어느임이 맛을볼까
 우리낭군 떠날적에
 주문에 손길잡고
 청춘소연을 두고갈테²³¹⁾
 맹년구월이 돌아오면
 근수가 집해졌느냐
 밤중안에도 잇을손가
 언왕천 백마침아
 천천만천 수심이요
 수심수심 많은곳에
 어이갈꼬 수심이야
 어린아기가 아비를불러
 어미간장 다녹는다
 얼씨구 좋다 지화자 좋네
 아니 노지를 못하리라

(이거로 가지고 이기 넘구는 거야 인자. 목이 좋아 나놔놓이. 그라문 인자 또 고마이 부를 적에는.)

[손뼉장단에 맞추어 창부타령 곡조로]

230) 사방이.

231) 청춘소년을 두고 갈 때.

초패왕으~은 초를장천 열평상도 설곳이없고
길이나 시도에 하릴없네
칼으로짚고 일어나니 사뱁이 초가로나
오웨오웨 내가간들 낸들일을 어이하리
오부에앵야 책억하야 상부난님이 흠어지니
남산아밑에야 장찬한발을 어느냐장부가 갈아줄까
최후의 맑은술은 어느임이 맛을볼고
우리야낭군님이 떠날적에 주문에다 손길을잡고
청춘아 소연을 두고갈 때 (청중: 좋다.)
맹년구월이 돌아오면 금수같이 맺었던언약
밤중안에도 잇을소냐
언왕천 백마처마 천천만천도 수심이야
수심수심 많은곳에 어이나갈고도 수심이야
어린아아가기가 아비를불러 어미야내간장 다녹는다
얼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네
지화자 바람에 다팔아영고 백수건달이 되었구나 (청중: 아이구 잘 합니다.)

[천가동 민요 40]

시집살이 노래

박연이(여, 1925년생) 가창

2014년 2월 11일 채록

[천가동 8통(천성동 서중마을) 서중마을할머니회관]

올라가는 올개사리²³²⁾ 내리가는 늦개사리
아작잠깐 끊어다가 번들번들 저동솔에
사들사들 재들아서

(거기 인자 왜 그래 하노 하면은 우에 시집을 가니까는 노할때도 있고, 노할때도 있고, 시할때도 있고, 시할때도 있고, 시어마이도 있고, 시아바이도 있고, 시동성들도 있고, 시누부도 있고, 전부 인자 아래 옷방에 다 있는데, 거기 인자 한 골 매고 두 골 매고 그렇게든요.

232) 올 고사리.

거 어마이가, 거 친정어마이가 죽었는데, 부고가 오니까는, 그 메느리가 그 장찬밭에 온
이울 영천 지정밭이라²³³⁾ 그러거든요. 거.)

[옹조리듯이]

온유월영천 지정밭에

한골매고 두골매고

삼시골로 거듭매니

부고왔네 부고왔네

부모죽은 부고왔네

(그래서 그 꼬사리로 끊어다가.)

[옹조리듯이]

사틀사틀 흘트라서

시굼시굼 시할매요

(아, 저 거기 아이다. 자기 이랴, 죽을 그런 그기라. 데불러 오는 거기 인자 그 각시가
죽을 일이라. 그래서 그거로 갖다 받치놔 놓고.)

[다시 옹조리듯이]

시굼시굼 시할배요

이고양을 받아들고

내대신을 가실라요

에라이년 물렸거라

니갈데는 니가가고

내갈데는 내가가지

시굼시굼 시할매요

내대신을 가실라요

야이년아 물렸거라

니갈데는 니가가고

내갈데는 내가가지

(쭉- 다 내리와도 전부 다 대신을 갈라 카는 사람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면서,

233) 채전 밭이라.

지금은 딱 끊은 기, 저승길을 끊은 기, 백 살에 가나 세 살에 가나, 일흔에 죽으나 여든에 죽으나 지쫘 명예 가도록 끊었답니다. 그렇고 인자, 부모 죽은 그거는 인자.)

[다시 읊듯이]
한골매고 두골매고
삼시골로 거듭매이
부모죽은 부고왔네

시굼시굼 시할매요
오뉴월영천 지정발에
한골매고 두골매고
삼시골로 거듭매이
부고죽은 부고왔소

(카이꺼네.)

[다시 읊으며]
야이년아 물렸거라
매던발을 놔두고
부고따라 니갈기나

(다 물어봐도 시누부꺼정 다 물어봐도 그라더랍니다. 그거는 다 매놔 놓고 초상 치러 가니까 생이가 가더랍니다.) (조사자: 상여가 지나가네.) (예. 질팡갈팡 울고 보자 카이.)

[다시 읊듯이]
야이년아 물렸거라
그시접 못사까이
부고따라 니안왔나
(돌아섬서, 움서.)

[다시 읊듯이]
마당에 누운개야
너보고 내가가지
놀로보고 내가겼노

(카더랍니다. 그 옛날 노래 보몬 징그럽어예. 아무리 시집이 좋지마는 부고 따라 니 안 왔노? 몬 본다 카더랍니다. 그라이 돌아서서 울고 오면서 개가 마당에 있어.)

[다시 읊듯이]
개야개야 삽살개야
니나보고 내가가지
놀로보고 내가겼노

(울고 가더라고 안 합니까.)

[천가동 민요 41]

창부타령(2) [남녀 연정요]

박연이(여, 1925년생) 가창
2014년 2월 11일 채록
[천가동 8통(천성동 서중마을) 서중마을할머니회관]

높은산에는 눈날리고 낮은산에는 비날린다
낮은산에 비를날리 골골마자도 녹수로다
녹수청청 흐르는물에 배차씻는 저큰아가
곁에곁잇은 다재키놓고 속에속대를 나를도라
당신이 날언제봤다 속에속대를 줄라하요

(그것도 노래.) (조사자: 처녀 총각이 안자.) (그렇지. 그 배차를 씻거니까 총각이 내다보 이 얼마나 탐이 났던지 그 속잇만 줄라 카거든요. 속대를 줄라 카니 자기 뭐 몸을 줄라 하는 거 한 가지 아닌가?) (조사자: 그렇지 니가 언제 봤다고.) 그래 니가 언제 날 봤다고 속에 속대를 줄라 하느냐.)

[천가동 민요 42]

각설이 타령

배귀순 (여, 1938년생) 가창
2014년 2월 11일 채록
[천가동 8통(천성동 서중마을) 서중마을할머니회관]

일자나 한장 들고봐
일선에가신 우리낭군 돌아오기만 기다린다
이자나 한장 들고보니
이승만이가 대통령 이북나라 김일성
삼자나 한장 들고보니
삼천만의 동포들이 평화시기만 기다린다
사자나 한장 들고보니
사천이백 팔십칠년도 평화야시대가 닳쳤네
오자나 한장 들고보니
오천만명 제대군인 삼팔선으로 넘어온다
육자나 한장 들고보니
육이오사변을 집팔아지고 거러지신세가 웬말이나
칠자나 한장 들고봐
칠십리밖의 대포소리 금수에강산을 울린다
팔자나 한장 들고보니
팔다리끊어진 상의군인 불쌍하고도 가련하다
구자나 한장 들고보니
군인의가슴 구현하네 이등병중사가 웬말이나
장자나 한장 들고보니
장개가신 첫날밤에 소집영장이 웬말이뇨

[천가동 민요 43]

진도아리랑

배귀순 (여, 1938년생) 가창
2014년 2월 11일 채록
[천가동 8통(천성동 서중마을) 서중마을할머니회관]

아리 아리랑 쓰리 쓰리랑 아라리가 났네~에에
아리랑 끁끁끁 아라리가 났네
저건니 저산이 명산이던가

오동지 설한풍에도 함박꽃이 피네 (청중: 좋다.)
아리 아리랑 쓰리 쓰리랑 아라리가 났네~에에
아리랑 끁끁끔 아라리가 났네

오구랑 머리다 춤벌로²³⁴⁾ 빗고
오동나무 숲속을 임찾아 가자
아리 아리랑 쓰리 쓰리랑 아라리가 났네~에에
아리랑 음음음 아라리가 났네

[천가동 민요 44]

다리 세기 노래

배귀순 (여, 1938년생) 가창
2014년 2월 11일 채록
[천가동 8통(천성동 서중마을) 서중마을할머니회관]

한나 만나
두르마 장구
영장 구지
팔대 장상
꼬드락 땡

[천가동 민요 45]

화투 타령

김덕선(여, 1934년생) 가창
2014년 2월 12일 채록
[천가동 9통(천성동 남중마을) 남중할머니회관]

정월속가지 속속헌마음
이월매득에 맺어놓고

234) 침 발라.

삼월사꾸라 산란한마을
사월흑사리 허리앉아
오월난초 나는나비
유월목단에 춤을추어
칠월홍दै지 홀로누워
팔월공산 달밝은데
비새를 타고서 (숨이 가쁘다.)
구월국화 굳었던마음
시월단풍에 떨어졌네
오동추야 달밝은데
비새를 타고서 유람가네

[천가동 민요 46]

멤들기 노래

김정옥(여, 1937년생) 가창
2014년 2월 12일 채록
[천가동 9통(천성동 남중마을) 남중할머니회관]

고치(고추) 먹고 뱅뱅
소지(소주) 먹고 뱅뱅

[천가동 민요 47]

이 빠진 아이 놀리는 노래

백복순(여, 1941년생) 가창
2014년 2월 12일 채록
[천가동 9통(천성동 남중마을) 남중할머니회관]

웃니 빠진 개우지
삼신 묵고 술값 내라

[천가동 민요 48]

몸 말리는 노래²³⁵⁾

백복순(여, 1941년생) 가창

2014년 2월 12일 채록

[천가동 9통(천성동 남중마을) 남중할머니회관]

(돌, 돌에 이래 옆드리가지고 치바갓고(추워서), 옆드리가지고.)

별은(벚은) 나고

구름은 서울로 가라

(고 별나믄 뜨시, 우리 뜨시라고.)

[천가동 민요 49]

방아깨비 놀리는 노래²³⁶⁾

윤경애(여, 1934년생) 가창

2014년 2월 12일 채록

[천가동 9통(천성동 남중마을) 남중할머니회관]

(연치도²³⁷⁾ 잡아갓고예.)

할맘아 춤추라

영감아 장구치라

(카모 까딱까딱 하거든예. 그걸 보고 자꾸 하는 기라.)

[천가동 민요 50]

풍뎡이 놀리는 노래

235) 수영을 한 후 햇볕에 몸을 말리면서 부르는 아이들의 동요.

236) 이 노래는 일반적으로 달팽이를 잡아서 달팽이가 더듬이를 움직이는 것을 보고 부르는 아이들의 동요이다. 제보자는 달팽이 대신 연치, 즉 방아깨비를 잡아서 놀리면서 부르는 노래로 불렀다.

237) 연치는 방아깨비의 방언.

윤경애(여, 1934년생) 가창
2014년 2월 12일 채록
[천가동 9통(천성동 남중마을) 남중할머니회관]

팽등아²³⁸) 돌아라
마당쌀어 밥주께

[천가동 민요 51]

중머리 놀리는 노래

태금선(여, 1935년생) 가창
2014년 2월 12일 채록
[천가동 9통(천성동 남중마을) 남중할머니회관]

까시리²³⁹) 동동
머리 동동

[천가동 민요 52]

이같이 노래

강순선 (여, 1941년생) 가창
2014년 2월 11일 채록
[천가동 10통(대항동 대항마을) 대항할머니경로당]

까치야 까치야
니는니는 헌니하고
내는내는 새이도고

[천가동 민요 53]

이 빠진 아이 놀리는 노래

238) 팽등이는 '풍덩이'의 방언임.

239) 중머리처럼 까칠하게 깎은 머리를 놀리는 표현.

강순선 (여, 1941년생) 가창
2014년 2월 11일 채록
[천가동 10통(대항동 대항마을) 대항할머니경로당]

앞니빠진 개우지
우물가에 가지마라
(저 그석.)
붕어새끼 놀린다

[천가동 민요 54]

이 빠진 아이 놀리는 노래

김분선(여, 1936년생)
2014년 2월 11일 채록
[천가동 10통(대항동 대항마을) 대항할머니경로당]

앞니빠진 개오지
삼년만에 떡값내라
(다 그 식으로다 우리도.)

[천가동 민요 55]

시집살이 노래

김분선(여, 1936년생) 가창
2014년 2월 11일 채록
[천가동 대항동 대항할머니경로당]

시집살이 어떻더노
쫓그만한 도리판에
수제놓기도 어렵더라
(이래샀고. 이래샀대예.)
(조사자: 중우 벗은.)
[말하듯이]

중우뱃은 시아재비
말하기도 어렵고
(저저.)
수저놓기도 어렵더라

[천가동 민요 56]

다리 세기 노래

김분선(여, 1936년생) 가창
2014년 2월 11일 채록
[천가동 10통(대항동 대항마을) 대항할머니경로당]

한덩거리 두덩거리
쫓록쫓록
감사 녕금
다래 아기
어름
(이러거든예. 이라몬 또 이라 하거든예. 그라몬 또 인자 여 이쪽에 와 안있습니까? 여 어데서.)

한덩거리 두덩거리
세덩거리 네덩거리
쫓록쫓록
감사 녕금
다래 아기
어름

[천가동 민요 57]

아기 어르는 소리[불매소리]

강연선(여, 1927년생) 가창
2014년 2월 11일 채록
[천가동 10통(대항동 외양포마을) 외양포경로당]

불미불미 불미야
정상도 대불미
얼렁얼렁 자장자장 [멋지게 웃음]

[잠시 후 다시 노래를 요청하자]
정상도 대불미
이불미가 누불미고
정상도 대불미

[천가동 민요 58]

태평가²⁴⁰⁾

김곤순(여, 1931년생) 가창
2014년 2월 11일 채록
[천가동 10통(대항동 외양포마을) 외양포경로당]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닐니야 닐니리야 닐니리리야
아니 놀고도 못살겠네

[천가동 민요 59]

양산도

김곤순(여, 1931년생) 가창
2014년 2월 11일 채록
[천가동 10통(대항동 외양포마을) 외양포경로당]

에에에에에히야~
가노라~ 가노라 내가 돌아간~다~아
어덜덜덜그리고 내가 돌아가~안다

240) <태평가> 여음과 <창부타령> 여음이 뒤섞여 있다. 앞부분만 잠시 부르다가 말았다. 이후 <뺏노래>를 불렀으나 역시 부르다가 만 노래여서 채록하지 않았다.

[천가동 민요 60]

아기 재우는 노래[자장가]

박정옥(여, 1948년생) 가창

2014년 2월 11일 채록

[천가동 10통(대항동 외양포마을) 외양포경로당]

자장자장 자장자장
우리애기 잘도잔다
멍멍개야 짚지마라
꼬꼬닭아 울지마라
우리애기 잘도잔다

[천가동 민요 61]

잠자리 잡는 노래

주성애(여, 1931년생) 가창

2014년 2월 11일 채록

[천가동 10통(대항동 외양포마을) 외양포경로당]

자리자리 콩콩
앵자리 콩콩
붙은자리 붙구라
먼데가문 죽는다 (카고 깝 잡고.)

[천가동 민요 62]

아기 어르는 소리[알강달강요]

주성애(여, 1931년생) 가창

2014년 2월 11일 채록

[천가동 10통(대항동 외양포마을) 외양포경로당]

알강달강 우리아기
서울가선 뭐 (조사자: 무슨 선부님.)
밤한데기 가져와서
챗독안에 열었더니
머리깎안 새양쥐가 다까먹고
번데기만 남았다 (카든가.)

[천가동 민요 63]

밀양아리랑²⁴¹⁾

양이덕(여, 1931년생) 가창
2014년 2월 13일 채록
[천가동 11통(놀차동 놀차마을) 항월노인정]

날좀보소 날좀보소 (이것도 잊아뻘다.) (조사자: 동지선달 꽃 본 듯이.)
동지선달 꽃본듯이 날좀보소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에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천가동 민요 64]

진도아리랑

유행순(여, 1921년생) 가창
2014년 2월 13일 채록
[천가동 11통(놀차동 놀차마을) 항월노인정]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음음음 아라리가 났네
청춘 하늘에 잔별도 많고
요내야 가슴에 수심도 많다

241) <밀양아리랑>을 불러달라고 해서 부른 것이다. 그러나 <진도아리랑> 가락과 <밀양아리랑> 가락이 뒤섞여 불안한 상태로 노래를 불렀다.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에에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천가동 민요 65]

시집살이 노래[부모원망요]

유행순(여, 1921년생) 가창
2014년 2월 13일 채록
[천가동 11통(눌차동 눌차마을) 항월노인정]

어매어매 우리어매
뭇할라고 나를낳서
이종사를 시키는가

Ⅱ. 기존 현장조사 민요

1. 김승찬 현장조사 민요
2. 류종목 현장조사 민요
3. 박경수 현장조사 민요

1. 김승찬 현장조사 민요

1) 녹산동 민요

[녹산동 민요 1]

모찌기 등지

가 창 자 : 박이쁜(여, 85)

가 창 일 : 1992. 1. 3.

가창장소 : 녹산동 본동

한강수에다 모를부어 모찌기도 난감하네
하늘에다 모캐갈아 모캐따기가 난감하네

* 김승찬, 『녹산 문화유적 학술보고』, 부산대 한국문화연구소, 1992, 530쪽.

[녹산동 민요 2]

모심기 등지

가 창 자 : 박이쁜(여, 85)

가 창 일 : 1992. 1. 3.

가창장소 : 녹산동 본동

서월이라 항골못에 펄펄뛰는 금숭애야
금숭애잡아서 회쳐놓고 팔도야기상 술부어라

비문었네 비문었네 양산땅에 비문었네
그비가 비아니라 억만군사 눈물이네

안개야 자진골에 방울없는 매가가네
그매가 내매더니 천리매가 되어가네
서마지기다 모를숨거 금실금실 영화로다

우리야부모님 산소등에 솔을숨가서 영화로다

수월이라 명지없어 죽줄비네로 다리나여
그다리로 건닐라니 절절쿵덕 소리나네

오동을깎아서 촛대모아 촛대끝에 불밝히라
그촛대가 다닿가도 부모님간줄 내몰랏네

* 김승찬, 『녹산 문화유적 학술보고』, 부산대 한국문화연구소, 1992, 530쪽.

[녹산동 민요 3]

시집살이요

가 창 자 : 박이쁜(여·85)

가 창 일 : 1992. 1. 3.

가창장소 : 녹산동 본동

산이 높으다해도 시아바이만치 높을소냐?
꼬치후초가 맵다해도 시어마이만치 매울소냐?
외나무다리가 두렵다해도 몯시숙만치 두러울소냐?
봄배추가 푸르다해도 몯동시만치 푸를소냐?
유월콩이 불가진들 시동상만치 불가질까?
보름달이 밝다한들 시누부만치 밝을소냐?
공비단이 곱다한들 울언니만치 고을소냐?

* 김승찬, 『녹산 문화유적 학술보고』, 부산대 한국문화연구소, 1992, 532쪽.

[녹산동 민요 4]

이 노래

가 창 자 : 박이쁜(여·85)

가 창 일 : 1992. 1. 3.

가창장소 : 녹산 본동 마을

옷에이는 옥단춘이 머리이는 강강춘이
니등더리 녀덕할 때
남하사당 집질적에 돌한덩이 메올렀나
니가심에 먹청인들 편지한장 써봤나
니주덩이가 날로운들 말한마디 해봤나

* 김승찬, 『녹산 문화유적 학술보고』, 부산대 한국문화연구소, 1992, 531쪽.

[녹산동 민요 5]

소 노래

가 창 자 : 박이쁜(여·85)

가 창 일 : 1992. 1. 3.

가창장소 : 녹산 본동 마을

정월이라 대보름날 훌치 쟁기라고
삼월이라 삼진날에 피딩기야 소딩기야
치돌아 모른땅에 가니라고 갈건마는
잘가니 못가니 앞에것은 후아잡고
양모하다 깔다구는 물고뜯고 하는구나
두루자는 콩지로다 그렁저렁 지은농사
저거는 알키먹고 나를랑 껌질주네
저건너라 알래망태 엮은 집에
수수깨라 움박집에 쇠도치를 둘러메고
날잡으러 오는가베

* 김승찬, 『녹산 문화유적 학술보고』, 부산대 한국문화연구소, 1992, 531쪽.

[녹산동 민요 6]

모심기 등지

가 창 자 : 최복순(여, 84)
가 창 일 : 1992. 1. 3.
가창장소 : 강서구 녹산 본동마을

장되한섬 모를부어 잡나랙이 반이로세
등너무다 첩을두고 기상첩이 반이로세

찐레꽃을 비치내여 임우보선 불걸었네
임을보고 보선보니 임줄생객이 전혀없네

주천당을 돌아가니 아니묵어도 술내나네
총각묵던 청실배는 맛도좋고 연약하네

* 김승찬, 『녹산 문화유적 학술보고』, 부산대 한국문화연구소, 1992, 528쪽.

[녹산동 민요 7]

모심기 등지

가 창 자 : 허영희(여, 63)
가 창 일 : 1992. 1. 3.
가창장소 : 강서구 녹산 본동마을

석로꽃은 누각가고 찐레꽃은 장가가네
만인간아 웃지마라 씨종재를 바래간다.

* 김승찬, 『녹산 문화유적 학술보고』, 부산대 한국문화연구소, 1992, 528쪽.

[녹산동 민요 8]

모찌기 등지

가 창 자 : 한자복(여, 61)
가 창 일 : 1992. 1. 19.
가창장소 : 미음동 본동마을

아침이슬 찬이슬에 부리똥꺀는 저큰아가
너무첩이 아니더면 이내첩을 삼을거로

둘러싸세 둘러싸세 이뭇자리를 둘러싸세
애워싸세 애워싸세 이뭇자리를 애워싸세

농사철이 돌아와도 신농씨는 아니오네
신농씨가 죽은지가 언제라고 신농씨오기만 기다리오

* 김승찬, 『녹산 문화유적 학술보고』, 부산대 한국문화연구소, 1992, 535쪽.

[녹산동 민요 9]

성주풀이

가 창 자 : 김도익(남,70)
가 창 일 : 1992. 1. 18.
가창장소 : 미음동 와룡마을

여어여루 성주야 성주본이 어데매요
갱상도 안동땅 제비원예다 솔씨본아
거제야 봉산에 던졌더니
그솔이 점점자라나서 타박솔이 되었구나
타박솔이 자라나서 낙락장송이 되었구나
앞집에 김목수야 뒷집에 박목수야
서른세가지 연장망태 늦은짐빠 짙어지고
뒷동산을 제쳐올라 솔한주를 잡고보니
청룡황룡이 휘늘어져 풀자리 풀을푸어
담배한대 피어물고 갓은벗어 등짐하고
웃은벗어 남개걸어 넘우간다 넘우간다
슬그릉슬그릉 톱질이야 웃등치고 가지치고
가지쳐서 웃등지여 한배짐을 모았구나
온갖산천 침을캐여 둥그렇게 배를무어
이산앞에 배를대여 가자세라 가자세라

서른세관 역군들아 나무풀로 가자세라
골라내자 골라내자 성주목을 골라내자
입집터가 생길라꼬 우줄우줄 나렸구나
용의머리 터를댤아 하관머리 주추놓아
호박주추 유리기동 이집지은 삼년만에
이집가중 돌아보니 성주조왕 안모셨네
가자세라 가자세라 성주모시러 가자세라
앞바다 바라보니 우짚배가 삼채뒀네
앞에배를 둘러보니 성주님이 타신배
뒤헛배를 둘러보니 조왕님이 타신배
삼세대 걸어보니 후토지신이 타신배
성주님은 모셔다가 대궁밧에 좌정하고
조왕님은 모셔다가 조왕전에다 좌정하고
후토지신은 불러다가 술한잔을 대접하여
오던질로 회송하고 이집지은 삼년만에
성구왕기가 돌아와서 아들애기 놓거들랑
서울대학 졸업하여 국회의원 매련하고
딸애기 놓거들랑 고이고이 길러내여
정결부인을 매련하고
막아주자 막아주자 화재수도 막아주자
손재수도 막아주자 발크고 손큰놈은
물알로 회송하고 명질고 복진양반
이집가중을 다스려서 여루여루성주야
철년이나 올리소 말년이나 올리소
여어여어 성주여

* 김승찬, 『녹산 문화유적 학술보고』, 부산대 한국문화연구소, 1992, 535-536쪽.

[녹산동 민요 10]

모심기 등지

가 창 자 : 유명혁(남, 64)
가 창 일 : 1992. 1. 18.
가창장소 : 미음동 와룡마을

낭창낭창 배루끝에 무정하다 저오랍아
나도죽어 남자되어 처자부모를 섬길라네

오늘햇님이 요만되니 산골마다 연개나네
우리야할마이 어디가고 연개널줄을 모르던가

* 김승찬, 『녹산 문화유적 학술보고』, 부산대 한국문화연구소, 1992, 534쪽.

[녹산동 민요 11]

모찌기 등지

가 창 자 : 안갑선(남, 69)
가 창 일 : 1992. 1. 19.
가창장소 : 미음동 탑동마을

아침이슬 찬이슬에 부리똥따는 저처자야
부리똥은 따지말고 모심는데 참가하소

들어내자 들어내자 이뭇자리를 들어내자
들어내는 이뭇자리 장구판만치만 남았구나

머리도 좋고 실한처자 줄뽕남게 걸았았네
줄뽕갈뽕 내따주마 백년살이 내캉살자

* 김승찬, 『녹산 문화유적 학술보고』, 부산대 한국문화연구소, 1992, 534-535쪽.

[녹산동 민요 12]

모심기 등지

가 창 자 : 안갑선(남, 69)
가 창 일 : 1992. 1. 19.
가창장소 : 미음동 탑동마을

물꼬랑청청 허러놓고 주인네양반 어디갔노
문어야전복을 손에다들고 첩우집에 놀로갔소

오늘낮에 점섬반찬 무슨고기가 올랐는가
함경도라 동태명태 짚대를띠고 올랐는가

임이가죽어서 연자가되어 춘세끝에 집을짓네
날면봐도 들면봐도 임인줄을 내몰랐네

오늘해가 이만되면 산골마다 연기나네
우런님은 어디를가고 연기낼줄 모르더뇨

밀양삼랑 궁노시에 연밥따는 저처녀야
연밥줄밥 내따주마 내품안에 잠들어라

* 김승찬, 『녹산 문화유적 학술보고』, 부산대 한국문화연구소, 1992, 534-535쪽.

[녹산동 민요 13]

모심기요(3)

가 창 자 : 김금덕(여, 60)

가 창 일 : 2000. 10. 1.

가창장소 : 강서구 범방동 가리새마을

모야모야 노랑모야 니언제커서 열매열래
이달크고 훗달커서 칠팔월에 열매열제

서마지기 저논빼미 반달같이 떠나가네
그게뭇슨 반달이나 초생달이 반달이지

물꼬랑청청 헐어놓고 주인네 양반 어디갔소
문어야 전백을 오리들고 첩의집에 놀로갔소

낭창낭창 베루끝에 무정하다 저오랍아
나도죽어서 남자되어 처자권석 심길랴요

서울이라 왕대밭에 금비들키 알을놓아
그알을하나 주웠으면 금년가게를 내할거로

임이죽어서 연자가되어 춘새끝에다 집을지어
들면보고 날면봐도 임인줄을 내몰랴네

* 김승찬, 『강서구와 장유면 일원 경마장건설부지내 민속조사보고서』, 부산대학교 부설 민족
문화연구소·한국마사회, 2000, 133-134쪽.

[녹산동 민요 14]

진주난봉가

가 창 자 : 김금덕(여, 60)

가 창 일 : 2000. 10. 1.

가창장소 : 범방동 가리새마을

울도담도 없는집에 시접삼년을 살고나니
시어마시 하는말씀 애야아가 며늘아가
너거낭군을 불러거덩 진주야남강 빨래가라
진주야남강에 빨래가서 깎동빨래 깎기씻고
흰빨래는 희기씻고 빨래라고 씻그니
하늘같은 낭군님이 태산같은 말을타고
구름같이도 지내가네 빨래라꼬 씻거서러
집이라꼬 돌아오니 씨어마시 하는말씀
야야아가 며늘아가 너거낭군을 불러거덩
아룻방에 들어가라 아룻방에 들어가니
오색가지 술을놓고 기생의첩은 옆에놓고
니묵어라 내묵어라 앉아 있네
어라너는 물러가라 그말한마디 듣고나서
웃방을 올라와서 석자야세치 명지수건
목을잘라 죽을라네

서방님이 뛰어와서 나를보고 하는말이
기생의첩은 삼년이요 너와나는 백년친군데
죽지말고 너와나와 백년해로를 하고가세
얼씨고나 좋네 지화자 좋네
아니 아니 놀지를 못하리라

* 김승찬, 『강서구와 장유면 일원 경마장건설부지내 민속조사보고서』, 부산대학교 부설 민족
문화연구소·한국마사회, 2000, 139-140쪽.

[녹산동 민요 15]

그네요

가 창 자 : 김금덕(여, 60)
가 창 일 : 2000. 10. 1.
가창장소 : 범방동 가리새마을

주천당 세모시낭게 오색가지를 그네를매여
임이뛰며는 내가나밀고 내가타면은 님이민다
임아 돌리지마라 줄떨어지면은 정떨어진다

* 김승찬, 『강서구와 장유면 일원 경마장건설부지내 민속조사보고서』, 부산대학교 부설 민족
문화연구소·한국마사회, 2000, 141쪽.

[녹산동 민요 16]

술타령

가 창 자 : 김금덕(여, 60)
가 창 일 : 2000. 10. 1.
가창장소 : 범방동 가리새마을

도리동창 동창안에 기러기동동 저형부요
술이라꼬 잡수시거덩 젓어나보고 잡수세요

안주라고 잡수시면 띠지끼보고 잡수세요
술이라꼬 젓어보니 비상에 술이 완연하네
갈라요갈라요 내갈라요 우리집을 내갈라요
사우사우 내사우야 술이나빠 너갈라나
안주가나빠서 너갈라나
안주사 아니나빠 술이나빠서 내갈라요
야밀에 궁노섞에 이슬맺어서 어이갈래
봉성아꽃에다 물들이고 명아꽃을 주름잡아
들며날며 내갈라요

* 김승찬, 『강서구와 장유면 일원 경마장건설부지내 민속조사보고서』, 부산대학교 부설 민족
문화연구소·한국마사회, 2000, 140쪽.

[녹산동 민요 17]

잡타령

가 창 자 : 김금덕(여, 60)

가 창 일 : 2000. 10. 1.

가창장소 : 범방동 가리새마을

하느님이 도술이좋아 비오다가 별나게 하고
우리엄마 재주좋아 베풀다가 나를낳았네

임의산 중놈아 새벽종 치지마라
품안에 들은님이 품밖을 나가느냐

* 김승찬, 『강서구와 장유면 일원 경마장건설부지내 민속조사보고서』, 부산대학교 부설 민족
문화연구소·한국마사회, 2000, 141쪽.

[녹산동 민요 18]

시집살이요(1)

가 창 자 : 김금덕(여, 60)
가 창 일 : 2000. 10. 1.
가창장소 : 범방동 가리새마을

불겉이라 덩은날에 뉘겉이도 지순발을
한골매고 두골매고 석시삼골을 매고나니
집이라고 돌아오니 씨아마시 하는말씀
야야아가 메늘아가 그것을 일이라꼬
삼시세때를 찾아오나 집이라꼬 못들어가서
머리깎고 중이되어 친정집을 찾아가서
동냥왔소 동냥왔소 산골중이 동냥왔소
삽적걸에 선중은 우리딸 같건마는
베틀에 앉은사람 우리엄마 같건마는
삽적걸에 선중은 나의동생 같건마는
방안에 있는사람 우리오빠 같건마는
씨가라고 돌아오니 썩대밭이 되었구나
씨어마시 뉘에보니 호랭이꽃이 피어있고
씨누부 뉘에보니 개살꽃이 피어있고
우리낭군 뉘에보니 함박꽃이 피었구나
꽃아꽃아 함박꽃아 누를보고 이리뵈노
니를보고 그리뵈다

* 김승찬, 『강서구와 장유면 일원 경마장건설부지내 민속조사보고서』, 부산대학교 부설 민족
문화연구소·한국마사회, 2000, 141쪽.

[녹산동 민요 19]

모찌기요

가 창 자 : 서재수(남, 65).한차순(여, 80)
가 창 일 : 2000. 10. 1
가창장소 : 강서구 범방동 가리새마을

둘러싸자 둘러싸자 이모자리를 둘러싸자
둘러싸는 이모자리 장기판만참 남았구나

배꽃일래 배꽃일래 처자수건 배꽃일래
배꽃같은 수건아래 거울같은 눈매보소

* 김승찬, 『강서구와 장유면 일원 경마장건설부지내 민속조사보고서』, 부산대학교 부설 민족
문화연구소·한국마사회, 2000, 133쪽.

[녹산동 민요 20]

모심기요(1)

가 창 자 : 서재수(남, 65).한차순(여, 80)

가 창 일 : 2000. 10. 1

가창장소 : 강서구 범방동 가리새마을

물꼬는청청 헐어놓고 주인양반 어디갔소
문어야전복을 오려들고 첩우야집에 놀로 갔소

모야모야 노랑모야 언제커서 열매열래
이달크고 저달커서 칠팔월에 열매열제

서마지기 이논빼미 반달같이 떠나가네
너가무슨 반달이나 초승달이 반달이지

낭창낭창 베루끝에 무정하던 우리오빠
나도죽어 남자되여 처자권속 섬길라요

* 김승찬, 『강서구와 장유면 일원 경마장건설부지내 민속조사보고서』, 부산대학교 부설 민족
문화연구소·한국마사회, 2000, 133쪽.

[녹산동 민요 21]

모심기요(4)

가창자 : 조일선(여, 76)

가창일 : 2000. 10. 1.

가창장소 : 강서구 범방동 가리새마을

하늘에라 목화송거 목화따기 난감하네
한강수에다 모를부어 모찌기도 난감하네

우리부모가 죽어서러 춘새끝에 집을지어
날면보고 들면봐도 부몬줄을 몰랐네요
모시적삼 안섰안에 함박꽃이 봉지졌네
그꽃한쌍 딸라허니 호령소리가 벽락걸네

머리야좋고 실한처녀 줄뽕낭게 앉아우네
줄뽕갈뽕 내따주마 요내품에 잠들어라

* 김승찬, 『강서구와 장유면 일원 경마장건설부지내 민속조사보고서』, 부산대학교 부설 민족
문화연구소·한국마사회, 2000, 133쪽.

[녹산동 민요 22]

모심기요(5)

가창자 : 한차순(여, 80)

가창일 : 2000. 10. 1.

가창장소 : 강서구 범방동 가리새마을

담안에다 화초를심어 담밖으로 씨러졌네
서울갔던 낭군님이 그꽃보고 흥동하네

비문었네 비문었네 진주덕산 비문었네
그것이 비아니라 억만군사 눈물이네

우리집에 살때는 봉성아꽃에 전했더니
시접살이 석삼년살고나니 미나리꽃에 전했소

흩어진 삼가래 전갯틀에 걸어놓고

하나삼고 두나삼고 이빨아파 못삼겠다

상초상칸 흐른물에 배차씻는 저처자야
곁에곁있는 강지리담고 속대한쌍 나를주소

서른세칸 청개집에 침자질하는 저처자야
침자질은 재치놓고 고개나살편 들어주소

우리엄마 산소등에 솔을심어 영화로세
아적이슬 찬이슬에 털고가도 내가갈라요

우리엄마 산소등에 개똥참외 열었고나
하나따서 맛을보고 우리엄마 젓맛겉소

드문드문 송거라 마당이나 채우자
쏘무쏘무 송거라 고방이나 채우자

구월산중 높은곳에 상초상칸 흐른물에
있은따서 강주리담고 줄기한쌍 나를주소
그줄기 받아 백년부부 삼아주소

* 김승찬, 『강서구와 장유면 일원 경마장건설부지내 민속조사보고서』, 부산대학교 부설 민족문화연구소·한국마사회, 2000, 134-135쪽.

[녹산동 민요 23]

지신풀이

가 창 자 : 한차순(여, 80)

가 창 일 : 2000. 10. 1.

가창장소 : 범방동 가리새마을

지신지신 지신아 주산지신을 울리자
천지현황 생긴후에 일월성신이 밝았구나
산천이 개탁하고 만물이 변성할제
함경도 백두산은 두만강이 둘러있고

평안도 묘향산은 대동강이 둘러있고
황해도 구월산은 세룡강이 둘러있고
경기도 삼각산은 한강수가 둘러있고
충청도 계룡산은 백마강이 둘러있고
전라도 지리산은 영산강이 둘러있고
경상도 태백산은 낙동강이 둘러있고
낙동강정기가 떨어져 이동네주산이 생겼구나
금년해분 xx년에 이동네 가가호호
나갈 때는 반짐들고 들어올 때 온짐지소
울리자 울리자 천년만년 울리자
잡귀잡신은 몰알로 만복은 요리로.

(성주풀이)

여루여루 성주야 이성주가 누성주고
이집가문에 따라성주 성주본이 어딜메뇨
경상도 안동땅에 제비원이 본일레라
제비원에 솔씨를받아 거지봉산에 던졌더니
그솔점점 자라나서 타박솔이 되었구나
타박솔이 자라나서 소부동이 되었구나
소부동이 자라나서 대부동이 되었구나
대부동이 자라나서 낙락장송이 되었구나
앞집에 박대목아 뒷집에 김대목아
서른세가지 연장망태 좌우로 걸머지고
가자시야 가자시야 거지봉산에 솔비러가자
하루가고 이틀가서 거지봉산에 당도하여
한등넘고 두등넘어 나무한주를 거머잡아
그솔끝을 살펴보니 동쪽으로 뺨은가지
까막까치 집을지여 어어 그나무 부정하다
또한나무 거머잡아 그솔끝을 살펴보니
남쪽으로 뺨은가지 황새덕새가 집을지여
어어 그나무 부정하다
또한나무 거머잡아 그솔끝을 살펴보니
온갖잡새가 집을지여 어어 그나무 부정하다
또한나무 거머잡아 그솔끝을 살펴보니
그솔가지 일천가지 대목양반 거동보소

갓은벗어 등집하고 옷은벗어 낭게걸고
 대톱이야 소톱이야 대끝이야 소끝이야
 대대패내고 소대패내고
 장차고 곧은나무는 도리기둥 마련하고
 울퉁불퉁 굽은나무 중방을 마련하고
 곧고도 곧은나무 상량을 마련하고
 가늘고 곧은나무 서까래 마련하고
 이집나무 다한후에 좋은날 가려받아
 용의머리 터를뺏아 좌좌우향을 지어볼까
 우좌좌향을 지어볼까 좌좌우향이 분명하다
 호박주추 유리석에 좌우로 물반하고
 도리기둥을 세워보자 도리기둥 세운후에
 상량대공 엮었구나 상량대공 엮은후에
 서까래를 걸었구나 서까래를 걸은후에
 오색토 알매었어 청재황재를 엮었구나
 청재황재 엮은후에 사모에 풍경달아
 동남풍 들이불면 풍경소리 요란하다
 도량청청 밝혀놓고 좋은날 가려받아
 모시러가자 모시러가자 성주님을 모시러가자
 백지삼장 몸에품고 은하수 당도하니
 돌배삼채가 떠들어온다 앞에배 바라보니
 성주님이 타신배요 뒤에배 바라보니
 조왕님이 타신배요 삼세째를 바라보니
 시주조앙 타신배요 시주조앙 모셔다가
 이집가정에 좌정하고 이집짓고 삼년만에
 아들애기 낳거들랑 경상감사를 마련하고
 딸애기를 낳거들랑 하늘이라 옥황상제
 맘며느리 점지하고 이집이라 대주양반
 동서남북 다다녀도 말소리 향내나고
 웃음소리 꽃이피어 만대부귀 영화하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성주님께 비나이다
 여루여루 성주

(조왕놀이)

여루여루 조앙아 이조앙이 누조앙고

이집가정에 따른조앙 천년조앙 만년조앙
천년이나 올리소 만년이나 올리소
여루여루 조앙아

(청룡풀이)

여루여루 청룡아 우청룡 좌백호
좌청룡 우백호 천년이나 올리소
만년이나 올리소 여루여루 청룡아

(장독풀이)

여루여루 장독아 이장독이 누장독고
하늘이라 옥황상제 맡며느리 장독이요
한도가지 물을길어 한도가지 장을담아
장이라고 담거들랑 꿀맛같이 달아주소
여루여루 장독아

- * 김승찬, 『강서구와 장유면 일원 경마장건설부지내 민속조사보고서』, 부산대학교 부설 민족문화연구소·한국마사회, 2000, 136-139쪽.

[녹산동 민요 24]

임타령

가 창 자 : 한차순(여, 80)

가 창 일 : 2000. 10. 1.

가창장소 : 범방동 가리새마을

빈대닷되 머구닷되 끓는방에 등신같은 저임보소
일년이라 열두달에 하리를 살다가말아도 같은님캉 만나지

- * 김승찬, 『강서구와 장유면 일원 경마장건설부지내 민속조사보고서』, 부산대학교 부설 민족문화연구소·한국마사회, 2000, 139쪽.

[녹산동 민요 25]

모심기요(8)

가 창 자 : 김윤근(남, 72)

가 창 일 : 2000. 10. 3.

가창장소 : 강서구 범방동 본동마을

이물꼬저물꼬 혈어놓고 지인네활량이 어데갔노
첨우가그렇게 유정해서 낮에가고도 밤에가나

앞집에 총각은 장가도 잘가는데
나는 어찌해서 장가도 왜못가나

멈아멈아 정심멈아 정심참이 늦어오네
반달같은 밥바구리 온달같이 떠나오네

- * 김승찬, 『강서구와 장유면 일원 경마장건설부지내 민속조사보고서』, 부산대학교 부설 민족문화연구소·한국마사회, 2000, 136쪽.

[녹산동 민요 26]

모심기요(2)

가 창 자 : 배말순(여, 78)

가 창 일 : 2000. 10. 3.

가창장소 : 강서구 범방동 본동마을

점심아 실었다 또박밭에 어데만침 오십니까
전라도라 북도멩태 짚띠로띠고 올랐다네

임이죽어서 연자가되여 춘새끝에다 집을짓고
날민보고 들민봐도 임인줄을 내몰랐네

- * 김승찬, 『강서구와 장유면 일원 경마장건설부지내 민속조사보고서』, 부산대학교 부설 민족문화연구소·한국마사회, 2000, 130쪽.

[녹산동 민요 27]

모심기요(6)

가 창 자 : 장필련(여, 76)
가 창 일 : 2000. 10. 1.
가창장소 : 범방동 장전마을

낭창낭창 버리끝에 무정하다 저오랍아
나도죽어서 남자되여 처자권속 싱길라네
유자캥탕자캥 근원이좋아 한꼭지에 둘열었네
유자캥탕자캥 장가가고 성노캥탕자는 배양가네

* 김승찬, 『강서구와 장유면 일원 경마장건설부지내 민속조사보고서』, 부산대학교 부설 민족
문화연구소·한국마사회, 2000, 135쪽.

[녹산동 민요 28]

시집살이요(2)

가 창 자 : 장필련(여, 76)
가 창 일 : 2000. 10. 3
가창장소 : 범방동 장전마을

반달반달 반달대기 시집삼년 살고나니
목매꽃걸은 요내얼굴 개나리꽃에 전하시고
동해걸은 요내별목 재럽석되 전하시네
못살레라 못살레라 시집살이 못살레라
삼단걸은 요내머리 수싯대다 전하시고
무시나면 불똥무시 까지나면 불똥까지
쌀이나면 시싸래기 못살레라 못살레라
시집살이 못살레라

* 김승찬, 『강서구와 장유면 일원 경마장건설부지내 민속조사보고서』, 부산대학교 부설 민족
문화연구소·한국마사회, 2000, 141-142쪽.

[녹산동 민요 29]

시집살이요(3)

가 창 자 : 장필련(여, 76)
가 창 일 : 2000. 10. 3
가창장소 : 범방동 장전마을

성아성아 올키성아 시집살이 어떻더노
고치당초 맵다해도 시집카마 맵으린가
못살레라 못살레라 시집살이 못살레라

- * 김승찬, 『강서구와 장유면 일원 경마장건설부지내 민속조사보고서』, 부산대학교 부설 민족문화연구소·한국마사회, 2000, 142쪽.

[녹산동 민요 30]

모심기요(7)

가 창 자 : 홍성연(남, 68)
가 창 일 : 2000. 10. 3.
가창장소 : 범방동 장전마을

모야모야 노랑모야 언제커서 열매열래
이달크고 훗달커서 칠팔월에 열매여지

정섬아 실었다 또박밭에 오데만침 오시는고
이등저등 건너다가 칠갱이에걸려 더디단네

낭창낭창 벼루끝에 무정하다 울오랍아
나도죽어서 남자되어 처자권속 생길라네

- * 김승찬, 『강서구와 장유면 일원 경마장건설부지내 민속조사보고서』, 부산대학교 부설 민족문화연구소·한국마사회, 2000, 135쪽.

[녹산동 민요 31]

청춘가

가창자 : 홍성연(남, 68)
가창일 : 2000. 10. 3
가창장소 : 범방동 장전마을

이팔 청춘에 소년몸 되어서
백발 보고서 웃지를 마라

산이 높아야 골도나 깊고요
조그만헌 여자속이 얼마나 깊을소냐

산천 초목에 불질러 놓고요
진주야 남강에 물질러 가노라

천길 만길에 똑떨어져 살아도
정든님 떨어져서 못 사리로다

우연히 싫더나 누말을 들었나
나만 보면은 샘부텨 내느냐

오르막 내르막 층계층 소리는
자다가 들어도 내낭군 소리로다

* 김승찬, 『강서구와 장유면 일원 경마장건설부지내 민속조사보고서』, 부산대학교 부설 민족문화연구소·한국마사회, 2000, 142쪽.

[녹산동 민요 32]

모심기 등지

가창자 : 권경태(남, 72)
가창일 : 1992. 1. 27.
가창장소 : 생곡동 마음마을

아침이슬 채전밭에 부리똥꺀는 저처자야
누구간장을 녹힐라고 눈매조차 그리곱노

오늘해가 요만되니 밤밭골 연기나네
우리임은 어디가고 연개넬줄 모르는고

* 김승찬, 『녹산 문화유적 학술보고』, 부산대 한국문화연구소, 1992, 533쪽.

[녹산동 민요 33]

모찌기 등지

가 창 자 : 이정순(여, 65)
가 창 일 : 1992. 1. 27.
가창장소 : 생곡동 마음마을

오늘아침 모안동무 해다지니 이별이네
석자수건 목에걸고 내일아침 상봉하세

서마지기 이모판이 장기판만침 남았구나
장기야판이사 좋건마는 돌리없어 못두겠네

* 김승찬, 『녹산 문화유적 학술보고』, 부산대 한국문화연구소, 1992, 533쪽.

[녹산동 민요 34]

모찌기 등지

가창자 : 김이호
가창날짜 : 1982. 7. 27.
가창장소 : 송정동 방근마을

일월이 돌아와도 이슬꺀줄 모르는고
명화대를 꺀켜들고 이슬털로 가자스라

한강수에 물을부어 모찌기도 난감하네
하늘에다 목화숨가 목화따기도 난감하네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구비문학대계 8-9』, 1983, 523-524쪽.

[녹산동 민요 35]

모심기 등지

가창자 : 김이호

가창날짜 : 1982. 7. 27.

가창장소 : 송정동 방근마을

물꾸야청청 흐러놓고 이내양반 어데갔소
문어전복 에리(빨리)들고 첩우야방에 놀러갔소

진주단청의 양사장에 장기뚜는 처남손아
애국(傾國)일색 너거누나 남정호걸 날을주게

모시적삼 안섰안에 연시(軟柿)같은 저젓보소
많이보면 병나는데 쌀알만침 보고가소

저게가는 저구름은 어데신선 타고간고
용천하고 천자봉에 노던신선 타고가네
오늘낮에 점심은 어데만치 오시는고
이등저등 건디다가 칠케걸려 몬온다네

오늘낮에 점심반찬 무엇무엇이 올랐는고
함경도에 떼명태가 짚띠를 띠어서 올랐네다

오늘햇님 다졌는가 골짜골짜기 연기나네
우리야할멈은 어데가고 지녁을 할줄을 모르는고

멍멍동 상제여(가재여) 해가졌다 나오너라
도듬도듬 놀다가 해다졌는지 내몰랐네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구비문학대계 8-9』, 1983, 524-525쪽.

[녹산동 민요 36]

모심기 등지

가 창 자 : 황정성(남, 71)
가 창 일 : 1992. 1. 4.
가창장소 : 송정동 본동마을

모시적삼 안섰안에 함박꽃이 봉지짓네
그봉지를 딸라하면 호랭소리가 백락걸네

점심아실었다 도부바리 어데만치 오시는고
이등넘고 저등넘다 칩딩에걸려서 난감하네

서월이라 왕대밭에 금비들키가 알을낳네
그알한개 주와서면 금년과계를 내할거로

해다졌네 해다졌네 양산땅에 해다졌네
빵긋빵긋 웃는애기 못다보고 해다졌네

* 김승찬, 『녹산 문화유적 학술보고』, 부산대 한국문화연구소, 1992, 532-533쪽.

[녹산동 민요 37]

모심기 등지

가 창 자 : 선창 김남선(여, 56)
후창 박차순(여, 88)
가 창 일 : 1992. 1. 3.
가창장소 : 지사동 본동마을

이논빼미에다가 모를심어 금실금실 영화로다
우리형지 팔형지는 갓을씨워 영화로다.

서마지기 이논빼미 반달같이도 떠나간다
지가무슨 반달이나 초승달이 반달이지

님이죽어서 연자가되어 춘세 끝에 집을지워
날면보고 들면봐도 임인줄은 내몰랐네

서월갔던 선뵈님아 우리선뵈 안오던가
오기사 오더마는 칠성판에 실리오데
아랫위논 모꾼아 춘삼월이 언제더노
우리야 부모님 길떠날때 춘삼월에 오신다데

* 김승찬, 『녹산 문화유적 학술보고』, 부산대 한국문화연구소, 1992, 529쪽.

[녹산동 민요 38]

혀 짧은 이의 보리타작요

가 창 자 : 김남선(여, 56)
가 창 일 : 1992. 1. 3.
가창장소 : 지사동 분동마을

오해야 오해야
강너머 봉산에 비묻어온다
낮보지 꼭꼭 뚜디리라
앞집에 형수씨도 내좃만 바래고
(가창 : 이렇게 노래를 하니까 정지에 있는 자기 마누라가 우스워서 정지
에서 웃어 싸니까)
정지 저거는 날만보면 좃도잡고²⁴²⁾
짚것뻥것 웃어쌓네

* 김승찬, 『녹산 문화유적 학술보고』, 부산대 한국문화연구소, 1992, 530쪽.

[녹산동 민요 39]

모심기 등지

242) '좋다고'의 잘못된임.

가창자 : 박차순(여, 88)
가창일 : 1992. 1. 3.
가창장소 : 지사동 본동마을

상좌야 초롱에 불밝히라 첩우야방에 놀로가자
첩도높고 나도높고 저초롱불로 누가끌꼬
모야모야 노랑모야 언제커서 열매열네
이달크고 훗달크고 칠팔월에 열매열지

* 김승찬, 『녹산 문화유적 학술보고』, 부산대 한국문화연구소, 1992, 529쪽.

[녹산동 민요 40]

모심기 등지

가창자 : 조필련(여, 75)
가창일 : 1992. 1. 3.
가창장소 : 지사동 본동마을

해다지고 저문날에 옷갈아입고 어디가요
첩의집을 가실라거든 내죽는꼴을 보고가소

우리집에 클직에는 봉선화꽃에다 날전하고
시집삼년 살고나니 미나리꽃에다 날전하네

* 김승찬, 『녹산 문화유적 학술보고』, 부산대 한국문화연구소, 1992, 537쪽.

[녹산동 민요 41]

보리타작요

가창자 : 조필련(여, 75)
가창일 : 1992. 1. 3.
가창장소 : 지사동 본동마을

오 - 해야 엇쭈해야
잘도 넘어간다
햇바지야 접바지야
잘도 넘어간다

* 김승찬, 『녹산 문화유적 학술보고』, 부산대 한국문화연구소, 1992, 538쪽.

2) 천가동(현 가덕도동) 민요

[천가동 민요 1]

시집살이요

가 창 자 : 이소전(여, 78)
가 창 일 : 1991. 7. 13.
가창장소 : 천가동 대항마을

성아 성아 올키 성아	
시집살기 어떨더노	시집살기 좋다마는
도래도래 도래판에	수제(수저)놓기 어렵더라
둥글둥글 수박그릇	밥담기도 어렵더라
중우벗은 시아제비	말해기도 어렵더라

* 김승찬, 『가덕도의 기층문화』, 부산대 한국문화연구소, 1993, 274쪽.

[천가동 민요 2]

혀 짧은 사람의 보리타작요(I)·(II)

가 창 자 : 이소전(여, 78)
가 창 일 : 1991. 7. 13.
가창장소 : 천가동 대항마을

(I)

오해야 오해야

형수씨도 내 존²⁴³만 보요 (후렴) 오해야 오해야
 제수씨도 내 존만 보요 (") 오해야 오해야
 삼이우지 다 댕기도 (") 오해야 오해야
 내 좃 하내만 바래보요 (") 오해야 오해야
 모두다 내 존만 보요 (") 오해야 오해야

(II)

오해야 오해야

이 보지²⁴⁴를 쳐 주거든 (") 오해야 오해야
 보지 끝을 단디봐라 (") 오해야 오해야
 어서어서 뚜디리소 (") 오해야 오해야
 한마당을 치고나면 (") 오해야 오해야
 탁주 한말 나오니라 (") 오해야 오해야
 하늘만 보고 뚜디리라 (") 오해야 오해야
 얼른퍼떡 몰아내자 (") 오해야 오해야
 서쪽을 쳐다봐라 (") 오해야 오해야
 구름이 몰아 들어온다 (") 오해야 오해야
 얼른퍼떡 몰아내자 (") 오해야 오해야
 요집 주인아 들어봐라 (") 오해야 오해야
 탁주 한말을 가져온나 (") 오해야 오해야
 이 마당을 치고나면 (") 오해야 오해야
 탁주 한말을 먹고나면 (") 오해야 오해야
 또 한마당을 쳐서보자 (") 오해야 오해야
 하늘님아 하늘님아 (") 오해야 오해야
 별만 많이 나서주면 (") 오해야 오해야
 이 마당을 얼른 치요 (") 오해야 오해야

* 김승찬, 『가덕도의 기층문화』, 부산대 한국문화연구소, 1993, 275-276쪽.

[천가동 민요 3]

아기 어루는 노래

243) 손; 좃(혀 짧은 발음).

244) 보리; 보지(혀 짧은 발음).

가창자 : 이소전(여, 78)
가창일 : 1991. 7. 13.
가창장소 : 천가동 대항마을

금자동아 옥자동아	만구강산에 보배동아
네 어디갔다 인제와	동남풍 건들하니
바람에 붙어서 니 왔나	구름에 싸여서 니 왔나
비에서 묻혀 니 왔나	어와 둥둥 내사랑이야
니 어디갔다 인제와	하늘에서 쑥 빠졌나
땅에서 푹 솟았나	낮은 남게는 전가지
높은 남게는 할가지	어와 둥둥 내사랑이야

체이 끝에는 싸래기	옹구전에 바내기
싸래기 받아서 닭주고	딩기(등겨) 받아서 개주고
온쌀 받아 밥하고	어와 둥둥 내사랑이야

모래밭에 수박걸이	둥글둥글 잘 크거라
어와 둥둥 내사랑이야	

* 김승찬, 『가덕도의 기층문화』, 부산대 한국문화연구소, 1993, 274쪽.

[천가동 민요 4]

화투노래

가창자 : 이소전(여, 78)
가창일 : 1991. 7. 13.
가창장소 : 천가동 대항마을

외와 보자 외와 보자	화투 한모 외아 보자
정월 솔가지 속속하니	이월 매조 맺어 놓고
삼월 사꾸라 산란하니	사월 흑사리 허리 감고
오월 난초 나던 나비	유월 목단에 춤 잘 추고
칠월 흥돼지 홀로 누워	팔월 공산 달도 밝네

구월 국화 굳었던 마음 시월 단풍에 뚝 떨어지고
오동추야 빗님을 싣고 비새 찾아 유람가자.

* 김승찬, 『가덕도의 기층문화』, 부산대 한국문화연구소, 1993, 273-274쪽.

[천가동 민요 5]

처남·자형 화답가

가 창 자 : 이소전(여, 78)

가 창 일 : 1991. 7. 13.

가창장소 : 천가동 대항마을

서울이라 반지경에	장기두던 처남손아
너에 누부 뵈하더노	입던적삼 등 박더나
신던 보선 불걸더나	입던 적삼 등 안 박고
신던 보선 불 안 걸고	동지선달 긴긴 밤에
자형 오기 기다리데.	애중일사 ²⁴⁵⁾ 너그 누부
남중호걸 날 마다고	여덟 폭 치마 따서
한 폭은 꼬깔 짓고	한 폭은 바랑 짓고
남중호걸 날 안 맞고	깎고 깎고 머리 깎고
신중되어 나갔단다.	

* 김승찬, 『가덕도의 기층문화』, 부산대 한국문화연구소, 1993, 275쪽.

[천가동 민요 6]

물레요

가 창 자 : 이소전(여, 78)

가 창 일 : 1991. 7. 13

가창장소 : 천가동 대항마을

245) 女中一色.

물레야 뱅뱅 돌아라 꾸리꾸리를 감아보자
물레야 뱅뱅 돌아라 꾸리꾸리를 감아가주
베틀에 앉으며는 복에 얽어 끈하여 놓고
요리 찰칵 조리 찰칵 물레야 뱅뱅 돌아라.

* 김승찬, 『가덕도의 기층문화』, 부산대 한국문화연구소, 1993, 293쪽.

[천가동 민요 7]

아기 어루는 노래

가창자 : 이정렬(여, 75)
가창일 : 1991. 7. 12
가창장소 : 천가동 대항마을

등등등 내 사랑 어와 등등 내 사랑
니 어디 갔다가 인지 왔노?
니 어디 갔다가 인지 와
동남풍 건들하니 바람에 붙어서 니가 왔나
어와 등등 내 사랑
외씨같은 보선 발로 살큼살큼 걸어온다
뒤를 걸어라 뒷매로 보자
앞을 걸어라 앞매로 보자
어와 등등 내 사랑
부모한테는 효자동 나라에는 충신동
동네방네 유신동 일가친척에 우애동
형지간에 화목동
어와 등등 내 사랑

* 김승찬, 『가덕도의 기층문화』, 부산대 한국문화연구소, 1993, 288-289쪽.

[천가동 민요 8]

임타령 (I)·(II)

가창자 : 이정렬(여, 75)
가창일 : 1991. 7. 12
가창장소 : 천가동 대항마을

(Ⅰ)

님은 가고	봄이 오니
꽃만 피어도	님의 생각
오뉴월	삼복더위에
강물만 넘치도	님의 생각
구시월	외기러기
낙엽만 떨어져도	님의 생각
동지 선달	설한풍에
백설만 날려도	님의 생각
앉아 생각	누워 생각
생각 생각에	다 늙는다.

(Ⅱ)

너와 나와	만내가주
아들 놓고	딸을 놓아
며늘이가	아들 정을 앗아가고
사우란 놈이	딸 정을 앗아가고
무정하신	저승채사
우리 영감	모시가고
크다란	빈 방안에
홀로 앉아	생각하니
앉았으니	임이 오요
누웠으니	잠이 오요
임도 잠도	아니 오고
모진 강풍이	날 속이네

* 김승찬, 『가덕도의 기층문화』, 부산대 한국문화연구소, 1993, 289-290쪽.

[천가동 민요 9]

성주풀이

가창자 : 황삼복(남, 70)

가창일 : 1991. 7. 12.

가창장소 : 천가동 대항마을

어이여 어야도 성주님아 (후렴:) 어이여
어이여 어야도 조왕님아 "
성주 근본 모시러 가자 "
성주 근본이 어디메냐? "
경상도 안동땅에 "
제비원에 솔씨를 받아 "
이 산 저 산에 흘렸더니 "
그 솔이 점점 자라나서 "
소장목이 되었구나 "
소장목이 자라나서 "
중장목이가 되었구나 "
중장목이 자라나서 "
대장목이 되었구나 "
앞집에 김대목아 "
뒷집에 박대목아 "
서른 세 가지 연장갓차 "
남산 향해 올라가자 "
남산 향해 올라갈 때 "
은하수 물을 길러 "
고양미로 메를 지어 "
산신님께 제만을 하고 "
첫째 나무를 바라보니 "
까막까치가 집을 지어 "
어- 그 장목 부정하다 "
둘째 나무를 바라보니 "
온갖 잡새가 집을 지어 "
어- 그 나무도 못쓰겠다 "
김목수 박목수 들어보소 "
굽은나무는 굽다듬고 "
곧은나무는 곧다듬어 "
좌우 산으로 내려와서 "

용의 등에다 터를 닦아 " "
 와가 삼칸을 지었구나 " "
 이 집 지은 삼년만에 " "
 아들 다섯을 놓거들랑 " "
 검사판사를 매련하고 " "
 딸 다섯을 놓거들랑 " "
 견우직녀로 매련하소 " "
 오날이 며칠이나? " "
 정월이라 대보름날 " "
 모서로가자 모서로가자 " "
 성주님을 모서로가자 " "
 은하수 저 바당에 " "
 배가 세짝 떠 돌온다 " "
 첫째 배를 바라보니 " "
 오방지신이 실린 배요 " "
 둘째 배를 바라보니 " "
 성주조왕이 타신 배라 " "
 세째 배를 바라보니 " "
 육각의 대신이 타신 배라 " "
 첫째 배를 불러다가 " "
 시내방천에 닷줄을 매고 " "
 이 집 도량을 들른 후에 " "
 세째 배를 불러다가 " "
 육각 대신에 검사한 후에 " "
 둘째 배를 불러다가 " "
 성주님을 모셔오니 " "
 성주님이 왕림하네 " "
 이 집이라 대주양반 " "
 조선 십삼도 다 땡기도 " "
 남의 눈에 꽃이 되고 " "
 남의 눈에 잎이 되어 " "
 발끝마다 상(향)내 나소 " "

* 김승찬, 『가덕도의 기층문화』, 부산대 한국문화연구소, 1993, 286-288쪽.

[천가동 민요 10]

상여소리

가창자 : 김동식(남, 45)

가창일 : 1990. 8. 3.

가창장소 : 천가동 동선마을

너--와 너-와 너와넘차 너-와 (후창) 상두군들의 '너-와 너-와 너와넘차 너-와
십이명-- 상두꾼아 어깨메고 소리하세 (후창)
간다간다 나는간다 용골용천 찾아간다 (")
이제가면 언제오노 언제다시 돌아올까 (")
어느누가 잡을손가 어느누가 막을손가 (")
저곡너머 떴던구름 동작조차 불길없네 (")
일직사자 등을밀고 월직사자 손을끌고 (")
우리인생 가는길에 가는세월 잡을손가 (")
부귀영화 좋다한들 어느누가 말길손가 (")
초로같은 우리인생 하루밤에 이슬이네 (")
우야천답 처진물도 염라국을 못사내고²⁴⁶⁾ (")
글잘하던 소신장도 염라국을 못면하고 (")
양유청산 두견새야 니가아마 슬피운들 (")
뼈는씩어 진토되고 살은씩어 우수될때 (")
터미산²⁴⁷⁾에 올라가서 용연그림²⁴⁸⁾ 둘러놓고 (")
딸자숙을 이별하고 빈손빈몸 털고갈때 (")
세상천지 양귀비도 꽃만지면 불몸없고 (")
우리인생 청춘인들 죽어진들 소양있나 (")
빈손빈몸 가는인생 어느세월 득달하나 (")
깊은물에 다리놓고 이강저강 건널적에 (")
아들딸이 노자하고 저승길을 인도할때 (")
어느누가 똑똑은가 어느누가 벼술인가²⁴⁹⁾ (")
살아생전 사람이요 죽어지면 고목이라 (")
저강건너 배를모아 이난보살²⁵⁰⁾ 노를젓고 (")

246) 좋은 들 많은 논에 물을 넘쳐나게 대어놓은 富農도 염라국을 돈으로 사지 못하고

247) 수미산

248) 용과 연꽃의 무늬가 있는 그림.

249) 벼슬했는가.

만경창파 먼바다에 저사공아 배를돌려 (")
 세상일을 저버리고 이세상에 손을씻고 (")
 멀고먼길 떠날때는 어느누가 동행할꼬 (")
 딸자숙이 소중한들 아비대신 자숙갈까 (")
 일가친척 화목한들 어느누가 대신갈꼬 (")
 멀고먼길 떠날때는 저승사자 동행하여 (")
 세상일을 저버리고 저승으로 건너가세 (")
 하루이틀 더살라고 저승사자 도굼²⁵¹⁾받아 (")
 분부하고 재촉하니 뉘말이라 내가듣나 (")
 어서가자 바빠가자 누명이라 지체할래 (")
 열두대문 열어놓고 재판관이 문소²⁵²⁾잡고 (")
 남녀죄인 처결한후 지옥가고 극락갈때 (")
 이세상에 사람들아 누나없이 공영하고 (")
 일가친척 화목하고 친구간에 우애하소 (")
 불른사람 이름보니 청패루에 새긴이름 (")
 어젯날에 청춘인들 오늘날에 수적없고 (")
 꽃과같이 고운얼굴 한나잘에 주름가고 (")
 총명하게 밝은귀가 한세월에 먹목²⁵³⁾되고 (")
 박씨같이 고운이가 하나없이 빠졌으니 (")
 입에여서 우물거린 우리인생 불몸없네 (")
 천방질방(天方地方) 몰아갈때 높은데는 낮게밀고 (")
 낮은데는 올려주고 높은데는 내려주고 (")
 이내갈길 바쁘도다 상두꾼아 어서가자 (")
 저승길이 멀다해도 삼짱박이 저승이네 (")
 황천길이 멀다한들 건너산이 황천일세 (")
 한줌한손 흙밭되니 우리인생 초량²⁵⁴⁾하다 (")
 죽은고목 잎이피니 얼마오래 지낼손고 (")
 꽃이라도 낙화하면 오던나비 아니오고 (")
 우리인생 한분가면 영영못올 길을간다.(")

* 김승찬, 『가덕도의 기층문화』, 부산대 한국문화연구소, 1993, 271-273쪽.

250) 저승길의 보살.
 251) 도움.
 252) 문서.
 253) 먹통.
 254) 처량.

[천가동 민요 11]

모심기 등지

가창자 : 김정순(여, 75)
가창일 : 1990. 8. 1.
가창장소 : 천가동 동선마을

아즉이슬 채전밭에 부리똥꺀는 옆동아야²⁵⁵⁾
옆동아가 아니되면 안동아낙 삼을거로
밭이사 역밭인들 씨조차도 역씨일랑가

* 김승찬, 『가덕도의 기층문화』, 부산대 한국문화연구소, 1993, 270쪽.

[천가동 민요 12]

탕건노래

가창자 : 김정순(여, 75)
가창일 : 1990. 8. 1.
가창장소 : 천가동 동선마을

가덕 첨사 십년에
오백줄 탕건을 못 써보고
지물(제물)에 살푼 넘었네.

천성 만호 십년에
천수대 놀음을 못 해보고
지물에 살푼 넘었네.

안골 만호 십년에
흥굴(좋은 굴) 한 바리 못 먹어보고
지물에 살푼 넘었네.

* 김승찬, 『가덕도의 기층문화』, 부산대 한국문화연구소, 1993, 268-269쪽.

255) 옆동네 아가씨야

[천가동 민요 13]

가덕노래

가창자 : 김정순(여, 75)
가창일 : 1990. 8. 1.
가창장소 : 천가동 동선마을

명명도 진술 한 잔	서독할사 가덕이야
성출이 요요하니	개월입도 천성이야
천성하고 천수대는	시여군사 ²⁵⁶⁾ 놀음이요
남산에 달이 울어	이름짓던 한목 ²⁵⁷⁾ 이야
해물 갖은 외양포야	
높우다 연대봉은	남산 보고도 손을 치고
쫓그만은 갈미도는	나라 거기에다 봉양하고
쫓그만은 밤꿈 ²⁵⁸⁾ 동네	목선 소리 재촉하고
통통 붓인 부신당 ²⁵⁹⁾ 에	김부선이 왕래하고
옹골볼당 곳 선창에	김부선을 매여놓고
다리 짚썩 눈체야 동네 ²⁶⁰⁾	가이없어도 떨어졌네
닷거리 ²⁶¹⁾ 끝 저 몽돌은	흰내뺨에 씻겨나고
쫓그만은 생지동 ²⁶²⁾ 에	꽃이야 피어서 화초로다
얼씨구나 좋다 정말 좋다	아니 놀지를 못하리라
새끼야 백발은 공출로 가고	인간의 백발은 썬 곳 없네
얼씨구나 좋다 정말 좋다	아니 놀지를 못하리라

* 김승찬, 『가덕도의 기층문화』, 부산대 한국문화연구소, 1993, 294쪽.

[천가동 민요 14]

베틀요

256) 시여군사 : 水營軍士
 257) 大項.
 258) 밤꿈 : 栗里
 259) 부신당 : 婦人堂
 260) 눈체야 동네 : 놀차 동네
 261) 碇巨.
 262) 생지동 : 생교동

가창자 : 김정순(여, 75)
가창일 : 1990. 8. 1.
가창장소 : 천가동 동선마을

하늘에 노던 선녀 인간에 재귀하야
옥난간 베틀나여 베틀다리가 사형제요
앞다리는 돋기 놓고 뒷다리는 낮기 놓고
그 우에 앉은 양은 앉을꺼로 치치놓고
허리안개 두른양은 복두야 칠성을 두른듯고
북 나들은 저 거동은 청학이 알을 물고
백운간으로 왕래하니 배오래기 떨어지듯
배 부른 왕거무는 지(자기) 줄 쳐서 잇는듯고
보디집 치는 양은 우룩(우리) 장단에 벽락(벼락) 산이 무너지고
잉엿대는 샘형지요 놀림대는 호부래비
백만 균줄을 거나리고 백방초를 에웠으니
용도마리 우는 양은 칠팔월의 외기러기
짜을 잃고 짝 찾는다.
신나뭇대(베틀신대) 노던 양은 강태공의 낚수대요.
<이하는 기억하지 못함>

* 김승찬, 『가덕도의 기층문화』, 부산대 한국문화연구소, 1993, 269쪽.

[천가동 민요 15]

모심기 등지

가창자 : 김정순(여, 75) · 신필애(여, 82)
가창일 : 1990. 8. 1.
가창장소 : 천가동 동선마을

(선창) 산도산도 봄산인걸 잎이피서 산을덮네.
(후창) 임도임도 우른임²⁶³은 한산소매로 나를덮네.

263) 우리 임.

(선창) 옥수난간 부전봉에 달뜨는것 보기좋고,
(후창) 우리문전 사랑앞에 임노는것 보기좋소.

* 김승찬, 『가덕도의 기층문화』, 부산대 한국문화연구소, 1993, 270쪽.

[천가동 민요 16]

모심기 등지

가 창 자 : 김정순(여, 75)·신필애(여, 82)

가 창 일 : 1990. 8. 1.

가창장소 : 천가동 동선마을

(선창) 더디더라 더디더라 오늘점숨이 더디더라.
(후창) 미나리라 수금초²⁶⁴맛보느라고 더디더라.

(선창) 더디더라 더디더라 오늘점숨이 더디더라
(후창) 은제(銀箒)닷단 늦제닷단 세노라고도 더디더라.

(선창) 더디더라 더디더라 오늘점숨이 더디더라
(후창) 이등저등 넘노라고 칩냉쿨에 걸렀다네

* 김승찬, 『가덕도의 기층문화.』 부산대 한국문화연구소, 1993, 270-271쪽.

[천가동 민요 17]

모심기 등지

가 창 자 : 김정순(여, 75)·신필애(여, 82)

가 창 일 : 1990. 8. 1.

가창장소 : 천가동 동선마을

(선창) 해다졌네 해다졌네 양산땅에도 해다졌네
(후창) 빵긋빵긋 웃는애기 못다보고도 해다졌네

264) 시금치.

<해가 졌을 때는 다음과 같이 부름>

(선창) 아지랑창 자지랑창

(후창) 지질창 열창 세실동창 맞따지

(선창) 누를 보고도 열렸노

(후창) 청상과수야 너를 보고도 열렸네

(선창) 충청도 줄복숭 아개자개도 열렸네

(후창) 강남땅 강대추 주지야가지도 열렸네

* 김승찬, 『가덕도의 기층문화』, 부산대 한국문화연구소, 1993, 271쪽.

[천가동 민요 18]

모심기 등지

가 창 자 : 김찬이(여, 80)

가 창 일 : 1990. 8. 2.

가창장소 : 천가동 동선마을

아그창창 죽일창 열창새살 동창맛달이
누를보고도 열리노 청청과수야 누를보고도 열린다

피꿀피꿀참개구리 피꼬리집을 찾을라거던
삼시묵고 돈닷돈받고 미나리깡만 찾아라

* 김승찬, 『가덕도의 기층문화』, 부산대 한국문화연구소, 1993.

[천가동 민요 19]

모심기 등지

가창자 : 정옥련(여, 72)
가창일 : 1992. 2. 26
가창장소 : 천가동 장항마을

알곰삼삼 고연 독에 술을 하여서 금청주요
팔모로 깎아 유리잔에 나비 앉아서 권주하네
이히 - 후후 -
베짜는방 저각시는 무슨잠이 그리오요
거지봉산 남기좋아 방이따시 잠이오요
이히 - 후후 -
물고야철철 혈어놓고 주인양반은 어데간고
등너메다 첩을두어 첩의야방에 놀로갔네
이히 - 후후 -
무슨년의 첩이건대 밤에야 가고도 낮에 가노
밤으로는 자로 가고 낮으로는 놀로 가네
이히 - 후후 -
서월이라 왕대밭에 금비들키 알을 낳아
그 알 하나 날 쫓으면 금년 과게 내 할거로
이히 - 후후 -
울도 담도 없는 집에 멍지 베짜는 저 큰 아가
멍지 베는 내 짜주마 내 품안에 잠 들어라
이히 - 후후 -

* 김승찬, 『가덕도의 기층문화』, 부산대 한국문화연구소, 1993, 291-292쪽.

[천가동 민요 20]

구녕타령

가창자 : 정옥련(여, 72)
가창일 : 1992. 2. 26
가창장소 : 천가동 장항마을

뒷동산 땃때구리 생구녕도 뚫는데
우리 집에 저 문디이 뚫힌 구녕도 못 뚫네

여게 꽃고 저게 꽃고 쥐인네 마느래 거게 꽃고
꽃기사도 꽃다마는 엄사리자 뿔뿔말뿔

* 김승찬, 『가덕도의 기층문화』, 부산대 한국문화연구소, 1993, 292쪽.

[천가동 민요 21]

쌍가락지요

가 창 자 : 정옥련(여, 72)
가 창 일 : 1992. 2. 26
가창장소 : 천가동 장항마을

쌍금쌍금 쌍가락지 호작질로 뺨아내니
먼데 보니 달이로세 곁에서 보니 처잘래라
저 처자 자는 방에 숨소리가 둘일래라
홍돌복숭 울오랍씨 거짓말씀 말아주소
남풍이 달이불어 풍지 떠는 소릴래라
석자 수건 목에 걸고 작두야 칼을 품에 품고
자는 듯이 잠들었네.

* 김승찬, 『가덕도의 기층문화』, 부산대 한국문화연구소, 1993, 292쪽.

[천가동 민요 22]

전실자식요

가 창 자 : 김상이(여·65)
가 창 일 : 1991. 2. 27
가창장소 : 천가동 천성마을

수숫개야 수만개야 몹쓸장상 울아배야
전처에 자숙두고 다실 장개 가지마소
헌두드기 옷일란가 상에 괴기 괴길란가

다신 애미	애밀란가	다신 애비	애빌란가
엄마엄마	울엄마요	밀빛자리	어데두고
대빛자리	날 때리요	엄마엄마	울엄마요
곱은 옷도	있건마는	헌두디기	날 입히요
불쌍하다	울엄마는	수풀 속에	묻어놓고
올아버지	장개가니	몹쓸년의	다신애미
설음 받아	못살겠네		
얼씨구나	절씨구나	아니 노지를	못하라

* 김승찬, 『가덕도의 기층문화』, 부산대 한국문화연구소, 1993, 290쪽.

[천가동 민요 23]

쌍가락지요

가 창 자 : 김상이(여·65)

가 창 일 : 1991. 2. 27.

가창장소 : 천가동 천성마을

쌍금쌍금 쌍가락지	호작질로 닦아내여
먼데보니 달일레라	절에서보니 처잘레라
저 처자 자는방에	숨소리가 돌일레라
홍길바신 오라버니	그런말씀 하지마소
남풍이 달이불어	풍지떠는 소릴레라.

* 김승찬, 『가덕도의 기층문화』, 부산대 한국문화연구소, 1993, 280쪽.

[천가동 민요 24]

진주난봉가

가 창 자 : 김일분(여, 74)

가 창 일 : 1991. 1. 5.

가창장소 : 천가동 천성마을

울도 담도 없는 집에	시집 삼년 살고나니
시아마씨 하는 말이	야야 아가 메늘아가
진주야남강에 빨래가자	진주남강 빨래가니
검은 빨래 검기 씻고	흰 빨래는 희기 씻고
오동통한 머리들고	한눈으로 슬쩍보니
구름같은 말을타고	몬본치로 가는구나
그러구로 해여가주	집이라고 들어오니
시아마씨 하는말이	야야아가 메늘아가
진주야남군을 불러거든	아래청을 내려가라
아랫방문 열어보니	오색가지 술을 놓고
기상년첩 옆에 놓고	몬본치로 하는구나
그것보기 더욱 싫어	웃방으로 올라와서
목을매여 죽었구나	넘아넘아 몬썰넘아
기상년첩 한열흘이고	본처사랑 백년인데
그렇다고 네가 가나	이승에서 못살거든
저승가서 살아봐라.	

* 김승찬, 『가덕도의 기층문화』, 부산대 한국문화연구소, 1993, 284-285쪽.

[천가동 민요 25]

이 노래

가 창 자 : 김일분(여, 74)
 가 창 일 : 1991. 1. 5.
 가창장소 : 천가동 천성마을

이야 이야 말들어라	니 발이 육발인들
이수팔방 니 걸었나	니 등더리 납딱한들
진시황 만리 쌓을 때	돌 한 덩이 저다 쫓나
니 가슴이 먹통인들	이태백이 죽어갈때
부고한장 니 전했나	
니 녀(놈)이 잡기민들	잔말 말고 꼭 죽거라.

* 김승찬, 『가덕도의 기층문화』, 부산대 한국문화연구소, 1993, 284쪽.

[천가동 민요 26]

모찌기 등지

가 창 자 : 김일분(여, 74) · 박임이(여, 77)

가 창 일 : 1991. 1. 30.

가창장소 : 천가동 천성마을

(선창) 한강에다 모를부여 모찌내기도 난감하네
(후창) 하늘에다 목화심어 목화따기도 난감하네.

(선창) 하늘에라 눈비가 와서 높은데는 목화로세
(선창) 한강에다 모를부여 모찌기도 난감하네

(선창) 조루자 조루자 이 못자리를 조루자
(후창) 놀리자 놀리자 호미야 손을 놀리자

* 김승찬, 『가덕도의 기층문화』, 부산대 한국문화연구소, 1993, 283쪽.

[천가동 민요 27]

모심기 등지

가 창 자 : 김일분(여, 74) · 박임이(여, 77)

가 창 일 : 1991. 1. 30.

가창장소 : 천가동 천성마을

(선창)아랫옷방 소년들아 연줄 걷는 기경가자
(후창)그 연줄을 따라가면 기린부모 만낸다네

(선창) 달 떠오네 달 떠오네 녹산고개로 달 떠오네
(후창) 저달이 누 달이나 방우방우 달일래라

(선창) 강남땅 강대추 아개자개도 열렸네
(후창) 충청도 줄복숭 주절이 가지도 열렸네

(선창) 서울이라 왕대밭에 금비둘기 알을 낳여
(후창) 그알 하나 내주었으면 금년 과거 내할거로

(선창) 해다졌네 해다졌네 저산너메로 해다졌네
(후창) 울어메는 어데가고 연기야 넬줄을 모르던고.

* 김승찬, 『가덕도의 기층문화』, 부산대 한국문화연구소, 1993, 282-283쪽.

[천가동 민요 28]

사위노래 (I) · (II)

가 창 자 : 박연희(여, 67)
가 창 일 : 1991. 2. 27.
가창장소 : 천가동 천성마을

(I)

저기가는 저할마씨 딸있거든 사우하소
딸이야 있지마는 나가 어리 몬하겠네
제비가 작아도 강남을 가고 새가 작아도 알을 놓고
당신딸 나를 주면 삼년 안에 외손보요
얼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네 아니 노지를 못하리라.

(II)

내딸 죽은 내사우야 울고 갈길 왜왔느냐
이왕지사 완걸음에 발치 잠이나 자고가지
자면자고 말면말지 발치 잠자기 내사 싫소
얼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네 아니 노지를 못하리라.

* 김승찬, 『가덕도의 기층문화』, 부산대 한국문화연구소, 1993, 286쪽.

[천가동 민요 29]

상사요

가창자 : 박연희(여, 67)
가창일 : 1991. 1. 30.
가창장소 : 천가동 천성마을

산이 높아야	골도나 깊지요
조그만한 여자속이	얼마나 깊으리요
높은봉 산봉에	외로운 저소나무
날과같이도	외로이 섰구나
높은 산에 눈이 날려	솔잎마장 백수로다
낮은 산에 비가 내려	골골마장 녹수로다
녹수청청 흐르는 물에	배차 씻는 저큰아가
겉에 겹잎은 재끼놓고	속에 속잎만 나를 주소
너가 나를 언제봤다	속에 속잎을 줄라하요.

* 김승찬, 『가덕도의 기층문화』, 부산대 한국문화연구소, 1993, 285-286쪽.

[천가동 민요 30]

창부타령

가창자 : 박연희(여, 67)
가창일 : 1991. 1. 30.
가창장소 : 천가동 천성마을

아직 이슬 채전밭에	부리똥 꺾는 저 큰아가
누구 간장을 녹일라고	저래나 곱게도 잘 생겼노
아무렴사 여자몸 되어	군자야 네간장 못녹이리
얼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네	아니 노지를 못하리라.

연꽃 피는 연당 안에	연밥 따는 저 큰아가
그 연밥 내 따다 주마	내 품에서 잠들어라
잠들기 어렵지 않소	연밥 따기가 늦어오요
얼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네	아니 노지를 못하리라.

남산 밑에 남도령아	서산 밑에 서처녀야
------------	------------

오만 남글 다 베어도	초순난 댕랑 베지 마라
올 키와 내년을 키와	남수대를 휘어 잡아
저 처녀 복판에 던졌더니	
남으며는 연분이요	못남으며는 상사로다
상사영사 고를 맺아	고 풀도록만 살아보소
얼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네	아니 노지를 못하리라

날아가는 원앙새야	너하고 나하고 짝을 짓자
울밖에 창 치는 님아	네 창 친다고 내 나가리
너보다 더 유정한 님이	내 품안에서 잠들었다
얼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네	아니 노지를 못하리라

원앙도 짝을 지어가고	봄도 봄도 봄이 와서
만천풀잎이 다 피건마는	우리 인생 한번 가니
다시 올줄 모르는구나	움도 싹도 안 나노라
얼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네	아니 노지를 못하리라.

* 김승찬, 『가덕도의 기층문화』, 부산대 한국문화연구소, 1993, 277쪽.

[천가동 민요 31]

고아 한탄요

가 창 자 : 박연희(여, 67)
가 창 일 : 1991. 1. 30.
가창장소 : 천가동 천성마을

저게가는 저 상부 ²⁶⁵)는	남상분가 여상분가
우리 아버지 만나거든	어린 동생 앞에 찌고
까삭까삭 까삭발 ²⁶⁶)에	신이 없어 우더라소

저게 가는 저 상부는	남상분가 여상분가
우리 엄마로 만나거든	어린 동생 앞에 찌고
배가 고파서 우더라소	

265) 상부 : 상여, 또는 상여에 실려가는 亡者.

266) 까삭발 : 가시발.

그리하고도 사흘만에 오리한쌍 게우한쌍
썩썩이 떠들온다 오리오리 저오리아
대동강으로는 어데다두고 눈물강으로 떠들오노
대동강도 있지마는 뜻이 달라서 떠들오요
오리오리 저오리는 신을 주고도 돌아가고
게우게우 저게우는 젓을 주고 돌아간다.

* 김승찬, 『가덕도의 기층문화』, 부산대 한국문화연구소, 1993, 278쪽.

[천가동 민요 32]

달구질노래

가 창 자 : 박임이(여, 77)
가 창 일 : 1991. 1. 5.
가창장소 : 천가동 천성마을

(선창) 어허야 딸구야 (후창) 어허야 딸구야
(선창) 어허야 딸구야 (후창) 땅 좀 다지자
(선창) 어허야 딸구야 (후창) 공공 다지자
(선창) 어허야 딸구야 (후창) 이래 다지야 여물어진다
(선창) 어허야 딸구야 (후창) 공공 다지자.

* 김승찬, 『가덕도의 기층문화』, 부산대 한국문화연구소, 1993, 286쪽.

[천가동 민요 33]

줌치노래

가 창 자 : 박임이(여, 77)
가 창 일 : 1991. 1. 30
가창장소 : 천가동 천성마을

해는 따서 걸을 하고 달은 따서 안을 열고
무지개는 선을 둘러 북두칠성 끈을 달아
서울이라 남대문에 남대문에 걸어 놓고

올라가는 구관사또 내려가는 신관사또
좁치 구경 하고 가소
그 좁치라 누가 집은 좁치 구성김이 이성김이
마주야 앉아 집은 좁치 그 좁치라 값이 없네
은돈 천량 금돈도 천량 이천량이 지 값이요

* 김승찬, 『가덕도의 기층문화』, 부산대 한국문화연구소, 1993, 291쪽.

[천가동 민요 34]

시집살이요

가 창 자 : 박임이(여, 77)
가 창 일 : 1991. 1. 5.
가창장소 : 천가동 천성마을

시집가서 삼일만에 양동우를 깨었구나
시아버님 한단말씀 야 이년아 너그집에 나리가서
논밭전지 팔더래도 내 양동우 사들이라
시어무니 하는말씀 이년아 너그집에 들어가서
논밭전지 팔더래도 내 양동우 사들이라
어무니오 어무니오 들어보소 들어보소
이내일신 허락할때 앞집에서 궁합보고
뒷집에서 책력보고 청혼허흔 다받을때
마당우에 도구엮고 도구우에 제상엮고
두리평풍 둘러치고 암닭장닭 마주얏히
일문뚜리 늦춧대는 쌍쌍이로 세아놓고
청실홍실 띠아놓고 동네어른 모아놓고
일가친척 모아놓고 이내몸을 허락할때
양동우가 뵈이요 은동우가 뵈이요
하늘걸은 내 미느라 조꾸만한 네속에서
그런말씀 나올줄 내 몰랐다
만근걸은 내 미느라 그런말씀 니나올줄
내 몰랐다.

* 김승찬, 『가덕도의 기층문화』, 부산대 한국문화연구소, 1993, 282쪽.

[천가동 민요 35]

백발가

가 창 자 : 박임이(여, 77)

가 창 일 : 1991. 1. 15.

가창장소 : 천가동 천성마을

질 위에 소년들아	백발 보고서 웃지마쇼
우리도 소년이더니	백발되기가 잠시더라
삼단걸은 이내머리	부당산이 웬말인고
거울같이 밝던눈이	반봉사가 웬말인고
새별같이 밝던귀는	적막강산이 웬말인고
곱던얼굴 살이지고	저반버짐이 웬말인고
아릿턱은 코를 차고	그중에도 목을라고
음석말만 해야지면	누가쳐서 눈물인고
그중에도 입을라고	의복말만 해야지면
누가쳐서 눈물인고	
나무도 고목이 되니	오는 새도 아니오요
꽃도꽃도 낙화가 되니	오는 나비도 아니오고
비단옷도 떨어지면	청결레로 돌아가고
좋은 음식 쉬어지면	수채 궁클 찾아가요
후세상을 못오라꼬	드는 칼을 내리치니
혼이 나서 안올란가	
후세상을 못오라꼬	저포장을 채리놓으면
혼이 나서 안 올란가	
온갖 음식을 채리놓고	만단 제수를 채리 놓고
빌어야 본들 안올란가	
할수 없네 할수 없네	오는세월 가는 백발
할수 없다 할수 없다	후세상을 못오라꼬
빌어본들 아니오나	
우리나라 진세왕도	지 갈 날로 몰라주고
우리야 나라 금상님도	지 갈 날로 몰라준다.

* 김승찬, 『가덕도의 기층문화』, 부산대 한국문화연구소, 1993, 281쪽.

[천가동 민요 36]

모심기 등지

가 창 자 : 이노길(여, 68) · 김말분(여, 63)

가 창 일 : 1991. 2. 27.

가창장소 : 천가동 천성마을

(선창) 서마지기 이논빼미 반달걸이도 심어가네
(후창) 니가 무슨 반달이나 초승달이 반달이지

(선창) 담복담복 밀수지비 사우야상에 다올랐네
(후창) 우리할맘 어디가고 물국시에 더욱 췌네

(선창) 이논빼미 모를 심어 장잎이 훗훗 영화로다
(후창) 우리부모 산소등에 솔을 심어서 영화로다

(선창) 자갈논을 싹갈아서 물 들오는거 보기좋네
(후창) 영창문을 반만열고 임 들오는거 뵈기좋네

(선창) 찔레꽃은 장가가고 석류야꽃은 상객간다
(후창) 만인간아 웃지마라 씨종재 바래 내간다

(선창) 해다지고 저문날에 옷 잘 입고도 어데가요
(후창) 석자수건 목에 걸고 첩으야 방에 자로가네

(선창) 낭창낭랑 베랑끝에 무정하던 울오랍아
(후창) 나도죽어 남자되어 처자야한쌍 심기볼래

(선창) 오늘낮에 점شم반찬 무슨 반찬이 오를는고
(후창) 전라도라 고등청애²⁶⁷⁾ 바리바리아 올랐다요

(선창) 모시적삼 안설안에 함박꽃이 피어있네
(후창) 그꽃하나 찢라하니 호령소리 처정나네

267) 고등어와 청어.

(선창) 서울이라 남기없어 죽절비녀로 다리났네
(후창) 그다리를 건너올때 정절콩다콩 소리나네

(선창) 모야모야 노랑모야 언제커서 시집갈래
(후창) 구시월이 닥쳐오면 나도커서 열매여요

* 김승찬, 『가덕도의 기층문화』, 부산대 한국문화연구소, 1993, 279-280쪽.

[천가동 민요 37]

권주가

가 창 자 : 이노길(여, 68)
가 창 일 : 1991. 2. 27.
가창장소 : 천가동 천성마을

창밖에 국화를 심어 국화 밑에다 술을 해영어
그 술 익자 그 꽃이 피자 임이 오시자 달 떠온다
동자야 술 걸러라 임으께도 권주하자
잡으시요 잡으시요 이 술 한잔을 잡으시요
첫째 잔은 인삿잔이요 둘째 잔은 권주잔이라
이 술 한잔을 먹기되면 늙도 젊도 안 한다요.

* 김승찬, 『가덕도의 기층문화』, 부산대 한국문화연구소, 1993, 283쪽.

[천가동 민요 38]

성주풀이

가 창 자 : 이노길(여, 68)
가 창 일 : 1991. 2. 27.
가창장소 : 천가동 천성마을

* 후렴은 ‘아히여허’임.
성주로다 성주로다 (")

경상도 안동땅에 (")
성주님을 모시고자 (")
강남서 나온 제비 (")
솔씨 하나를 물어다가 (")
거제봉산에 던졌더니 (")
그 솔이 점점 자라나서 (")
타박솔이 되었구나 (")
타박솔이 자라나서 (")
낙락장송이 되었구나 (")
앞집에 김대목아 (")
뒷집에 박대목아 (")
갓인 연장을 짊어지고 (")
뒷동산을 올라가서 (")
곧은 나무는 곧게 비고 (")
굽은 나무는 굽게 비여 (")
금도끼로 따듬아서 (")
옥도끼로 따듬아서 (")
초가 삼칸 집을 지여 (")
양친부모 모신 후에 (")
그집 지은 삼년만에 (")
아들 놓거든 효자 낳여 (")
검사 판사 매련하고 (")
딸을 놓거든 열녀 낳여 (")
대통령 부인 매련하소 (")
개 놓거든 삼살개 놓고 (")
말 놓거든 용마로 놓고 (")
소 놓거든 금소로 놓소 (")

* 김승찬, 『가덕도의 기층문화』, 부산대 한국문화연구소, 1993, 293쪽.

[천가동 민요 39]

모심기 등지

가창자 : 전숙영(여, 79) · 김말분(여, 63)

가창일 : 1991. 2. 28.

가창장소 : 천가동 천성마을

(선창) 물꼬야 청청 헐어놓고 주인네 양반 어델 갔소
(후창) 등너메다 첩을 두고 첩어야 집에 놀로 갔네

(선창) 무슨 년의 첩이건대 밤에 가고 낮에 가요
(후창) 낮우로는 놀로가고 밤우로는 자로가네

(선창) 첩어야 집은 꽃밭이요 요내 집은 연못이라
(후창) 꽃 나비는 한철인데 연못 잉어는 사철이라

(선창) 동에 동천 돋은해는 일락서산 넘어가네
(후창) 해는 지고 저문날에 곳곳마다 연기나네

(선창) 우리 엄마 어디가고 연기낼 줄 모르는고
(후창) 너 어머니 오더라만 칠성판에 실리오네.

* 김승찬, 『가덕도의 기층문화』, 부산대 한국문화연구소, 1993, 278-279쪽.

[동요]

* 주로 천성동과 대항동에서 채집

1) 도구통 노래

* 잔수를 말려서 끊어 도구통에 넣어 짚으면서 부르는 노래

쿵더라 쿵더라 짚는 방아
어서 짚고 모실 가자

쿵더라 쿵더라 짚는 방아
어서 짚고 빨래 가자

2) 귀 물 빼기 노래

* 여름에 바다에서 먹 감고 나와 작사래(자갈)에 얹드려 누워서 부르는 노래

구름은 서울로 가고
별은 요기에 나고

3) 아기 어루기 노래

* 아기를 세워 두 손을 잡고 두 발을 번갈아 들게 하며 부르는 노래

불미 불미 불미야
이 불미는 누불민고
경상도라 대불미
숫은 숫은 어디 숫고
거지 봉산 숫이로다
쇠는 쇠는 어디 쇠고
충청도라 계룡쇠다
불미 불미 불미야

4) 아기 어루기 노래

* 앉아서 아기의 두 발과 중간의 빈 자리 사이를 번갈아 손으로 짚어 가면서 부르는 노래

서울 갔던 울 오랍씨
밤 한 말을 사왔더니
채독 안에 넣었더니
머리 깎은 새양쥐가
들랑 날랑 다 까먹고
한 톨애만 남았으니
껍질은 벗기내고
본디기²⁶⁸는 엄마먹고
살키는 얼라주고

268) 본디기 : 보늬

추진데는 엄마 놓고
모른데²⁶⁹⁾는 애기 놓네

5) 널 뛰기 노래

* 설날에 설빔을 하고 자주 댕기를 매고 널을 뛰며 부르는 노래

팔닥궁 팔닥궁 팔닥궁
니가 많이 올라가나
내가 많이 올라가나

6) 설음 노래

* 조실부모 한 아이가 부르는 노래

한 살 목고 엄마 죽고
두 살 목고 아비 죽고
호부 닷살에 절에 올라
열 닷살에 공부하여
삼촌집을 찾아가니
삼촌은 차들이고
숙모는 차서내네

* 김승찬, 『가덕도의 기층문화』, 부산대 한국문화연구소, 1993, 294-296쪽.

269) 모른데 : 마른데

2. 류종목 현장조사 민요

[녹산동 민요 1]

모찌기소리 1

T. 강서구 2-앞.
강서구 녹산동 구랑마을 노인정, 1999. 11. 20.
류종목, 오세길, 김상용, 김창일 조사.
박석조(남·58세).

처음엔 노래를 하지 않으려 했으나 조사의 취지를 설명하며 협조를 부탁하자 이 노래를 불러 주었다. 제보자 혼자서 불렀다.

에와싸세	에와싸세	이모자리를	에와싸세
석자야수건	에목에걸고	널아침에	상봉하지

[녹산동 민요 2]

모심기소리 1

T. 강서구 2-앞.
강서구 녹산동 구랑마을 노인정, 1999. 11. 20.
류종목, 오세길, 김상용, 김창일 조사.
박석조(남·58세).

앞의 노래에 이어 조금 생각하다가 이 노래를 불러 주었다.

모야모야	노랑모야	니언제커서	열매열래
이달크고	훗달크고	칠팔월에	열매열지

[녹산동 민요 3]

모심기소리 2

T. 강서구 2-앞.
강서구 녹산동 구랑마을 노인정, 1999. 11. 20.
류종목, 오세길, 김상용, 김창일 조사.
박석조(남·58세).

앞의 노래에 이어 조금 생각하다가 이 노래를 불러 주었다.

웅천하고도	천자못에	펼떡이는	금붕어야
금붕어잡아다가	헤쳐놓고이	춘향이불러다	건주하라

[녹산동 민요 4]

모심기소리 3

T. 강서구 2-앞.
강서구 녹산동 구랑마을 노인정, 1999. 11. 20.
류종목, 오세길, 김상용, 김창일 조사.
박석조(남·58세).

앞의 노래에 이어 조금 생각하다가 이 노래를 불러 주었다.

비문었네	비문었네	양산땅에	비문었네
그것이	비가아니라	억만군사의	눈물이라

[녹산동 민요 5]

모심기소리 4

T. 강서구 2-뒤.
강서구 녹산동 구랑마을 노인정, 1999. 11. 20.
류종목, 오세길, 김상용, 김창일 조사.
박석조(남·58세).

앞의 노래에 이어 조금 생각하다가 이 노래를 불러 주었다.

서울이라	왕대밭에	금비둘기가	알을낳네
그알을하나	주었으면	금년과게는	내할긴데

[녹산동 민요 6]

모찌기소리 2

T. 강서구 3-앞.
강서구 미음동 외룡마을 노인회관, 1999. 11. 23.
오세길, 김상용 조사.
조덕남(여·73세).

경로당을 방문하였으나 노래할 분위기가 좀처럼 형성되지 않았다. 할 수 없이 가장 널리 알려져 있을 만한 민요로 모심기소리를 아느냐고 하면서 제보자에게 권하자 노래를 불러 주었다.

둘러싸자	둘러싸자	이모자리를	둘러싸자
들어내자	들어내자	이못자리를	들어내자

[녹산동 민요 7]

모심기소리 5

T. 강서구 3-앞.
강서구 미음동 외룡마을 노인회관, 1999. 11. 23.
오세길, 김상용 조사.
조덕남(여·73세).

앞의 소리에 이어 불러 주었다.

모야모야	노랑모야	언제커서	열매열래
이달크고	저달커고	칠팔월에	열매열래

[녹산동 민요 8]

모심기소리 6

T. 강서구 3-앞.
강서구 미음동 외룡마을 노인회관, 1999. 11. 23.
오세길, 김상용 조사.
배잠두(여·77세).

옆에서 소리를 듣고 있던 제보자가 자기도 아는 것이 있다며 자칭하여 불러 준 것이 이 노래이다. 역시 혼자서 주는소리와 받는소리를 모두 다 불렀다.

물꿀랑차장창	열어놓고	주인양반	어데갔소
문에야전복	오리들고	첩우야집에	놀러갔네

[녹산동 민요 9]

모심기소리 7

T. 강서구 3-앞.
 강서구 미음동 외룡마을 노인회관, 1999. 11. 23.
 오세길, 김상용 조사.
 조덕남(여·73세).

배잠두 할머니가 모심기소리를 하자 제보자가 약간 경쟁심이 생기는 것 같았다. 그러나 제대로 다 기억을 하지 못해 받는 소리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끝맺었다.

웅천하고	천자못에	금붕어로잡아서	회쳐놓고
춘향이불러	술부어라		

[녹산동 민요 10]

모심기소리 8

T. 강서구 3-앞.
 강서구 미음동 외룡마을 노인회관, 1999. 11. 23.
 오세길, 김상용 조사.
 조덕남(여·73세).

앞의 노래에 이어 잠시 생각하다가 이 노래를 불렀다.

점심아실었다	도복판에	어데만침	오시는고
이등저등	건니다가	침에걸리	못온단다

[녹산동 민요 11]

모심기소리 9

T. 강서구 3-앞.
강서구 미음동 외룡마을 노인회관, 1999. 11. 23.
오세길, 김상용 조사.
배잠두(여·77세).

앞의 노래에 이어 한참 생각하다가 이 노래를 불러 주었다.

이담에다	꽃을숨겨	이담밖으로	휘야졌네
질로가는	호갈양반	이꽃보고	질못가네

[녹산동 민요 12]

장구타령

T. 강서구 3-앞.
강서구 미음동 외룡마을 노인회관, 1999. 11. 23.
오세길, 김상용 조사.
조덕남(여·73세).

놀면서 부르던 노래라고 했다.

진주야한량이	백마를타고	
진주야올로	씩나서니	
연꽃은피어	만발하고	
수양버들은	꺼어나들고	
어선님방을	찾아가니	
사장구여채나	남아있네	
장구장구	사장구야	
허리가짧아서	사장구야	
들고보니	사장구요	
놓고나보니	순장이라	
이왕지사	만난직때	
아	땅땅	뚜드리고서
놀아보자	좋다	

[녹산동 민요 13]

징금이타령

T. 강서구 3-앞.
 강서구 미음동 외룡마을 노인회관, 1999. 11. 23.
 오세길, 김상용 조사.
 송정숙(여·77세).

옆에서 듣고만 있던 제보자가 이런 것도 노래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불러 준 것이다. 놀면서 부르던 것이라고 한다.

징금아	징그마	야 이눔우	징금아
내 돈	석냥	내라	
내 눈을 싹	베어서	다마전에다	팔아서
니 돈	석냥 내가	주꾸마	
에따 이눔우	징금아 내 돈	석냥	값아라

[청중들의 참여로 주변이 매우 시끄러웠다.]

내 귀를	싹 베어서	전화국에다	팔아서
니 돈	석냥 내가	주꾸마	
내 입을	싹 베어서	마아크전에다	팔아서
니 돈	석냥 내가	주꾸마	
내 코는	싹 베어서	굴뚝전에다	팔아서
니 돈	석냥 내가	주꾸마	
내 모가지는	싹 베어서	장군마개로	팔아서
니 돈	석냥 내가	주꾸마	
내 젖은	싹 베어서	유젓전에다	팔아서
니 돈	석냥 내가	주꾸마	
내 목구녕은	싹 베어서	단초전에다	팔아서
니 돈	석냥 내가	주꾸마	
내 궁지는	싹 베어서	꽃감전에다	팔아서
니 돈	석냥 내가	주꾸마	

* 이상 류종목, 『현장에서 조사한 구비전승민요Ⅱ -부산편』, 민속원, 2010, 541-549쪽.

3. 박경수 현장조사 민요

1) 녹산동 민요

[녹산동 민요 1]

모심기 노래(1)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7_PKS_KCS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동 본녹산마을 녹산노인정

조사일시 : 2010.1.27

조사자 : 박경수, 정규식, 박지희, 오소현

제보자 : 권차순, 여, 79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모심기 노래>를 불러 달라고 하자 권차순 할머니가 다른 할머니께 노래를 생각해 보라고 하고는 자신이 이 노래를 불러 주었다.

모야모야 노랑모야 니운제커서 열매열래
이달크고 저달크고 칠팔월에 열매열래

[녹산동 민요 2]

삼삼기 노래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7_PKS_KCS_0002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동 본녹산마을 녹산노인정

조사일시 : 2010.1.27

조사자 : 박경수, 정규식, 박지희, 오소현

제보자 : 권차순, 여, 79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예전에 베 짤 때 불렀던 노래를 구연해 달라고 하자 제보자가 이 노래를 구연해 주었다.

이삼삼아 옷해입고
무추사에 올고사리
밤이슬맞아 춤을추네

[녹산동 민요 3]

모심기 노래(2)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7_PKS_KCS_0003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동 본녹산마을 녹산노인정

조사일시 : 2010.1.27

조사자 : 박경수, 정규식, 박지희, 오소현

제보자 : 권차순, 여, 79세

구연상황 : 다른 제보자들의 <모심기 노래> 구연이 이어지자 제보자도 이 노래를 구연해 주었다.

낭창낭창 배로(벼랑)끝에 무정하다 울오랍아
나도죽어 남자되어 처자곤석을(권속을) 심길라네(섬길라네)

[녹산동 민요 4]

양산도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7_PKS_KCS_0004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동 본녹산마을 녹산노인정

조사일시 : 2010.1.27

조사자 : 박경수, 정규식, 박지희, 오소현

제보자 : 권차순, 여, 79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창부타령>, <청춘가> 등도 구연해 달라고 하자 제보자가 이 노래를 불렀다.
구연 도중 청중이 웃자 웃지 말라고 하면서 계속 구연하였다.

니가죽고 내가살면 열녀가 되~나~
한강수 깊은물에 폭빠져 죽고
어헤이요오~
내가잘나 니가잘나 그누구가 잘~나~
은전지와 부리백전 지잘나~

니언제 커서러 내낭군될래
야야처녀야 그말을 말아라
이삼년만 더크면은 내낭군된다

[녹산동 민요 5]

보리타작 노래 / 옹헤야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7_PKS_KCS_0005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동 본녹산마을 녹산노인정

조사일시 : 2010.1.27

조사자 : 박경수, 정규식, 박지희, 오소현

제보자 : 권차순, 여, 79세

구연상황 : 노래판의 분위기가 즐겁게 무르익자 권차순 제보자가 이 노래를 불렀다. 제보자의 자발적 구연으로 이루어졌다. 노래는 보리타작을 할 때 부르는 <옹헤야>이지만 제보자는 이 노래를 외설적인 가사로 불렀다.

옹헤야

형수씨도 내손만 바래고

지수씨도 내손만 바래고

아부지는 낮보리 찢고(삼고)

어머니는 보리씩 줍고

형님은 보릿대 지러가고

어쩔시고 옹헤야

어쩔시고 옹헤야

[녹산동 민요 5]

모심기 노래(1)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7_PKS_KDL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동 본녹산마을 녹산노인정

조사일시 : 2010.1.27

조사자 : 박경수, 정규식, 박지희, 오소현

제보자 : 김동림, 여, 79세

구연상황 : 조사자의 구연 유도에 의해 다른 청중들이 <모심기 노래>를 구연하자 김동림 제보자도 이 노래를 구연하였다. 구연 도중 가사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해 잠시 쉬었다가 재차 구연하였다.

(땀복)²⁷⁰땀복 밀수지비 사우야상에 다오르네

270) 녹음되지 않은 부분임.

할마년은 어데로가고
뉘라 카노? 잇아뵤다.

우리할멈은 어디가고

[녹산동 민요 6]

모심기 노래(2)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7_PKS_KDL_0002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동 본녹산마을 녹산노인정

조사일시 : 2010.1.27

조사자 : 박경수, 정규식, 박지희, 오소현

제보자 : 김동림, 여, 79세

구연상황 : 조사자의 구연 유도로 앞의 노래에 이어 구연해 주었다.

우리야부모 산소등에 솔을심어서 영화로다

(청중 : 2절이다 지랄.)

서마지기 이논빼미 모를심어서 영화로세

[녹산동 민요 7]

청춘가(1)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7_PKS_KDL_0003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동 본녹산마을 녹산노인정

조사일시 : 2010.1.27

조사자 : 박경수, 정규식, 박지희, 오소현

제보자 : 김동림, 여, 79세

구연상황 : 조사자의 구연 유도로 부른 것이다.

이팔 청춘에~ 소연아(소년의) 몸되어~

무명의 학문을~ 닦으라 뵤시다~

[녹산동 민요 8]

청춘가(2)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7_PKS_KDL_0004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동 본녹산마을 녹산노인정

조사일시 : 2010.1.27

조사자 : 박경수, 정규식, 박지희, 오소현

제보자 : 김동림, 여, 79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청춘가> 한 곡을 더 해 달라고 하자 이 노래를 불러 주었다.

청천 하늘에~ 잔별도 많고요~
우리네 살림살이~ 말도나 많구나~

[녹산동 민요 9]

베짜기 노래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7_PKS_KDL_0005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동 본녹산마을 녹산노인정

조사일시 : 2010.1.27

조사자 : 박경수, 정규식, 박지희, 오소현

제보자 : 김동림, 여, 79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예전에 베 짤 때 부르던 노래를 불러 달라고 하자 이 노래를 구연해 주었다.

베틀에 수십만 지노라
낮에짜면 일광단이요
밤에짜면 월광단이라
일광단월광단 다짜놓고
서방님의 와이샤스나 지어나볼까

[녹산동 민요 10]

쌍가락지 노래(1)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7_PKS_KDL_0006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동 본녹산마을 녹산노인정

조사일시 : 2010.1.27

조사자 : 박경수, 정규식, 박지희, 오소현

제보자 : 김동림, 여, 79세

구연상황 : 조사자의 구연 유도에 의해 구연하였으나, 셋째 행부터 다른 노래의 사설을 이어서 불렀다.
청중들은 조용히 경청하였다.

쌍금쌍금 쌍가락지
호작질로 닦아내어
양친부모 모시다가
천년만년 살고지라
수숫개야 수만개야
만리팽풍(만리병풍) 울오랍아

[녹산동 민요 11]

아리랑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7_PKS_KDL_0007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동 본녹산마을 녹산노인정

조사일시 : 2010.1.27

조사자 : 박경수, 정규식, 박지희, 오소현

제보자 : 김동림, 여, 79세

구연상황 : 조사자의 구연 유도로 구연하였다. 조사자가 <아리랑>이나 <도라지 타령>을 불러 달라고
하자 이 노래를 구연하였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님은
십리도 못가서 발병난다

[녹산동 민요 12]

진도아리랑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7_PKS_KDL_0008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동 본녹산마을 녹산노인정

조사일시 : 2010.1.27

조사자 : 박경수, 정규식, 박지희, 오소현

제보자 : 김동림, 여, 79세

구연상황 : 앞의 <아리랑>을 구연하고 난 뒤 이어서 <진도 아리랑>의 곡조로 바꾸어 다시 구연하였다.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날넘기주소
나를 버리고 가시는님은
십리도 못가서 발병난다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났네
아리랑 고개로 날넘기주소

[녹산동 민요 13]

노랫가락(1)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7_PKS_KDL_0009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동 본녹산마을 녹산노인정

조사일시 : 2010.1.27

조사자 : 박경수, 정규식, 박지희, 오소현

제보자 : 김동림, 여, 79세

구연상황 : 구연자가 자발적으로 이 노래를 구연해 주었다. 가사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다.

에~헤
달아 뚜렷한달아 임의사창에 비친달아
님홀로 계시나더냐 어떤부랑자 품어나더냐
넷물아 부아나도다 님의에게로 사상절단
에~헤

[녹산동 민요 14]

노랫가락(2)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7_PKS_KDL_0010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동 본녹산마을 녹산노인정
조사일시 : 2010.1.27
조 사 자 : 박경수, 정규식, 박지희, 오소현
제 보 자 : 김동림, 여, 79세
구연상황 : 앞의 <노랫가락>에 이어 제보자가 자발적으로 구연하였다.

에~헤
꽃같이 고우난님은 열매같이도 맺어놓고
가지가지 받았던정은 뿌리같이도 깊이들어
그렇게 열매가열어

[녹산동 민요 15]

쌍가락지 노래(2)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7_PKS_KDL_001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동 본녹산마을 녹산노인정
조사일시 : 2010.1.27
조 사 자 : 박경수, 정규식, 박지희, 오소현
제 보 자 : 김동림, 여, 79세
구연상황 : 제보자는 앞에서 부른 <쌍가락지 노래>를 제대로 부르지 못했다고 생각했는지, 갑자기 생각나는 노래 가사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쳐자 자는방에
숨소리가 둘일래라
홍돌박시 오랍시요
거짓말씀 말아주소
남풍이 들이부니
풍지떠는 소리래라

수숫개야 수만개야
만리팽풍 올라배야
임에일성 가시거든

앞산에도 묻지말고
뒷산에도 묻지말고
연대밭밑에 물어주소
연대꽃이 피시거든
날마내께 돌아보고
눈물한쌍 지이주소

[녹산동 민요 16]

모심기 노래(1)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7_PKS_KDY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동 본녹산마을 녹산노인정

조사일시 : 2010.1.27

조사자 : 박경수, 정규식, 박지희, 오소현

제보자 : 김두임, 여, 81세

구연상황 : 조사자의 구연 유도에 의해 이 노래를 구연하였다. 구연 도중 받는 소리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제보자가 직접 받는 소리까지 하면서 구연하였다.

서마지기 논빼미가 모를숨가서²⁷¹⁾ 영화로다

받는 거는 또 이라거든.

우리아부모님 산소등에 솔을숨가서 영화로다

[녹산동 민요 17]

팔모야 깎아서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7_PKS_KDY_0002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동 본녹산마을 녹산노인정

조사일시 : 2010.1.27

271) '모를 심어서'의 의미인 듯.

조 사 자 : 박경수, 정규식, 박지희, 오소현

제 보 자 : 김두임, 여, 81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노랫가락>, <창부타령>, <청춘가> 등을 불러 달라고 하자 김두임 제보자가 이 노래를 불러 주었다.

팔모야 깎아서 유리잔에

나오가 앉아서 잔질하네

[녹산동 민요 18]

뽕 따는 노래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7_PKS_KDY_0003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동 본녹산마을 녹산노인정

조사일시 : 2010.1.27

조 사 자 : 박경수, 정규식, 박지희, 오소현

제 보 자 : 김두임, 여, 81세

구연상황 : 제보자가 자발적 이 노래를 구연하였다. 이 노래는 <모심기 노래>로 부르기도 한다.

머리도 좋고 실한처녀 줄뽕낭게 들앓았네

줄뽕날뽕 내따주면 백년은혜를 맺고살래

[녹산동 민요 19]

강원도 아리랑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7_PKS_KDY_0004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동 본녹산마을 녹산노인정

조사일시 : 2010.1.27

조 사 자 : 박경수, 정규식, 박지희, 오소현

제 보 자 : 김두임, 여, 81세

구연상황 : 조사자의 구연 유도로 구연하였다. 노래는 <정선아리랑> 곡조로 부른 것이다.

아리아리 쓰리쓰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를 넘어간다
청춘은 뜬구름 비실로가고
아까운 뜬배는 임실로간다
아리아리 쓰리쓰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를 넘어간다

[녹산동 민요 20]

밀양아리랑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7_PKS_KDY_0005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동 본녹산마을 녹산노인정
조사일시 : 2010.1.27
조사자 : 박경수, 정규식, 박지희, 오소현
제보자 : 김두임, 여, 81세
구연상황 : 조사자의 구연 유도로 구연하였다.

니가죽고 내가살면 열녀가 되~나
한강수 깊은물에 폭빠져 죽 - 지

[녹산동 민요 21]

모심기 노래(2)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7_PKS_KDY_0006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동 본녹산마을 녹산노인정
조사일시 : 2010.1.27
조사자 : 박경수, 정규식, 박지희, 오소현
제보자 : 김두임, 여, 81세
구연상황 : 조사자의 구연 유도로 제보자가 부른 것이다.

동해동산 돌은해는 서에서산에 마주치고
우리도열른 집에가서 울언니캉(우리 언니와) 마주쉴래

[녹산동 민요 22]

염불가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7_PKS_KDY_0007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동 본녹산마을 녹산노인정

조사일시 : 2010.1.27

조사자 : 박경수, 정규식, 박지희, 오소현

제보자 : 김두임, 여, 81세

구연상황 : 다른 노래를 다 구연하고 불경 노래를 해 보겠다고 하면서 이 노래를 구연하였다.

정구압 진언은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
오방래 안지시진은
나무삼만다 보타나
옴도로도로지미 사바하
나무삼만다 보타나
옴도로도로지미 사바하
애경계 무삼심심민모범
백천만금 만조
아금문경 덕수지
원애열애지신은 개법장지름
옴아라나 아라바
옴아라나 아라바
옴아라나 아라바

[녹산동 민요 23]

백발가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7_PKS_KHY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동 본녹산마을 녹산노인정

조사일시 : 2010.1.27

조사자 : 박경수, 정규식, 박지희, 오소현

제보자 : 김호연, 여, 84세

구연상황: 조사자가 구연을 유도하자 제보자가 이 노래를 구연하였다. 청중들과 함께 박수를 치면서 흥겹게 구연하였다. 구연 도중 “아이고 답답해라”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이팔청춘 소년들아 백발보고 웃지마라
나도어제 청춘이더니 오늘백발이 더웃을래

아이고 답답해라.

노세노세 젊어서놀아 늙고병들면 못노나니

[녹산동 민요 24]

창부타령

자료코드: 04_21_FOS_20100127_PKS_KHY_0002

조사장소: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동 본녹산마을 녹산노인정

조사일시: 2010.1.27

조사자: 박경수, 정규식, 박지희, 오소현

제보자: 김호연, 여, 84세

구연상황: 조사자가 <창부타령>이나 <청춘가>를 불러 달라고 하자 이 노래를 불러 주었다.

아니~아니 노지를 못하리라
아니~ 서지를 못하리라
해가지고 저문날에 옷갈아입고 어데가요
첩의집을 가실라면은 나의한말씀 듣고가소
첩의집은 꽃밭이요 나의집은 연못이라
꽃과나비는 봄한철이요 물과고기는 사시장철

[녹산동 민요 25]

쓸쓸이 장에 갔다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7_PKS_LJJ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동 본녹산마을 녹산노인정

조사일시 : 2010.1.27

조사자 : 박경수, 정규식, 박지희, 오소현

제보자 : 이정자, 여, 82세

구연상황 : 김두임 제보자의 <모심기 노래>의 구연이 끝나자 이정자 제보자가 이 노래를 구연하였다.
자신의 이름을 넣어 유희요로 부른 것이다.

쫄쫄이 장애갔다 오거들랑 만나서
앞집에 감자정자 뒷집에 유자정자
얼씨구 그정자 잘도논다

[녹산동 민요 26]

모심기 노래(1)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7_PKS_LJJ_0002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동 본녹산마을 녹산노인정

조사일시 : 2010.1.27

조사자 : 박경수, 정규식, 박지희, 오소현

제보자 : 이정자, 여, 82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다른 청중들에게 <모심기 노래>를 구연해 달라고 말하던 중 이정자 제보자가
이 노래를 구연하였다. 제보자가 혼자서 박수를 치며 가창하였다. 두 번째 부른 노래는
제보자가 가사를 지어서 부른 것으로 보인다.

낭창낭창 베리끝에 무정하다 울오랍아
나도죽어서 남자가되어 처자곤석을 심기보세(섬겨보세)

서울이라 남기없어 숲을지내서 다리놓네
그다리를 건너가면은 줄줄콩콩 소리나네

팔모야까까닥 유리잔에 나부한쌍이 잔질하네

서울이라 왕대밭에 금비둘기가 알을놓네
그알하나를 주었으면 금년과계를 내할거로

[녹산동 민요 27]

달이 뜨네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7_PKS_LJJ_0003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동 본녹산마을 녹산노인정

조사일시 : 2010.1.27

조사자 : 박경수, 정규식, 박지희, 오소현

제보자 : 이정자, 여, 82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다른 청중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중 제보자가 이 노래를 갑자기 가창하였다.

달이뜨네 달이뜨네 베갯모에 달이뜨네
달이뜨나 달이뜨나 싫은님을 어찌하리

[녹산동 민요 28]

청천의 가수야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7_PKS_LJJ_0004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동 본녹산마을 녹산노인정

조사일시 : 2010.1.27

조사자 : 박경수, 정규식, 박지희, 오소현

제보자 : 이정자, 여, 82세

구연상황 : 앞의 노래를 구연 한 후 다음 노래를 불렀다. 청중들은 제보자의 노래를 들으며 매우 즐거워 하였다. 제보자 혼자 박수를 치면서 큰소리로 가창하였다. 노래를 부른 후 무슨 노래라고 물으니 자신의 이름을 붙여 '정자 노래'라고 했다.

청천의 가수야 누를보고 늙었노
아개짱 자개짱 지개짱 동창
세살마까지 너를보고 늙었네

[녹산동 민요 29]

모심기 노래(2)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7_PKS_LJJ_0005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동 본녹산마을 녹산노인정

조사일시 : 2010.1.27

조사자 : 박경수, 정규식, 박지희, 오소현

제보자 : 이정자, 여, 82세

구연상황 : 앞의 노래에 이어 이 노래를 구연하였다. 여러 편의 <모심기 노래>를 연속적으로 구연하였다.

해다진데 어디가노
우리야부모님 산소등에 젓목으러 내가가네

모시적삼 안섰안네 함박꽃이 생겼구나
저봉지한쌍 딸라하니 호랑소리가 절로나네

꽃은꺼어서 머리에꽃고 잎은따서 입에물고
산에올라 들구경하니 가는선부님 질문가네

동지선달 진진밤에 첩의생각이 절로나네

벽두에 모를부어 모찌기도 남감하네
팔월에 목화를숨겨 목화따기도 남감하네

등넘에다 첩을두니 기상첩이 반일래라
한재한서 모를부어 참나락이 반일래라

저게가는 저구름아 눈실었나 비실었나

머 또 모르겠네.

눈도비도 아니쓸고 소리명창 내들었네

[녹산동 민요 30]

목화 따는 노래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7_PKS_LJJ_0006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동 본녹산마을 녹산노인정

조사일시 : 2010.1.27

조사자 : 박경수, 정규식, 박지희, 오소현

제보자 : 이정자, 여, 82세

구연상황 : 앞의 노래에 이어 자연스럽게 제보자가 부른 것이다.

사리지고(사래 길고) 강넓은밭에
목화따는 저처녀야
혼차따기 심심한데
너랑나랑 둘이따자
혼자따나 둘이따나
목화따기는 일반이요
목화꽃이 늙어지면
도청군에서 호출오고
우리인생도 늙어지면
공동묘지서 호출온다

[녹산동 민요 31]

삼 삼기 노래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7_PKS_LJJ_0007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동 본녹산마을 녹산노인정

조사일시 : 2010.1.27

조사자 : 박경수, 정규식, 박지희, 오소현

제보자 : 이정자, 여, 82세

구연상황 : 앞의 노래에 이어 조사자의 유도에 따라 제보자가 부른 것이다.

이삼삼아 옷해입고
무추산에 구경가자
무추산에 올고사리
밤이슬맞아 춤을추네

[녹산동 민요 32]

아기 어르는 소리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7_PKS_LJJ_0008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동 본녹산마을 녹산노인정

조사일시 : 2010.1.27

조사자 : 박경수, 정규식, 박지희, 오소현

제보자 : 이정자, 여, 82세

구연상황 : 조사자의 구연 유도에 의해 이 노래를 불렀다. 구연 도중 가사가 기억나지 않아 잠시 멈췄다가 구연하였다.

불매불매 불매야
이불매가 누불맨고
경상도 안동땅에

[녹산동 민요 33]

아기 재우는 노래 / 자장가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7_PKS_LJJ_0009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동 본녹산마을 녹산노인정

조사일시 : 2010.1.27

조사자 : 박경수, 정규식, 박지희, 오소현

제보자 : 이정자, 여, 82세

구연상황 : 조사자의 구연 유도에 의해 제보자가 부른 것이다.

자장자장 자장개야
앞집개도 짓지말고
꼬꼬달도(꼬꼬닭도) 우지마라
우리애기 잘도잔다

[녹산동 민요 34]

모심기 노래(3)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7_PKS_LJJ_0010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동 본녹산마을 녹산노인정

조사일시 : 2010.1.27

조사자 : 박경수, 정규식, 박지희, 오소현

제보자 : 이정자, 여, 82세

구연상황 : 다른 청중들이 <창부타령>, <청춘가> 등을 구연한 후에 제보자가 이 노래를 구연하였다.
구연 도중 가사를 기억하지 못해 잠시 멈췄다가 다시 가사를 기억하여 가창하였다.

포름포름 봄배차는 밤이슬오기만 기다리고
옥안에갇힌 춘향이는 이도령오기만 기다리네

물꼬야청청 혈어놓고 주인네양반은 어디갔노
문어야전복 오리들고(오려 들고) 첩의야방에 놀러갔네

[녹산동 민요 35]

모심기 노래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7_PKS YYS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동 본녹산마을 녹산노인정

조사일시 : 2010.1.27

조사자 : 박경수, 정규식, 박지희, 오소현

제보자 : 임양순, 여, 80세

구연상황 : 조사자의 구연 유도에 의해 제보자가 부른 것이다.

서마지기 논뻐미에 반달만치 남았구나
저기무슨 반달이고 초승그믐달이 반달이지

[녹산동 민요 36]

염불가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7_PKS_JSL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동 본녹산마을 녹산노인정

조사일시 : 2010.1.27

조사자 : 박경수, 정규식, 박지희, 오소현

제보자 : 정순이, 여, 74세

구연상황 : 김동임 할머니의 <염불가>에 이어 제보자가 부른 것이다.

천년자리 만년자리
내치수에 맞는자리
황금을 뿌린자리
발보살이 닦은자리
이내일신 갈적에는
좋은날 좋은시에
자는잠에 인도하소서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 무~ 아~ 미~ 타~ 불

[녹산동 민요 37]

뱃노래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7_PKS_YDJ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동 성산마을 녹성노인정

조사일시 : 2010.1.27

조사자 : 박경수, 정규식, 박지희, 오소현

제보자 : 유덕자, 여, 74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고기잡이 할 때 불렀던 노래를 해달라고 구연을 유도하자 제보자들이 이 노래를 불렀다. 청중들과 함께 박수를 치면서 즐겁게 구연하였다. 제보자는 처음에 노래를 못한다고 하다가 계속 구연하였다. 청중들과 함께 구연하여 가사를 정확히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

에야노 야노야 에야라
어스럼달 야노 어기여차 뱃놀이가잔다

어스럼 달밤에 개고리 우는소리
시집갔던 처녀가 바람이 났구나
에야라 야노야 에에라 야노
어기여차 뱃놀이 가잔다
니가죽고 내가살면 열녀가 되느냐
한강수 깊은물에 폭빠져 죽겠다
에야노 야노야 에야노 야노
어기여차 뱃놀이 가잔다

언니는 좋겠네 언니는 좋겠네
아저씨가 코가커서 언니는 좋겠네

[녹산동 민요 38]

창부타령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7_PKS_YDJ_0002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동 성산마을 녹성노인정

조사일시 : 2010.1.27

조사자 : 박경수, 정규식, 박지희, 오소현

제보자 : 유덕자, 여, 74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청춘가>나 <창부타령>을 불러 달라고 하자 이 노래를 불러 주었다. 청중들과 함께 박수를 치면서 가창하였다. 청중들은 제보자가 노래를 잘한다고 구연 도중에 ‘좋다’라는 추임새를 여러 번 넣었다.

사랑앞에 피는국화 풀잎에 우는인생
오심이름은 뱃길되니 공개한나가 아니더라
양조간이 간절한데 소리소리만 속신이다
얼씨구 좋다 저얼씨구 아니 놀지를 못하리라

유리창문 창문열고 침재기하는 저처녀야
잠자리는 속것만두고 고개살푼만 들어보소
오곡무접저고리 연분홍치마 살다마다 자주사장댁기²⁷²⁾
범나부한쌍에 춤을춘다

[녹산동 민요 39]

노랫가락 / 그네 노래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7_PKS_LSD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동 성산마을 녹성노인정

조사일시 : 2010.1.27

조사자 : 박경수, 정규식, 박지희, 오소현

제보자 : 이순덕, 여, 73세

구연상황 : 다른 제보자의 노래를 듣고 있던 제보자가 노래가 기억 난는지 갑자기 이 노래를 구연해 주었다. 다른 청중들과 박수를 치면서 흥겹게 구연하였다.

세모진낭게 오색가지에 그네를매여
넘이타며는 내가나밀고 내가타면은 니가밀 - 어
넘아남아 줄밀지마라 줄떨어지면은 정떨어진다

[녹산동 민요 40]

모심기 노래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7_PKS_LHJ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동 성산마을 녹성노인정

조사일시 : 2010.1.27

조사자 : 박경수, 정규식, 박지희, 오소현

제보자 : 이훈자, 여, 71세

구연상황 : 제보자 이훈자 씨가 노래를 시작하여 앞소리를 하고 다른 청중이 받는 소리를 했다.

모야모야 노랑모야 니언제커서 열매열래
이달크고 훗달커서 칠팔월에 열매열지

물꼬나청청 혈어놓고 주인네양반 어디가노
문ैया전복 손에들고 첩의집에 놀러간다

전라도라 왕대밭에 금비둘기 알을낳네
그알하나 주았으면 금년과계를 내할거로

272) '자주색 댕기'의 뜻임 듯함.

2) 명지동 민요

[명지동 민요 1]

모심기 노래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8_PKS_KSD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사취등마을 사취등노인정

조사일시 : 2010.1.28

조 사 자 : 박경수, 정규식, 박지희, 오소현

제 보 자 : 김두리, 여, 78세

구연상황 : 제보자는 화투를 치면서 구연을 해 주었다. 앞에서 메기는 소리만 하고 받는 소리는 하지 못했다.

물끼는청청 혈어놓고 주인양반은 어데갔노

[명지동 민요 2]

모심기 노래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8_PKS_LKY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사취등마을 사취등노인정

조사일시 : 2010.1.28

조 사 자 : 박경수, 정규식, 박지희, 오소현

제 보 자 : 이금연, 여, 81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모심기 노래>를 구연해 달라고 하자 제보자가 이 노래를 불러 주었다. 이금연 제보자도 화투를 치면서 구연을 해 주었다.

모야모야 노랑모야 언제커서 열매열래
이달크고 저달크고 훗달크고 열매연다

[명지동 민요 3]

창부타령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8_PKS_LSB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사취등마을 사취등노인정

조사일시 : 2010.1.28

조사자 : 박경수, 정규식, 박지희, 오소현

제보자 : 이상분, 여, 88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창부타령>이나 <노랫가락>도 좋으니 불러달라고 하자 이 노래를 불러 주었다.
이상분 제보자도 화투를 치면서 이 노래를 구연해 주었다.

얼씨구나 절씨구나 아니 노지를 못하리라
하늘과같이 높은사랑 하해와같이 깊은사랑

[명지동 민요 4]

도라지 타령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8_PKS_LSB_0002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사취등마을 사취등노인정

조사일시 : 2010.1.28

조사자 : 박경수, 정규식, 박지희, 오소현

제보자 : 이상분, 여, 88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아리랑>이나 <도라지 타령>을 불러 달라고 하자 제보자들이 이 노래를 구연해 주었다. 화투 패를 손에 쥐고서 이 노래를 불러 주었다. 다른 청중들도 함께 구연했다.

심심 산천에 백도라지
한두 뿌리만 캐여도
바구니 반상만 되노라
에헤이요 에헤이요 에헤요
에야라 난다 지화자 좋다
니가 내간장 스리슬슬이 다녹인다

[명지동 민요 5]

아리랑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8_PKS_LSB_0003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사취등마을 사취등노인정
조사일시 : 2010.1.28
조사자 : 박경수, 정규식, 박지희, 오소현
제보자 : 이상분, 여, 88세
구연상황 : 앞의 <도라지 타령>에 이어 이 노래를 구연해 주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님은
십리도 못가서 발병난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명지동 민요 6]

야단 맞는 노래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8_PKS_LSB_0004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사취등마을 사취등노인정
조사일시 : 2010.1.28
조사자 : 박경수, 정규식, 박지희, 오소현
제보자 : 이상분, 여, 88세
구연상황 : 앞의 노래에 이어 이 노래를 구연하였다. 여전히 화투 패를 손에 쥐고 노래를 구연하였다. 노래의 앞부분은 청둥들도 같이 구연해 주었다. 빠른 소리로 불러서 가사를 알아듣기 어렵다.

대한집 짐을지고
밀양고개로 넘어가네
밀양님이 날쳤네
마누라한테 ○○신고
엄마한테 편지한테
에 - 고놈 잘못았다
동생한테 배잘○○

[명지동 민요 7]

청춘가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8_PKS_LSB_0005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사취등마을 사취등노인정
조사일시 : 2010.1.28
조사자 : 박경수, 정규식, 박지희, 오소현
제보자 : 이상분, 여, 88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청춘가>를 불러 달라고 하자 이 노래를 구연해 주었다.

청천 하늘에 잔별도 많고요
요내 가슴에~ 잔수심 많구나

[명지동 민요 8]

모심기 노래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8_PKS_BJS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진목마을 진목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8
조사자 : 박경수, 정규식, 박지희, 오소현
제보자 : 배재순, 여, 81세
구연상황 : 조사자의 구연 유도로 구연하였다. <모심기 노래>로 시작했는데, 끝에 가서는 창부타령 곡조로 불렀다.

해다지고 저문날에 옷갈아입고 어데가요
첩의방은 꽃밭이고 나의방은 연못이라
꽃과나비는 봄한철이고 연못의금붕어는 사철이요
얼씨구 좋다 절씨구 좋다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물기청청 헐어놓고 주인네양반은 어데갔노

[명지동 민요 9]

아리랑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8_PKS_BJS_0002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진목마을 진목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8

조 사 자 : 박경수, 정규식, 박지희, 오소현

제 보 자 : 배재순, 여, 81세

구연상황 : 조사자의 구연 유도로 이 노래를 구연하였다. 박수를 치면서 흥겹게 구연하였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님은
십리도 못가서 발뱅이난다

청천하늘에 잔별도 많고
요내야 가심에 수심도 많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님은
십리도 못가서 발뱅이난다

[명지동 민요 10]

도라지 타령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8_PKS_BJS_0003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진목마을 진목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8

조 사 자 : 박경수, 정규식, 박지희, 오소현

제 보 자 : 배재순, 여, 81세

구연상황 : <아리랑>의 구연에 이어 청중들과 함께 박수를 치면서 즐겁게 가창하였다.

도라지 도라지 백도라지
심심 산천에 백도라지
한두 뿌리만 캐어도
대바구니 반실만 대노라
어헤야 데헤야 어헤야
이야라 난다 지화자 좋다
니가 내간장 스리살살 다녹인다

[명지동 민요 11]

화투 타령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8_PKS_BJS_0004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진목마을 진목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8
조사자 : 박경수, 정규식, 박지희, 오소현
제보자 : 배재순, 여, 81세
구연상황 : 조사자 구연 유도에 의해 구연되었다.

심기보자²⁷³⁾ 심기보자
화투한모를 심기보자
정월솔아 속속한마음
이월매조라 맺아놓고
삼월사쿠라 산란한마음
사월흑싸리 어리안고
오월난초 나는나비
유월목단에 춤잘추고
칠월홍돼지 홀로늙고
팔월공산 달밝은데
구월국화 굳어진마음
시월단풍에 떨어지고
오동추야 달밝은데
임의생각이 절로난다
얼씨구나 절씨구나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시절이 아니모 가절일세

[명지동 민요 12]

쌍가락지 노래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8_PKS_BJS_0005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진목마을 진목경로당

273) “섬겨 보자”나 “헤어 보자”의 뜻으로 보임.

조사일시 : 2010.1.28

조 사 자 : 박경수, 정규식, 박지희, 오소현

제 보 자 : 배재순, 여, 81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더 아는 노래가 없느냐고 하자 제보자가 이 노래를 구연해 주었다. 일명 '쌍가락지 노래'라 하는 것이다.

쌍금쌍금 쌍가락지
주색질에 늦가락지
먼데보니 처잘래라
절에보이 달일래라

[명지동 민요 13]

모심기 노래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128_PKS_SJJ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진목마을 진목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8

조 사 자 : 박경수, 정규식, 박지희, 오소현

제 보 자 : 서정자, 여, 68세

구연상황 : 김정애 할머니의 구연에 이어, 조사자의 구연 유도에 따라 <모심기 노래>를 구연해 주었다. 구연 도중에 가사가 기억이 나지 않는 듯 잠시 머뭇거리다가 계속 구연해 주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부른 노래는 다른 제보자가 부른 다음 조사자의 유도로 중간 중간 부른 것이다.

낭창낭창 베루끝에 무정하다 저오랍아
나도커서 남자되어 여자봉양 내할랴요

오늘낮에 점심반찬 무슨고기가 올랐는고
동해야바다에 펄떡뛰는 고등어자반이 올랐더라
(뜸북)²⁷⁴뜸북 수지비아 사우야판에 다올랐네
우리할맘 어데가고 딸의동냥 시켰는고

274) 녹음이 되지 않은 부분임.

3) 천가동(가덕도동) 민요

[천가동 민요 1]

가덕도 노래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203_PKS_KMO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가동 1통(동선동 동선마을) 동선마을회관

조사일시 : 2010.2.3

조사자 : 박경수, 정유원

제보자 : 김명옥, 여, 81세

구연상황 : 제보자는 가덕섬 노래를 한다고 하며 다음 노래를 불렀다. 창부타령 곡조에 따라 노래를 가창했다.

섬아섬아~ 가덕섬아 잿통같이도 잠긴섬아
쇠통이나 잠겼으면 열고닫고 하실긴데
섬중에 같이가요 요도보동에 없구~나
얼씨구씨구씨구~ 기화자 좋네~ 아니아니 놀고서 못하리라

[천가동 민요 2]

청춘가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203_PKS_KMO_0002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가동 1통(동선동 동선마을) 동선마을회관

조사일시 : 2010.2.3

조사자 : 박경수, 정유원

제보자 : 김명옥, 여, 81세

구연상황 : 제보자는 앞의 노래를 창부타령 곡으로 부른 후, 다음 백발가도 자진하여 같은 곡조로 불렀다.

새끼야 백발을~ 쓸고지(쓸 곳이) 있어도~오
사람의 백발은~ 쓸곳이 없노라~

놉시더 놉시더~이요 저절만²⁷⁵⁾ 놉시더~
늙고 뱅이드니~ 못노리나 되노라~

275) “젊어서만”의 뜻으로 부른 듯함.

[천가동 민요 3]

시절 한탄가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203_PKS_KMO_0003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가동 1통(동선동 동선마을) 동선마을회관

조사일시 : 2010.2.3

조사자 : 박경수, 정유원

제보자 : 김명옥, 여, 81세

구연상황 : 제보자는 창부타령 곡조로 가덕섬 노래를 한 후에 다음 노래가 생각났는지 계속 창부타령 곡조로 노래를 불렀다. 세월의 무상함을 노래한 시절 한탄가라 할 수 있다. 제보자는 사설을 잘 기억할 뿐만 아니라 목청도 좋았다.

저건니- 접산이요~ 하도 맹산인가~
오동지 선달에~에 함박꽃 피노라~
우리부모- 나설적에 죽신나물을(죽순나물을) 여나드니
그죽신이 왕대되여 왕대끝에 학이앉아
학은점점- 젊어나가고 나의부모는 다늠었네

명사십리- 해동화야 꽃진다잎진다 설워마라
맹년삼월~ 춘삼월에 꽃도피-고 잎도피고
때찾고- 철을찾아 만풀잎-이 다피는데
한번갓-던 우리중생 철찾을줄을 모르더라
얼씨구씨구 지화자 좋다~ 아니놀고~ 못하리라

[천가동 민요 4]

모찌기 노래 / 모심기 노래(1)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203_PKS_KMO_0004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가동 1통(동선동 동선마을) 동선마을회관

조사일시 : 2010.2.3

조사자 : 박경수, 정유원

제보자 : 김명옥, 여, 81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모찌기 노래부터 모심기 노래까지 해보자고 하면서 노래를 유도했다. 그러자

제보자가 먼저 모찌기 노래의 앞소리를 불렀다. 앞소리에 맞게 뒷소리를 넣지 않고 바로 모심기 노래의 저녁소리를 불렀다. 청중들도 모두 아는 노래여서 그런지 따라서 불렀다. 그런데 모를 심고 일어서면서 부르는 “이~후후후~” 여음을 제보자가 스스로 넣기도 했다.

04_21_FOS_20100203_PKS_KMO_0004_s01 <모찌기 노래>

한-강-수라~ 모-를-부-여~ 모찌내기도 난감-하네~ 이~후후후~

04_21_FOS_20100203_PKS_KMO_0004_s02 <모심기 노래>

해다-젼네~ 해-다-젼네~ 저산넘에서 해다-젼네~ 이~후후후~
방긋방긋 웃는애기~ 못다보고서 해다젼네~

04_21_FOS_20100203_PKS_KMO_0004_s03 <모찌기 노래>

놀리라~ 놀리라~ 호미손-으로 놀리라~
놀린다고~ 놀리도~ 주인네논에는 아니드-네~ 이~후후후~

[천가동 민요 5]

모심기 노래(2)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203_PKS_KMO_0005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가동 1통(동선동 동선마을) 동선마을회관

조사일시 : 2010.2.3

조사자 : 박경수, 정유원

제보자 : 김명옥, 여, 81세

구연상황 : 제보자는 먼저 부른 모심기 노래에 이어 다음 노래가 생각났는지 자진하여 노래를 불렀다. 청중들도 모두 아는 노래여서 그런지 제보자의 노래를 따라서 불렀다. “이논떼기”를 부를 때는 다른 청중들은 “이논뻬미”라고 불렀다.

서-마-지-기~ 이-논-떼-기~ 반달같~이도 내려가네~
니가~무슨 반-달-이-냐~ 초승달이가 반달-이지~

[천가동 민요 6]

모심기 노래(3)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203_PKS_KMO_0006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가동 1통(동선동 동선마을) 동선마을회관

조사일시 : 2010.2.3

조사자 : 박경수, 정유원

제보자 : 김명옥, 여, 81세

구연상황 : 제보자는 계속 모심기 노래를 불렀다. 다음 <첩 노래>도 앞의 노래에 이어서 바로 생각 해내고는 자진하여 부른 것이다.

등-넘-에다 첩을두고~ 첩의야-집에도 놀러갔-네~
그첩~은~은 무슨-첩-고~ 밤에가고도 낮에가-노~
밤에~가-면 자-러가-고~ 낮에가-는거 놀러가-네 이-후후후~

[천가동 민요 7]

노랫가락(1) / 그네 노래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203_PKS_KMO_0007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가동 1통(동선동 동선마을) 동선마을회관

조사일시 : 2010.2.3

조사자 : 박경수, 정유원

제보자 : 김명옥, 여, 81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모심기 노래를 그만 부르고, 노래판의 흥을 돋우기 위해 노랫가락이나 창부타령 등을 불러도 좋다고 하자, 제보자가 다음 노랫가락을 불렀다.

수천당- 세모연당에~ 오색당사실 그네를매-자~
임이타면 내가나밀고~ 니가타면은 임이민다-
그님이 줄매지마라~ 줄떨어지-면은 정떨어진-다

[천가동 민요 8]

노랫가락(2) / 나비 노래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203_PKS_KMO_0008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가동 1통(동선동 동선마을) 동선마을회관

조사일시 : 2010.2.3

조 사 자: 박경수, 정유원

제 보 자: 김명옥, 여, 81세

구연상황: 제보자는 앞의 <그네 노래>를 노랫가락으로 부른 후, 계속 노랫가락으로 다음 노래를 불렀다.

나-비아 청산을가자 호랑나비아 단둘이가~자-
가다가 저물나거든²⁷⁶⁾ 꽃밭속으리 잠자고가자
꽃에서 피배여하거든²⁷⁷⁾ 앞에서라도 지치하자²⁷⁸⁾

[천가동 민요 9]

백구타령

자료코드: 04_21_FOS_20100203_PKS_KMO_0009

조사장소: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가동 1통(동선동 동선마을) 동선마을회관

조사일시: 2010.2.3

조 사 자: 박경수, 정유원

제 보 자: 김명옥, 여, 81세

구연상황: 제보자는 다시 창부타령 곡조로 백구타령을 불렀다. 조사자와 청중이 박수를 치며 박자를 맞추어 주었다.

아니~ 아~니 노지를 못하리라
아니- 소지를 못하리라
백구야~ 백구야 날지를 마라
너를 잡으러 여기왔다
청-산-이 하도밝아 너를쫓아 내안가네
나물묵고 물을마시고 풀을베고(팔을 베고) 누웠으니
대장부- 살림살이가 이만하면 만족하지

[천가동 민요 10]

양산도

12) 저물거든.

13) 꽃밭 속으로.

14) 흔히 “푸대접하거든”으로 부르는 사설을 이렇게 불렀다.

15) “자고 가자”의 뜻으로 보임.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203_PKS_KMO_0010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가동 1통(동선동 동선마을) 동선마을회관

조사일시 : 2010.2.3

조사자 : 박경수, 정유원

제보자 : 김명옥, 여, 81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양산도를 한번 해보라고 하자, 제보자는 바로 생각이 났는지 다음 노래를 불렀다.

제보자는 점점 흥을 내어 노래를 했다.

이해~두-여~

가는님~ 허리를 아더담상 안~고~

죽이라 살리라 사상결단이~라~

에야라 놓-여라 당기 두여라 아니 못노리~라~

열놈이 잡아땡기도 나는 놀아-보~자~

에야라~ 나여라 핏기 디여라 당기 두여라 아니 못노리~라~

어늘놈이 내잡아땡기도 나는 놀아-보~자~

에에~이~요~

양산읍내 물레방아 물을안고 도올~고~

시계선창 큰아기 나를안고- 돈~다~

에야라~ 나여라 그리도 못노리~라~

총각댁기가 속쓸려바지도 나는 놀아-보~자~

[천가동 민요 11]

모심기 노래(4)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203_PKS_KMO_001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가동 1통(동선동 동선마을) 동선마을회관

조사일시 : 2010.2.3

조사자 : 박경수, 정유원

제보자 : 김명옥, 여, 81세

구연상황 : 조사자는 이제 마지막으로 '등지 소리'를 하나만 더 듣고 마치자고 하면서 제보자를 부추겼다. 제보자가 마지막이라며 부른 노래이다.

땀-북~땀-북~ 밀-수-제-비~ 사우야상에도 다올랐네~

할망-년은 어-데-가-고~ 딸을동자로 심었던고~

[천가동 민요 12]

타박네 노래 / 모심기 노래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203_PKS_KKA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가동 3통(성북동 선창마을) 선창경로당

조사일시 : 2010.2.3

조사자 : 박경수, 정유원

제보자 : 강경애, 여, 74세

구연상황 : 조사자는 제보자에게 모심기를 할 때 “타박타박”하며 부르는 노래가 있지 않느냐고 하며 노래를 유도하자, 제보자가 아는 노래인지 부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한 소절을 부르고는 가사를 기억하지 못해 중단했다. 조사자가 “우리엄마”라고 사설을 이야기하자 그것을 받아서 조금 더 부르고는 더 이상 부르지 못하고 말았다.

타박타박 타박머리~ 해다진데 어덜가요
우리엄마 산소등에~ 젓묵으러 내가가요

[천가동 민요 13]

임 그리는 노래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203_PKS_KMB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가동 3통(성북동 선창마을) 선창경로당

조사일시 : 2010.2.3

조사자 : 박경수, 정유원

제보자 : 김말분, 여, 80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제보자에게 옛날 노래를 한 번 해보라고 권유하자 다음 노래를 했다. 노래를 다 듣고 조사자가 이것이 무슨 노래인지 묻자, 제보자가 이 노래에 대한 설명을 붙였다. 과부가 예쁜 동정과 고름을 달아 비단옷을 만들어 놓고 아침 서리를 맞춰 다리미로 잘 다려서 입자고 하니 몸의 때가 묻고 개어 놓자니 주름이 진다고 하며, 님을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아서 부르는 노래라고 했다. 청중들은 조용히 제보자의 노래를 들었다. 노래를 다 듣고는 잘 부른다며 모두 감탄을 했다.

서울에서 내린비단 금값에 샀더니야
조생교 바느질에 일만군 짓을달아
동해꽃을 동정을 달고 비단고름 설피달아

아척서리 사뜩맞춰 언대리이 뺨을맞차²⁷⁹⁾
입자하니 몸베모속 개자하니 살이져요²⁸⁰⁾
햇베맞차 걸어놓고 가니라 임이오나
임은 아무데도 못오신가

[천가동 민요 14]

아기 어르는 소리 / 은자동아 금자동아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203_PKS_KMB_0002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가동 3통(성북동 선창마을) 선창경로당

조사일시 : 2010.2.3

조사자 : 박경수, 정유원

제보자 : 김말분, 여, 80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얘기를 어르거나 재우는 노래를 불러 달라고 하자, 제보자는 옛날에 그런 노래를 불렀지만 지금은 손자도 없어서 안 부른다고 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 다 잊어버리고 모른다고 했다. 조사자가 배계를 건네주며 아기라고 생각하고 흔들면서 한 번 불러보라고 거듭 요청하자 마지못해 다음 노래를 불렀다. 청중들이 박수를 치며 박자를 맞추어주면서 흥을 돋우었다.

은자동아 금자동아
만첩청산에 보배동아
은을준들 너를사나
금을준들 너를사나
어화둥둥 내사랑아
천지끝에는 싸래기요
옹고전(옹기전)에는 마내기요
어아둥둥 내사랑아

[천가동 민요 15]

아기 재우는 노래 / 자장가

279) 아침 서리를 잔뜩 맞추어 언다리미로 뺨을 맞추어.

280) 입자 하니 몸 때 묻고 개자 하니 살, 즉 주름이 쪼요.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203_PKS_KMB_0003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가동 3통(성북동 선창마을) 선창경로당

조사일시 : 2010.2.3

조사자 : 박경수, 정유원

제보자 : 김말분, 여, 80세

구연상황 : 제보자가 애기 어르는 노래를 부른 다음, 조사자가 애기 재우는 자장가도 불러 보라고 권유했다. 그러자 다음 자장가를 애기를 재우는 시늉을 하며 불렀는데, 노래를 부르다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하며 중단하고 말았다.

자장자장 우리아기 잘도잔다
자장자장 우리애기 잘도잔다
수숫개야 수만개야
빨리평풍 울아베야

또 와 그것도 생각이 안 나노?

[천가동 민요 16]

아리랑(1)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203_PKS_KMB_0004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가동 3통(성북동 선창마을) 선창경로당

조사일시 : 2010.2.3

조사자 : 박경수, 정유원

제보자 1 : 김말분, 여, 80세

제보자 2 : 강경애, 여, 74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여기서 아리랑은 어떻게 부르느냐고 하자 김말분 제보자가 다음 아리랑을 불렀다. 김말분 제보자가 한 곡을 부르고 잠시 멈춘 사이 강경애 제보자가 다음 노래를 이어서 불렀다. 아리랑 후렴은 두 사람이 같이 불렀다.

제보자 1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님은~
십리도 못가서 발뱅이난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고개로 넘-어간다

제보자 2 아리랑 고개는 열두나 고개
우러님 고개는 당고개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천가동 민요 17]

아리랑(2)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203_PKS_KMB_0005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가동 3통(성북동 선창마을) 선창경로당

조사일시 : 2010.2.3

조사자 : 박경수, 정유원

제보자 : 김말분, 여, 80세

구연상황 : 제보자는 앞의 아리랑을 부르고 다음 아리랑이 또 생각났는지 불렀다. 노래는 본조아리랑으로 불렀으나 사설과 여음을 보면 밀양아리랑이 습합되어 있는 형태를 보여준다.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고개로 넘어간다
니-가 잘나서 천하일색이냐~
내눈에 어두워서 환장이로다~

[천가동 민요 18]

범벅타령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203_PKS_BIH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가동 3통(성북동 선창마을) 선창경로당

조사일시 : 2010.2.3

조사자 : 박경수, 정유원

제보자 : 배임희, 여, 79세

구연상황 : 선창경로당에서 만난 강경애 씨가 <범벅타령>과 <징거미타령> 등 민요를 잘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여 조사자 일행을 안내하여 제보자의 집을 갔다. 조사자 일행과 제보자, 그리고 강경애 씨가 집 안방에서 자리를 잡고 조사를 시작했다. 조사자가 제보자에게 마이크를 주며 제보자가 잘 한다고 들은 <범벅타령>을 한번 해보라고 부탁하자, 처음에는 어

색해 하다가 이내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불렀다. 그런데 처음 몇 소절을 부르다 노래가 잘 안 된다고 하며 잠시 멈추었으나 강경애 씨의 권유로 다시 노래를 기억하여 불렀다.

신기보~자 신기보자
범벅대롱을 신기보자
일년열두달
과년에 엮었던
삼백육십일 범복이요

하이구 안 된다. 안 되는데. (청중 : 해라 고마.)

정월달에는 찰떡범벅
섣달에는 흰떡범벅
이월달에는 씨라기범벅
삼월달에는 썩범벅 (청중 : 좋~다.)
사월달에는 느타리범벅
오월달에는 수리범벅
유월달에는 밀떡범벅
칠월달에는 귀리범벅
팔월달 범벅은 꿀떡범벅
구월달에는 수시범벅 [웃음]
동짓달에는 동지범벅
섣달에는 흰떡범벅
정월달 범벅은 찰떡범벅
범벅이야 범복이야
일년열두달 범복이야

그래 한다.

[천가동 민요 19]

징거미타령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203_PKS_BIH_0002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가동 3통(성북동 선창마을) 선창경로당

조사일시 : 2010.2.3

조사자 : 박경수, 정유원

제보자 : 배임희, 여, 79세

구연상황 : 제보자가 <범벅타령>을 부른 후, 조사자가 “진짜 듣기 귀한 노래인데”라고 하면서 <징거미타령>을 해볼 것을 부탁했다. 제보자는 다 잊어버려서 잘 될지 모르겠다고 하며 노래를 불렀다. 그런데 노래를 부르다 순서가 잘못되었다고 하면서 다시 불렀다. 다시 노래를 부르는 중에도 순서에 맞게 제대로 하는지 조사자와 청중에게 확인하면서 불렀다. 옆에서 강경애 씨가 손뼉을 치며 장단을 맞추어 주다가 제보자가 순서를 잡아주고 했다.

아따 이눔아 징검아 내돈석냥 내-라
아따 이눔아 징검아 니돈석냥 주꾸마

[웃으며] 그래 하거든. (청중 : 그래 해라.)

내머릴랑 비어서 장구막에다 팔아도 니돈석냥 주꾸마
내머릴랑 끊어서 달비전에다 팔아도 니돈석냥 주꾸마
어따 이눔아 징검아 내돈석냥 내-라
아따 이눔아 징검아 니돈석냥 주꾸마
내몸뺨랑 비어서 장구막에다 팔아도 니돈석냥 주꾸마
내뺨구녕을 떼어서 시계전에다 팔아도 니돈석냥 주꾸마
내창살랑 내어서 오색춘에다 팔아도 니돈석냥 주꾸마
아따 이눔아 징검아 니돈석냥 주꾸마
내다릴랑 비어서 팽이전에다 팔아도 니돈석냥 주꾸마
내팔을 끊어서 까꾸리전에다 팔아도 니돈석냥 주꾸마 [웃음]
내봉알을 비어서 망태전에다 팔아도 니돈석냥 주꾸마
내자질랑 비어서 방망이전에다 팔아도 니돈석냥 주꾸마

[일동 웃음] 이 참 창피스럽아서. 옛날에 우수개 함서 이리. (조사자 : 내 밑구녕을 팔아서 맞아 그제.) 예, 내 밑구녕을.

내밑구녕을 빼어서 꽃감전에다 팔아도 니돈석냥 주꾸마

[일동 웃음] 그래 한다. (조사자 : 아 맞입니다.) (청중 : 내코를 비어서 꼴뚜기전에.) 그래가 할매 할긴데 봐라. (조사자 : 아 잘 하시네.) 인자 오래된게 절차대로 내려가야 될긴데 마.

내콧구녕을 빼어서 꿀дук전에다 팔아도 니돈석냥 주꾸마
내새를 빼어서 포리채전에다 팔아도 니돈석냥 주꾸마
내이빨랑 빼어서 톱전에다 팔아도 니돈석냥 주꾸마

[웃으며] 다 했다 이제. (조사자 : 아이구 잘 했어요. 아이구 내 눈을.)
아, 내눈을 빼어서 구실 생겼다.

내눈을 빼서서 구실전에다 팔아도 니돈석냥 주꾸마

그러이 인자 마, 아, 아.

내귀를 비어서 통싯가에다 팔아도 니돈석냥 주꾸마
내눈을 빼어서 구실전에다 팔아도 니돈석냥 주꾸마

이기 이래 나왔는데, 나가 많애논께 먼저 할 거 난중 하고 마 정신이 없다.
(조사자 : 그라모 안자 처음부터 다시 한 번 해볼까요? 안자 처음부터 다시 딱 불렀으이
카네, 처음부터 다시 짝 생각나는 대로. 인자 눈, 눈, 코, 입, 귀.) 맞다. 그래 해야 되는
데. (조사자 : 눈, 코, 입, 귀, 몸띠이, 다리, 팔, 안제 요게 요거. [웃음] 뱃구녕. 처음부
터 다시 한번 더 해보입시더.) 아이구 이이.

어따 이눔아 징검아 내돈석냥 내-라
아따 이눔아 징검아 니돈석냥 주꾸마
내머릴랑 비어서 달비전에다 팔아도 니돈석냥 주꾸마
내귀를 비어서 통신간에다 팔아도 니돈석냥 주꾸마
내눈을 빼어서 구실전에다 팔아도 니돈석냥 주꾸마
내새를 빼어서 파리채전에다 팔아도 니돈석냥 주꾸마
내코를 빼어서 꿀дук전에다 팔아도 니돈석냥 주꾸마
아따 이눔아 징검아 니돈석냥 주꾸마
내대가릴랑 비어서 장구막에다 팔아도 니돈석냥 주꾸마
내풀을 끊어서 까꾸리전에다 팔아도 니돈석냥 주꾸마

아 마지이 또 잘 못했네. (조사자 : 괜찮아예. 다시.) 저 여 머리를 하겠네. (청중 : 했다.
했나? 인자 뭐 하고 말았노? (조사자 : 팔하고 뱃구녕 다리.) 아.

내뱃구녕을 떼어서 시계전에다 팔아도 니돈석냥 주꾸마
하따 이눔아 징검아 내돈석냥 내-라

내창살랑 꿰어서 새끼전예다 팔아도 니돈석냥 주꾸마
아따 이눔아 징검아
내몸떨랑 비어서 장군전예다 팔아도 니돈석냥 주꾸마
아따 이눔아 징검아
내다릴랑 비어서 팽이전예다 팔아도 니돈석냥 주꾸마

내 까꾸리 안 했제? (조사자 : 손.) 손 했나? (조사자 : 손 했어요.) 아아 했고.

내자질랑 비어서 방망이전예다 팔아도 니돈석냥 주꾸마
내뽕알랑 비어서 망태전예다 팔아도 니돈석냥 주꾸마
아따 이눔아 징검아 내돈석냥 내라

[웃음] (청중 : 내밀구녕을 팔아도 꽃감전에. 내밀구녕을 팔아도.) [알았다는 듯이] 아아.
내밀구녕을 빼어서 꽃감전예다 팔아도 니돈석냥 주꾸마

안자 다 했제.

[천가동 민요 20]

진주난봉가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203_PKS_BIH_0003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가동 3통(성북동 선창마을) 선창경로당

조사일시 : 2010.2.3

조사자 : 박경수, 정유원

제보자 : 배임희, 여, 79세

구연상황 : 제보자가 <징거미타령>을 다 부른 후에 조사자가 진주남강 노래를 한번 해보라고 하자.
“아이구 이거 되나 안 된다”고 하며 노래 부르기를 주저했다. 조사자와 강경애 씨의 거듭 노래를 요청하면서 이 선창에서 최고라고 하며 부추기자 마지못해 하며 다음 노래를 불렀다. 노래를 다 부르고 나서는 다시 가사를 이야기하듯이 다시 읊었다.

울도담도 없는집에
시접삼년을 살고나니
시어마님이 하는말씀
야야아가 매늘아가
진주낭군님을 불러거든

진주남강을 빨래가게
 흰빨래는 희기씻고
 검은빨래는 검게씻고
 올도락돌도락 씻으니께
 난데없는 말재죽소리
 열거럭철거럭 나와서러
 옆눈으로 걸어보니
 못본듯이 지내가네
 집이라고 돌아오니
 시어마님이 하는말씀
 야야아가 메놀아가
 작은방으로 상해가라
 작은방문을 열고보니
 첩의기생을 옆에두고
 오색가지 술을부어
 권주가노래를 하는구나
 허이야 그꼴이 뵈기싫어
 아룻방을 뛰어가서
 석자세치 명주수건
 폭을 잘라서 죽었구나
 아가아가 아들아가
 작은방을 니오니라
 작은방을 뛰어와서
 문고리를 잡고보니
 폭을잘라서 죽었구나
 원수로구나 원수로구나
 첩의야기생이 원수로다
 아이구답답 내신세야
 이일감당을 어이할꼬

그러더란다 신랑이. 신랑이 옛날에 과게 가가지고 음서 좋은 각씨를 한 개 덕고(데리고) 왔던 기라. 덕고 오면서 그 말을 태왔던 모양이지. 그래 둘이 가가지고 오색가지 술을 붓고 권주가 노래를 하고 놀고 있더라.

그래 메뉴리 인자 본댁이 인자 빨래를 씻어다 가본께네 그 지경이 되이께, ‘에라이 빌 어물것 내 목 짜르고 내 죽어뿌고 말란다. 니 이런 짓을 하나.’ 이래 댘는 기라.

그래 이 사람은 신랑은 뭐 하러 갔노 카모 과게 하거 간 기다. 여서 서울로 과게 하러,
그래 과게 하고 오면서 각시 하나 덕고 왔는 기라.
그래 그런 노래가 있어.

[천가동 민요 21]

모찌기 노래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203_PKS_BIH_0004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가동 3통(성북동 선창마을) 선창경로당

조사일시 : 2010.2.3

조사자 : 박경수, 정유원

제보자 : 배임희, 여, 79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창민요를 마치고 '등지 소리'를 들어보자고 한 후 모찌기 노래부터 해보자고 하니 제보자가 바로 다음 노래를 불렀다. 제보자는 앞소리를 한 후, 다음에는 뒷소리를 한다고 하면서 앞소리와 뒷소리를 구분하여 하나씩 천천히 불렀다.

한강~수에다~ 모를부어~어 모찌기-가 난감하-네
하늘에다~ 목화를심어~ 목화따-기가 난감하-네

[천가동 민요 22]

모심기 노래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203_PKS_BIH_0005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가동 3통(성북동 선창마을) 선창경로당

조사일시 : 2010.2.3

조사자 : 박경수, 정유원

제보자 : 배임희, 여, 79세

구연상황 : 제보자는 조사자의 유도에 따라 모찌기 노래를 부른 후 다음 모심기 노래를 불렀다. 역시 앞소리와 뒷소리를 구분하여 하나씩 천천히 불렀다. 조사자의 유도에 따라 하나씩 생각나는 대로 부른 것이다.

서마~지기 이논빼미~ 반달갈-이도 떠나가-네
니가~무슨 반달이냐~ 초승달-이 반달이지-

석노꽃은 장개를 가고 찔레꽃은 상각가네 이래 한다. 받는 거는 모르겠다. (조사자 : 씨종자 받으러, 씨종자 뭐 뭐라 하지 마라) 아아, 그게 맞다. 아 씨종자를 바래 간다 그래 했다. 하이구 다 잊아뒀네. (조사자 : 늦어오네 늦어오네 점심참이 늦어오네 점심 때 노래 뭐 있는교?) 점심 때 노래? 예.

점심아~ 실었다- 또복바래~ 어데-마-침 오시는공
오늘~낮우에 점심반찬~ 마리아반-석 올랐다네

이러 카고. 예. 이병저병 건니다가 칠대걸려서 못온다네 덜 이래도 하고 그래 합니다. (조사자 : 아이구 할무이 잘하신다. 고 저녁소리 안자 골골마다 연기나네 뭐 고거 저녁소리.) 예헤 알긋이라.

해다~지고 저문날에~헤 우리야할맘은 어데갔노
방방골골이 연기나네~ 우리야할맘은 어디로갔노

그래 저거 할맘 죽었던 모양이지예. 그래 생각나서. 그래. 또 있어요. (조사자 : 다풀다풀 타박머리.) 야.

다풀다풀 따박머리~ 해다진데 어데가노
우리엄마 산소등에 젓먹으로 내가간다

알송~달송~ 유자즙치~ 끈을달-아 서른대자

그라모 받는 거는.

니가~무슨~ 염치있노~ 끈을달-아 서른대자

그래는 거 원했다고 그런거라. (조사자 : 아 그래 줌치 노래.) 예. 등개 그래. (조사자 : 등개? 예 여계는 등개라 그럼니까? 등개 소리라 그럼니까 등지 소리라 그럼니까?) 등지라. 모 송구면서 등지 하는 거. (조사자 : 등지, 등지. 등지 소리.) 야.

[천가동 민요 23]

모심기 노래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203_PKS_KBY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가동 7통(천성동 두문마을) 두문마을회관

조사일시 : 2010.2.3

조사자 : 박경수, 정규식, 박지희, 오소현

제보자 : 김복연, 여, 76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모심기 노래>를 구연해 달라고 하자 이 노래를 구연해 주었다. 예전에는 잘 불렀는데 지금은 잘 못한다고 하면서 수줍게 노래를 불렀다.

서마지기 이논배미 반달같이도 넘어가네

니가무슨 반달이나 초승달이 반달이지

해다지고 저문날에 일로행상이 지나가네

오늘낮에 점심반찬 무슨자반이 올랐는고

전라도라 고성청어 두름두름이 올랐구나

[천가동 민요 24]

잠자리 잡는 노래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203_PKS_KBY_0002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가동 7통(천성동 두문마을) 두문마을회관

조사일시 : 2010.2.3

조사자 : 박경수, 정규식, 박지희, 오소현

제보자 : 김복연, 여, 76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어릴 적 잠자리를 잡을 때 불렀던 노래를 해달라고 하자 이 노래를 불렀다.

잘래비 꿈꿈

앉은자리 앉아라

먼데가면 붙는다

[천가동 민요 25]

창부타령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203_PKS_KBY_0003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가동 7통(천성동 두문마을) 두문마을회관

조사일시 : 2010.2.3

조사자 : 박경수, 정규식, 박지희, 오소현

제보자 : 김복연, 여, 76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청춘가>를 한 곡 해달라고 하자 제보자가 창부타령 곡조로 이 노래를 구연하였다. 박수를 치면서 흥겹게 불러 주었다.

꽃아꽃아 곱운꽃아 높은봉에 앉지마라
행운이 재촉하면 반만피고서 슬피진다
필적에는 곱게피고 질적에는 슬피지네

맹사십리 해당화야 너꽃진다고 설워마라
맹년삼월 춘삼월에 꽃도피고 잎이금만
우리같은 불쌍한인생은 한번아차 실수되어
복망산천을 가신다면 음도짝도 아니나고
젊은청춘에 놀아보세

[천가동 민요 26]

태평가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203_PKS_KBY_0004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가동 7통(천성동 두문마을) 두문마을회관

조사일시 : 2010.2.3

조사자 : 박경수, 정규식, 박지희, 오소현

제보자 : 김복연, 여, 76세

구연상황 : 제보자는 앞의 노래에 이어 <태평가>라고 하면서 이 노래를 구연해 주었다. 혼자서 박수를 치면서 즐겁게 구연하였다.

울도담도 없는집에
맹지베²⁸¹⁾짜는 저처자야
맹지벨랑 그만두고
고개나살금 들어보소
옥당목 중우적삼 연분홍치마

281) '명주베'의 의미인 듯.

삼각산 봄바람에 자주댕기
범나비 앉아서 춤을추네
닐리리야 닐리리야 니나노~
얼싸 좋다 얼씨구나 좋다
벌나비는 이리저리 펼 펼
꽃을 찾아서 날아든다
청사초롱에 불밝혀라
잊었던 낭군이 다시오네

[천가동 민요 27]

다리 세기 노래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203_PKS_KBY_0005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가동 7통(천성동 두문마을) 두문마을회관

조사일시 : 2010.2.3

조사자 : 박경수, 정규식, 박지희, 오소현

제보자 : 김복연, 여, 76세

구연상황 : 조사자의 구연 유도에 따라 이 노래를 구연하였다. 조사자와 직접 다리를 엮갈려 놓은 상태에서 노래를 구연해 주었다.

이거리 저거리 갓거리
천도맹근 포맹건
도래미춤치 장독간
짹바리 회양건
머구발에 덕서리
동지선달 대서리

[천가동 민요 28]

파랑새요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203_PKS_KBY_0006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가동 7통(천성동 두문마을) 두문마을회관

조사일시 : 2010.2.3

조사자 : 박경수, 정규식, 박지희, 오소현

제보자 : 김복연, 여, 76세

구연상황 : 조사자의 구연 유도에 따라 다음 <파랑새요>를 불러 주었다.

새야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사 울고가네

[천가동 민요 29]

가덕팔경가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428_PKS_KKI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가동 8통(천성동 서중마을) 김기일 자택

조사일시 : 2010.4.28.

조사자 : 박경수, 정규식, 정혜란

제보자 : 김기일, 남, 82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서중할머니경로당에서 민요 조사를 잘 했다고 하면서 조사자에게 옛날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자 제보자는 그곳에서 가덕팔경가를 하더냐고 물어보았다. 조사자가 그 노래를 들었다고 하면서도 제보자의 노래도 들어보고 싶다고 하자 조사자에게 들려주려고 준비를 했는지 바로 다음 노래를 불렀다.

에~ 가덕도 연대봉은 섬안에 조종산이오
천성갑 천수대-는~ 도중에(섬중에) 맹승지라(명승지라)
에헤야 좋구나 좋다 기화자 좋구나 좋네
맹선예(명산(名山)에) 가덕섬은~ 자-랑이로구나
에~ 새바지²⁸²⁾ 개월떼고 해마다 풍년이고
동두말 등댓-불은 뱃길을 가르-킨다
헤-

(조사자 : 내나 그러 에헤야구먼.)

282) 대항동에 속한 자연마을인 새바지 갯마을을 말한다.

에~ 새바지 하포장은²⁸³⁾ 전선에 유명하고(유명하고)
놀차리 석가-맛은(석화맛은)~ 세계에 미명이라
에~ 삼신도 늘어져서 거제를 이원하고
갈미봉 해안-에는~ 생복이 생산일세
에해야 좋구나 좋다 기화자 좋구나 좋네
맹선에 가덕섬은~ 자-랑이로-구나

[천가동 민요 30]

초한가(1)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428_PKS_PYI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가동 8통(천성동 서중마을) 서중할머니경로당

조사일시 : 2010.4.28.

조사자 : 박경수, 정규식, 정혜란

제보자 : 박연이, 여, 86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제보자에게 노래를 잘 한다는 소문을 듣고 왔으며 한 곡 해 달라고 했다. 제보자는 갑자기 노래를 해 달라 하니 어떤 곡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잠시 생각을 한 후에 초한가나 불러봐야겠다며 이 노래를 불렀다. 창부타령 곡조로 불렀는데, 이를 육자배기 가락으로 부르기도 한다고 했다. 실제 여러 노래를 부른 후에 육자배기로 초한가를 다시 불렀다.

초패-왕은 초를장천
열-평상두 설곳이없고
길이쉬둥 하릴없네
칼을집-고 일어나니
사-뱅이²⁸⁴⁾ 초가로다
오해오해 내가간들
넌들일을 어이하리-
오부에 채극하야
상부난님이 흠어지니
남산밑에 장찬밭은
어느장부가 갈아줄까

283) 하포장은 새바지에서 고개를 넘어가면 나오는 포구인 외양포를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284) 사면이.

최-후에 맑은술은
어느님-이 맛을볼꼬
우리야~ 장군님이 떠날적에
주문에다 손길을 잡고
청춘소연을 두고갈때-
맹년구월이 돌아오면은
금수-갈~이 맺었던언약
밤중안에도 잇을손가-
은황천 병마천마
전천만천²⁸⁵⁾ 수심이야
수심수심 많은곳에
어이나- 갈꼬도 수심이야-
어린아기가 아비를불러
어미내간장²⁸⁶⁾ 다녹는다
얼씨구나 좋다 기화자 좋네
기화자 바람에 다팔아영고
백수건-달이 되었구나-

[천가동 민요 31]

창부타령(1)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428_PKS_PYI_0002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가동 8통(천성동 서중마을) 서중할머니경로당

조사일시 : 2010.4.28.

조 사 자 : 박경수, 정규식, 정혜란

제 보 자 : 박연이, 여, 86세

구연상황 : 청중이 <창부타령> 한 번 해 보라며 제보자에게 요청하자 제보자가 이 노래를 불렀다.
제보자가 노래하는 동안 청중들은 계속 박수를 쳤고, 어깨를 한 번씩 흔들기도 하며 손
짓으로 덩실덩실 거리며 노래를 불렀다.

혼자사는 우연수야 누워나자는 백년수야
백년수 베개너매 우연한꽃이 피었구나

285) “전전반측(輾轉反側)”을 이렇게 불렀다.

286) 어미 애간장.

후여난담장 백화중에 날아나드는 범나부야
명화를주까²⁸⁷⁾ 국화를주까 국화맹화도 내사싫고
이다지 저다지 양다지안에 잠들은 큰아기만 나를주소
얼씨구나 좋다 기화자 좋네 아니 노지를 못하리라

신경산 범나부가 태백산으로²⁸⁸⁾ 유랑간다
태백산 왕거무줄에 어이나 걸려서 죽기됐네
거봐라 청년아 날살리라
의사마다 병곤치면은 북망아산천이 어데있소
여자마다 유부녀라면 기생덜이가 누가있소
얼씨구나 좋다 기화자 좋네 아니 노지를 못하리라

남산밑에 남대룡아²⁸⁹⁾ 서산아밑에는 서처녀야
오만한그루 다비어도 소송아대랑 비지마라
올키와²⁹⁰⁾ 내년올키와 낙숫대를 휘어잡아
서처녀 복판에다가 떼졌더니
냘으면은 연분이오 못냘으면은 상사로다
상사영사 고를매자 곱으두룩만 살아보소
얼씨구나 좋다 기화자 좋네 아니 노지를 못하리라

[천가동 민요 32]

노랫가락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428_PKS_PYI_0003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가동 8통(천성동 서중마을) 서중할머니경로당

조사일시 : 2010.4.28.

조사자 : 박경수, 정규식, 정혜란

제보자 : 박연이, 여, 86세

구연상황 : 제보자가 어떤 노래를 할지 잠시 생각을 한 후에 다음 노래를 갑자기 시작했다.

287) 명화를 줄까.

288) 태백산으로.

289) 남도령아.

290) 올해 키워.

저~기~설 채전밭에~ 불뚱끓는 저큰아가
누간-장을 녹힐라고~ 저래나곱-게도 잘생겼노~
아무~람사 여자되-어~ 군자야간-장을 못녹히-리~

[천가동 민요 33]

사위 노래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428_PKS_PYI_0004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가동 8통(천성동 서중마을) 서중할머니경로당

조사일시 : 2010.4.28.

조사자 : 박경수, 정규식, 정혜란

제보자 : 박연이, 여, 86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못갈 장가 노래 등 아는 노래를 불러 달라고 요청하자, 제보자가 처음에는 부르기를 잠시 주저했으나 곧 “예전에는 참 많이 불렀다.”고 하며 다음 노래를 불렀다. 창부타령 곡조로 부른 것이다.

내딸죽-은 내사우야 울고갈길을 왜왔느냐~
이왕지사 완걸음에 발치잡이나 자고가소
죽었으면은 영죽었지 발치잡 자기는 내사싫소
얼씨구 좋다~ 기화자 좋네 아니 노지를 못하리라-

[천가동 민요 34]

취선가(醉船歌)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428_PKS_PYI_0005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가동 8통(천성동 서중마을) 서중할머니경로당

조사일시 : 2010.4.28.

조사자 : 박경수, 정규식, 정혜란

제보자 : 박연이, 여, 86세

구연상황 : 제보자는 앞의 <사위 노래>를 부른 후에 다음 노래가 생각났는지 바로 이어서 노래를 불렀다. 계속 창부타령 곡으로 부른 노래이다.

탁주일병 배를모아 정종아 강에다 띄아놓고

배는등실 한국선이오 사공은 지지리도 약질이라
언제야 이몸을 하승을(환승을) 하여 저배를 타고도 유랑갈꼬야
얼씨구나 좋다 기화자 좋네 아니 노지를 못하리라

[천가동 민요 35]

진도아리랑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428_PKS_PYI_0006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가동 8통(천성동 서중마을) 서중할머니경로당
조사일시 : 2010.4.28.

조사자 : 박경수, 정규식, 정혜란

제보자 1 : 박연이, 여, 86세

제보자 2 : 이녹일, 여, 86세

제보자 3 : 배귀순, 여, 75세

구연상황 : 박연이 제보자가 '전라도 끽끔 노래'를 해보겠다고 한 다음 노래를 시작했다. 노래를 하던 중에 청중들도 합세해서 같이 아리랑을 불렀다. 그리고 후반부에서 이녹일과 배귀순이 나서서 계속 아리랑을 이어서 불렀다.

제보자 1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에헤
아리랑 응응응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는 열두나 고긴데
정든님 고개고개는 단고개로구남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에헤
아리랑 응응응응 아라리가 났네

날다려 가거라 나를모셔 가소
정 많이 들은낭군아 나를다리 가소야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에헤
아리랑 응응응응 아라리가 났네~
날좀보소야 날좀보소 나를조금 보소
동지선달 꽃본듯이 나를조금 보소야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에헤
아리랑 응응응응 아라리가 났네

청천- 하늘에는 잔별도 많고요
 이내야 가슴속에는 수심도 많당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에헤
 아리랑 응응응응 아라리가 났네

신작로야 길이넓어서 길가기 좋고
 전깃불이 밝아서 입을보기 좋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에헤
 아리랑 응응응응 아라리가 났구나

돈돈만 알았지 사람모르는 저잡놈
 언제나 죽어서 돈벼락을 맞을래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에헤
 아리랑 응응응응 아라리가 났네

정든님 오시는데 인사를 못해
 행주치마 입에물고 빙긋이 웃어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에헤
 아리랑 응응응응 아라리가 났네

한바당 유소는 지해심해를 놓고요
 우리집에 저방아기는 젓줄심을 논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에헤
 아리랑 응응응응 아라리가 났네

아저건니야 저산이야²⁹¹⁾ 계룡맹산인가
 밤중에 보아도 서기만번쩍 난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에헤
 아리랑 응응응응 아라리가 났구나

제보자 2 아침에 우는새는 배가고파 울고
 저녁에 우는새는 임이그리워 운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에헤
 아리랑 응응응응 아라리가 났네

291) 저 건너 저 산이야.

날쫓금 보세요 날쫓금 보소
동지선달 꽃본듯이 날쫓금 보소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에헤
아리랑 응응응응 아라리가 났네

제보자 1 아리랑 고개는 열두나고개
정든님 고개고개는 단고개로구나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에헤
아리랑 응응응응 아라리가 났네

제보자 2 아리랑 고개다 주막집을 짓고
정든님 오두룩만 기다린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에헤
아리랑 끁끁끁 아라리가 났네

제보자 3 신작로 복판에 솔떼우는 영감쟁이
임이야 정떨어진데는 떼울수가 없나요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에헤
아리랑 응응응 아라리가 났네

우연히 내마음 산란하여
달뜨는 바닷가에 산보를 갔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에헤
아리랑 끁끁끁 아라리가 났네

제보자 2 청천아 하늘에는 잔뿔도 많고
우리야 가슴속에는 희망도 많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에헤
아리랑 끁끁끁 아라리가 났네

산천초목은 젊어서 오고
우리야 청춘은 늙어서 간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에헤
아리랑 끁끁끁 아라리가 났네

[천가동 민요 36]

청춘가(1)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428_PKS_PYI_0007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가동 8통(천성동 서중마을) 서중할머니경로당

조사일시 : 2010.4.28.

조사자 : 박경수, 정규식, 정혜란

제보자 : 박연이, 여, 86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상사 노래도 예전에 많이 불렀지 않느냐고 하며 노래를 유도하자, 제보자가 다음 노래를 불렀다. <청춘가> 곡으로 불렀다.

산이~ 높아야~ 골도나 깊지요~
조그마한 여자속이- 좋~다 얼마나 깊으리까-

높은봉 상봉에 외로이선 나무야~
날가야 같이도 어~허 외로이 섰구나~

[천가동 민요 37]

창부타령(2)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428_PKS_PYI_0008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가동 8통(천성동 서중마을) 서중할머니경로당

조사일시 : 2010.4.28.

조사자 : 박경수, 정규식, 정혜란

제보자 : 박연이, 여, 86세

구연상황 : 앞의 <청춘가>를 부르다가 바로 이어서 <창부타령> 곡으로 바꾸어 부른 것이다.

높은산에는 눈날리고 낮은산에는 비를날려
녹수청청 흐르는물에 배차씻는²⁹²⁾ 저큰아가
누구간장을 녹힐라고 그래나 곱게도 잘생겼노야
아무람사 여자몸매는 군자야 간장으로 못녹히리
얼씨구나 좋구나 기화자 좋네 아니 노지를 못하리라

292) 배추 씻는.

[천가동 민요 38]

돈 타령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428_PKS_PYI_0009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가동 8통(천성동 서중마을) 서중할머니경로당

조사일시 : 2010.4.28.

조사자 : 박경수, 정규식, 정혜란

제보자 : 박연이, 여, 86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제보자가 과거에 부른 노래 돈 타령을 불러보라고 부탁하자, 제보자는 요새도 돈타령 많이 한다는 우스갯소리를 하고 난 뒤 바로 다음 노래를 불렀다.

돈-돈돈 돈봐-라아
돈-돈돈 돈보-소요
시버적하니 십원짜리요
돈-돈돈 돈봐-라
얼그럭철그럭 원전이후여
돈-돈돈 돈봐-라
잘난사람은 못난돈
돈-돈돈 돈봐-라
못난사람은 잘난돈
돈-돈돈 돈봐-라
어깨넘에도 천박한돈
돈-돈돈 돈봐-라
돈-돈돈 돈봐-라아
아 바빠도 온다던돈이
돈-돈돈 돈봐-라
언제 돌아서 오실란고
돈-돈돈 돈봐-라

[천가동 민요 39]

탕건 노래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428_PKS_PYI_0009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가동 8통(천성동 서중마을) 서중할머니경로당

조사일시 : 2010.4.28.

조사자 : 박경수, 정규식, 정혜란

제보자 : 박연이, 여, 86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예전에 길쌈을 했느냐고 물어보자, 제보자와 청중들이 탕건을 많이 만들었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조사자가 탕건을 만들면서 부른 노래는 누가 할 줄 아느냐고 물어보자, 제보자가 다음 노래를 불렀다.

저게~가-는 저구름에~ 눈들었-나 비들었-나
눈도-비도 아니들고~ 소리명-창 임들었네~

[천가동 민요 40]

도라지 타령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428_PKS_PYI_0010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가동 8통(천성동 서중마을) 서중할머니경로당

조사일시 : 2010.4.28.

조사자 : 박경수, 정규식, 정혜란

제보자 : 박연이, 여, 86세

구연상황 : 제보자가 탕건하면서 많은 노래를 불렀다고 하면서, 다음 노래도 탕건 만들면서 불렀던 노래라고 했다.

도라지 도라지 도라~지
심심- 산천에 백도라지
어데- 날때가 없어서~
양다리 복판에도 니가났노
한두- 뿌리만 캐여도~여
바구미 반석만 되노~라
에헤~요 에헤~요 에야라 난다
지화자자 좋~다
니가 내간장을 스리슬슬 다녹힌다~

[천가동 민요 41]

의암이 노래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428_PKS_PYI_001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가동 8통(천성동 서중마을) 서중할머니경로당

조사일시 : 2010.4.28.

조사자 : 박경수, 정규식, 정혜란

제보자 : 박연이, 여, 86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진주남강요는 부르지 않았느냐고 물어보자, 제보자가 진주남강요는 모르지만 다음 노래는 불렀다고 했다. <창부타령> 곡조로 부른 것이다.

진주기상 의암이가²⁹³ 우리야 조선을 사궤라꼬²⁹⁴
왜장춘향²⁹⁵ 목을안고 진주야 남강에 떨어졌네
열시구 절씨구 기화자 좋다 아니 놓고서 무엇하리야

[천가동 민요 42]

신세타령요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428_PKS_PYI_0012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가동 8통(천성동 서중마을) 서중할머니경로당

조사일시 : 2010.4.28.

조사자 : 박경수, 정규식, 정혜란

제보자 : 박연이, 여, 86세

구연상황 : 앞의 노래가 끝나고, 제보자는 잠시 신 뒤에 다음 노래를 불렀다. 노래를 부른 다음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이 지장입니다.”라고 했다. 자신의 신세를 타령조로 부른 노래이다.

우짜다가 왜늘었노야 원통하고도 애답구나
너날적에 나도나고 내날적에 너도난데
어떤새는 밤에울고 어떤새는 낮에우노
우짜다가 내팔자야 무당년이 되었고고

내가 이거 하는 게가 지장입니다.

293) 진주기생 의암이가.

294) 사궤라고. 흔히 “살릴라고”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불렀다.

295) 왜장을 ‘춘향’이라 하는 오류를 보였다. 제보자의 습관적 노래 표현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청중 중에 ‘춘향’을 ‘청장’이라 해야 한다고 말을 곁들였다. ‘왜장 가등청정’을 줄이면 ‘왜장청정’이라 해야 옳다.

[천가동 민요 43]

인생허무가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428_PKS_PYI_0013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가동 8통(천성동 서중마을) 서중할머니경로당

조사일시 : 2010.4.28.

조사자 : 박경수, 정규식, 정혜란

제보자 : 박연이, 여, 86세

구연상황 : 제보자는 긴 노래를 구연한 후, 음료수로 목을 축이며 여담을 했다. 그 후, 갑자기 다음 노래를 시작했다. 노래를 다 부른 후에, 초한가를 이 노래 다음에 부른다고 했다.

백만장자 부자라도
털고나면은 그만이고
삼천갑자 동방석이기도
하루일기를 지못봐여
지죽을 날짜로 몰랐구나
우리결은 인생들이
요렇게 저렇게 사시다가
아차한번 죽어지면
우리죽어 무덤우에
논을칠지 밭을칠지
소분가를 모르구나

[천가동 민요 44]

초한가(2)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428_PKS_PYI_0014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가동 8통(천성동 서중마을) 서중할머니경로당

조사일시 : 2010.4.28.

조사자 : 박경수, 정규식, 정혜란

제보자 : 박연이, 여, 86세

구연상황 : 제보자는 앞서 창부타령 곡조로 부른 바 있는 초한가를 육자배기조로도 부를 수 있다고 하며, 다음과 같이 육자배기 가락으로 노래를 한 번 더 불렀다.

초패왕은 초를장천
열평상두 설곳없고
길이쉬도 하릴없네
칼을씻고 일어나니
사-뱅이²⁹⁶⁾ 초가로다
우애우애 내가간들
낸들일을 어이하리여
오부에 채극하야
상부님이 흠어지니
남산밑에 장찬-밭은
어느-장부 갈아줄까
최후에 맑은술은
어느님-이 맛을볼까
우리낭군 떠날적에
주문에 손길잡고
청-춘소연을 두고갈때
맹년구월이 돌아오면
금수-같이 맺은언약
밤중-안에 잇을손가
은왕천 병마천아
전천만천²⁹⁷⁾ 수심이야
수심수심 많은~곳에
어-이갈고 수심이야
어린아기 아비볼러
어미-간장 다녹는다

[천가동 민요 45]

청춘가(2)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428_PKS_PYI_0015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가동 8통(천성동 서중마을) 서중할머니경로당

조사일시 : 2010.4.28.

조 사 자 : 박경수, 정규식, 정혜란

296) 사방이.

297) “전전반측(輾轉反側)”을 이렇게 불렀다.

제 보 자 : 박연이, 여, 86세

구연상황 : 제보자는 계속해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 힘에 부치는 듯해 보였지만, 그러나 곧 다음 노래를 불렀다.

아깝다 내청춘아~ 장가도 못가고~
오전짜리 미륵구장사²⁹⁸⁾ 좋~다 청춘만 늙는다~

보다가 가거라~ 자다가 가시오~오
저달이 지고지도록 어-어허이 노다가 가시오

저달이 지고서~ 어듭기 되면은
선사야 초롱에도 좋~다 불밝히주마~

이팔이 청춘에~ 소년만 되고요~오
문맹에 학문을 닦아나 봅시다~

사다가 사다가~ 못살기 되거든~
야마도 공장으로 좋~다 실풀러나 가보자~

[천가동 민요 46]

가덕팔경가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428_PKS_PYI_0016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가동 8통(천성동 서중마을) 서중할머니경로당
조사일시 : 2010.4.28.

조 사 자 : 박경수, 정규식, 정혜란

제 보 자 : 박연이, 여, 86세

구연상황 : 제보자는 놀차봉 이야기를 하던 중에 가덕팔경가가 있다고 하면서 다음 노래를 불렀다.
가덕도의 경치와 특산물을 자랑하는 사설을 독특하게 창부타령 곡으로 불렀다.

놀차에 물침봉은 가덕에²⁹⁹⁾ 무모이요³⁰⁰⁾
가덕에 무모이는³⁰¹⁾ 연대산이 제일이라

298) “미륵구”는 밀크(milk)의 일본식 발음. 미륵구라 하면 밀크 카라멜을 말함.

299) 가덕에.

300) 부모이요.

천성마을 천수대는 섬중에는 맹산이오
동도마을 등댓불은 뱃길을 아르고
삼신도 해안에는 생복이 생산이라
눌차에 석화맛은 세계에 제일이요
새바지 개월이되면³⁰²⁾ 대구가 조종이라
대항에 함포장에는 세계에 제일이요
얼씨구나 좋다 기화자 좋네 아니 노지를 못하리라

[천가동 민요 47]

모심기 노래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428_PKS_BKS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가동 8통(천성동 서중마을) 서중할머니경로당

조사일시 : 2010.4.28.

조사자 : 박경수, 정규식, 정혜란

제보자 : 배귀순, 여, 75세

구연상황 : 조사자의 요청에 제보자는 청중들에게 같이 하자고 말을 하고는 다음 노래를 불렀다.

해다짚네~ 양산읍~네 해다짚네~
방긋~방긋 웃는애기~ 몬따야보고도 해다짚네~

좋다~ [일동 박수]

[천가동 민요 48]

양산도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428_PKS_BKS_0002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가동 8통(천성동 서중마을) 서중할머니경로당

조사일시 : 2010.4.28.

조사자 : 박경수, 정규식, 정혜란

제보자 : 배귀순, 여, 75세

301) 부모는.

302) 겨울이 되면.

구연상황: 제보자가 양산도도 할 수 있다며 이 노래를 불렀다. 후렴구를 부를 때에 앉아서 어깨춤을 추다가 나중에는 일어서서 춤을 추며 노래를 불렀다. 청중들도 모두 신이 나서 박수를 치며 장단을 맞추어 주었다.

에헤~이요~
 양산읍내 물레방아 물을안고 돌~고~
 뒷집에 큰아기는 나를안고 돈~다~
 어라응당당 당당당당당 당기당당당당~ 당~당~
 디딩디딩딩기야 디딩디딩딩딩

에헤~이요~
 가노라~ 가노라 내돌아 간~다~
 아들딸을 버리빼고 내가돌아 간~다~

[천가동 민요 49]

밀양아리랑

자료코드: 04_21_FOS_20100428_PKS_BKS_0003

조사장소: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가동 8통(천성동 서중마을) 서중할머니경로당

조사일시: 2010.4.28.

조사자: 박경수, 정규식, 정혜란

제보자: 배귀순, 여, 75세

구연상황: 조사자가 이 지역은 밀양이 가까운데 <밀양 아리랑>은 부르지 않느냐고 물어보자, 청중 한 사람이 <밀양 아리랑> 앞 소절을 조금 불렀다. 그러자 제보자가 나서서 그게 <밀양 아리랑>이냐며 다음 노래를 불렀다. 제보자가 신명을 내어 부르자 청중들도 박수를 치며 호응했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³⁰³⁾ 아라리가 닳네~
 아리랑 고개로 내넘어간다-
 저건니~ 저산이 맹산이던가~³⁰⁴⁾
 오동지야 설한풍에도 함박꽃이 핀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닳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303) 이 부분까지 제보자가 불렀으나 녹음 실수로 녹음되지 않았다.

304) 저 건너 저 산이 명산이던가.

울오빠- 장가는 후맹년에 가고~
서마지기 논팔아서 날치아주소~³⁰⁵⁾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조계가는 저놈의계집아 자뿌라지거라³⁰⁶⁾
이리배끼 주는듯이 살푼안아보자³⁰⁷⁾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부산 시내- 잘날라꼬 영도다리 생겼나~
우리가덕도 잘날라꼬 연대산이 생겼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천가동 민요 50]

모심기 노래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428_PKS_LNI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가동 8통(천성동 서중마을) 서중할머니경로당

조사일시 : 2010.4.28.

조사자 : 박경수, 정규식, 정혜란

제보자 : 이복일, 여, 86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이 마을에서도 예전에 농사를 짓지 않았냐고 물어보면서 모심기 노래를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제보자가 모심기 노래를 7편이나 연이어 불렀다. 제보자가 노래를 부르는 동안 청중들도 아는 사설이 나오면 따라서 함께 불렀다. 노래를 부르던 중에 배귀임 할머니는 직접 모 심는 흉내를 내며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했다.

찾어-가자~ 찾어가자~ 첩의야방-을 찾어가자-
첩의-방은 꽃밭이요~ 이내-몸은 연못이-라
꽃과나비는 봄한철이요~ 연못에-잉어는 사시절이라- 이후후후~

한강에다 모를부어~ 모찌내기도 난감하-네~

305) 나를 치워 주소. 즉, 나를 시집 보내 주소.

306) 넘어지거라.

307) 이런 정도로 주는 듯이 살짝 안아보자.

하늘에다 목화심어~ 목화야따-기도 난감하네- 이후후후~
서마지기 이논빼미~ 반달걸-이도 심어가네-
니가-무슨 반달이나~ 초승달-이 반달이지- 이후후후~

물꼬야-청청 혈어놓고 주인양-반은 어데갔소~
등넘-에다 첩을두고~ 첩의야-방에 놀러갔소-

무슨여러 첩이건데 밤에가-고 낮에가노-
낮으-로는 놀러가고~ 밤으로~는 자러가요- 이후후후~

해다-지고 저문날에~ 산골마장(산골마다) 연기나네-
우리엄마- 어데가고~ 연기넬-줄 모르는가- 에-호호호호호

땀복땀복 밀수지비 사우야상-에~ 다올랐네-
우리-할망- 어디가고~ [잠시 멈추었다가] 사우야상에 다올랐노

[천가동 민요 51]

도라지 타령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428_PKS_LNI_0002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가동 8통(천성동 서중마을) 서중할머니경로당

조사일시 : 2010.4.28.

조사자 : 박경수, 정규식, 정혜란

제보자 : 이복일, 여, 86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산에 나물을 캐면서 불렀던 노래를 물어보자 청중들이 <도라지 타령>을 불렀다고 말했다. 조사자가 제보자에게 어떻게 불렀는지 한번 불러 달라고 부탁하자, 제보자가 다음 노래를 불렀다. 제보자가 앞부분 사설을 시작한 이후에는 청중들도 같이 불렀다.

도라지 도라지 도라~지-
심심- 산천에 백도라지-
한두- 뿌리만 캐여~도~
대바구니가 철~철 넘노라-

에헤이요 에헤이요 에헤-이요
에야라 난-다 지화자자 좋~다
니가 내간장 스리살살 다눅인다-

도라지 캐러~ 간다-고~
요핑계 조핑계 하더~니-
총각낭군 무덤에~ 삼오제(삼우제) 지내러 간다-네
에헤요 에헤요 에헤이요
에야라 난-다 지화자자 좋~다
니가 내간장 스리살살 다눅인다-

[천가동 민요 52]

사발가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428_PKS_LNI_0003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가동 8통(천성동 서중마을) 서중할머니경로당

조사일시 : 2010.4.28.

조사자 : 박경수, 정규식, 정혜란

제보자 : 이복일, 여, 86세

구연상황 : 제보자가 <도라지 타령>을 부른 후 바로 이어서 다음 <사발가>를 불렀다. 청중들이 박수를 치며 따라 불렀다.

석탄-백탄 타는~데~ 연기만 풀~풀 나구요
요내-간장 타는~데~ 연기도 짐~도 안난~다

[천가동 민요 53]

양산도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428_PKS_LNI_0004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가동 8통(천성동 서중마을) 서중할머니경로당

조사일시 : 2010.4.28.

조 사 자 : 박경수, 정규식, 정혜란

제 보 자 : 이녹일, 여, 86세

구연상황 : 배귀임 할머니가 <양산도>를 부른 후, 제보자도 다음 <양산도> 노래가 생각났는지 바로 부르기 시작했다. 배귀순 할머니도 제보자와 함께 불렀다.

꽃이- 좋아도 춘추단절이~오~
처녀가 고와도 이십세미만이~라-
에에에에히-요~
옥단풍 중우적삼 첫물이 좋~고~
처녀야 총각은 첫날밤이 좋~네~

[천가동 민요 54]

쌍가락지 노래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428_PKS_LNI_0005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가동 8통(천성동 서중마을) 서중할머니경로당

조사일시 : 2010.4.28.

조 사 자 : 박경수, 정규식, 정혜란

제 보 자 : 이녹일, 여, 86세

구연상황 : 박연이 할머니가 앞부분 사설을 하다가 기억이 다 나지 않는지 힘들다고 못하겠다고 하자 이 제보자가 다시 노래를 시작했다. 구연 중에 가사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부분이 있자 청중들이 함께 불러 주었다.

쌍금쌍금 쌍가락지
호작질을 닦아내어
먼데보니 달일래라
절에보니 처잘래라
그쳐자 자는방에
숨소리가 돌일래라
옹돌바씨 오라버니
거짓말씀 말아주이서
남풍이 디리불어
풍지떠는 소리로다

[천가동 민요 55]

가덕팔경가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428_PKS_LNI_0006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가동 8통(천성동 서중마을) 서중할머니경로당

조사일시 : 2010.4.28.

조사자 : 박경수, 정규식, 정혜란

제보자 : 이복일, 여, 86세

구연상황 : 박연이 할머니가 불렀던 <가덕팔경가>와는 다른 곡조로 제보자가 다음 노래를 불렀다.

에~

가덕도 연대봉은 섬안에 조종산이오

천성리 천수-대는~ 섬안에 유명지라(유명지라)-

에헤야 좋구나 좋다 기화자 좋구나 좋다

명산에 가덕섬은~ 자-랑이로구나

에~

세마지 등댓불은 뱃길을 가르키고

갈미섬 태안-에는~ 전복이(전복이) 생산이라

에헤야 좋구나 좋다 기화자 좋구나 좋다

명선에 가덕섬은~ 자-랑이로구나

[천가동 민요 56]

가덕도 노래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203_PKS_KET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가동 9통(천성동 남중마을) 남중할머니회관

조사일시 : 2010.2.3

조사자 : 박경수, 정규식, 박지희, 오소현

제보자 : 김을태, 여, 84세

구연상황 : 조사자의 유도로 제보자가 가덕섬 노래를 말로 읊었다. 조사자가 노래로 해달라 하자 제보자가 노래로 부른 후에 “미역이 마이 난다꼬 연년이 풍년이더래요”라는 말을 했다.

가덕도 연대산은 섬안에 조종사요
에헤요 데헤요

뭐라 카더노? 내사 그것도 모르겠다.
천성에 천수대는 세계로 알으피요
에헤요 데헤요

그러카고 또. 인자 함목에 대항에.

대항의 합수장은 연년이 풍년이요

[천가동 민요 57]

각설이 타령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203_PKS_KET_0002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가동 9통(천성동 남중마을) 남중할머니회관

조사일시 : 2010.2.3

조사자 : 박경수, 정규식, 박지희, 오소현

제보자 : 김을태, 여, 84세

구연상황 : 다른 제보자가 노래를 한 후 흥에 겨워 제보자가 스스로 노래를 하였다. 다 같이 박수를 치면서 노래를 들었다.

에~ 씨구씨구씨구씨구 들어간다
일자나 한자 들고보니
일월이송송 개송송~
밤중새별이 완전하다

보이소. 각설이 타령 이거로 하몬 돈이 나와야 되는데, 아무따나 하는 데가 아입니다.
참말입니다. (청중 1 : 맞다. 맞다.) 예. 이런데 이 각설이 타령 이것도 참. (청중 1 : 돈을 안 가져서 우짜꼬.) (청중 2 : 돈이 나오는데, 나와야 되는데. 나올 장면이 있고 안 나올 장면이 있고.) 아 그렇는교.

일선에 가신 우리낭군
돌아오기만 기다리요

이자로 한자 들고보니
이승만씨 대통령
아래살은이가 부대통령
삼자로 한자 들고보니
삼천만 전민군들
남한일대로 쳐드간다
사자로 한자 들고보니
사천칠백 팔십삼년
안주구경도 쳐드간다
오자로 한자 들고보니
오동나무 수풀속~
괴뢰군들이 쳐드가고
육자로 한자나 들고보니
육이오사변 정세만~
거리신세가 내가됐네
칠자로 한자 들고보니
칠박에 포소리가
남한앞으로 늘어졌네
팔자로 한자 들고보니
팔다리없는 상이군인
목발이군대로 들어갔네
구자로 한자 들고보니
군대생활 구년만에
무등병비 웬말이나
장자로 한자 들고보니
우리나라 장교들이
일선에가서 쳐드갔네
어허 품바나 각설아
각설이가 망해도
부채한장은 남았네

다 했어 이제.

[천가동 민요 58]

남녀연정요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203_PKS_KET_0003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가동 9통(천성동 남중마을) 남중할머니회관

조사일시 : 2010.2.3

조사자 : 박경수, 정규식, 박지희, 오소현

제보자 : 김을태, 여, 84세

구연상황 : 제보자가 자연스럽게 이 노래를 구연하였다. 노래를 구연할 때, 꺾기를 많이 하면서 불렀다. 노래를 다 구연하자 청중들에게 박수를 치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밀양삼당 궁노수에 연밥따는 저처녀야
연밥줄밥은 내따줄꾸마 내품안에 잠들거라
잠들기는 어렵운데 잠시잠간 못자겠네
얼씨구나 좋네 지화자 좋네
어떻게도 좋은지 모르겠네

[천가동 민요 59]

모심기 노래(1)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203_PKS_KET_0004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가동 9통(천성동 남중마을) 남중할머니회관

조사일시 : 2010.2.3

조사자 : 박경수, 정규식, 박지희, 오소현

제보자 : 김을태, 여, 84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모심기 노래>를 해달라고 하자 제보자는 이 노래를 불러 주었다. 구연을 마친 후, 노래의 내용에 대해 '그래니까 아무렇게나 지 손이 물에 빠졌는데 수영버들이 손에 금지더라 그래 수영버들이 올라오소 그랬어.'라고 설명해 주었다.

남창남창 베루끝에 무정하다 울오랍아
나도야죽어 남자가되어 처자근석 심기볼래
울오래비 날살리나 우리올케 날살리나
버들버들 수양버들 수양버들이 날살린다

[천가동 민요 60]

화투타령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203_PKS_KET_0005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가동 9통(천성동 남중마을) 남중할머니회관

조사일시 : 2010.2.3

조사자 : 박경수, 정규식, 박지희, 오소현

제보자 : 김을태, 여, 84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화투 타령>을 해달라고 부탁하자 이 노래를 불러 주었다. 청중들이 모두 박수를 치는 가운데 흥겹게 가창하였다.

에아보자 에아보자³⁰⁸⁾
하토한모로³⁰⁹⁾ 에아보자
정월솔가지 속속한마음
이월메조에 맺어놓고
삼월사쿠라 산란한마음
사월흑싸리 혈어난고
오월난초 나비되어
육월목단에 춤을추네
칠월홍दै지 홀로누워
팔월공산에 달이떴다
구월국화 굳은잎이
시월단풍에 떨어졌네
오동이십이 많다해도
선달비삼십 당할소냐
얼씨구나 좋네 지화자 좋네
지화바람에 손잘씨고
백수건달이 날울린다

[천가동 민요 61]

모심기 노래(2)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203_PKS_KET_0006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가동 9통(천성동 남중마을) 남중할머니회관

308) '외어보자'의 의미인 듯.

309) '화투 한 모'의 의미인 듯.

조사일시 : 2010.2.3

조사자 : 박경수, 정규식, 박지희, 오소현

제보자 : 김을태, 여, 84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예전에 모심기를 할 때 불렀던 노래를 불러 달라고 하였더니 제보자가 이 노래를 불러 주었다. 노래의 중간에 조사자가 할머니의 목청이 아주 좋다고 하자 제보자는 두 번째 노래를 연이어 구연하였다.

모야모야 노란모야 언제커서 열매열네
이달크고 훗달크고 그훗달에는 열매열래

물꼬청청 헐어놓고 주인네양반 어데갔소
문오야전복을 애아놓고~ 첩오야집에 놀러갔네~

[천가동 민요 62]

창부타령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203_PKS_KET_0007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가동 9통(천성동 남중마을) 남중할머니회관

조사일시 : 2010.2.3

조사자 : 박경수, 정규식, 박지희, 오소현

제보자 : 김을태, 여, 84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다른 노래들로 해달라고 하자 청중들이 '한 자리 하소'라고 하면서 서로 미루고 있는 동안 김을태 제보자가 이 노래를 불렀다.

아~
서울이라 한골뭇에 금붕어노는 구경가자
금붕어잡아 회쳐놓고 그냥군불러서 술부어라

[천가동 민요 63]

모심기 노래(3)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203_PKS_KET_0008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가동 9통(천성동 남중마을) 남중할머니회관

조사일시 : 2010.2.3

조 사 자 : 박경수, 정규식, 박지희, 오소현

제 보 자 : 김을태, 여, 84세

구연상황 : 제보자가 먼저 <모심기 노래>를 불러 보겠다며 이 노래를 불렀다. 구연 도중에 받아 주는 부분을 잘 모르겠다고 하면서 말로 설명하면서 구연하였다.

아침이슬 참이슬에 우리동서 옥동아야

받아주는 거는 또 모르겠다. 이가 침의(처음) 노래거든. 이기 또 받아 주는 노래가 있거든.

덕이쌀 찬바람에 불뚝꺾는 저처녀야
누간장을 녹힐라고 그레이뿌기 잘생겼노
나도나면 여자되어 남자간장을 녹힙니다

(청중 : 아이구 잘합니다.)

한되한섬
모를부어 잔나락이 절반이다
등념에 첩을두고 첩의자식이 절반이네

이것도 등지거든. 이거는 받아주는 기고. 첩어이(처음) 하는 거는 인자 초등 하는 기거든. 그런 거기 다 이런 기 있소.

[천가동 민요 64]

양산도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203_PKS_KET_0009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가동 9통(천성동 남중마을) 남중할머니회관

조사일시 : 2010.2.3

조 사 자 : 박경수, 정규식, 박지희, 오소현

제 보 자 : 김을태, 여, 84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다른 청중과 이야기를 하던 중 김을태 제보자가 이 노래를 구연하였다. 청중들과 함께 박수를 치면서 구연하였다.

에헤헤이여~

우리님 사시는 금복저기저나
밤중에 보아도 땡기야다만
얼하나 누워라 내뭇노리다
열에열놈이 끝바라져도 내뭇노리다

[천가동 민요 65]

모심기 노래(4)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203_PKS_KET_0010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가동 9통(천성동 남중마을) 남중할머니회관

조사일시 : 2010.2.3

조사자 : 박경수, 정규식, 박지희, 오소현

제보자 : 김을태, 여, 84세

구연상황 : 조사자의 유도에 따라 가창하였다. 메기는 노래를 부른 후, “이는 받아주는 기다”라고 하면서 노래에 대해 설명하였다.

앞피다넙었다 방초야낭게 김수릉새가 앉아운다
아가야아가야 그말말어 이내야간장이 다타구나

[천가동 민요 66]

모심기 노래(5)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203_PKS_KET_001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가동 9통(천성동 남중마을) 남중할머니회관

조사일시 : 2010.2.3

조사자 : 박경수, 정규식, 박지희, 오소현

제보자 : 김을태, 여, 84세

구연상황 : 김을태 제보자가 앞의 <모심기 노래>를 마친 후, “두나 안 했나?”라고 하니 청중들이 또 해보라고 하자 바로 이 노래를 연이어 가창 하였다.

알금삼삼 곱운독에 술을해어서 금청주네
팔모로깎았다 유리잔에 나비앉아서 잔질한다

[천가동 민요 67]

오리오리 개오리아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203_PKS_SJS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가동 9통(천성동 남중마을) 남중할머니회관

조사일시 : 2010.2.3

조사자 : 박경수, 정규식, 박지희, 오소현

제보자 : 신정순, 여, 89세

구연상황 : 제보자가 자연스럽게 이 노래를 가창하였다. 주위의 청중들은 박수를 치면서 ‘좋다~’, ‘잘한다’라는 추임새를 넣어 주었다. 흥겹게 구연하였다.

오리오리 개오리아
대동강은 어데두고
두물강에 니가갔노
두물강도 내강이요
대동강도 내강이요

[천가동 민요 68]

장구 노래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203_PKS_SJS_0002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가동 9통(천성동 남중마을) 남중할머니회관

조사일시 : 2010.2.3

조사자 : 박경수, 정규식, 박지희, 오소현

제보자 : 신정순, 여, 89세

구연상황 : 청중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어 구연현장이 시끄러웠는데 제보자가 이 노래를 구연하였다. 혼자서 손으로 무릎을 치면서 장단을 맞춰가면서 구연하였다. 짧게 구연한 후, 노래의 뒷부분은 다 잊어버렸다고 했다.

사철가지 열쇠는
아프라꼬 때리느냐
사랑에 장구열쇠
감정말고 들어보소

[천가동 민요 69]

진도아리랑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203_PKS_KSS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가동 10통(대항동 대항마을) 대항경로당

조사일시 : 2010.2.3

조사자 : 박경수, 정규식, 박지희, 오소현

제보자 : 강순선, 여, 74세

구연상황 : 조사자의 구연 유도에 의해 이 노래를 구연하였다. 청중들과 함께 박수를 치면서 즐겁게 노래를 불렀다.

동경이 얼마나 좋아
꽃같은 나를두고 연락선 타느냐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음음음 아라리가 났네

[천가동 민요 70]

창부타령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203_PKS_KBY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가동 10통(대항동 대항마을) 대항경로당

조사일시 : 2010.2.3

조사자 : 박경수, 정규식, 박지희, 오소현

제보자 : 김복의, 여, 74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청춘가>나 <창부타령>, <노랫가락> 등을 불러 달라고 하자 이 노래를 불러 주었다.

아니 놀지를 못하리라
저기가는 저할마시 이삼을 미나리깁에
돌을 주어서 던졌더니
날보라고 던진돌이 처녀야 흘목에 맞았구나
흘쩍흘쩍 우는소리 대장부 간장을 녹히더라
얼씨구 절씨구 아니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천가동 민요 71]

진도아리랑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203_PKS_KBY_0002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가동 10통(대항동 대항마을) 대항경로당

조사일시 : 2010.2.3

조사자 : 박경수, 정규식, 박지희, 오소현

제보자 : 김복의, 여, 74세

구연상황 : 강순선 할머니의 <진도 아리랑> 가창이 끝나자 김복의 할머니가 이 노래를 불러 주었다.
박수를 치면서 즐겁게 불러 주었다.

천하일색이더냐
내눈이 어둡아서 환장병이 들었든가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에에에에
아리랑 꾸웅꿍 아라리가 났네

우연한 사랑끝에 열매가 맺어서
잠안든 처녀는 내가 원수로구나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에에에
아리랑 꾸웅꿍 아라리가 났네

[천가동 민요 72]

가덕도 노래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203_PKS_KBY_0003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가동 10통(대항동 대항마을) 대항경로당

조사일시 : 2010.2.3

조사자 : 박경수, 정규식, 박지희, 오소현

제보자 : 김복의, 여, 74세

구연상황 : 제보자가 가덕도의 명물에 대한 자랑을 하다가 이 노래를 구연하였다. 창가 곡조로 부른 노래이다. 예전에는 가덕도가 살기 좋았다고 했다.

가덕도에 명산물은 대구와 송어
가덕도는 작아도 우리힘은 크구나
에헤야 데헤야 우리도 가덕도
가덕도에 생산물은 대구와 미역

[천가동 민요 73]

다리 세기 노래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203_PKS_KBY_0004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가동 10통(대항동 대항마을) 대항경로당

조사일시 : 2010.2.3

조사자 : 박경수, 정규식, 박지희, 오소현

제보자 : 김복의, 여, 74세

구연상황 : 조사자의 구연 유도에 의해 이 노래를 불렀다.

강남 삼십놈
방 구 깃 다
뽕

[천가동 민요 74]

잠자리 잡는 노래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203_PKS_KBY_0005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가동 10통(대항동 대항마을) 대항경로당

조사일시 : 2010.2.3

조사자 : 박경수, 정규식, 박지희, 오소현

제보자 : 김복의, 여, 74세

구연상황 : 조사자의 구연 유도에 의해 이 노래를 불렀다.

자리자리 꿈꿈
붙은자리 붙어라
멀리가면 니죽는다

[천가동 민요 75]

아기 재우는 노래(1)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203_PKS_KBS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가동 10통(대항동 대항마을) 대항경로당

조사일시 : 2010.2.3

조 사 자 : 박경수, 정규식, 박지희, 오소현

제 보 자 : 김분선, 여, 75세

구연상황 : 구연자의 구연 유도에 따라 불렀다. 못한다고 하면서 짧게 구연하였다.

자라자라 여기여차
자라자라 자라자라
자라자라 내새끼야

잘도잔다 내애기야
자랑자랑 내애기야
잘도잔다 내애기

[천가동 민요 76]

뱃노래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203_PKS_KBS_0002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가동 10통(대항동 대항마을) 대항경로당

조사일시 : 2010.2.3

조 사 자 : 박경수, 정규식, 박지희, 오소현

제 보 자 : 김분선, 여, 75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예전에 바다에 나가서 고기 잡을 때 부르던 노래나 배를 저을 때 불렀던 노래를 구연해 달라고 하자 이 노래를 불러 주었다. 노를 젓는 동작을 하면서 불러 주었다.

여기여차 히이히이
잘도간다 히이히이
어서가자 히이간다
자라자라 히이히이
잘도간다 히이히이

[천가동 민요 77]

다리 세기 노래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203_PKS_KBS_0003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가동 10통(대항동 대항마을) 대항경로당

조사일시 : 2010.2.3

조사자 : 박경수, 정규식, 박지희, 오소현

제보자 : 김분선, 여, 75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다리세기 노래>를 구연해 달라고 하자 김복의 할머니가 구연해 주었고 이어서 김분선 제보자가 이 노래를 구연하였다.

한덩거리 두덩거리
쫓록쫓록 담사
능금 다래 아리 어름

[천가동 민요 78]

애기 재우는 노래(2)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203_PKS_KBS_0004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가동 10통(대항동 대항마을) 대항경로당

조사일시 : 2010.2.3

조사자 : 박경수, 정규식, 박지희, 오소현

제보자 : 김분선, 여, 75세

구연상황 : 조사자의 구연 유도로 이 노래를 불러 주었다. 구연 도중 가사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해 잠시 멈췄다가 다시 부르기도 하였다.

멍멍개야 짓지마라
우리야기 늑어자면
잘도잔다 잘도잔다
멍멍개야 짓지마라
꼬꼬닭아 우지마라
자랑자랑 내자석아

[천가동 민요 79]

다리 세기 노래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203_PKS_HDN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가동 10통(대항동 대항마을) 대항경로당

조사일시 : 2010.2.3

조사자 : 박경수, 정규식, 박지희, 오소현

제보자 : 허덕님, 여, 86세

구연상황 : 다른 청중들이 <다리 세기 노래>를 하나씩 하자 제보자도 이 노래를 불렀다.

한호래이 두호래이
삼새끼 사호래이
육년 강아지
팔대 장승
고도래 만월에 뱅자

[천가동 민요 80]

잠자리 잡는 노래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203_PKS_HDN_0002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가동 10통(대항동 대항마을) 대항경로당

조사일시 : 2010.2.3

조사자 : 박경수, 정규식, 박지희, 오소현

제보자 : 허덕님, 여, 86세

구연상황 : 김복의 할머니가 <잠자리 잡는 노래>를 부르자 제보자도 이 노래를 구연하였다.

뱅자리 꿈꿈
붙은자리 붙어라
먼데가면 니죽는다

[천가동 민요 81]

창부타령

자료코드 : 04_21_FOS_20100203_PKS_YTK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가동 11통(눌차동 내눌마을) 내눌경로당

조사일시 : 2010.2.3

조 사 자: 박경수, 정유원

제 보 자: 윤토금, 여, 80세

구연상황: 조사자가 옛날 노래를 불러보라고 하자 제보자는 오래된 유행가를 계속 불렀다. 조사자가 노랫가락 한 곡을 하니 다음 <창부타령>을 했다. 그러나 다시 옛날 유행가를 불러서 더 이상의 민요 조사를 할 수 없었다.

아니~아니 아니노지는 못하리라~

하늘과같이 높은사랑~ 하해와같이도 깊었던사랑

칠년대왕(칠년대한) 가물음에 빗발걸이도 반건사람³¹⁰⁾

황금같은 양귀비요 이도랑~은 춘향이라~

일년삼백 육십일에 하루만 못봐도 못살겠네

*이상 박경수·정규식·서정매, 『증편 한국구비문학대계 8-21(부산광역시② -서부산권)』, 한국학중앙연구원/역락, 2015. 12, 189-285쪽. 단, 전체 내용을 이 책의 편집 체제에 따라 동별, 조사 장소별, 제보자별 가나다순으로 재배열했음을 밝혀 둔다.

310) “칠년대한 가물음에 빗발걸이도 반긴 사랑”이라고 불러야 하는데, 발음이 정확하지 않았다.

Ⅲ. 문헌 소재 민요

1. 강동동 민요
2. 녹산동 민요
3. 명지동 민요
4. 천가동(현 가덕도동) 민요

1. 강동동 민요

[강동동 민요 1]

등개노래

모야모야 노랑모야 네 언제 커서 열매열래
이 달 가고 저 달 가고 칠팔월에 열매열지

한강수에다 모를 부어 모 찌기가 나감하네
하늘에다 모 칼을 심어 모내기 난감하네

가창자 : ○덕룡(남, 강동동 송백도마을)

* 부산강서구지편찬위원회, 『강서구지』, 부산광역시 강서구, 2014, 563쪽.

[강동동 민요 2]

성주풀이

강남서 나온 제비 솔씨 하나를 물어다가
○○○○에 던졌구나 그 솔이 자라나서
낙낙장송이 되었구나 동으로 뺏은 가지
서쪽으로 뺏은 가지는 까막까치가 앉았구나

가도 없는 배가 서체가 떠도는다
앞에 배를 살펴보니 이 집 조왕이 타는 배요

가창자 : ○덕룡(남, 강동동 송백도마을)

* 부산강서구지편찬위원회, 『강서구지』, 부산광역시 강서구, 2014, 564쪽.

[강동동 민요 3]

등지노래

낭창낭창 베루 끝에 무정하다 저 오라바
나도 죽어서 남자되어 처자 공석을 섬기라네

가창자 : 김시동(여, 강동동 천자도마을)

* 부산강서구지편찬위원회, 『강서구지』, 부산광역시 강서구, 2014, 564쪽.

[강동동 민요 4]

등지노래

능청능청 베루 끝에 시누올키 꽃 따다가
쏟아졌네 쏟아졌네 대동강에 쏟아졌네
서울갔던 울오랍씨 언배선배 오시더니
붓덜랑 입에 물고 책가방은 옆에 끼고
동생 흘목 더욱 잡아 동생 흘목 밀치 놓고
처의 흘목 더우 잡네 무정하다 울 오랍씨
내도 죽어 남자되어 처운따나 섬길라네
동생하나 죽어지면 짝이 나나 잎이 나나
저 하나 죽고 나면 살아 살일이 고상인데
동생이 물에 떠내려가면서 하는 말이
삼단곳은 요내 머리 분청곳은 요내 얼굴
고기밥이 되어간다

가창자 : 추옥순(여, 강동동 천자도마을)

* 부산강서구지편찬위원회, 『강서구지』, 부산광역시 강서구, 2014, 564쪽.

[강동동 민요 5]

노래가락

청천하늘에 잔별도 많고요
이내야 가슴에 수심도 많더라
세월 네월아 오가지를 마라
아까운 청춘 다 늙어지누나

세끼 백발은 썬 곳이 있는데
사람 백발은 썬 곳이 없구나

호박은 늙으면 단맛이나 있지요
우리 인생 늙어지면 쓸 곳이 없더라

가창자 : 배영자(여, 강동동 천자도마을)

* 부산강서구지편찬위원회, 『강서구지』, 부산광역시 강서구, 2014, 565쪽.

[강동동 민요 6]

청춘가³¹¹⁾

하늘과 같은 높은 사랑
사해와 같이 너른 사랑
칠년대한 가무름에
빗방울같이도 반길 사랑
이사랑 저사랑 다 놔두고
단들이 만난 사랑이 내 사랑이라
얼씨구 좋다 지화자 좋네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가창자 : 박귀순(여, 강동동 천자도마을)

* 부산강서구지편찬위원회, 『강서구지』, 부산광역시 강서구, 2014, 565쪽.

[강동동 민요 7]

백발가

삼단곳이 길던 머리 우랑단이 되었구나
샛별같이 밝던 눈이 반봉사가 되었구나
만구일색 고운 얼굴 검사망을 입었구나
귀는 먹어서 먹통이고 이는 빠져서 흔들대고

311) '청춘가'로 제목을 붙였으나, 이는 '장부타령'의 잘못이다(편집자 주).

할 수 없다 할 수 없어 오는 백발은 할 수 없네
우리 인생이 한번 가면 다시 오기가 어렵도다

가창자 : 김시동(여, 강동동 천자도마을)

* 부산강서구지편찬위원회, 『강서구지』, 부산광역시 강서구, 2014, 565-566쪽.

2. 녹산동 민요

[녹산동 민요 1]

등지노래 1

장되한섬 모를부어 잡나랙이 반이로세
등너무다 첩을두고 기상첩이 반이로세

짚레꽃을 비치내어 임우보선 불걸었네
임을보고 보선보니 임줄생각이 전혀없네

주천당을 돌아가니 아니묵어도 술내나네
총각묵던 청실배는 맛도 좋고 연약하네

가창자 : 최복숙(녹산동)

* 낙동향토문화원, 『부산강서구지』, 부산직할시 강서구청, 1993, 618쪽.

* 부산강서구지편찬위원회, 『강서구지』, 부산광역시 강서구, 2014, 554-555쪽. ‘최복숙(여, 녹산동 녹산마을)’.

[녹산동 민요 2]

등지노래 2

석로꽃은 누각가고 짚레꽃은 장가가네
만인간아 웃지마라 씨종재를 바래간다

가창자 : 허영희(녹산동)

- * 낙동향토문화원, 『부산강서구지』, 부산직할시 강서구청, 1993, 618쪽.
- * 부산강서구지편찬위원회, 『강서구지』, 부산광역시 강서구, 2014, 555쪽. ‘허영희(여, 녹산동 녹산마을)’.

[녹산동 민요 3]

저녁등지

오늘아침 모안동무 해다지니 이별이네
석자수건 목에걸고 내일아침 상봉하세

서마지기 이모판이 장기판만침 남았구나.
장기야판이사 좋건마는 돌리없어 못두겠네

가창자 : 이정순(녹산동 미음마을)

- * 낙동향토문화원, 『부산강서구지』, 부산직할시 강서구청, 1993, 624쪽.
- * 부산강서구지편찬위원회, 『강서구지』, 부산광역시 강서구, 2014, 554쪽.

[녹산동 민요 4]

등지노래 12

아침이슬찬이슬에 부리똥꾸는 저큰아가
너무첩이 아니더면 이내첩을 삼을거로

둘러사게 둘러싸게 이뭇자리를 둘러싸세
에워싸세 에워싸세 이뭇자리를 에워싸세

농사철이 돌아와도 신농씨는 아니오네
신농씨가 죽은지가 언제라고 신농씨오기만 기다리오

가창자 : 한자복(녹산동 미음마을)

- * 낙동향토문화원, 『부산강서구지』, 부산직할시 강서구청, 1993, 625쪽

[녹산동 민요 5]

성주풀이

여어여루 성주야 성주본이 어데매요
갱상도 안동땅 제비원에다 솔씨받아
거제야 봉산에 던졌더니
그솔이 점점 자라나서 타박솔이 되었구나
타박솔이 자라나서 낙락장송이 되었구나
앞집에 김목수야 뒷집에 박목수야
서른세가지 연장망태 늦은짐빠 짊어지고
뒷동산을 제쳐올라 솔한주를 잡고보니
청룡황룡이 휘늘어져 풀자리 풀을푸어
담배한대 피어물고 갓은 벗어 등짐하고
옷은 벗어 남개걸어 넘우간다 넘우간다
슬그릉슬그릉 톱질이야 옷등치고 가지치고
가지쳐서 옷등지여 한배짐을 모았구나
온갖산천 잎을캐여 둥그렇게 배를무어
이산앞에 배를대여 가자세라 가자세라
서른세관 역군들아 나무풀로 가자세라
골라내자 골라내자 성주목을 골라내자
이집터가 생길라꼬 우줄우줄 나렸구나
용의머리 터를댈야 하관머리 주추놓아
호박주추 유리기동 이집지은 삼년만에
이집가중 돌아보니 성주조왕 안모셨네
가자세라 가자세라 성주모시러 가자세라
앞바다 바라보니 우짚배가 삼채뒀네
앞에배를 둘러보니 성주님이 타신배
뒤엿배를 둘러보니 조왕님이 타신배
삼세대 걷어보니 후토지신이 타신배
성주님은 모셔다가 대궁밑에 좌정하고
조왕님은 모셔다가 조왕전에다 좌정하고
후토지신은 불러다가 술한잔을 대접하여
오던질로 회송하고 이집지은 삼년만에
성구왕기가 돌아와서 아들애기 놓거들랑

서울대학 졸업하야 국회의원 매련하고
딸애가 놓거들랑 고이고이 길러내여
정결부인을 매련하고
막아주자 막아주자 화재수도 막아주자
손재수도 막아주자 발크고 손큰놈은
물알로 회송하고 명질고 복진양반
이집가중을 다스려서 여루여루성주야
철년이나 울리소 말년이나 울리소
여어여어 성주여

가창자 : 김도익(녹산동 미음 와룡마을)

* 낙동향토문화원, 『부산강서구지』, 부산직할시 강서구청, 1993, 629-630쪽.

[녹산동 민요 6]

등지노래 6

낭창낭창 배루 끝에 무정하다 저오랍아
나도죽어 남자되어 처자부모를 섬길라네

오늘햇님이 요만되니 산골마다 연개나네
우리야할마이 어디가고 연개낼줄을 모르던가

가창자 : 유영혁(녹산동 미음 와룡마을)

* 낙동향토문화원, 『부산강서구지』, 부산직할시 강서구청, 1993, 620쪽.

* 부산강서구지편찬위원회, 『강서구지』, 부산광역시 강서구, 2014, 554쪽.

[녹산동 민요 7]

등지노래 11

물꼬랑청청 허러놓고 주인네양반 어디갔노
문어야전복을손에다들고 첩우집에 놀로갔소

오늘낮에 점심반찬 무슨고기가 올랐는가
함경도라 동태명태 짚대를 띠고 올랐는가

일이가죽어서 연자가되어 춘세 끝에 집을짓네
날면봐도 들면봐도 임인줄을 내몰랐네

오늘해가 이만되면 산골마다 연기나네
우런님은 어디를가고 연기널줄 모르더뇨

밀양삼랑 궁노시에 연밥따는 저처녀야
연밥줄밥 내따주마 내품안에 잠들어라

가창자 : 안갑선(녹산동 미음 탑동마을)

- * 낙동향토문화원, 『부산강서구지』, 부산직할시 강서구청, 1993, 625쪽.
- * 부산강서구지편찬위원회, 『강서구지』, 부산광역시 강서구, 2014, 554쪽.

[녹산동 민요 8]

모찌기 노래

아침이슬 찬이슬에 부리똥따는 저처자야
부리똥은 따지말고 모심는데 참가하소

들어내자 들어내자 이뭇자리를 들어내자
들어내는 이뭇자리 장구판치만 남았구나

들어내는 이뭇자리 장구판만치만 남았구나

머리도 좋고 실한처자 줄뽕남게 걸앉았네
줄뽕갈뽕 내따주마 백년살아 내강살자

가창자 : 안갑선(녹산동 미음 탑동마을)

- * 낙동향토문화원, 『부산강서구지』, 부산직할시 강서구청, 1993, 623쪽.
- * 부산강서구지편찬위원회, 『강서구지』, 부산광역시 강서구, 2014, 555쪽.

[녹산동 민요 9]

등지노래 5

모시적삼 안섭안에 함박꽃이 봉지짓네
그봉지를 딸라하면 호랭소리가 백락걸네

점심아실었다 도부바리 어데만치 오시는고
이등넘고 저등넘고 칠평에걸려서 난감하네

서월이라 왕대밭에 금비들키가 알을놓네
그알한개 주와서면 금년과계를 내할거로

해다졌네 해다졌네 양산땅에 해다졌네
빵긱빵긱 웃는애기 못다보고 해다졌네

가창자 : 황정성(녹산동 송정마을)

- * 낙동향토문화원, 『부산강서구지』, 부산직할시 강서구청, 1993, 620쪽.
- * 부산강서구지편찬위원회, 『강서구지』, 부산광역시 강서구, 2014, 553-554쪽. ‘황정성(남, 녹산동 송정마을)’.

[녹산동 민요 10]

멸치잡이 노래

어허롱성 가래야 이 가래가 누 가랭고
배서방집에 가래로구나
어허롱성 가래야 올해도 신수가 좋아서
가래마다 멸치로구나
배서방 마누라 기분이 좋아서
영덩춤 추고 나오는구나
탁주는 많있다 원대로 마시라
뱃대기 두드리고 취토록 마시라
어허롱성 가래야 이 가래가 누 가랭고
가래마다 천금이 들고

가래마다 만금이 들었다.
이 가래 속에서 노자가 나와
한양 간 아들 도장원 나왔다
어허롱성 가래야 이 가래가 누 가랭고
장군마다 탁주는 싸빳다
밤이 새도록 마시나 보자.
멀치야 깔치야 만선이 아니가.
뚜디리고 마시나 보자.
어허롱성 가래야.
질가집 담부랑 낮아야 좋고
술집 주모는 곱아야 좋고
옥당목 치매는 붉어야 좋다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다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어허롱성 가래야 이 가래가 누 가랭고
술집 주모야 술 걸러라.
선주 가방에서 돈 쏟아진다.
장대 끝에 봉기를 달고
가닥섬을 들고 오자
뚜디리고 들고 오자.
들물에 만선 날물에 만선
들물에 천냥 날물에 천냥
어허롱성 가래야

가창자 : 황종명(녹산동 신호마을)

- * 낙동향토문화원, 『부산강서구지』, 부산직할시 강서구청, 1993, 642-643쪽.
- * 부산강서구지편찬위원회, 『강서구지』, 부산광역시 강서구, 2014, 553-554쪽. 황종명(남, 녹산동 신호마을).

[녹산동 민요 11]

칭칭나네

칭이나 칭칭 나네 (칭이나 칭칭나네)
얼씨구 좋다 절씨구 좋다 (칭이나 칭칭나네)
멀치를 잡았다 많이도 잡았다 (칭이나 칭칭나네)

칭이나 칭칭나네 (칭이나 칭칭나네)
우리 선주 만선을 했다 (칭이나 칭칭나네)
선주 마누라 춤 나오겠다(칭이나 칭칭나네)
술상에다 안주도 좋아서(칭이나 칭칭나네)
오늘 이 날이 와 이리 좋노(칭이나 칭칭나네)
새 각시 손에 술 기분 나네(칭이나 칭칭나네)
얼씨구 좋다 내 동무야(칭이나 칭칭나네)
이런 재미가 또 있겠나(칭이나 칭칭나네)
오동추야에 달이나 발가(칭이나 칭칭나네)
이모 생각이 절로나 난다(칭이나 칭칭나네)
밤새도록 마시나 보세(칭이나 칭칭나네)
얼씨구 좋다 절씨구 좋다(칭이나 칭칭나네)
얼씨구 좋다 지화자 좋다(칭이나 칭칭나네)
밤새도록 마시고 노세(칭이나 칭칭나네)
칭이나 칭칭나네 (칭이나 칭칭나네)

가창자 : 황종명(녹산동 신호마을)

- * 낙동향토문화원, 『부산강서구지』, 부산직할시 강서구청, 1993, 642-643쪽.
- * 부산강서구지편찬위원회, 『강서구지』, 부산광역시 강서구, 2014, 553쪽.

[녹산동 민요 12]

등지노래 3

이논빼미에다가 모를 심어 금실금실 영화로다.
우리형지 팔형지는 갓을 씌워 영화로다.

서마지기 이논빼미 반달같이도 떠나간다.
지가무슨 반달이나 초승달이 반달이지

님이죽어서 연자가되어 춘세 끝에 집을지워
날면보고 들면봐도 임인줄은 내몰랐네

서월갔던 선뵈님아 우리선뵈 안오던가
오기사 오더마는 칠성판에 실리오데

아래위는 모꾼아 춘삼월이 언제더노
우리야 부모님 길떠날 때 춘삼월에 오신다데

가창자 : 선창 김남선(녹산동 지사마을)
후창 박차순(녹산동 지사마을)

* 낙동향토문화원, 『부산강서구지』, 부산직할시 강서구청, 1993, 618-619쪽.

[녹산동 민요 13]

보리타작노래 1

오해야 오해야
강너머 봉산에 비묻어온다.
낮보지 꼬꼭 두디리라
앞집에 형수도 내쫓만 바래고
(구술: 이렇게 노래를 하니까 정지에 있는 자기 마누라가 우스워서 정지에서 웃어 싸니까?)
정지 저거는 날만보면 좃도잡고
짚것뻥것 웃어쌀네

가창자 : 김남선(녹산동 지사마을)

* 낙동향토문화원, 『부산강서구지』, 부산직할시 강서구청, 1993, 626쪽.

[녹산동 민요 14]

등지노래 4

한강수에다 모를부어 모찌기도 난감하네
하늘에다 모캐갈아 모캐따기 난감하네

서월이라 항골못에 펄펄뛰는 금숭애야
금숭애잡아서 회쳐놓고 팔도야기상 술부어라

비문었네 비문었네 양산땅에 비문었네
그비가 비아니라 억만군사 눈물이네

안개야 자진골에 방울없는 매가가네
그매가 내매더니 천리매가 되어가네

서마지기다 모를숨겨 금실금실 영화로다
우리야부모님 산소등에 솔을 숨가서 영화로다

수월이나 명지없어 죽불비네로 다리나여
그다리로 건널라니 절절쿵덕 소리나네

오동을 깎아서 촛대모아 촛대끝에 불밝히랴
그 촛대가 다닿가도 부모님간줄 내몰랐네

가창자 : 박이뿐(녹산동 지사마을)

* 낙동향토문화원, 『부산강서구지』, 부산직할시 강서구청, 1993, 619-620쪽.

[녹산동 민요 15]

소 노래

정월이라 대보름날 훌치 쟁기라고
삼월이라 삼진날에 피딩기야 소딩기야
치돗아 모른땅에 가나라고 갈건마는
잘가니 못가니 앞에것은 후아잡고
양모하다 깔다구는 물고뜯고 하는구나
두루자는 콩지로다 그렇저렁 지은농사
저거는 알키먹고 나를랑 껍질주네
저건너라 알래망태 엮은 집에
수수깨라 움박집에 쇠도치를 둘러메고
날잡으로 오는가베

가창자 : 박이뿐(녹산동 지사마을)

* 낙동향토문화원, 『부산강서구지』, 부산직할시 강서구청, 1993, 631쪽.

* 낙동향토문화원(백이성), 『낙동강 유역 민속 민요집』, 부산직할시 북구 문화공보실, 1993, 409쪽.

[녹산동 민요 16]

이 노래

옷에이는 옥단춘이 머리이는 강강춘이
니등더러 녀덱할 때
남하사당 집질적에 돌한덩이 메올릿나
니가심에 먹청인들 편지한장 써봤나
니주덩이가 날로운들 말한마디 해봤나

가창자 : 박이뿐(녹산동 지사마을)

- * 낙동향토문화원, 『부산강서구지』, 부산직할시 강서구청, 1993, 631쪽.
- * 낙동강향토문화원(백이성), 『낙동강 유역 민속·민요집』, 부산직할시 북구 문화공보실, 1993, 409쪽.

[녹산동 민요 17]

시집살이 노래 2

산이 높다해도 시아바이만치 높을소냐?
꼬치후초가 맵다해도 시어마이만치 매울소냐?
외나무다리가 두렵다해도 만시숙만치 두러울소냐?
봄배추가 푸르다해도 만동시만치 푸를소냐?
유월콩이 불가진들 시동상만치 불가질까?
보름달이 밝다한들 시누부만치 밝을소냐?
공비단이 곱다한들 울언니만치 고을소냐?

가창자 : 박이뿐(녹산동 지사마을)

- * 낙동향토문화원, 『부산강서구지』, 부산직할시 강서구청, 1993, 628쪽.
- * 낙동강향토문화원(백이성), 『낙동강 유역 민속·민요집』, 부산직할시 북구 문화공보실, 1993, 409쪽.
- * 부산강서구지편찬위원회, 『강서구지』, 부산광역시 강서구, 2014, 556쪽. '박이뿐(여, 녹산동 녹산마을)

[녹산동 민요 18]

아직 등지노래

상좌야 초롱에 불밝히라 첩우야방에 놀로가자
첩도눅고 나도눅고 저초롱불로 누가끌꼬

모야모야 노랑모야 언제커서 열매열네
이달크고 훗달크고 칠팔월에 열매열지

가창자 : 박차순(녹산동 지사마을)

* 낙동향토문화원, 『부산강서구지』, 부산직할시 강서구청, 1993, 623쪽.

[녹산동 민요 19]

등지노래 13

해다지고 저문날에 옷갈아입고 어디가요
첩의집을 가시라거든 내죽는꼴 보고가소

우리집에 클직에는 봉선화꽃에다 날전하고
시집삼년 살고나니 미나리꽃에다 날전하네

가창자 : 조필연(녹산동 지사마을)

* 낙동향토문화원, 『부산강서구지』, 부산직할시 강서구청, 1993, 626쪽.

* 부산강서구지편찬위원회, 『강서구지』, 부산광역시 강서구, 2014, 553쪽. '조필연(여, 녹산동 지사마을)

[녹산동 민요 20]

밭 매기 노래

반찬 좋고 밥적은거 인간세상 못할세라
동무 좋고 해짜른거 인간세상 못할세라

임 좋고 밤짜른거 인간세상 못할세라
동지선달 긴긴밤에 놓였으니
잠이오나 앓아스이 잠이오나
임도잠도 아이오고 심애만 점점나르니

가창자 : 조필연(녹산동 지사마을)

- * 낙동향토문화원, 『부산강서구지』, 부산직할시 강서구청, 1993, 627쪽.
- * 부산강서구지편찬위원회, 『강서구지』, 부산광역시 강서구, 2014, 555-556쪽.

[녹산동 민요 21]

보리타작 노래 2

오 - 해야 엇쭈해야 잘도 넘어간다.
햇바지야 접바지야 잘도 넘어간다.

가창자 : 조필연(녹산동 지사마을)

- * 낙동향토문화원, 『부산강서구지』, 부산직할시 강서구청, 1993, 626쪽.
- * 부산강서구지편찬위원회, 『강서구지』, 부산광역시 강서구, 2014, 556쪽.

[녹산동 민요 22]

등지노래

모야모야 노랑모야 니언제크서 환성할래
이달커고 훗달커서 칠팔월에 환성하지

이논빼미 모를심어 금실금실 영화로세
우리부모 산소등에 솔을심어 영화로다

서마지기 이논빼미 반달만큼 남았구나
니가무슨 반달이냐 초생달이 반달이지

서울갔던 선비들이 우리선비 아니오요
오기는 온다마는 칠성판에 실려오요

낭창낭창 버리 끝에 무정한 울오라바
나도죽어 남자되어 처자곤석 섬길라네

님이죽어서 연자가되어 처마 끝에 집을짓네
날면들고 들면봐도 남인줄은 내몰랐네

담안에다 꽃을심어 담밖으로 휘어지니
길을가던 호걸양반 그꽃보고 길못가네

서울이라 왕대밭에 금비둘기 알을날네
그알하나 내졌으면 금년가개 내할 것을

저기가는 저구름아 어데신선 타고가노

웅천하고 천자봉에 놀던신선 타고가네

물꼬야 청청혈어놓고 주인네양반 어데갔노
문어야전복 오려들고 첩이야방에 놀러가네

모시적삼 안삽안에 함박꽃이 봉지짓네
그꽃밭에 물주느라 베등지게 등빠졌네

비문었네 비문었네 양산땅에 비문었네
비올려나 님올려나 우장삿갓 챙겨둬세

짚래꽃을 뒤편내어 남의버선 볼걸었네
님을보고 버선보니 님즐뜻이 정이없네
주천당모랭이 돌아가니 아니먹어도 술내나네
총각먹던 청실배는 맛도좋고 연약하네

한섬한섬 모를부어 모찌기도 남감한데
등넘어다 첩을두고 기생첩이 반이로다

일천선비 가는중에 울오라비 상이로다
물밑에 고기중에 금붕어가 상이로다

우리낭군 떠날적에 춘삼월로 올라드니
춘삼월이 언제던고 칠성판에 실려오네

가창자 : 최복숙(여, 녹산동 녹산마을)

* 부산강서구지편찬위원회, 『강서구지』, 부산광역시 강서구, 2014, 551-553쪽.

[녹산동 민요 23]

지신밧기

<대문 앞에서>

주인주인 문여소 주인주인 문여소
나갔던손님 돌아왔소 문열었다 들어가자

<지신밧기>

지신밧자 지신밧자 여루지신 지신아
지신밧자 지신아

<성주풀이>

여루여루 성주야 성조본이 어더메나
경상도 안동땅에 제비원이 본일레라
제비원의 솔씨를받아 거제봉산에 흘렸더니
그솔이 자라나서 낙낙장송이 되었구나
낙낙장송이 자라나서 도리기둥이 되었구나
도리기둥이 자라나서 유리기둥이 되었구나
앞집에 김목수야 뒷집에 박목수야
서른세가지 연장망태 어깨위에 둘러메고
나무비러 가자시라 거제봉산 치치달아
나무한주 셋서로되 그 나무를 바라보니
까막까치가 집을지어 어-그나무 부정하다
또한곡을 치치달아 나무한주 셋서로되

그나무를 바라보니 황새덕새가 집을지어
 어-그나무 또부정하다 그 나무를 또퇴주하고
 또한곡을 치쳐달아 나무한주 셋서로되
 그나무를 바라보니 성주목이 완연하다
 동으로 뺨은가지 봉황이 앉아 춤을춘다
 서쪽으로 뺨은가지 학석이 앉아 춤을춘다
 청룡황룡이 휘늘어졌다 갓을벗어 남개걸고
 옷은벗어 줄에걸고 연장망태 땅에놓고
 금도끼야 옥도끼야 십리만큼 가는도치
 오리만큼 가는도치 삼세변을 거듭쫓아
 굽은나무 굽다듬고 곧은나무 곧다듬고
 바른나무 자다듬어 반달같이 다듬어서
 집터보러 가자시라 김해하고 남쪽땅에
 녹산면 녹산리라 저 산주령을 내려잡아
 용의머리 터를 닦아 석자세치 터를도아
 삼칸집을 널리세워 삼오위에 핑경달아
 동남풍이 드니부니 핑경소리 요란하다
 모시러가자 모시러가자 이집성주님 모시러가자
 가도없는 저바다에 배가삼채 떠들인다
 앞에배를 둘러보니 이집성주님 타신배요
 뒤에배를 둘러보니 이집조왕 타신배라
 삼세차를 둘러보니 만구지신이 타신배라
 날날이 모셔다가 이집가문에 좌정하여
 이집이라 대주양반 동서남북 다다녀도
 남의눈에 꽃이되고 이녁눈에 잎이되니
 말소리에 향내난다 잡귀신은 몰알로
 만복은 이리로-

<조왕풀이>

여루여루 조왕아 천년조왕 만년조왕
 천년이나 올리소 만년이나 올리소
 천석을 재지소 만석을 재지소
 천대나 올리소 만대나 올리소
 작은솔은 나가고 경주서말치 들앉아주소
 여루여루 조왕아

<장독풀이>

여루여루 장독아 이장독이 누장독고
옥황상제 장독일세 장독마다 꿀을치고
이장저장이 달아주고 작은장독은 다나가고
질걸옥독만 들앉아주소 어-그 장맛 좋다

<새미(우물)풀이>

여루여루 샘이야 이새미가 누새미뇨
우리동네 공동세미 동해바다 용왕님아
황해바다 용왕님아 남해바다 용왕님아
물이나 청청 나게하소 일년하고 열두달
물이이나 청청 나게하소 만세로 올리소

<작은방풀이>

여루여루 작은방아 시어머이 잔소리 막아주소

<정낭(변소)풀이>

여루여루 정낭아 설사고통 막아주소

<두지(뒤주)풀이>

여루여루 두지야 천석이나 재어주소
만석이나 재어주소 억만석을 재어주소
여루여루 두지야

<마구간풀이>

여루여루 마구간아 천마리나 길르소
만마리나 길르소 억만마리 길르소
여루여루 마구간아 여루여루 마구간아
소를놓으면 악대를 놓고 말을 놓으면 용마를 놓으소
여루여루 마구간아

가창자 : 김상구(녹산동 녹산마을)

* 부산강서구지편찬위원회, 『강서구지』, 부산광역시 강서구, 2014, 557-560쪽.

3. 명지동 민요

[명지동 민요 1]

조개 잡으면서 부르는 노래

에- 가덕산³¹²⁾ 연대봉에 이이야 비오나 마나
애린³¹³⁾ 가장 품에 품고 잠자나 마나

에- 불국사 종소리는 이이야산천을 울리건만
말못할 금전은 내 마음 울린다³¹⁴⁾

가창자 : 박재금(명지동 새동네)

* 낙동향토문화원, 『부산강서구지』, 부산직할시 강서구청, 1993, 641쪽.

[명지동 민요 2]

첩우야 방에 놀로 가자

진우 갱분³¹⁵⁾서 조개 잡는 저 처자야
니 언제 커서로 내 각시 될라노.

올해 크고 내년에 커서로
칠팔월 지나서로 니 각시 될꺼마.
상좌야 불밤히라 첩우야 방에 놀로 가자.
첩도 늙고 나도 누우몬 저 불은 누가 끄노.

가창자 : 박재금(명지동 새동네)

* 낙동향토문화원, 『부산강서구지』, 부산직할시 강서구청, 1993, 641-642쪽.

312) 가덕도의 산(加德山)을 가리킴.

313) '어린'의 현지 사투리

314) 첫 번째 노래는 신호와 진우도 사이의 바다에서 가덕산 조개를 잡을 때 실안개가 퍼져 산으로 오르는 것을 보면서 부르는 노래였다고 하며, 두 번째 노래는 역시 조개를 잡으면서 첫 번째 노래가 끝나고 난 뒤 돈 없는 신세를 한탄하며 부르는 노래였다고 함.

315) 원래 강변이란 말에서 유래했으나 그 뜻이 변질되어 경상도 지방에서 바닷물 가장자리의 뜻으로 쓰이고 있음.

[명지동 민요 3]

화투놀이

정월 속가지 속삭여 놓고 이월 메조에 맺어 놓고
삼을 사쿠라 산란마음 사월 흑사리 허송하다
오월 난초 나비가 되어 유월 목단에 날아들고
칠월 흥돼지 홀로 누워 팔월 공산에 달 밝은데
구월 국화 굳은 마음 시월 단풍에 떨어진다
오동추야 달 밝은데 이 신세도 처량하다

가창자 : 유말년(여, 명지동 순아3구마을)

* 부산강서구지편찬위원회, 『강서구지』, 부산광역시 강서구, 2014, 566쪽.

[명지동 민요 4]

등지노래

임이 죽어 망자가 되어 춘새 끝에 집을 지어
날면 보고 들면 봐도 임인 줄 내 몰랐소

모야모야 노랑모야 니 언제 커서 열매 열래
이 달 커고 훗달 커서 칠팔월에 열매 열래

이 못자리에 모를 부어 모 찌내기가 난감하네
한강수에다 모를 부어 모찌기도 난감하네

이 못자리 모를 부어 장기판 만치 남았구나
장기야 판이사 못하지마는 우리사○○○○

서 마지기 이 논빼미 모를 심어서 영화로다
반달 같이 떠나가네 니가 무슨 반달이가
초생달이가 반달이지

해다지고 저문 날에 골짜마다 연기 나네
우리야 할망 어데가고 연기낼 줄 모르느고

모야모애 노랑모야 니 언제 커서 열매 열래
이 달 가고 저 달 가고 칠파월에 열매 열지

가창자 : 윤말년(여, 명지동 순아3구마을)

* 부산강서구지편찬위원회, 『강서구지』, 부산광역시 강서구, 2014, 566-567쪽.

[명지동 민요 5]

등지노래

아가야 양양 울지마라 죽은 에미 몸에 젖이 나나
짜구야 짜빵빵빵빵 쫓지 마라
죽은 낭게 물이 나네

해 다가네 해 다가네 서산하늘에 해 다가네
우리 부모는 어데가고 연기 낼 줄 모르느고

이 논빼미 저 논빼미 물길 헐어 놓고
주인네 양반 어데갔노 여기 꽃고 저기 꽃고
주인네 양반 거기도 쫓자

가창자 : ○수한(남, 명지동 신포마을)

* 부산강서구지편찬위원회, 『강서구지』, 부산광역시 강서구, 2014, 567쪽.

[명지동 민요 6]

사위노래

뜸북뜸북 수제비야 사우야 판에 다 올랐네
우리 할망은 어데로 가고 사우야 판에 다 올랐네

가창자 : 윤말년(여, 명지동 순아3구마을)

* 부산강서구지편찬위원회, 『강서구지』, 부산광역시 강서구, 2014, 567쪽.

[명지동 민요 7]

상여소리

에흥에흥 어루남차 에흥 간다 간다 나는 간다
나를 두고 나는 간다 에흥에흥 어루남차 어흥
내가 가면 아주 가나 아주 가면 잊을소나
자속자속 내 자속아 너를 두고 나는 간다
어흥어흥 어루남차 어흥
북망산천 나는 간다 어흥어흥 어루남차 어흥
이 세상에 살았을 때 너 한테는 잘 했었다
어흥어흥 어루남차 어흥
한 살 두 살 때에는 부모은덕을 몰랐던데
이삼십살을 다가도록 부모 공을 못 다갠네
어흥어흥 어루남차 어흥

가창자 : ○수한(남, 명지동 신포마을)

* 부산강서구지편찬위원회, 『강서구지』, 부산광역시 강서구, 2014, 567-568쪽.

[명지동 민요 8]

성주풀이

성주님을 모셔보자 여루여루 성주님아
이 성주가 누 성주고 여루여루 성주님아
김해 가문에 유씨 성주 톱질하세 톱질하세
앞집에 정대목아 뒷집에 박대목아
톱질하세 톱질하세 김씨 가문에 집을 짓자
여루여루 성주님아

(조왕풀이)

조왕님을 모시보자 이 조왕이 누 조왕이고
여루여루 조왕아

(장독풀이)

장독대를 모시보자 이 장독이 누 장독이고
여루여루 장독대야

(우물풀이)

새미 샘이 일년 열두달 물도 잘 나온다
여루여루 샘물아

가창자 : ○수한(남, 명지동 신포마을)

* 부산강서구지편찬위원회, 『강서구지』, 부산광역시 강서구, 2014, 568쪽.

4. 천가동(현 가덕도동) 민요

[천가동 민요 1]

보리타작 노래 3

(Ⅰ)

오해야 오해야

형수씨도 내 손만 보요 (후렴) 제수씨도 내 손만 보요 (후렴)

삼이우지 다 땡기도 (〃) 내 손 하내만 바래보요 (〃)

모두나 내 손만 보요 (〃)

(Ⅱ)

오해야 오해야 (후렴)

이 보리를 쳐 주거든 보리 끝을 단디봐라

어서어서 뚜디리소 한마당을 치고 나면

탁주 한말 나오니라 하늘만 보고 뚜디리라

얼른퍼떡 몰아내자 서쪽을 쳐다봐라

구름이 몰아 들어온다 얼른퍼떡 몰아내자
요집 주인아 들어봐라 탁주 한말을 가져온나
이 마당을 치고나면 탁주 한말을 먹고나면
또 한마당을 쳐서보자 하늘님아 하늘님아
별만 많이 나서주면 이 마당을 얼른 치요

가창자 : 이소전(천가동 대항마을)

* 낙동향토문화원, 『부산강서구지』, 부산직할시 강서구청, 1993, 626-627쪽.

[천가동 민요 2]

시집살이 노래 1

성아 성아 올키 성아 시집살이 어떻더노
시집살기 좋다마는 도래도래 도래판에 수제놓기 어렵더라
둥글둥글 수박그릇 밥담기도 어렵더라
중우벗은 시아제비 말해기도 어렵더라.

가창자 : 이소전(천가동 대항마을)

* 낙동향토문화원, 『부산강서구지』, 부산직할시 강서구청, 1993, 628쪽.

[천가동 민요 3]

화투노래

외와 보자 외와 보자 화투 한모 외아 보자
정월 솔가지 속속하니 이월 매조 맺어 놓고
삼월 사꾸라 산란하니 사월 흑사리 허리 감고
오월 난초 나던 나비 유월 목단에 춤 잘추고
칠월 흥돼지 홀로 누워 팔월 공산 달도 밝네
구월 국화 굳었던 마음 시월 단풍에 뚝 떨어지고
오동추야 빗님을 신고 비새 찾아 유람 가자

가창자 : 이소전(천가동 대항마을)

* 낙동향토문화원, 『부산강서구지』, 부산직할시 강서구청, 1993, 632쪽.

[천가동 민요 4]

아기 어루는 노래

금자 동아 옥자 동아 만구 강산에 보배동아
네 어디갔다 이제와 동남풍 건들하니
바람에 붙이서 니 왔나 어와 둥둥 내사랑이야

니 어디갔다 이제와 하늘에서 쑥 빠졌나
땅에서 폭 솟았나 낮은 남게는 전가지
높은 남게는 할가지 어와 둥둥 내사랑이야

채이 끝에는 싸래기 용구전에 바내기
싸래기 받아서 닭주고 덩기 받아서 개주고
온쌀 받아 밥하고 어와 둥둥 내사랑이야
모래밭에 수박걸이 둥글둥글 잘크거라
어와 둥둥 내사랑이야

가창자 : 이소전(천가동 대항마을)

* 낙동향토문화원, 『부산강서구지』, 부산직할시 강서구청, 1993, 632쪽.

[천가동 민요 5]

처남·자형 화답가

서울이라 반지경에 장기두던 처남손아
너에 누부 뵈하더노 입던적삼 등 받더나
신던 보선 볼걸더나 입던 적삼 등 안받고
신던 보선 볼 안걸고 동지선달 긴긴 밤에
자형오기 기다리데. 애중일사 너거누부

남중호걸 날 마자고 여덟 폭 치마 따서
한 폭은 고깔 짓고 한 폭은 바람 짓고
남중호걸 날 안 맞고 깎고 깎고 머리 깎고
신중되어 나갔단다.

가창자 : 이소전(천가동 대항마을)

* 낙동향토문화원, 『부산강서구지』, 부산직할시 강서구청, 1993, 633쪽.

[천가동 민요 6]

탕건노래

가덕첨사 십년에
오백줄 탕건을 못 써보고
지물에 살푼 넘었네.

천성만호 십년에
천수대 놀음을 못 해보고
지물에 살푼 넘었네.

안골만호 십년에
흥술한 바리 못 먹어보고
지물에 살푼 넘었네.

가창자 : 김정순(천가동 동선마을)

* 낙동향토문화원, 『부산강서구지』, 부산직할시 강서구청, 1993, 638쪽.

[천가동 민요 7]

베틀노래

하늘에 노던 선녀 인간에 재귀하야
옥난간 베틀나여 베틀다리가 사형제요
앞다리는 돌기 놓고 뒷다리는 낮기 놓고
그 우에 앉은 양은 앉은꺼로 치치놓고

허리안개 두른양은 복두야 칠성을 두른듯고
 북나들은 저거동은 청학이 알을 물고
 백운강으로 왕래하니 배오래기 떨어지니
 절 무슨 왕거미는 지 줄 쳐서 잇는듯고
 보디집 치는 양은 우룩장단에 벽락산이 무너지고
 잉엣대는 샘형지요 놀림대는 호부래비
 백만군졸을 거나리고 백방초를 에웠으니
 용도마리 우는 양은 칠팔월 외기러기
 짝을 잃고 짝 찾는다.
 신나뭇대 노던 양은 강태공의 낚수대요.
 (이하는 기억하지 못함.)

가창자 : 김정순(천가동 동선마을)

* 낙동향토문화원, 『부산강서구지』, 부산직할시 강서구청, 1993, 638-639쪽.

[천가동 민요 8]

상여 앞소리

너-와 너와넘차 너-와가 음.
 너-와 너-와 너와넘차 너-와
 십이명-상두꾼아 어깨메고 소리하세
 간다간다 나는간다 용골용촌 찾아간다
 이제가면 언제오노 언제다시 돌아올까
 어느누가 잡을손가 어느누가 막을손가
 저곡너머 떴던구름 동작조차 볼길없네
 일직사자 등을밀고 월직사자 손을끌고
 우리인생 가는길에 가는세월 잡을손가
 부귀영화 좋다한들 어느누가 말길손가
 초로같은 우리인생 하루밤에 이슬이네
 우야천답 처진물도 염라국을 못사내고
 글잘하던 소신장도 염라국을 못면하고
 양유청산 두견새야 니가아마 슬피운들
 뼈는씩어 진토되어 살은씩어 유수될 때

터미산에 올라가서 용연구름 둘러놓고
 딸자석을 이별하고 빈손빈몸 털고갈 때
 세상천지 양귀비도 꽃만지면 볼몸없고
 우리인생 청춘인들 죽어진들 소양있나
 빈손빈몸 가는인생 어느세월 득달하나
 깊은물에 다리놓고 이강저강 건널적에
 아들딸이 노자하고 저승길을 인도할 때
 어느누가 똑똑은가 어느누가 베슬인가
 살아생전 사람이요 죽어지면 고목이라
 저강건너 배를모아 이난보살 노를젓고
 만경창파 먼바다에 저사공에 배를돌려
 세상일을 저버리고 이세상에 손을 씻고
 멀고먼길 떠날때는 어느누가 동해할꼬
 딸자석이 소중한들 아비대신 자석갈까
 일가친척 화목한들 어느누가 대신갈꼬
 멀고먼길 떠날때는 저승사자 동행하여
 세상일을 저버리고 저승으로 건너가세
 하루이틀 더살라고 저승사자 도둑받아
 분부하고 재촉하니 뉘말이라 내가듣나
 어서가자 바빠가자 누명이라 지체할래
 열두대문 열어놓고 재판관이 문소잡고
 남녀죄인 처결한후 지옥가고 극락갈 때
 이세상에 사람들아 누나없이 공영하고
 일가친척 화목하고 친구간에 우애하소
 불른사람 이름보니 청패루에 새긴이름
 어젯날에 청춘인들 오늘날에 수적없고
 꽃과같이 고운얼굴 한나잘에 주름가고
 총명하게 밝은귀가 한세월에 먹목되고
 박씨같이 고운이가 하나없이 빠졌으니
 입에여서 우물거린 우리인생 볼몸없네
 천방질방 몰아갈게 높은데는 낮게밀고
 낮은데는 낮차주고 높은데는 올려주고
 이내갈길 바쁘도다 상두꾼아 어서가자
 저승길이 멀다해도 삼짝박이 저승이네
 황천길이 멀다한들 건너산이 황천일세

한줌한손 흙밭되니 우리인생 처량하다
죽은고목 잎이피니 얼마오래 지낼손고
꽃이라도 낙화하면 오던나비 아니오고
우리인생 한번가면 영영못올 길을간다.

가창자 : 김동식(천가동 성북마을)

* 낙동향토문화원, 『부산강서구지』, 부산직할시 강서구청, 1993, 639-641쪽.

[천가동 민요 9]

정열가

쌍금쌍금 쌍가락지 호작질로 닦아내여
먼데보니 달일레라 곁에서보니 처잘레라
저 처자 자는방에 숨소리가 들릴레라
홍길바신 오라버니 그런말씀 하지마소
남풍이 달이붙어 풍지머는 소릴레라

가창자 : 김상이(천가동 천성마을)

* 낙동향토문화원, 『부산강서구지』, 부산직할시 강서구청, 1993, 635쪽.

[천가동 민요 10]

등지노래 10

산도산도 봄산일걸 잎이피서 산을덮네
임도임도 우른임은 한산소매를 나를덮네
옥수난간 부전봉에 달뜨는 것 보기좋고,
우리문전 사랑앞에 임노는 것 보기좋소.

* 낙동향토문화원, 『부산강서구지』, 부산직할시 강서구청, 1993, 622쪽.

[천가동 민요 11]

이 노래

이야 이야 말들어라 니(네)발이 옥발인들
이수팔방 니(네) 걸었나 니 등더리(등) 납땀한들
진시황 만리 쌓을 때 돌 한 덩이(덩이)져다 쫓나
니 가슴이 먹통인들 이태백이 죽어갈 때
부고한장 니 전했나 니(네) 님이(놈이) 잡김만들
잔말말고 꼭 죽거라.

가창자 : 김일본(천가동 천성마을)

* 낙동향토문화원, 『부산강서구지』, 부산직할시 강서구청, 1993, 631쪽.

[천가동 민요 12]

진주난봉가

울도 담도 없는 집에 시접 삼년 살고나니
시아마씨 하는 말이 야야 아가 메늘아가
진주야남강에 빨래가라 진주남강 빨래가니
검은 빨래 검기 씻고 흰 빨래는 희기 씻고
오동통한 머리들고 한눈으로 슬쩍보니
구름걸은 말을타고 문본치로 가는구나
그러구로 해여가주 집이라고 들어오니
시아마씨 하는말이 야야아가 메늘아가
진주야남구를 불러거든 아래청을 내려가라
아랫방문 열어보니 오색가지 수를놓고
기상년첩 옆에 놓고 문본치로 하는구나
그것보기 더욱 싫어 웃방으로 올라와서
목을매여 죽었구나
넘아넘아 문썰넘아
기상년첩 한열흘이고 본처사랑 백년인데
그렇다고 내가 가나
이승에서 못살거든 저승가서 살아봐라.

가창자 : 김일본(천가동 천성마을)

* 낙동향토문화원, 『부산강서구지』, 부산직할시 강서구청, 1993, 636-637쪽.

[천가동 민요 13]

등지노래 9

(선창) 아랫웃방	소년들아	연줄	걷는	기경가자
(후창) 그	연줄을	따라가면	기린부모	만낸다네
달	떠오네	달	떠오네	녹산고개로
달	떠오네	달	떠오네	달
저달이	누	달이나	방우방우	달일래라
하늘에라	눈비가와서	높은데는	목화로세	
한강에다	모를부여	모찌기도	난감하네	
조루자	조루자	이	못자리를	조루자
놀리자	놀리자	호미야	손을	놀리자
강남땅	강대추	아개자개도	열렸네	
충청도	줄복숭	주절이	가지도	열렸네
서울이라	왕대밭에	금비둘기	알을	날여
그알	하나	내주었으면	금년	과거
내할거로	해다졌네	해다졌네	저산너메로	해다졌네
울어메는	어데가고	연기야	넬줄을	모르던고

가창자 : 김일본·박임이(천가동 천성마을)

* 낙동향토문화원, 『부산강서구지』, 부산직할시 강서구청, 1993, 622쪽.

[천가동 민요 14]

아침등지

아즉이슬	채전밭에	부리똥꾸는	엽동이야
엽동아가	아니되면	안동아낙	삼을거로
밭이사	역밭인들	씨조차도	역씨일랑가

가창자 : 김정순(천가동 천성마을)

* 낙동향토문화원, 『부산강서구지』, 부산직할시 강서구청, 1993, 623쪽.

[천가동 민요 15]

점심등지

더디더라 더디더라 오늘점숨이 더디더라.
미나리라 수굠표 맛보라고 더디더라.
더디더라 더디더라 오늘점숨이 더디더리
은제닷컴 늦제닷컴 세노라고도 더디더라.
더디더라 더디더라 오늘점숨이 더디더라
이등저등 넘노라고 침녕쿨에 걸렸다네

가창자 : 김정순(천가동 천성마을)

* 낙동향토문화원, 『부산강서구지』, 부산직할시 강서구청, 1993, 624쪽.

[천가동 민요 16]

저녁등지

해다졌네 해다졌네 양산땅에도 해다졌네
빵긱빵긱웃는애기 만다보고도 해다졌네

※ 해가 졌을 때는 다음과 같이 부름.

아지랑창 자지랑창 지질창 열창 세실동창 맞따지
누를 보고도 열렸노 청상과수야 너를 보고도 열렸네
충청도 줄복숭 아개자개도 열렸네
강남땅 감대추 주지야가지도 열렸네

가창자 : 김정순(천가동 천성마을)

* 낙동향토문화원, 『부산강서구지』, 부산직할시 강서구청, 1993, 624쪽.

[천가동 민요 17]

창부타령

아적(아침)이슬 채전밭에 누구 간장을 녹일라고 아무렴사 여자몸 되어 얼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네	부리똥 꺾는 저 큰아가 저래나 곱게도 잘 생겼노 군자야 네간장 못녹이리 아니 노지를 못하리라.
연꽃 피는 연당 안에 그 연밥 내 따다 주마 잠들기 어렵지 않소 얼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네 남산 밑에 남도령아 오만남글 다 베어도 올 키와 내년을 키와 저처녀 복판에 던졌더니 못뉘으며는 상사로다 고풀도록만 살아보소 아니 노지를 못하리라.	연밥따는 저 큰아가 내 품안에도 잠들어라 연밥 따기가 늦어오요 아니 노지를 못하리라. 서산 밑에 서처녀야 초순난 댕랑 베지마라 뉘수대를 휘어 잡아 뉘으며는 연분이요 상사영사 고를 맺어 얼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네
날아가는 원앙새야 올밖에 창치는 님아 너보다 더 유정한님이 얼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네	너하고 나하고 짝을 짓자 네 창친다고 내 나가리 내 품안에서 잠들었다. 아니 노지를 못하리라
원앙도 짝을 다 지어가고 만천풀잎이 다 피건마는 다시 올줄 모르는구나 얼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네	봄도 봄도 봄이 와서 우리 인생 한번 가니 옴도 짝도 안 나노라 아니 노지를 못하리라.

가창자 : 박연이(천가동 천성마을)

* 낙동향토문화원, 『부산강서구지』, 부산직할시 강서구청, 1993, 633-634쪽.

[천가동 민요 18]

고아 한탄노래

저게가는 저 상부는 남상분가 여상분가
우리 아버지 만나거든 어린 동생 앞에 찌고
까삭까삭 까삭밭에 신이 없어 우더라소

저게 가는 저 상부는 남상분가 여상분가
우리 엄마로 만나거든 어린 동생 앞에 찌고
배가 고파서 우더라소

그리하고도 사흘만에 오리한쌍 게우한쌍
쌍쌍이 떠들온다 오리오리 게오리야
대동강으로는 어데다두고 눈물강으로 떠들오노
대동강도 있지마는 뜻이 달라서 떠들오요
오리오리 게오리는 신을 주고도 돌아가고
게우게우 저게우는 젖을 주고 돌아간다.

가창자 : 박연이(천가동 천성마을)

* 낙동향토문화원, 『부산강서구지』, 부산직할시 강서구청, 1993, 634쪽.

[천가동 민요 19]

사위노래

I
저기가는 저할마씨 딸있거든 사우하소
딸이야 있지마는 나가 어리 몬하겠네
제비가 작아도 강남을 가고 새가 작아도 알을 놓고
당신딸 나를 주면 삼년 안에 외손보요.
얼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네 아니 노지를 못하리라.

Ⅱ

내딸 죽은 내사우야 울고갈길 왜왔느냐
 이왕지사 완결음에 발치잡이나 자고가지
 자면자고 말면말지 발치잡자기 내사싫소
 얼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네 아니 노지를 못하리라.

가창자 : 박연이(천가동 천성마을)

* 낙동향토문화원, 『부산강서구지』, 부산직할시 강서구청, 1993, 637쪽.

[천가동 민요 20]

상사노래

산이 높아야 골도나 깊지요
 조그마한 여자속이 얼마나 깊으리요
 높은봉 산봉에 외로운 저소나무
 날과같이도 외로이 섰구나
 높은 산에 눈이 날려 솔잎마장 백수로다
 낮은 산에 비가 내려 골골마장 녹수로다
 녹수청청 흐르는 물에 배차 씻는 저큰아가
 곁에 곁있는 재끼놓고 속에 속잎만 나를 주소
 너가 나를 언제봤다 속에 속잎을 줄라하요.

가창자 : 박연이(천가동 천성마을)

* 낙동향토문화원, 『부산강서구지』, 부산직할시 강서구청, 1993, 638쪽.

[천가동 민요 21]

백발가

질 위에 소년들아 백발보고서 웃지마소
 우리도 소년이더니 백발되기가 잠시더라
 삼단걸은 이내머리 부당산이 웬말인고

거울같이 밝던눈이	반봉사가 웬말이고
새별같이 밝던귀는	적막강산이 웬말이고
곱던얼굴 살아지고	저반버짐이 웬말이고
아릿턱은 코를 차고	그중에도 목을라고
음석말만 해야지면	누가쳐서 눈물인고
그중에도 입을라고	의복말만 해야지면
누가쳐서 눈물인고	
나무도 고목이 되니	오는 새도 아니오요
꽃도꽃도 낙화가 되니	오는 나비도 아니오고
비단옷도 떨어지면	청걸레로 돌아가고
좋은 음식 쉬어지면	수채 공글 찾아가요
후세상을 못오라꼬	드는 칼을 내리치니
혼이 나서 안올란가	
후세상을 못오라꼬	저 포장을 채리놓으면
혼이 나서 안올란가	
온갖 음식을 채리놓고	만단 제수를 채리 놓고
빌어야 본들 안올란가	
할수 없네 할수 없네	오는세월 가는 백발
할수 없다 할수 없다	후세상을 못오라꼬
빌어본들 아니오나	
우리나라 진세왕도	지(제)간 날로 몰라주고
우리야 나라 금상님도	지 갈날로 몰라준다.

가창자 : 박임이(천가동 천성마을)

* 낙동향토문화원, 『부산강서구지』, 부산직할시 강서구청, 1993, 635-636쪽.

[천가동 민요 22]

시집살이 노래 3

시집가서 삼일만에	양동우를 깨었구나
시누버님 한단말씀	야 이년아 너그집에 나리가서
논밭전지 팔더라도	내 양동우를 사들이라

시어무니 하는말씀 이년아 너그집에 들어가서
 논밭전지 팔더라도 내 양동우 사들이라
 어무니오 어무니오 들어보소 들어보소
 이내일신 허락할 때 앞집에서 궁합보고
 뒷집에서 책력보고 청혼허온 다발을 때
 마당우에 도구엿고 도구우에 제상엿고
 두리평풍 둘러치고 암탉장닭 마주얏히
 일문뚜리 늦춧대는 쌍쌍이로 세아놓고
 청실홍실 띠아놓고 동네어른 모아놓고
 일가친척 모아놓고 이내몸을 허락할 때
 양동우가 뵈이요 은동우가 뵈이요
 하늘걸은 내미느라 조꾸마한 네속에서
 그런말씀 나올줄을 내 몰랐다
 만근걸은 내미느라 그런말씀 니나올줄
 내 몰랐다.

가창자 : 박임이(천가동 천성마을)

* 낙동향토문화원, 『부산강서구지』, 부산직할시 강서구청, 1993, 628-629쪽.

[천가동 민요 23]

권주가

창밖에 국화를 심어 국화 밑에다 술을 해영어
 그 술 익지 그 꽃이 피자 임이 오시자 달 떠온다
 동자야 술 걸러라 임으께도 권주하자
 잡으시오 잡으시오 이 술 한잔을 잡으시오
 첫째 잔을 인사잔이요 둘째 잔은 권주잔이라
 이 술 한잔을 먹기되면 늙도 젊도 안한다요.

가창자 : 이노길(천가동 천성마을)

* 낙동향토문화원, 『부산강서구지』, 부산직할시 강서구청, 1993, 636쪽.

[천가동 민요 24]

등지노래 8

(선창) 서마지기 이논빼미	반달걸이도 심어가네
(후창) 니가 무슨 반달이나	초승달이 반달이지
담복담복 밀수지비	사우야상에 다올랐네
우리할맘 어디가고	물국시에 더욱 싫네
이논빼미 모를 심어	장잎이 훨훨 영화로다
우리부모 산소등에	솔을 심어서 영화로다
자갈논을 싹갈아서	물 들오는거 보기좋네
영창문을 반만열고	임 들어오는거 보기좋네
찢레꽃은 장가가고	석류나꽃은 상객간
만인간아 웃지마라	씨종재바래 내간다
해다지고 저문날에	옷 잘입고도 어데가요
석자건 목에 걸고	첩어야 방에 자로가네
낭창낭창 베락 끝에	무정하던 울오랍아
나도죽어 남자되어	처자야한쌍 심기볼래
오늘낮에 점슴반찬	무슨반찬이 오를는고
전라도라 고등청에	바리바리야 올랐다요
모시적삼 안섰안에	함박꽃이 피어졌네
그꽃하나 찢라하니	호령소리 처정나네
서울이라 남기없어	죽절비녀로 다리났네
그다리를 건너올 때	정절쿵다쿵 소리나네
모야모야 노랑모야	언제커서 시집갈래
구시월이 닥쳐오면	나도커서 열매여요
한강에다 모를부어	모찌내기도 난감하네
하늘에다 목화심어	목화따기도 난감하네

가창자 : 이노길·김말분(천가동 천성마을)

* 낙동향토문화원, 『부산강서구지』, 부산직할시 강서구청, 1993, 621-622쪽.

[천가동 민요 25]

등지노래 7

물꼬야 청청 헐어놓고 주인네 양반 어델갔소
등너메다 첩을 두고 첩어야 집에 놀로 갔네
무슨 년의 첩이건데 밤에 가고 낮에 가요
낮우로는 놀로가고 밤우로는 자로가네
첩어야 집은 꽃밭이요 요내집은 연못이라
꽃 · 나비는 한철인데 연못 잉어는 사철이라
동에 동천 돌은해는 일락서산 넘어가네
해는 지고 저문날에 곳곳마다 연기나네
우리엄마 어디가고 연기낼 줄 모르는고
너 어머니 오더라만 칠성판에 실리오네

가창자 : 전숙영(천가동 천성마을)

* 낙동향토문화원, 『부산강서구지』, 부산직할시 강서구청, 1993, 621쪽.

[천가동 민요 26]

농악놀이

〈서 요〉

주인 주인 문여서
주인 주인 문여소
나갔던 손님 돌아왔고
문열었다 들어가자

〈사립문에 이르러〉

※ 농악대가 벽사진경의 의식으로 명절 때나 의식 때 집집을 순회하면서 행하는 의식으로서 우리 전통 농악의 하나임.

〈지신밝기〉

지신 밝자 지신 밝자
여루 지신 지신아
지신 밝자 지신아!

〈마당에서〉

〈성주풀이〉

여루 여루 성주야 성주본이 어디메나
경사도 안동땅에 재비중천(재비원)이 본일레라
재비원의 솔씨받아 거제 봉산에 흘렸더니(심었더니)
그 솔이 자라나서 낙낙장송이 되었구나
낙낙장송이 자라나서 도리기둥이 되었구나
도리기둥이 자라나서 유리기둥이 되었구나
앞집에 김목수야 뒷집에 박목수야
서른세가지 연장망태 어깨위에 둘러 메고
나무 비러 가자시라 거제봉산 치치달아
나무한주 섯서로되 그 나무를 바라보니
까마까치가 집을 지어 어-그 나무 부정하다
또 한곡을 치쳐 달아 나무 한주 섯으로되
그 나무를 바라보니 황새 덕새가 집을 지어
어 그 나무 또 부정하다 그 나무를 또 퇴주하고
또 한곡을 치쳐달아 나무가 한주 섯으로되
그 나무를 바라보니 성주목이 완연하다
등으로 벌은 가지 봉학이 앉아 춤을 춘다
서으로 벌은 가지 학석이 앉아 춤을 춘다
청룡 황룡이 휘 늘어졌다 갓은 벗어 남게 걸고
옷은 벗어 줄에 걸고 연장망태 땅에 놓고
금도끼야 옥도끼야 십리만큼 가는 도치
오리만큼 가는 도치 삼세번 깊어 쫓아
그 나무 주춤 남겨놓고 굽은 나무 굽 다듬고
곧은 나무 곧 다듬고 바른 나무자 다듬어
반달같이 다듬어서 집터보러 가자시라
김해하고 남쪽땅에 녹산면 녹산리라
저산 주령을 내리잡아 용의 머리 터를 닦아
석자세치 터를 돌아 삼칸집을 널리 세워
삼오(사모)위에 핑경다라 동남풍이 드리부니
핑경소리 요란하다
모시러 가자 모시러 가자 이 집 성주님 모시러 가자
가도 없는 저 바다에 배가 삼채 떠 돌언다(들어온다)

앞에 배를 둘러보니 이 집 성주님이 타신배요
뒤에 배를 둘러보니 이 집 성주님이 타신배요
뒤에 배를 둘러보니 이 집 조왕 타신 배라
삼 세체를 둘러보니 만구지신이 타신 배라
날날이 모셔다가 이 집 가문에 좌정하여 이집이라 대주양반
동서남북 다 다녀도 남의 눈에 꽃이 되고
이녁 눈에 앞이되니 말소리에 향해난다
-잡귀·잡신은 몰알로 만복은 이리로-

〈조 양〉

여루 여루 조앙아 천년조앙 만년조앙
천년이나 울리소 만년이나 울리소
천석을 재지소 만석을 재지소
천대나 울리소 만대나 울리소
작은 솔은 나가고 경주 서말치
들앉아 주소 여루 여루 조앙아

〈장 독〉

여루 여루 장독아 이 장독이 누 장독고
옥황상제 장독일세 장독마다 꿀으 치고
이장 저장이 달아주고 작은 독은 다 나가고
질그릇 독만 들앉아 주소 어-그 장맛 좋다.

〈새미(쌈)〉

여루 여루 쌈이야 이 쌈이가누 쌈이노
우리 동네 공동쌈이 동해바다 용왕님아
황해바다 용왕님아 남해바다 용왕님아
물이나 청청나게 하소 일년하고 열두달
물이나청청나게 하소만세로 울리소

〈작은방〉

여루 여루 작은방아
씨어마이 * 잔소리 막아주소
* 씨어마이: 시어머니

〈정낭(변소)〉

여루 여루 정남아
설사 고통을 막아주소

〈두지(뒤주)〉

여루 여루 두지야
천석이나 재어주소
만석이나 재어주소
억만석을 재어주소
여루 여루 두지야

〈마구간〉

여루 여루 마구간아 천마리나 길르소
만마리나 기르소 억만마리 길르소
작은 소는 다나가고 약대(약대) 같은 소
들얏아 주소 여루 여루 마구간아
여루 여루 마구간아
소를 놓으면 약대를 놓고 말을 놓으면
용마를 놓으소

* 낙동향토문화원, 『부산강서구지』, 부산직할시 강서구청, 1993, 644-647쪽.

[천가동 민요 27]

달구질 노래

어하야 달구야 (후창) 어하야 달구야
어하야 달구야 (후창) 땅 좀 다지자
어하야 달구야 (후창) 공공 다지자
어하야 달구야 (후창) 이래 다져야 여물어 진다
어하야 달구야 (후창) 공공 다지자

가창자 : 박임이(여, 천가동 천성마을)

* 부산강서구지편찬위원회, 『강서구지』, 부산광역시 강서구, 2014, 560쪽.

[천가동 민요 28]

아기 어루는 노래

등등등 내사랑 어화 등등 내 사랑
니 어데 갔다가 인지 왔노
니 어데 갔다가 인지 와
등남풍 건들 하니 바람에 붙어서 니가 왔다
어와 등등 내 사랑
외씨 같은 보선 발로 살큼살큼 걸어온다
뒤를 걸어라 뒷 매로 보자
앞을 걸어라 앞 매로 보자
어와 등등 내 사랑
부모한테는 효자동 나라에는 충신동
동네방네에 유신동 일가친척에 우애동
형제지간에 화목동
어화 등등 내 사랑

가창자 : 이정열(여, 천가동 대항마을)

* 부산강서구지편찬위원회, 『강서구지』, 부산광역시 강서구, 2014, 560쪽.

[천가동 민요 29]

임타령

(1)

님은 가고 봄이 오니
꽃만 피어도 님의 생각
오뉴월 삼복더위에
강물만 넘쳐도 님의 생각
구시월 외기러기
낙엽만 떨어져도 님의 생각
동지선달 설한풍에
백설만 날려도 님의 생각
앉아 생각 누워 생각
생각 생각에 다 늙는다

(2)

너와 나와 만나가주
아들 놓고 딸을 낳아
며늘이가 아들 정을 앗아가고
사우란 놈이 딸 정을 앗아가고
무정하신 저승채사
우리 영감 모시가고
크다란 빈 방안에
홀로 앉아 생각하니
앓았으니 입이 오요
누웠으니 잠이 오요

가창자 : 이정열(여, 천가동 장항마을)

* 부산강서구지편찬위원회, 『강서구지』, 부산광역시 강서구, 2014, 560-561쪽.

[천가동 민요 30]

전실 자식 노래

수숫 개야 수만 개야 몯쌀장상 올라배야
전처에 자식두고 다실장개 가지마소
헌두더기 옷일랑가 상에 괴기 괴길란가
다신 애미 애밀랑가 다시 애비 애빌란가
엄마엄마 울엄마 밀빛자리 어디두고
대빛자리 날 때리요 엄마엄마 울엄마요
곱은 옷도 있건마는 헌두더기 날 입히요
불쌍하다 울엄마는 수풀 속에 묻어놓고
올아버지 장개가니 몯쌀년의 다신애미
설움 받아 못살겠네
얼씨구나 절씨구나 아니 노지는 못하라

가창자 : 김상이(여, 천가동 천성마을)

* 부산강서구지편찬위원회, 『강서구지』, 부산광역시 강서구, 2014, 561-562쪽.

[천가동 민요 31]

쭈치노래

해는 따서 곁을 하고 달은 따서 안에 넣고
무지개는 선을 돌려 북두칠성 끈을 달아
서울이라 남대문에 남대문에 걸어 놓고
올라가는 구관사또 내려가는 신관사또
쭈치 구경 하고 가소
그 쭈치라 누가 잡은 쭈치 구성김이 이성김이
마주야 앉아 집은 쭈치 그 쭈치라 값이 없네
은돈 천냥 금돈도 천냥 이천냥이 지 값이요

가창자 : 박임이(여, 천가동 천가마을)

* 부산강서구지편찬위원회, 『강서구지』, 부산광역시 강서구, 2014, 562쪽.

[천가동 민요 32]

등지노래

알곰삼삼 고연 독에 술을 하여서 금청주요
팔모로 깎아 유리잔에 나비 앉아서 권주하네
이히-후후-
베 짜는 방 저 각시는 무슨 잠이 그리 오요
거지 봉산 남기 좋아 방이 따시 잠이 오요
이히-후후-
물고야 철철 혈어 놓고 주인 양반은 어데로 간고
등너머에다 첩을 두어 첩이야 방에 놀러 갔네
이히-후후-
무슨 년의 첩이건대 밤에 가고도 낮에 가노
밤으로는 자리가고 낮으로는 놀러 가네
이히-후후-
서월이라 왕대밭에 금비둘키 알을 낳아
그 알 하나 나 줬으면 금년 과게 내 할꺼로
이히-후후-

울도 담도 없는 집에 명지 베짜는 저 큰 아가
명지 베는 내 짜주마 내 품안에 잠들어라
이히-후후-

가창자 : 정옥련(여, 천가동 장항마을)

* 부산강서구지편찬위원회, 『강서구지』, 부산광역시 강서구, 2014, 562-563쪽.

[천가동 민요 33]

쌍가락지요

쌍금쌍금 쌍가락지	호작질로 땀아내니
먼데 보니 달이로세	곁에서 보니 처잘래라
저 처자 자는 방에	숨소리가 돌일래라
흥돌복숭 울오랍씨	거짓말씀 말아주소
남풍이 달이불어	풍지 떠는 소릴래라
석자 수건 목에 걸고	작두야 칼을 품에 품고
자는 듯이 잠들었네	

가창자 : 장옥련(여, 천가동 장항마을)

* 부산강서구지편찬위원회, 『강서구지』, 부산광역시 강서구, 2014, 563쪽.

[천가동 민요 34]

물레요

물레야 뱅뱅 돌아라 꾸리꾸리를 감아보자
물레야 뱅뱅 돌아라 꾸리꾸리를 감아주가지
베틀에 얹으며는 북에 넣어 끈하여 놓고
요리 찰칵 조리 찰칵 물레야 뱅뱅 돌아라

가창자 : 이소전(여, 천가동 대항마을)

* 부산강서구지편찬위원회, 『강서구지』, 부산광역시 강서구, 2014, 563쪽.

참고문헌

- 김승찬, 『한국구비문학대계』 8-9(경상남도 김해시·김해군 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 김승찬, 『녹산문화유적학술조사보고』, 부산대 한국문화연구소, 1991.
- 김승찬, 『가덕도의 기층문화』, 부산대 한국문화연구소, 1993.
- 김승찬, 『경마장건설부지내 민속조사보고서』, 한국마사회, 2000.
- 낙동향토문화원(백이성), 『낙동강 유역 민속·민요집』, 부산직할시 북구 문화공보실, 1993.
- 낙동향토문화원, 『부산강서구지』, 부산직할시 강서구청, 1993.
- 류종목, 『현장에서 조사한 구비전승민요Ⅰ -부산편』, 민속원, 2010.
- 박경수·정규식·서정매, 『증편 한국구비문학대계 8-21(부산광역시② -서부산권)』, 한국학중앙연구원, 역락, 2015.
- 부산강서구지편찬위원회, 『강서구지』, 부산광역시 강서구, 2014.

제보자 색인

- ㄱ
- 강경애 212, 347, 349
 강계정 116, 117
 강명순 139
 강병이 205, 206
 강소남 25, 26, 27
 강순선 238, 239, 391
 강연선 240
 구복남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4, 186
 권경태 268
 권덕선 208
 권선이 117, 118, 119, 120
 권차순 43, 44, 45, 46, 47, 48, 312,
 313, 314
 김검선 190, 191, 192, 193, 194, 195
 김곤순 241
 김귀분 3, 4
 김금덕 254, 255, 256, 257, 258
 김기일 361
 김남선 271, 272, 412
 김덕렬 28
 김덕선 235
 김도익 251, 407
 김동림 48, 49, 50, 314, 315, 316,
 317, 318, 319
 김동순 33, 34, 35
 김동식 282, 431
 김두리 334
 김두임 51, 52, 53, 320, 321, 322, 323
 김량자 170, 171
 김말분 213, 214, 215, 216, 217, 347,
 348, 349, 350
 김말분 300, 303
 김명옥 341, 342, 343, 344, 345, 346
 김복년 195, 196, 197
 김복순 20, 56, 57
 김복연 217, 218, 219, 220, 221, 358,
 359, 360, 361
 김복의 391, 392, 393
 김봉애 209, 210
 김봉자 159, 160
 김분녀 148, 149, 150, 151, 152, 153, 154
 김분선 239, 240, 394, 395
 김상구 420
 김상이 290, 291, 431, 446
 김소선 131
 김소심 35
 김시동 402, 404
 김쌍순 20, 21, 22, 23
 김옥자 132, 133
 김외선 161
 김윤근 265
 김을태 382, 383, 385, 386, 387, 388, 389
 김이호 269, 0270
 김일분 291, 292, 293, 432, 433
 김정수 222, 223
 김정순 284, 285, 286, 428, 429
 김정순 287, 434
 김정애 207
 김정옥 236
 김정이 36, 37, 38
 김찬이 288
 김찬임 5, 6, 7
 김춘자 133, 134
 김호연 323, 324

ㄴ

문말숙 27
문소선 7

ㄷ

박귀순 403
박말년 37, 38, 39, 40
박석조 306, 307
박성년 36, 37, 38, 39
박순기 123
박심례 204, 205
박연이 224, 225, 226, 227, 228, 230,
233, 362, 363, 364, 365, 366,
369, 370, 371, 372, 373, 375,
435, 436, 437
박연희 294, 295, 296
박월연 8
박이쁜 247, 248, 249, 413, 414
박임이 293, 297, 298, 299, 438, 439,
444, 447
박재금 421
박정옥 242
박차순 271, 273, 412, 415
배귀순 222, 234, 235, 366, 376, 377, 403
배말순 265
배소열 28, 29
배영자 403
배임희 350, 352, 354, 356
배잠두 308, 310
배재순 337, 338, 339, 340
배정순 35, 41
배정애 57, 58
백복순 236, 237

ㄹ

서재수 258, 259
서정자 340
서차선 40, 41, 42, 43
선변인순 121
성조이 140, 141, 142, 143, 144
손민임 144, 145, 146, 147
송영자 121
송정숙 311
신정순 390
신필애 286, 287

ㅇ

안갑선 253, 408
안순덕 12, 13, 14
안운옥 8, 9, 10
양경자 134, 135
양이덕 243
오묘계 61, 62
우두순 29, 30, 31, 32
유덕자 331, 332
유말년 422, 423, 424
유영혁 252, 407
유행순 243, 244
윤경애 237, 238
윤토금 397
이금연 334
이노길 300, 301, 439, 440
이녹일 366, 378, 379, 380, 381, 382
이말임 147, 148
이복연 197, 198, 199
이봉선 137, 138, 139
이봉주 135, 136
이상분 202, 203, 204, 335, 336, 337

이상순 120
 이선이 53
 이소연 124
 이소전 274, 276, 277, 426, 427, 428, 448
 이순덕 333
 이순이 187, 188, 189
 이영애 64, 65, 66, 67, 72, 73, 75, 76,
 78, 79, 80, 81, 82,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9, 100, 102,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이외조 155
 이정렬 278, 279, 445, 446
 이정순 11, 14, 15, 16, 269, 405
 이정자 221, 325, 326, 327, 328, 329, 330
 이종연 18, 19, 20
 이채련 164, 171, 174, 175,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86
 이필례 23, 24
 이훈자 333
 임양순 54, 330

ㅈ

장유선 190
 장필련 266, 267
 전숙영 303, 441
 정경열 17
 정남숙 62
 정복덕 210
 정삼선 118
 정순이 331
 정옥련 289, 290, 448
 정재수 125, 126, 127, 128, 129

정효금 199, 200, 201, 202
 조귀주 122, 123
 조덕남 308, 309, 310
 조일선 260
 조필련 273
 조필연 415, 416
 주성애 242
 진선희 130

ㅊ

최복님 11, 128, 130
 최복숙 404
 최복순 250, 418
 최봉연 155, 156, 157, 158
 최영자 62, 63
 최장한 11, 12
 최필선 160, 162, 163
 추옥순 402

ㅋ

태금선 238

ㅎ

하시영 18
 하춘자 211
 한자복 250, 405
 한차순 260, 261, 264
 허덕님 396
 허순자 211
 허영희 54, 55, 56, 250, 404
 홍성연 267, 268
 황보수영 208
 황삼복 280
 황정성 271, 409
 황종명 410, 411

민요 제목 색인

- ㄱ
- 가덕노래 285
 가덕도 노래 224, 341, 382, 392
 가덕팔경가 361, 375, 382
 가재 노래 127
 각설이 타령 162, 233, 383
 각설이 타령[숫자풀이 노래] 50, 79
 강원도 아리랑 321
 객귀물리는 소리 105, 128
 거지 놀리는 노래 92
 고아 한탄노래 436
 고아 한탄요 296
 구녕타령 289
 구멍 타령 144, 184, 190
 굴 까는 노래 224
 권주가 7, 301, 439
 그네 노래 19, 32, 38, 145, 201
 그네 노래[노랫가락] 34
 그네요 256
 극락왕생 비는 노래(1) 5
 극락왕생 비는 노래(2) 6
- ㄴ
- 난봉가 169, 228
 남녀 연정요 15, 18, 24, 195
 남녀 연정요[부부요] 151
 남녀연정요 384
 너냥 나냥 29, 35, 132, 142, 163
 노들강변 12, 191
 노들강변 비둘기 한 쌍 137
 노래가락 402
 노랫가락 28, 33, 115, 134, 147, 155,
 156, 197, 198, 364
 노랫가락 / 그네 노래 333
 노랫가락(1) 21, 29, 150, 166, 182, 318
 노랫가락(1) / 그네 노래 344
 노랫가락(1)[나비 노래] 203
 노랫가락(2) 22, 30, 150, 183, 318
 노랫가락(2) / 나비 노래 344
 노랫가락(2)[나비 노래] 204
 노랫가락(2)[부모 그리는 노래] 166
 노랫가락(3) 30, 168, 185
 노랫가락(4) 32
 노랫가락[그네 노래] 198
 노랫가락[나비 노래] 48
 논 메는 소리 17
 논매는 소리 115
 농악놀이 441
- ㄷ
- 다리 세기 노래 123, 208, 210, 222, 235,
 240, 360, 393, 394, 395
 다리 세기 노래[이거리 저거리 갓거리]
 122, 126, 130, 131, 146, 196, 201, 220
 달거리 노래 97, 158, 175
 달 타령 3, 209
 달구질 노래 444
 달구질노래 297
 달이 뜨네 326
 땡기 타령[남녀 연정요] 75
 도라지 타령 202, 335, 338, 371, 379
 돈 타령 225, 370
 뒤따르기 노래[어디까지 갔노] 93
 동개노래 401

등지노래 401, 402, 416, 422, 423, 447
 등지노래 1 404
 등지노래 2 404
 등지노래 3 411
 등지노래 4 412
 등지노래 5 409
 등지노래 6 407
 등지노래 7 440
 등지노래 8 440
 등지노래 9 433
 등지노래 10 431
 등지노래 11 407
 등지노래 12 405
 등지노래 13 415
 풍 노래 191

ㄹ

마굿간풀이 108
 망개 소리 116
 맴돌기 노래 236
 멀치잡이 노래 409
 모심기 노래 330, 333, 334, 337, 340, 356,
 357, 376, 378
 모심기 노래(1) 312, 314, 320, 325, 385
 모심기 노래(2) 313, 315, 322, 326, 343,
 386
 모심기 노래(3) 329, 343, 387
 모심기 노래(4) 346, 389
 모심기 노래(5) 389
 모심기 등지 247, 249, 250, 252, 253, 268,
 270, 271, 272, 273, 284, 286,
 287, 288, 293, 300, 302
 모심기소리 1 306
 모심기소리 2 306

모심기소리 3 307
 모심기소리 4 307
 모심기소리 5 308
 모심기소리 6 308
 모심기소리 7 309
 모심기소리 8 309
 모심기소리 9 310
 모심기요(1) 259
 모심기요(2) 265
 모심기요(3) 254
 모심기요(4) 259
 모심기요(5) 260
 모심기요(6) 266
 모심기요(7) 267
 모심기요(8) 265
 모심는 소리 4, 7, 16, 20, 28, 29, 40,
 41, 42, 52, 53, 55, 56, 57,
 61, 62, 63, 116, 117, 118,
 120, 121, 124, 130, 135,
 146, 155, 162, 172, 172,
 190, 196, 198, 204, 208,
 209, 210, 211, 217
 모심는 소리(1) 8, 12, 17, 18, 20, 23, 25,
 27, 32, 36, 38, 43, 81,
 124, 137, 140, 159, 163,
 172, 187, 191, 199
 모심는 소리(1)[아침소리] 64
 모심는 소리(2) 9, 13, 17, 18, 20, 23, 26,
 27, 33, 36, 39, 43, 94,
 126, 141, 159, 165, 177,
 187, 192, 199
 모심는 소리(2)[점심소리] 64, 138
 모심는 소리(3) 13, 26, 37, 39, 47, 100, 138,
 167, 181, 187, 192, 200
 모심는 소리(3)[저녁소리] 65

모심는 소리(4) 13, 37, 66, 138, 167,
187, 193, 200
모심는 소리(5) 14, 80, 193
모심는 소리[첩 노래] 10
모 찌는 소리 9, 44, 54, 61, 81, 117,
125, 138, 148, 164, 174
모찌기 노래 356, 408
모찌기 노래 / 모심기 노래(1) 342
모찌기 등지 247, 250, 253, 258, 269, 293
모찌기소리 1 306
모찌기소리 2 308
모찌기기요 258
목화 따는 노래 327
목화 따는 처녀 노래 53
몸 말리는 노래 237
몸 말리는 노래[해야 해야 나오너라] 89
못 갈 장가 노래 14, 141
못갈 장가 노래 73, 150
물레 노래 110
물레요 277, 448
밀양아리랑 99, 243, 322, 377

ㅅ

방귀 타령 141, 189
방귀 타령(1) 86
방귀 타령(2) 87
방아깨비 놀리는 노래 89, 116, 237
밭 매기 노래 415
백구타령 345
백발가 19, 41, 299, 323, 403, 437
뱃노래 112, 331, 394
범벅타령 350
베 짜기 노래 21, 47, 84, 179
베짜기 노래 316

베틀노래 428
베틀요 285
보리타작 노래 / 옹헤야 314
보리타작노래 1 412
보리타작 노래 2 416
보리타작 노래 3 425
보리타작 소리 45
보리타작요 273
보지 타령 169
보지 타령(1) 183
보지 타령(2) 183
본조아리랑 99, 190, 214
봄배추 노래 8, 23, 26, 28, 38, 133,
160, 187, 195
비 노래 203
비 노래[비야 비야 오지 마라]
119, 133, 135, 206
비 소리[비야 비야 오지 마라] 56, 87, 129
뽕 따는 노래 3621

ㅈ

사발가 24, 31, 42, 55, 113, 134, 145,
186, 207, 380
사위 노래 365
사위노래 423, 436
사위노래 (I) · (II) 294
사친가 167
산비둘기 소리 흥내 노래 205
산비둘기 흥내 노래 223
삼 삼기 노래 328
삼삼기 노래 312
상사노래 437
상사요 294
상여 앞소리 429

- 상여소리 66, 282, 424
 새타령 148
 성주풀이 58, 67, 101, 251, 279, 301,
 401, 406, 424
 소 노래 249, 413
 술타령 256
 시절 한탄가 342
 시집살이 노래 20, 27, 31, 44, 188,
 201, 230, 239
 시집살이 노래 1 426
 시집살이 노래 2 414
 시집살이 노래 3 438
 시집살이 노래(1)[발매기 노래] 76
 시집살이 노래(2)[사촌형 노래] 78
 시집살이 노래[부모원망요] 244
 시집살이 노래[사촌형 노래] 180
 시집살이요 248, 274, 298
 시집살이요(1) 257
 시집살이요(2) 266
 시집살이요(3) 267
 신세타령요 372
 신세한탄가 154, 156, 170
 쌍가락지 노래 48, 57, 135, 146, 339, 381
 쌍가락지 노래(1) 316
 쌍가락지 노래(2) 319
 쌍가락지요 290, 291, 448
 쓸쓸이 장애 갔다 324
-
- 아기 어루는 노래 278, 427, 445
 아기 어르는 소리 3, 329
 아기 어르는 소리 / 은자동아 금자동아 348
 아기 어르는 소리[금자동아 옥자동아]
 85, 119
 아기 어르는 소리[금자동아 은자동아] 213
 아기 어르는 소리[불매 소리]
 55, 122, 136, 161
 아기 어르는 소리[불매소리] 240
 아기 어르는 소리[불미 소리] 84
 아기 어르는 소리[알강달강요]
 60, 62, 162, 207, 242
 아기 재우는 노래 46
 아기 재우는 노래 / 자장가 329, 348
 아기 재우는 노래(1) 393
 아기 재우는 소리[자장가]
 85, 132, 139, 161, 202, 209, 213, 242
 아리랑 317, 335, 337
 아리랑(1) 349
 아리랑(2) 350
 아직 등지노래 415
 아침등지 433
 애기 재우는 노래(2) 395
 야단 맞는 노래 336
 양산도 34, 111, 133, 166, 185, 193,
 216, 226, 241, 313, 345, 376,
 380, 388
 양산도(1)152
 양산도(2) 153
 양산박과 수영대 노래 3
 염불가 323, 330
 오리오리 개오리야 390
 왕거미 노래 200
 용왕풀이 106
 의암이 노래 49, 371
 이 노래 168, 248, 292, 414, 432
 이 빠진 아이 놀리는 노래
 123, 130, 204, 205, 222, 236, 238, 239
 이 빠진 아이 놀리는 노래[결치(缺齒)
 노래] 90

이같이 노래 88, 123, 128, 238
 이별가 182
 인생허무가 373
 임 그리는 노래 7, 347
 임타령 264, 445
 임타령 (I) · (II) 278

ㅈ

잠 노래 109
 잠자리 잡는 노래 48, 92, 203, 210, 220,
 242, 358, 393, 395
 잡타령 2578
 장구 노래 390
 장구타령 310
 장독풀이 107
 저고리 노래 212
 저녁등지 405, 434
 전실 자식 노래 446
 전실자식요 290
 점심등지 434
 정열가 431
 조개 잡으면서 부르는 노래 421
 조왕풀이 60, 105
 줌치노래 297, 447
 중머리 놀리는 노래 91, 238
 지신밧기 418
 지신밧기 노래 57
 지신풀이 261
 지초 캐는 처녀 노래 31, 195
 진도아리랑 227, 234, 243, 317, 366,
 391, 392
 진주난봉가 16, 22, 82, 139, 143, 178,
 194, 219, 255, 291, 354, 432
 징거미 타령 72, 127, 170, 351

징금이타령 311

ㅊ

창부타령 11, 34, 43, 113, 131, 147,
 174, 179, 212, 295, 324, 332,
 334, 358, 387, 391, 396, 435
 창부타령(1) 149, 214, 363
 창부타령(1) [남녀 연정요] 218
 창부타령(1) [의암이 노래] 226
 창부타령(2) 215, 369
 창부타령(2) [꽃 노래] 218
 창부타령(2) [남녀 연정요] 233
 창부타령(2)[의암요] 149
 창부타령(3) [첩 노래] 220
 창부타령[남녀 연정요] 46
 창부타령[신세타령](1) 9
 창부타령[신세타령](2) 10
 처남·자형 화답가 277, 427
 첩우야 방에 놀로 가자 421
 청천의 가수야 326
 청춘가 39, 40, 41, 42, 44, 113, 148,
 153, 199, 268, 336, 341, 403
 청춘가(1) 156, 315, 369
 청춘가(2) 157, 316, 374
 청춘가(3) 157
 초한가 228
 초한가(1) 362
 초한가(2) 373
 취선가(醉船歌) 365
 칭칭나네 410

ㅊ

쾌지나 칭칭나네 95
 타박네 노래 / 모심기 노래 347
 탄로가 186

탕건 노래 370
탕건노래 284, 428
태평가 421, 359

표

파랑새요 4, 11, 19, 132, 360
팔모야 깎아서 320
풀국새 노래[산비둘기 소리 흥내 노래] 117
풀국새 노래[산비둘기 흥내 노래] 221
풍덩이 놀리는 노래 49, 88, 120, 126,
223, 237

ㅎ

한탄가(1) 180
한탄가(2) 1814
혀 짧은 사람의 보리타작요(Ⅰ)·(Ⅱ) 274
혀 짧은 이의 보리타작요 272
형부 권주가 206
화투 타령 5, 25, 35, 51, 96, 144, 160,
189, 197, 221, 235, 339, 385
화투노래 276, 426
화투놀이 422
후실장가 노래 216

■ 편저자(현장조사 책임 · 교열 · 주석 담당자) 소개

- **박경수** 부산대학교 국어교육과를 졸업하고,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에서 문학석사, 부산대학교 대학원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부산외국어대학교 한국어문화학부 교수로 있으면서 한국문학회 회장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로 『한국 근대문학의 정신사론』(삼지원, 1993), 『한국 근대 민요시 연구』(한국문화사, 1998), 『한국 민요의 유형과 성격』(국학자료원, 1998), 『한국 현대시의 정체성 탐구』(국학자료원, 2000), 『아동문학의 도전과 지역 맥락』(국학자료원, 2010), 『현대시의 고전텍스트 수용과 변용』(국학자료원, 2011) 등이 있고, 편저로 『부산민요집성』(세종출판사, 2002), 『증편 한국구비문학대계 8-16-19(경상남도 함양군①-③)』(한국학중앙연구원, 2014), 『증편 한국구비문학대계 8-19-21(부산광역시①-③)』(한국학중앙연구원, 2015), 『증편 한국구비문학대계 8-23-25(경상남도 남해군①-③)』(한국학중앙연구원, 2016) 등 다수가 있다.
- **황경숙** 서울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부산대학교 대학원에서 문학석사,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부경대학교와 부산외국어대학교에 출강하고 있으며, 부산광역시 문화재 및 시사편찬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한국의 벽사의례와 연희문화』(월인, 2000), 『부산의 민속문화』(세종출판사, 2003)가 있고, 편저로 『부산민요집성』(세종출판사, 2002), 『오래된 마을 미래공동체-산성마을 사람들』(부산발전연구원, 2014) 등 다수가 있다.

■ 조사보조원(현장조사 보조 · 채록, 2014년-2016년)

- 정혜란(부산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과 박사과정 수료, 2014-2016년 참가), 김남정(부산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과 석사과정, 2016년 참가), 김남희(부산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2016 참가), 김지선(당시 부산외국어대학교 한국어문화학부 재학, 2015년 참가), 박소영(당시 부산외국어대학교 한국어문화학부 재학, 2014, 2016년 참가), 신혜림(당시 부산외국어대학교 한국어문화학부 재학, 2015년 참가), 이소현(당시 부산외국어대학교 한국어문화학부 재학, 2014, 2016년 참가), 최지은(당시 부산외국어대학교 한국어문화학부 재학, 2014-2015년 참가), 엄홍석(당시 부산대학교 국악과 재학, 2015년 악보 작성), 김지수(부산외국어대학교 한국어문화학부 재학, 2017년 문헌 소재 민요 타이핑).

■ 편집위원

- 위원장 : 이송희(신라대학교 교수)
위원 : 박화진(부경대학교 교수)
위원 : 백승충(부산대학교 교수)
위원 : 김강식(한국해양대학교 HK교수)
위원 : 황경숙(부경대학교 외래교수)
위원 : 표용수(부산광역시 시사편찬실)

부산구술문화총서 7

서부산 문화권 민요(I) 강서구 편

발행인	강대민
편저	박경수·황경숙
편집·교열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발행일	2017년 10월 31일
인쇄	대성문화인쇄사
발간등록번호	52-6260000-000301-10
ISBN	979-11-85308-11-1 978-89-964675-9-5(세트)

(비매품)

연락처 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광역시청 시사편찬실
전화 : 051) 888-5056-5058 / FAX : 051) 888-5059

자료검색

부산시 (www.busan.go.kr) 부산소개 > 부산의 역사 > 향토사도서관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www.bssisa.com)

※ 표지 자연마을 사진제공 : 강서구문화원

